

Bread & Roses
PROJECT
빵과 장미 프로젝트

01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01	일제시기 식민도시 형성과 유흥업	006
02	한국전쟁 후 피난민촌 형성과 성매매	040
03	1960~1980년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활성화	065
04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118

02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생태계

01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운영구조	150
02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198
03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상권	230
04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영향	251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탈성매매 가는 길

01	새로운 삶을 여는 반성매매 활동	276
02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이야기하다	299
03	탈성매매, 새로운 세상으로의 내딛음	313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건축 및 공간

01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건축 및 가로 환경	326
02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형식	358
03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건축과 실내의 경관 특징	437

제1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천

01

일제시기
식민도시 형성과 유흥업

02

한국전쟁 후
피난민촌 형성과 성매매

03

1960~1980년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활성화

04

도시공간의 개구조화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업종 변경

업종 변경

SRI

일제시기
식민도시
유흥업

형성과

경부철도 부설과 수원역 일대 도시공간의 형성

서울-부산 간에 부설되는 경부철도는 1901년 착공하였는데, 착공 당시 수원을 통과하는 노선은 현재와 다르게 계획되어 있었다. 수원이 포함된 공사공구는 제2공구로, 안양 명학에서 평택 진위를 잇는 35.2km 구간인데, 현재 북수원IC 부근인 사그네에서 동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지지대고개의 서쪽 산에 터널을 뚫고 대유평(大有坪)을 거쳐 화서문 밖, 팔달산 기슭을 뚫고 상류천(上柳川), 대황교(大皇橋) 동편으로 나가는 노선이었다. 즉 경부철도는 수원 읍내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정거장도 현재의 매산동이 아니라 대황교 부근에 설치하도록 예정되었다.¹

지지대에서 팔달산을 통과하는 경부철도 노선이 확정되자, 수원 주민들은 조선왕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지대와 정조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화령전의 주산인 팔달산이 훼손되고 많은 민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들어 경부철도 노선을 성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원군 보고를 들은즉 본군(本郡) 소경(所經) 경부철도 부설연로(敷設沿路)의 입표처(立票處)를 파송순교(派送巡校)하여 적간(摘奸)한즉 그 선로가 남수문(南水門) 변 남각루(南角樓) 봉○처(崩○處)로 부설한다 하니 과여차표작로(果如此票作路)면 화령전(華寧殿) 지척 지지(咫尺之地)라. 진동이 송○(棟○)뽀더러 웨파성우(毀破城隅)하고 성내인가(城內人家)

40, 50호가 역위(亦爲) 웨철지경(毀撤之塊)이오니 그 선로를 성외 공한지(空閒地)로 퇴정(退定)케 하라 하였다 한다.²

이런 강한 여론을 바탕으로 1902년 4월 28일 철도원 총재 유기환은 지지대 터널공사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일본 철도회사는 합동조약의 제2조에 "선로의 부설방법은 회사가 선정하는 기사의 측량에 따라 시공한다."는 조항에 따라 계획대로 강행할 것을 결의하였다.³ 이에 수원 부민이 남문 밖에 모여 철도는 지지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반대 시위를 하였다.⁴

1902년 5월 9일 하야시 공사는 고종을 알현하고 철도원의 반대가 부당하며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요구를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고종은 철도원의 유기환 총재와 협의하라고 칙지(勅旨)를 내렸으나 철도원 당국은 여전히 노선 변경을 고집하였다.⁵ 그러자 일본 철도회사도 이를 하야시 공사에게 보고하였고 공사는 "이 이상 미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조약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개시한다. 만약 한국 관리가 공사를 제지할 경우에는 곧 이에 대항한다."라고 강경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1902년 6월 1일 일본 회사는 철도원에 대하여 사그네-오산 간의 선로를 기공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터널공사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에 철도원은 지지대고개 터널공사에 끝까지 반대하여 경기관찰사 이근명(李根命)에게 명하여 사그네-지지대 간의 공사착수를 엄금하라고 지시하였다.⁶

결국 6월 1일의 기공은 무기한 연기되고 한 달여 양국의 갈등은 계속되다가 철도원 총재에서 외부대신 서리로 영전한 유기환이 고종의 내지(內旨)를 받아 타협·절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1902년 7월 14일 유기환이 하야시 공사에게 공손하게 부탁하자 하야시가 이를 받아들여 새롭게 철도원 총재가 된 권재형(權在衡)이 하야시에게 감사의 뜻을 포함으로써 이 문제는 종결을 보았다.⁷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의 경부철도 수원 통과노선이 확정되었고 1905년 경부철도는 개통하게 되었다. 경부철도 개통과 함께 매산동에 자리한 수원역도 경부철도의 3급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05년 경부철도가 부설되고 수원역이 들어서면서 수원의 도시공간과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원역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수원화성과 수원역을 잇는 신작로가 개설된 것이다. 이 도로는 원래 정조 때 수원읍치와 수원향교를 연결하기 위해 개설



경부철도 선로약도(1905년, 김영준 제공)



1910년대 수원역 앞 신라로(현 향교로)와 일본인 농장



1907년 수원역 일대(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초창기 수원역사(수원박물관 제공)

된 도로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향교로로 불리고 있다. 수원역을 통한 철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물류와 사람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도로망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다. 이에 팔달문에서 수원향교로 이어지던 기존 도로를 수원역까지 연장하여 신작로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또한 수원역과 연결되어 이천-여주로 이어지는 현재의 42번 국도는 1908년에 도로를 넓히는 공사가 추진되어 1909년에 개통식을 가졌다.⁸ 이처럼 사통팔달의 요충지인 수원역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원역은 물산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갔다.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수원역은 지금의 향교로를 통해 구도심과 연결되는 공간 배치를 보여 주었는데, 향교로를 중심으로 한 수원역 인근 지역은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이자 중심 상업지역이 되어 갔다. 수원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 연변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상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점차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식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원역을 중심으로 서북쪽의 권업보범장과 동쪽의 팔달산을 아우르는 공간은 일본인들의 거점지가 되었다. 이제 팔달산을 기준으로 동쪽은 조선인 구시가지로, 서쪽은 일본인 신시가지로 도시공간은 양분되었다.⁹

〈표 1〉 수원역 여객 및 화물 현황

연도	여객(명)		소하물(톤)		화물(톤)	
	승객	강객	발송	도착	발송	도착
1917	119,378	128,333	-	-	148,73	123,48
1918	150,594	157,050	-	-	173,66	120,85
1919	191,909	189,785	150,39	307,37	195,02	191,67
1920	235,250	237,583	155,52	277,27	216,39	213,73
1921	241,939	201,907	136,50	246,90	279,30	189,93
1922	228,162	221,399	142,15	238,96	230,13	226,30

1930년대에 접어들면 수원역 일대는 또다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31년 수려선, 1937년 수인선이 개통된 것이다. 여기에 서울, 인천과 연결되는 승합자동차 노선도 개설되어 수원역 일대는 근대적 교통망이 크게 강화되었다. 즉 경부선만 존재하던 1920년대까지 수원

역은 단지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천은 물론 경기 동부 지역과 직결되는 양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인근 지역과 수원 간의 통합이 매우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수려선은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미곡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일본인들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인선의 부설 목적은 여주·이천 곡창지대의 쌀을 인천항으로 수송하고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산간 오지로 공급하는 데 있었다. 수인선 개통 이후 수원-인천 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1930년대부터 수원역을 중심으로 경부선, 수인선, 수려선이 중첩으로 연결되면서 교통체계가 대폭 확충되었고 수원역 일대에 직물공장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가 추진되었고 수원도 그 영향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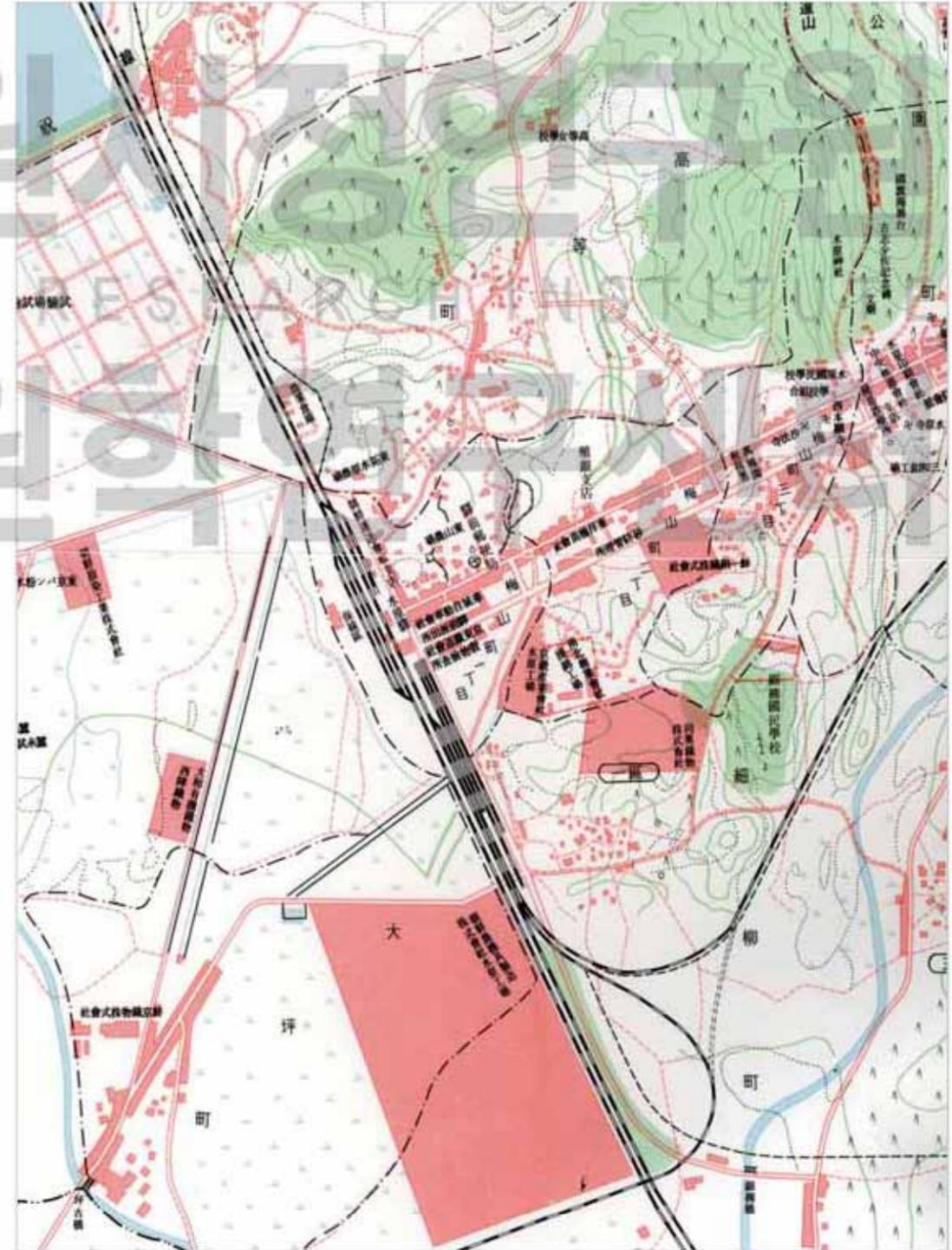
1930년대 수원역 일대의 직물공장은 남북면업 수원공장이 매산정 일대 동산농장 부지에 들어섰고 당시 대평정으로 불리던 평동 지역에 선만주단 수원공장, 매산정에 선일직물, 세류정에 동흥직물 등이 들어섰다. 선만주단은 동흥직물을 흡수한 후 선경직물로 개명하였다. 직물업을 주도한 것은 일본 자본이었고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직물업 정리계획에 따라 대규모 단위로 통합·정리되었다. 직물업은 수원역 일대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근대 산업이었다. 수원역 인근의 직물공장들은 철도망이 어떻게 근대 산업과 결부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원역 개설 이후 도시화는 주로 매산정에서 진행되었다. 수원역에서 출발해 팔달문으로 길게 이어지는 매산로가 핵심 상업지역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1943년 수원을 지도를 보면 수원역 주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농장, 동산농사주식회사 동산농장, 화성자동차회사, 경동철도주식회사, 곡물검사소, 역전우체국, 경기산업회사 수원공장, 남북면업회사 조면공장, 동흥직물주식회사, 동양종묘회사, 식산은행 수원지점, 선일견직주식회사, 수원세무서, 중앙무진회사, 수원인쇄회사, 간이진료소 등이 뿔뿔하게 들어서 있음이 확인된다. 매산로가 끝나고 본정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수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수원금융조합, 화성금융조합 등이 들어서 있어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수원역

SUWON RAIL

수원역



1943년 수원역 일대 기관과 사업제

일본인들의 수원 이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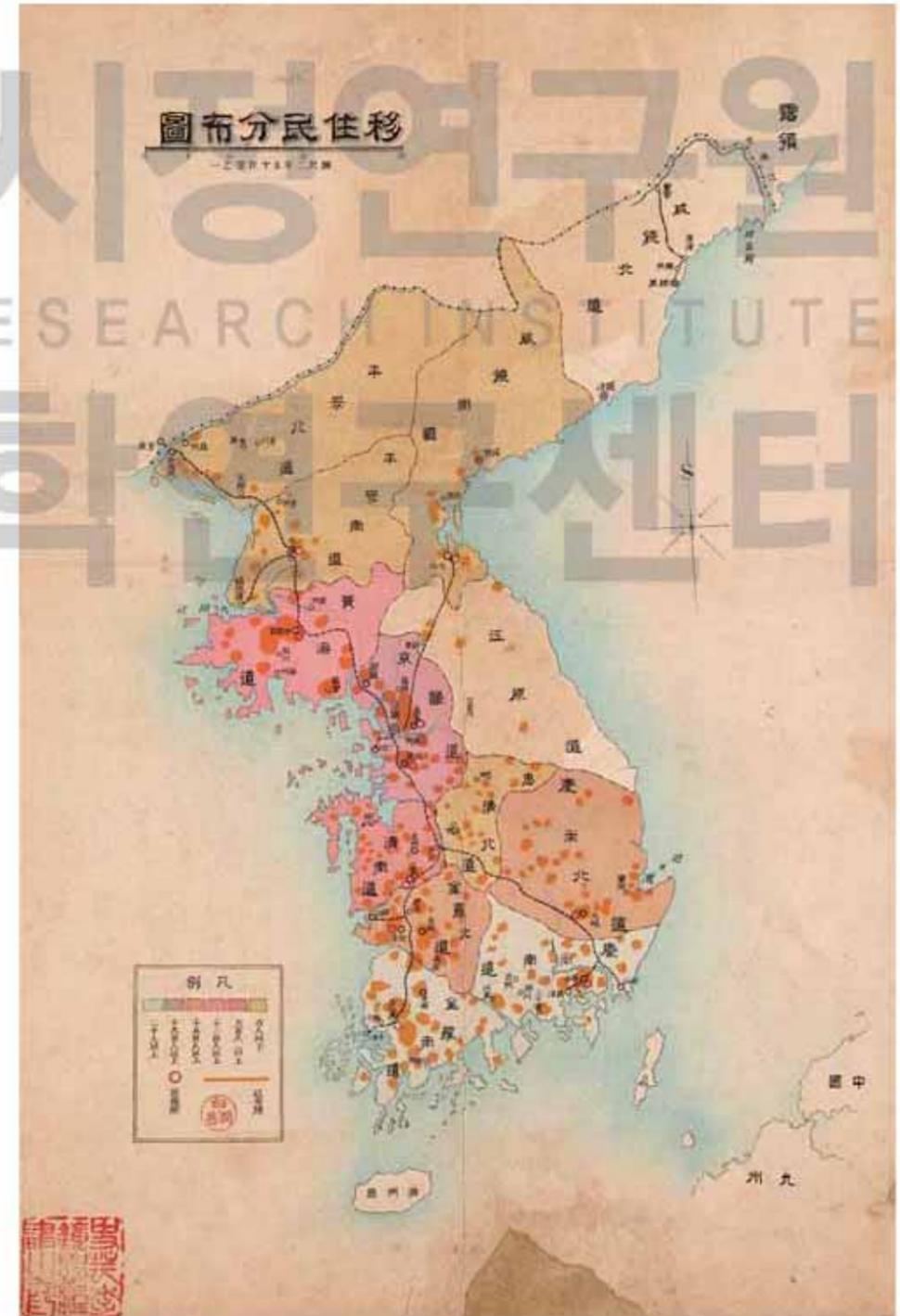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부산(1876년), 원산(1880년), 서울(1882년), 인천(1883년)이 개항·개시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특별거류지가 설치되었고, 군대와 관리, 무역상 등의 조선 이주와 더불어 이들을 고객으로 노린 성매매업자들도 속속 들어왔다.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을 승리한 후 조선에서 성매매업자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1900년대는 전국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유곽이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재조 일본인사회에서 집단화된 성매매구역, 즉 유곽10지대가 처음 조성된 곳은 부산으로, 일본군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요리점과 음식점의 매출이 증가하자, 1902년 부산 거주 일본인들은 매춘업에 의한 성병예방과 풍기단속을 내세워 유곽지대를 만들었다.

유곽은 재조 일본인 거류민단이 주축이 되어 계획하에 세워졌다. 일본 거류민단은 유곽지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크게 관여하였는데, 창기와 유곽업자에 대한 과세와 토지 임대료 등은 일본 거류민단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1902~1916년 조선의 부산, 경성, 인천, 대전, 울산, 마산, 목포, 통영, 나남, 원산, 평양, 진남포 등 13곳에 유곽이 설치되었는데, 주로 군 주둔지와 개항장 및 항구를 중심으로 자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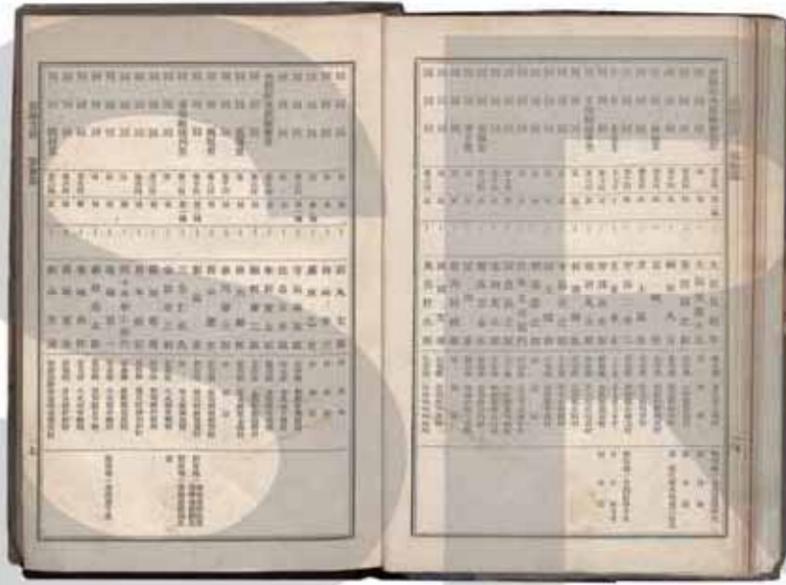
이와 같이 일본인 거류지역에 유곽이 조성되어 운영된 데 비해 수원에는 공식적으로 유곽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인들의 수원 이주 시기와 규모, 이주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원에 일본인이 최초로 들어온 것은 1900년으로 경성이나 인천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수원으로 일본인 이주가 본격화한 것은 1903~1904년경으로 수원에 식민농정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인 농학자들을 파견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고 일본인 지주회사들의 농장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수원은 일본인들의 주요 농업 이주지로 성장하였다.

수원에 최초로 정착한 일본인은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였다. 1900년 8월 9일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그는 9월 성안 북수동(장안동)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여 정착함으로써 수원에 영주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노리마츠 이후 1902년 1월 노나가(野中末吉)가 이주하여 과자점을 경영하였고, 미와(三輪政一)는 1902년 6월 화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조선인을 가르쳤다. 이후 1903년 이노하라(猪原), 오노(小野), 곤도(近藤), 호소카와(細川), 야마자키(山崎), 이마무라(今村), 기타자와(北澤) 등의 농학자가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1910년대 일본인 이주민 분포도(수원광역시립박물관 제공)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 농업 이주인 명단(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에 정착하였다.¹¹

그러다가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몰려들어 왔다. 더욱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인 이주민이 급증하여 수원의 일본인은 100명에 이르렀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경무(警務)·재무(財務)·고문(顧問)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상황은 더욱 일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수원의 경우 1906년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과 농림학교(農林學校)가 정조 때 축조된 축만제 옆에 설치되면서 일본인 이주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수원의 경우에도 일본인들이 대거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 거류민단이 조직되는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06년 8월 30일 수원거류민 총대역장이 조직되었다.¹²

이 시기에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가 넓고 비옥했던 수원의 토지를 일본인들이 겸병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동산농사주식회사(동산농장) 및 국무농장(國武農場), 조선신탁주식회사 등 일본인 농장과 회사를 통해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에 1912년 수원군 거주 일본인은 667호에 2,408명이었는데, 이 중 187호에 889명이 농업에 종사하였다.¹³

일본인 농장은 일제 강점 이전인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국내에 침

투하여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전국의 요지에 알짜배기 땅을 손쉽게 점유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특히 수원역 앞 토지 3만 평을 소유한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 1865~1955)는 동산농장(東山農場)을 경영한 일본의 대표적 재벌 미쓰비시(三菱)상사 3대 사장이다. 동산농장은 대표적인 일본인 농장으로, 미쓰비시(三菱)합작회사에서 위탁경영하였다.

동산농장은 1907년 1월에 설립되어 서울에 본부를 두고, 경기도 수원과 전북 전주 및 전남 영산포에 지부를 두었으며, 1907년 1월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1909년 말에 이르러 대체로 경지정리를 완료하였다. 1919년 11월 1일 동산농사주식회사를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 직영하였다.¹⁴ 동산농사주식회사의 본점은 도쿄(東京)에 있었고, 지점을 니카다(新潟)와 수원에 두었는데, 조선지점 본부는 수원면 매산리 148번지였다(표 3).

〈표 3〉 1910년대 매산리 소재 동산농사주식회사 토지 현황

지역	지번	지목	평수	지역	지번	지목	평수
매산리	21	축	2,488	매산리	130	축	366
매산리	23	축	714	매산리	135	축	5,234
매산리	27	축	2,007	매산리	140	田	1,785
매산리	33	축	740	매산리	141	田	873
매산리	39	축	810	매산리	142	塋	1,188
매산리	40	축	170	매산리	143	雜種地	243
매산리	104	축	794	매산리	144	축	700
매산리	117	축	1,462	매산리	148	塋	10,833
매산리	126	축	2,438	매산리	149	田	1,124

출처 : 「토지조사부」.

동산농사주식회사 외에도 국무농장과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수원역 부근의 매산리·고동리·서둔리 등에 대토지를 소유하였는데, 『경기도지주명부(京畿道地主名簿)』(1938년)에 나타나는 일본인 지주와 농장이 소유한 수원의 토지는 (표 4)와 같다.



매산리 148번지에 있던 동산농사주식회사(수원박물관 제공)



고동리 268번지에 있던 국무합명주식회사 조선본부(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수원시정역사연구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10년대 일본인들의 수원면 토지 소유

■ 조선인 토지
■ 일본인 토지, 국유지

〈표 4〉 수원 지역 일본인 농장 및 지주 (1938년 현재)

소유주	소유면적(정보)			소작인수	소작료 수취방법	
	논	밭	합계		논	밭
堀内順一	97	41	138	199	정조 3할, 집조 7할	정조 10할
笠松一藏	78		78	60	타조 10할	
坂手秀夫	201	110	311	95	정조 10할	정조 10할
國武合名會社	302	68	370	518	집조 10할	정조 10할
東山農事株式會社	857	268	1,125	1,512	집조 10할	정조 10할
東洋拓殖株式會社	809	381	1,190	2,117	타조 10할	정조 10할
朝鮮信託株式會社	154	45	199	233	집조 10할	정조 10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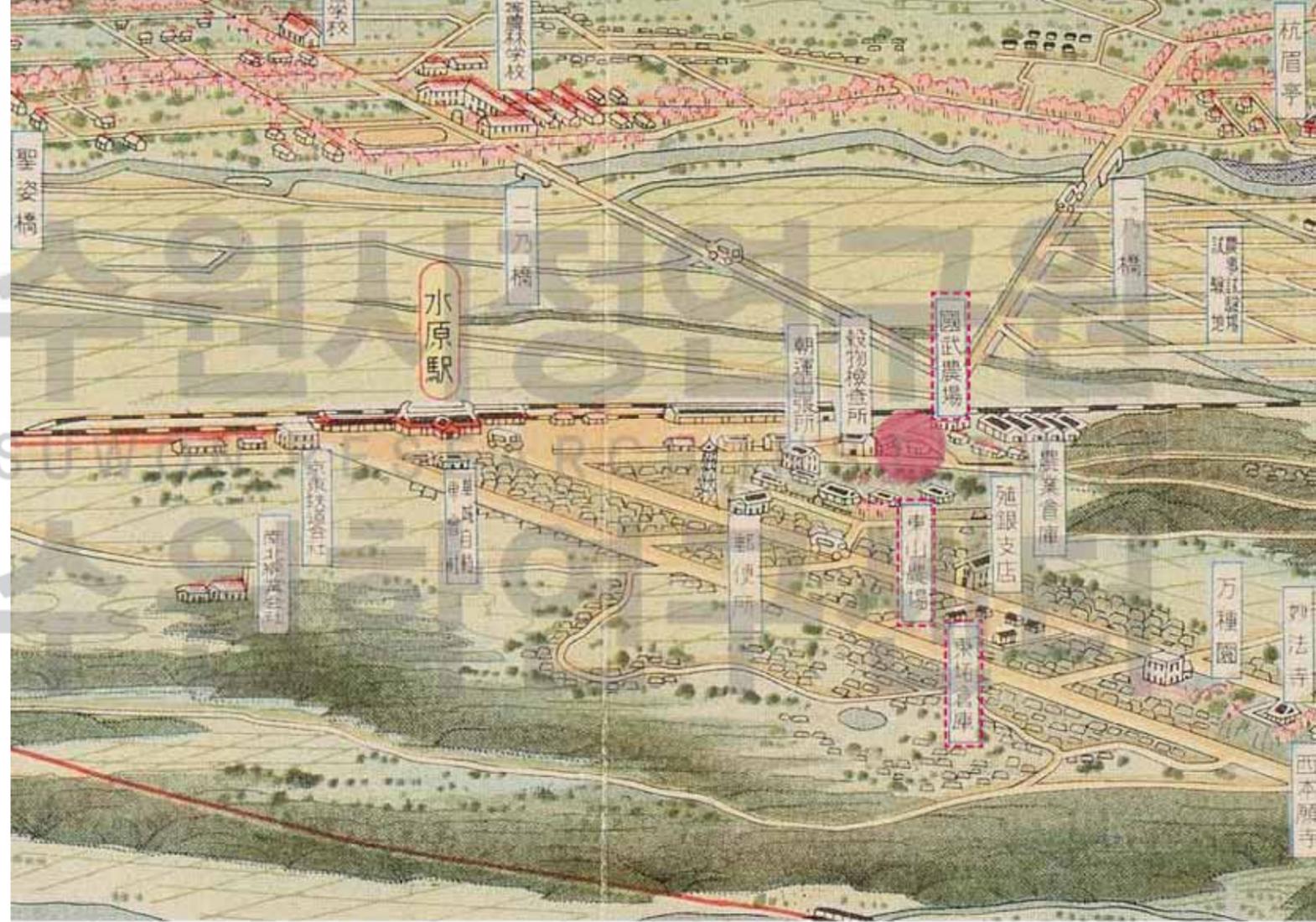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名簿」, 1985.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의 초기 이주는 군사적·정치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군인과 관리·무역상 등을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남성 단신으로 이주하였다. 이처럼 이주 초기 일본인 남성의 단신 부임으로 성비가 불균형한 식민지에서 일본인 유곽은 일본인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국민의 장기 거주와 식민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비해 일본인들의 수원 이주는 통감부가 설치된 후 식민지 지배정책이 추진되면서 조선의 농업 침탈을 위해 추진된 농업 이민이었다. 이에 수원으로 이주한 이들은 관리·농학자·농민이 주를 이루었고, 대부분 가족(부부) 단위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초기 일본인 이주 지역에 비해 수원의 일본인사회는 상대적으로 성구매 수요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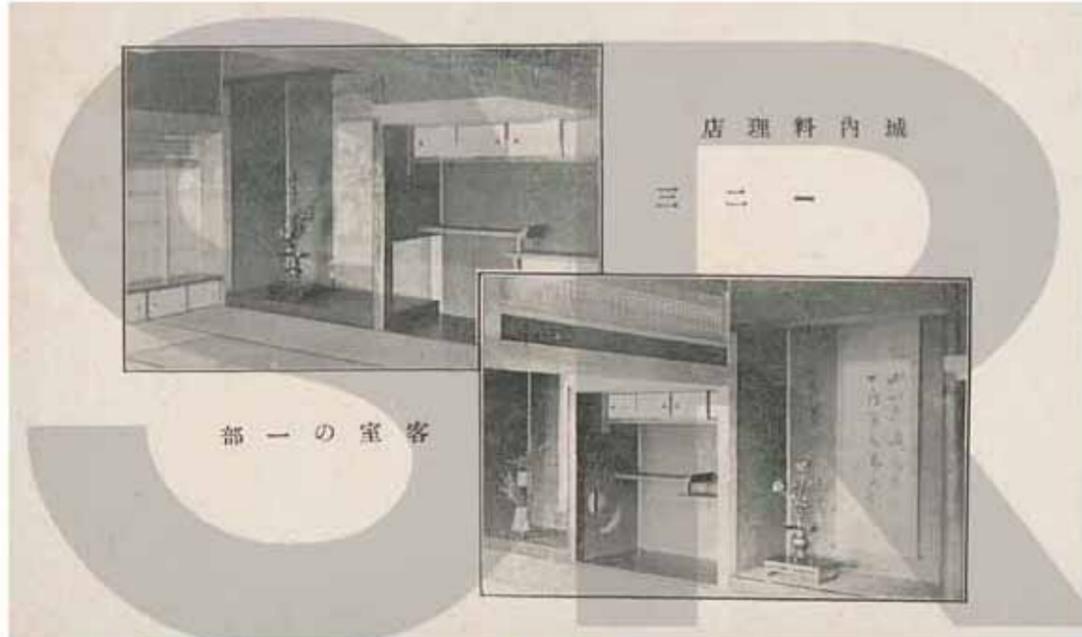
또한 유곽 설치에 일본인 거류민단이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규모가 작았던 수원 일본인사회는 정착생활 기반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가족 단위 이주민이 많았던 수원 일본인회는 조직되자마자 자녀들 교육에 필요한 학교를 설립하고, 일본인사회의 구심점인 신사를 건립하는 문제, 화장장과 도축장 등 일본인 생활방식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 중 일본인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화장장이나 도축장의 경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은 거류민단의 후신인 학교조합에서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었다.

결국 가족 단위 농업 이주자를 중심으로 성립된 수원 일본인사회는 남성



수원역 주변에 설치된 동산농장, 동척, 국무농장(1936년, 수원박물관 제공) 국무농장과 곡물집사소 사이에 현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된다.

단신 이주자가 많았던 부산, 경성, 인천, 원산 등지의 일본인 이주지역과 달리 유곽이 운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녀(遊女)나 창기(娼妓)를 데리고 운영하는 유곽이 없었다고 하여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20년대 수원 거주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요릿집 8개소가 확인되며 이 중 후지정(富士亭), 토츠키(吐月), 이지니산(一二三)은 1940년대까지 운영되었다. 이 업소들은 화성 주변에 몰려 있는데, 관공서가 몰려 있는 성 안 상권과 남문 상권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역 일대 일본인 상권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지만, 성 안 상권이 사업적으로 더 유리하였던 것이다. 이 업소들은 수원예기조합 기생들을 데려다 영업을 하였는데,¹⁵ 일제시기 유흥업계에서 수원 기생들의 위상은 광고하였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요리점 이지니산(一二三)(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선술집과 음식점이 모여 있던 향교로(수원박물관 제공)

〈표 5〉 1920년대 일본인 운영 요리점

업소명	위치	업소명	위치
いろは	성내 중정	富士亭	성내 신평정
博多屋	성내 본정	一二三	성내 중정
吐月	성내 본정	翠香園	수원역전
武蔵野	문밖시장	末廣	성내 중정

출처: 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1940년대 수원읍에는 10개소의 요리점, 82개소의 선술집과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수원역 상권이 성장함에 따라 선술집과 접객업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늘어났는데, 매산정에 20개소, 서둔정에 9개소, 세류정에 7개소가 위치하였다. 서둔정과 세류정에 있던 업소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인데 비해 매산정에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 화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업소가 있었다.

〈표 6〉 1940년대 매산정 소재 접객 및 음식점소

업소명	대표	소재지	업소명	대표	소재지
선술집	吳氏	매산정 1정목 24	大衆食堂	杉原徳市	매산정 1정목 60
선술집	孫容九	매산정 1정목 26	선술집	鄭喜叔	매산정 1정목 65
오뎅屋	中島シカ	매산정 1정목 27	泰興樓	初鳳坡	매산정 1정목 68
新井飲食店	朴泰浩	매산정 1정목 27	선술집	李成大	매산정 1정목 68
에비스카페	河岡千代子	매산정 1정목 28	喜樂食堂	渡邊キツ	매산정 1정목 69
長盛園	姜成恩	매산정 1정목 29	선술집	安順西	매산정 2정목 13
福興園	藍敬箴	매산정 1정목 37	선술집	吳濟善	매산정 2정목 15
八珍屋	金起男	매산정 1정목 39	兄弟屋	姜龍鎮	매산정 2정목 28
富久美	郭起容	매산정 1정목 39	선술집	都昌奎	매산정 2정목 51
友月	金龍八	매산정 1정목 49	日の出	古野喜太郎	매산정 2정목 51

출처: 수원상공회의소, 『상공인명록』, 1942.

일제시기 수원 유흥업과 기생들의 활동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이 혁파된 뒤에도 관기(官妓)는 한동안 존속하였다. 그러다 1897년부터 지방의 관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1908년에 궁중 관기까지 해산되면서 조선의 관기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관기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생들은 계속 활동을 하였다. 이는 1908년 4월 개최된 수원군 학교의 연합대운동회에서 기생들과 주상(酒商)들이 협의하여 술 한 잔씩을 무료로 제공하였다¹⁶는 기사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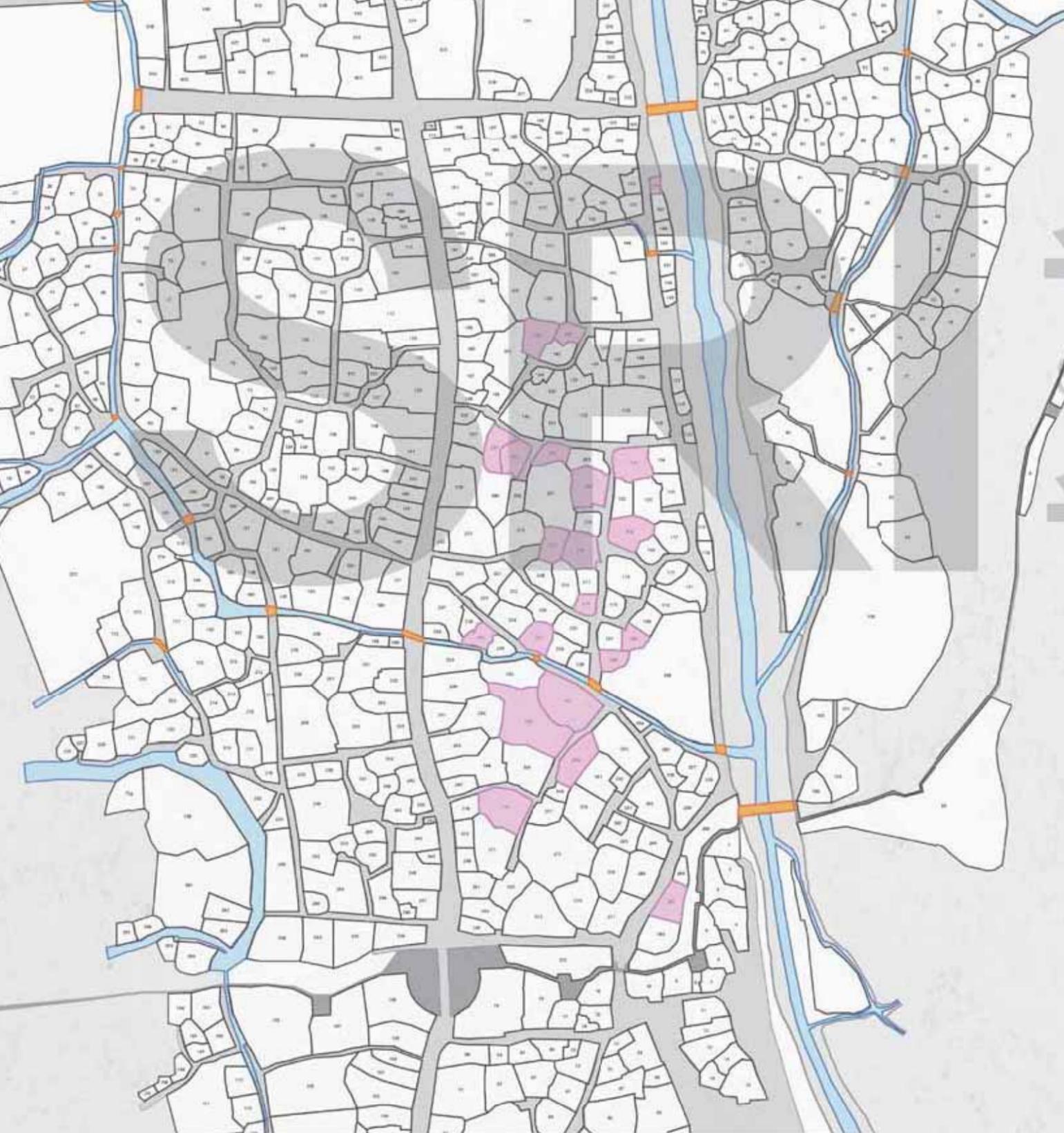
하지만 1908년 9월 '기생 및 창기 단속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생들은 경무청(警務廳)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창기(娼妓)는 성매매가 공인된 여성으로 공창(公娼)으로 불리기도 했다. 예기(藝妓)는 조선의 기생과 일본의 예기를 통칭하는 범주로 요리옥에서 춤과 노래로 손님's 흥을 돋우는 이들을, 작부(酌婦)는 음식점에서 술시중을 드는 이들을 가리켰다. 예기와 작부는 원칙적으로 성을 파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성매매 여성으로 인식되었다. 식민 권력의 관점에서 창기는 전업 성매매 여성, 예기와 작부는 겸업 성매매 여성이었던 것이다.¹⁷ '기생 및 창기 단속 시행령'에 따라 기생들은 기생조합소(妓生組合所)에 소속되어 가무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원 기생들도 수원기생조합소를 조직하였다.

1910년대 수원 기생들이 가장 자주 참석한 행사는 해마다 개최되던 화령전 작약회였는데, 작약회에서 남무(男舞), 검무(劍舞), 승무(僧舞), 법고(法鼓) 등으로 여흥을 돋우었다.¹⁸ 또한 수원 기생들의 활동공간으로 풍창관이 자주 등장하는데, 풍창관은 1910년대 설립된 수원 최초의 극장 겸 연회장이었다. 1916년 수원기생조합 소속 기생 29명은 조합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연주회를 풍창관에서 3일간 개최하였고,¹⁹ 같은 해 권태동의 동화의원 개원식도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풍창관에서 열렸다. 1916년 수원군 신년 연회와 1920년 3월 10일 경동철도 허가 축하연도 풍창관에서 개최되었다.²⁰

1918년 7월 발행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에는 수원기생조합에 속한 33명의 기생이 소개되고 있다.²¹ 이에 따르면 수원 기생들은 모두 수원면 남수리(현 남수동과 팔달로2가)에 거주하였으며 2~4명씩 함께 살았다. 김향화를 비롯하여 여기에 소개된 수원 기생들은 1919년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1917년 수원군 태장면 영봉리 오철선 회갑연에 참석한 수원 기생(수원박물관 제공)
오른쪽 기생은 『조선미인보감』에 소개된 오산호주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1918년 남수리 일대 수원 기생 거주지



1921년 11월 17일 『동아일보』 광고에는 '수원예기조합(水原藝妓組合)'이 등장한다. '동아일보사 대표 만국기자대회 부회장 당선' 축하 광고에 나홍석·차유순·홍사훈 등의 수원 유지 및 각종 종교·교육 단체와 나란히 '수원예기조합'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다.²²

한편 수원 기생들은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25년 당국에 권번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수원 기생 일동이 영업을 정지하고 동맹 휴업을 단행하였다.²³ 그 결과 1925년 5월에 수원예기조합은 당국의 인가를 얻었고 화성권번으로 개칭하였는데, 소속 예기는 30명이었다.²⁴ 권번은 기생을 관리하는 업무대행사로, 등록된 기생을 요청에 따라 요릿집에 보내고 화대를 수급하는 일을 맡았다. 권번에서는 인물이나 태도, 가무, 서화 등을 심사해 신입 기생을 채용했으며, 어린 기생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요릿집 출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화성권번 인가 직후인 1925년 6월 권번의 소장은 김성창(金聖昌), 총무는 박한현(朴漢鉉), 사무원은 이병윤(李炳允), 서기는 김성희(金聖熙), 초취(初取)는 김영산홍(金映山紅), 전초취(前初取)는 신정희(申貞姬), 부취(副取)는 조연홍(趙蓮紅)이었다.²⁵ 권번 조직에는 평의원들이 있어 임원들의 활동을 견제하였는데, 1930년 화성권번 소장이 된 박모씨는 권번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발각되었다.²⁶

수원 기생들은 기관이나 단체·업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기예를 펼쳤으며, 요릿집에서 손님을 맞거나 지역 주민들의 모임과 잔치에 참석하였다. 수원 요릿집들은 주로 남수리(남수정, 본정 3정목) 주변에 위치하였고, 군청·면(읍)사무소와 법원, 사업체, 사회단체와 조합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모임, 접대 장소로 이용되었다. 남수리는 요릿집과 화성권번

기생들의 거주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화류촌'이라 불렀는데, 남수리 주변에 학교가 있고 풍기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⁷

1920년대부터 요릿집 중 가장 유명했던 곳은 영락관으로,²⁸ 수원체육협회 창립총회, 청년운동자 간담회, 수원기자동맹 임시대회, 수원척사대회 등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요릿집에서는 갖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교가 운영하던 일흥원에서는 일본인 16명이 놀다가 권업모범장 기수 한 명이 2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²⁹ 화흥원에서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근무하는 서기가 무전취식에 기생을 구타하는 횡포를 부려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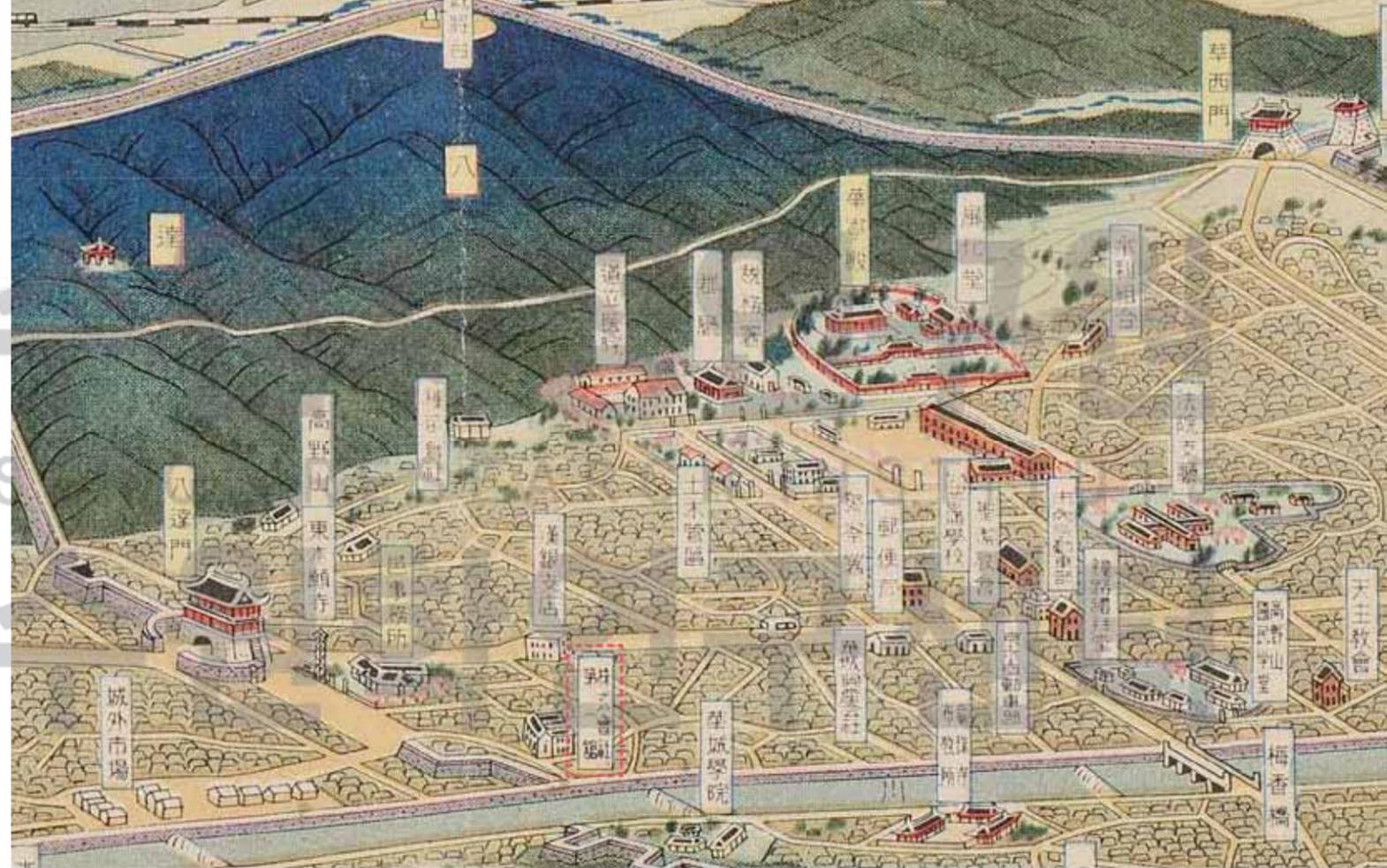
수원 요리업자들은 1929년 조합을 결성한 후 화성권변에게 확대 조정을 요구하였다. 화성권변 기생이 요릿집에서 영업을 할 경우 1929년 1시간대(화대)로 1원 20전을 받았는데, 이 중 10전은 권변에서, 10전은 요정에서 가져갔다. 요정 측은 이 수수료를 20원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권변이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동맹하여 한동안 기생을 부르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³¹ 1929년 수원의 경기가 호황을 맞고 7군데 요릿집에 손님이 끊이질 않자 당시 14명밖에 안 되는 기생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각 처의 기생들이 수원으로 몰려들었고, 한 달 사이에 20여 명의 기생이 새로 늘어나기도 하였다.³²

기생수가 부족해지면 돈으로 유인하여 데려오기도 하였다. 한성권변 기생 이난옥은 남수리(232번지)에서 치옥(置屋, 기생을 두고 있는 집)을 하는 김성한에게 350원에 방매되었으며,³³ 기생 박옥엽은 수원면 남수리 김정한에게 1,555원에 팔려 왔다.³⁴ 김성한과 김정한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일인이며, 수원면 남수리 232번지는 1930년대 수원 예기 치옥이 있던 곳이다. 김정한은 포주로서 치옥에 기생을 두고 요릿집으로 이들을 보내는 일을 하였다. 김성한과 수원 기생들은 1933년 수원자동차주식회사 취체역 가야마 히로시(香山弘)의 요청으로 봉녕사로 놀러 가던 중 차가 전복되어 큰 화를 입었다. 얼굴에 치명상을 입은 기생은 차가 전복된 것이 가야마 히로시의 부주의한 지휘 때문이므로 손해배상으로 5,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³⁵



기생 박옥엽(『동아일보』 1928년 5월 18일)

한편 화성권변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1930년대 요릿집이 많았던 남수정과 본정 3정목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제일관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요릿집이다.

자유영업 기생과 치옥영업 기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포주와 권변 측이 한패가 되어 자유영업 기생을 차별함에 따라 자유영업 기생들이 탈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수원 화성권변(華城券番)에는 현재 40여 명의 예기(藝妓)가 있어 항상 부소장(副所長)과의 불만을 가지고 내려오면 요사이 와서는 자유영업(自由營業) 예기 측과 치옥영업자(置屋營業者) 간에 갈등이 되어 지난 일월에 와서는 치옥영업자 지들이(池芝伊=假名)와 자유영업 예기 황국향(黃菊香) 유벽도(柳碧桃) 등과 일대 충돌이 일어나 전기 지들이는 황국향 및 그의 모와 유벽도의 모 3명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었으므로 부상을 입은 그들은 진단서를 내어 고소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 사실을 들어보면 권변 자체가 포주 측과 협동해야 가지고 자유영업

자를 무리하게 압박 차별하므로 자유영업자 측에는 폐업자가 속출한다는 사실이 모지(某紙)에 보도되자 권번 자체는 이에 분개하여 이는 전기 황국향, 유벽도 등이 기자에게 말하야 권번영예를 손상시키었다는 혐의로 전기 두 기생에게 지난 7월 29일부터 시간초빙정지(時間招聘停止)통지서를 보내었으므로 의외에 생활문제에 통지서를 받은 그들은 분개하여 이 사실을 각 평의원과 전기 지들이에게 질문하는 글에 그와 같이 된 것이라 한다.³⁶

화성권번 기생들은 권번 조직을 조합제에서 주식회사 체제로 변경하고 권번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분란이 표출되었다. 화성권번은 1929년 권번 건물 신축을 위해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오랫동안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34년에 재목 660원어치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재목이 부패한데다 벽돌양육으로 설계됨에 따라 1935년 이 목재를 싸게 팔아 버렸다. 이에 기생들은 권번장 조동훈에게 양육 건물로 설계된 점과 목재를 밀치고 판 점을 문제 삼아 파업을 단행하였다.³⁷

또한 1938년 화성권번은 주식회사 체제로 변경하기 위해 2만 원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조합 적립금 1만 2,000원을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조합 사무실을 건축하여 이를 현물로 출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회사 역원들이 현물 평가를 실비보다 적게 평가하여 인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설계서와 설계도면도 없이 높은 가격의 견적을 낸 목수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³⁸ 이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문제를 딛고 화성권번 건물은 남수동 121번지에 신축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경기도의 경성·개성·인천·수원 등에서 유흥업이 확산되자 카페, 요릿집과 선술집 등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접객업소의 수를 늘리지 않거나 유흥음식세 등을 신설하거나 증세하였다.

근래 갑작히 생기고 늘어나는 카페, 바, 내외 주점, 요리집 등의 음식점은 서로 경쟁이 심하여 손님을 끄려고 여러 가지 상서롭지 못한 수단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들 음식점이 급격한 속도로 농어산촌까지 퍼지고 있는 한편 이에 따르는 접객업자 기생 녀급 등이 나날이 늘어 보안상 풍기상 폐해가 만음으로 관내에 경성부, 개성, 인천, 수원 등 큰 도시를 만히 포용하고 있는 경기도 보안과에서는 어떠한지 이들을 음식점을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코져 그간 비밀리에



일제시기 수원 요릿집



1940년대 수원 요리점과 화성권번
 붉은색은 요리점, 녹색 ㉑은 1930년대 수원예기 치욕, 녹색 ㉒은 1940년대 화성권번 사무소 자리이다.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역성매집연구센터

관내 각 경찰에 명령하여 음식점의 상장과 집객업자의 동정을 조사 중이든바 대개 보고가 모였으므로 이 보고를 기초로 곧 음식점의 통제책을 연구하리라는데 대체로 음식점은 이후 더 늘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³⁹

또한 경성부 위생과에서는 경성·개성·인천·수원 4개 지역 유곽 담당 의사들의 회합을 개최하여 화류병(성병) 박멸 대책과 검사기준 통일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건강진단을 강력하게 실시하였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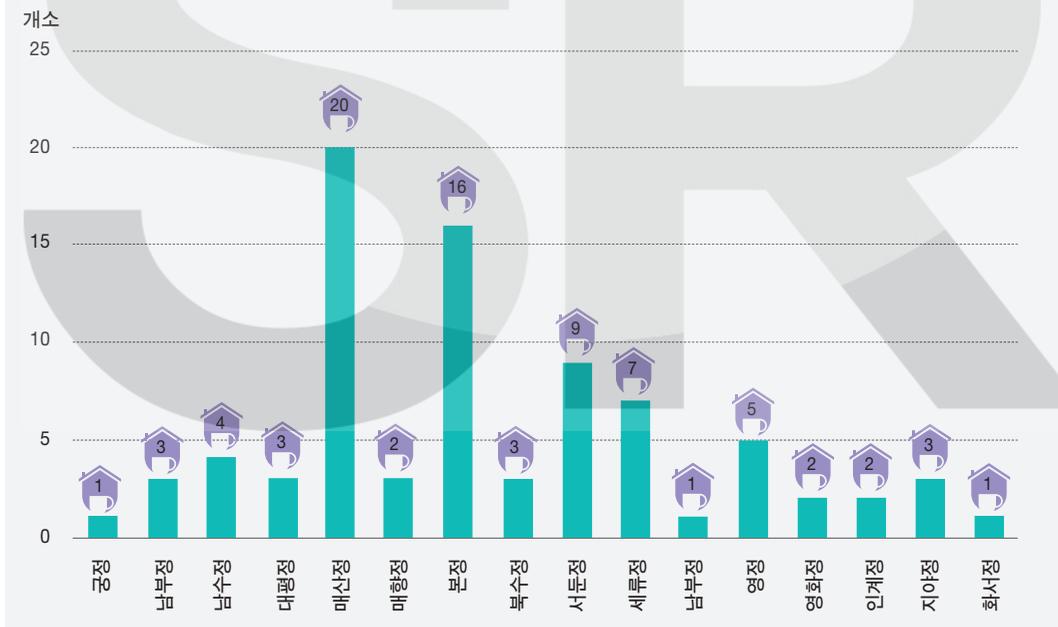
1937년 중일전쟁 직후 잠시 불황을 겪었던 유흥업소들은 전쟁 특수가 확대되면서 다시 번창하였다. 이에 화성권번 기생이 30여 명 내외에서 1938년 5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해 1년간 유흥비를 보면 기생 시간대(화대)로 약 3만 3,574원, 요리대로 11만 8,570여 원, 합계 15만 2,144원을 소비하였다고 한다.⁴¹

수원 유흥업소들은 예기들을 두고 운영하는 요리점과 고녀(雇女)라고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선술집·카페·음식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2년에는 10개소의 요리점, 82개소의 선술집과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중 선술집 주인들은 여성인 경우가 많았는데, 술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도 있었다.

〈표 7〉 1940년대 수원 관내 요리점

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
1	富士亭	신평정 285	菅田=+
2	一二三	본정 4정목 123	加納+イ
3	東興樓	본정 3정목 3	李文恒
4	恒山館	남수정 129	李文悅
5	永樂館	본정 3정목 66	宋元尙
6	壹興園	본정 3정목 68	蔣英西
7	吐月	본정 3정목 70	外尾=ネ
8	第一館	본정 3정목 51	법인
9	迎賓館	영정 48	張倫五
10	百花園	본정 1정목 45	李漢容

출처 : 수원상공회의소, 『상공인명록』, 1942.



1940년대 수원 선술집과 음식점 소재지(10개 요리점 제외)

일제시기 내내 수원 기생들은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내었다. 국가나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였고, 재난 상황 또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과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동맹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표 8> 1946년 군정법령 제70호 발포 전후 경기도 내 창기수

(단위 : 명)

지역	발포 전	발포 후	감원	비고
수원	9	8	1	
연백	60	58	2	한국전쟁 후 북한 황해도로 편입
용산	109	82	27	
인천	151	105	46	
본정	828	456	372	총무로
합계	1,157	709	448	

출처 : 『서울신문』 1946년 7월 12일.

수원시정여구원

SUWON SUWON INSTITUTE



1. 1950년대 옛 화성권번 내부(남수동 121-1)
2. 옛 화성권번 터(대봉동담 건물 자리)
3. 옛 예기 치옥 건물(팔달로2가 28)
4. 옛 예기 치옥 내부



해방 후 수원 기생에 대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지만 1946년 군정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매매계약의 금지'가 발포 전후 경기도 내 각 지역의 창기수 집계 자료에 따르면 군정법령 제70호 발포 전후 수원 기생은 8~9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후 1947년 8월 8일 남조선과도 정부 법률 제7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948년 2월 현재 수원에는 공창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 1 『황성신문』 1901년 1월 18일. 광무(光武) 2년 9월 6일에 경부철도 교설구(敷設口)을 일본경부철도회사에 준허(准許)하였는데 ... 그 선로가 경성으로 충청, 전라, 경상, 삼도를 횡관(橫貫)하니 이 삼도는 전국 중 호구(戶口)가 조잡하고 물산이 요족(饒足)한 지방인데 열군(列郡)의 각 시장 군회처에 정차장 합 44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할 예정이더라. 정차장 한성남문 밖, 노량진, 영동포, 시흥 석파현(石坡峴), 과천 안양상(安陽傷), 수원성의 서쪽 대황교(大皇橋), 오산(梧山), 진위읍(振威邑), ... 부산항(釜山港).
- 2 『황성신문』 1901년 9월 28일.
- 3 철도청, 『한국철도사』 3권, 1979.
- 4 철도청, 『한국철도사』 3권, 1979.
- 5 철도청, 『한국철도사』 3권, 1979.
- 6 김찬수, 「수원의 철도교통 변화」, 『수원시사 1』, 2014, 513-514쪽.
- 7 김찬수, 「수원의 철도교통 변화」, 『수원시사 1』, 2014, 513-514쪽.
- 8 『황성신문』 1908년 8월 11일.
- 9 김백영, 「일제하 식민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제8호, 2012, 26쪽.
- 10 유파이라는 명칭은 법령상 공인 명칭은 아니며 1911년 대좌부영업규칙, 예창기취제규칙 등이 발표된 이래 1916년 조선의 공창제도가 공인되기까지 대좌부, 제1중요리점, 특별요리점 등을 총칭하는 경우에 유파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 11 한동민, 「매산동의 식민지적 변화와 일본인사회」, 『매산동』, 2018, 128-129쪽.
- 12 한동민, 「매산동의 식민지적 변화와 일본인사회」, 『매산동』, 2018, 132쪽.
- 13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5-6쪽.
- 14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11월 14일.
- 15 『동아일보』 1929년 4월 9일.
- 16 『황성신문』 1908년 4월 21일.
- 17 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연구』 제11권 2호, 2011, 208-209쪽.
- 18 『매일신보』 1915년 6월 16일.
- 19 『매일신보』 1916년 4월 13일.
- 20 『매일신보』 1920년 3월 9일.

- 21 『青柳綱太郎, 『朝鮮美人實錄』, 朝鮮研究會·新舊書林, 1918.
- 22 『동아일보』 1921년 11월 17일.
- 23 『동아일보』 1925년 2월 26일.
- 24 『조선일보』 1925년 5월 16일.
- 25 『동아일보』 1925년 6월 24일.
- 26 『조선일보』 1930년 4월 24일.
- 27 『동아일보』 1931년 1월 24일.
- 28 『동아일보』 1937년 9월 28일.
- 29 『조선일보』 1923년 11월 16일.
- 30 『동아일보』 1925년 3월 5일.
- 31 『동아일보』 1929년 4월 9일; 『동아일보』 1929년 4월 11일.
- 32 『동아일보』 1929년 4월 29일.
- 33 『조선일보』 1928년 3월 9일.
- 34 『동아일보』 1928년 5월 18일.
- 35 『동아일보』 1933년 5월 7일.
- 36 『조선일보』 1935년 5월 25일.
- 37 『동아일보』 1935년 5월 24일.
- 38 『조선일보』 1939년 5월 10일.
- 39 『조선일보』 1936년 2월 8일.
- 40 『조선일보』 1936년 10월 25일. 1930년 경기도 위생과에서 시험한 건강진단의 결과를 보면 경성, 인천, 수원, 영동포의 예기 772명, 고녀(雇女) 1,602명, 이발업자 406명, 합계 3,081명 중에서 병에 걸린 자가 263명이라 한다.(『동아일보』 1930년 11월 2일)
- 41 『동아일보』 1938년 1월 27일.

SR

한국전쟁 후
피난민촌의 형성과
성매매
수원역 일대로 밀려드는 사람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수원역 일대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고, 수원역은 해방의 열기가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던 서울의 분위기가 수원으로 유입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식민지배가 종식되면서 수원역 일대를 장악했던 일본인들과 일본 회사는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그곳은 한국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1946년 3월 11일부터 통근·통학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국에서 서울과 수원 간 통근, 통학 전용열차 운영을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¹ 이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증대되었고 서울과 수원 간의 교통 수요가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즉 1949년 8월 교통부에서는 서울과 수원역 사이의 여객 수송을 완화하고자 안양역이 종착이던 열차를 수원역까지 연장시키는 한편, 1개 열차를 증편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²

교통량 증대는 인구 증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해방 이후 수백 만 명의 귀환동포가 돌아왔고 또 38선 설치와 함께 수많은 월남민이 발생하였다. 귀환민이나 월남민 등은 일차적으로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별다른 연고가 없는 사람이 고립성과 폐쇄성이 강한 농촌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고 또 대도시에는 상대적으로 구호체계도 갖추어져 있어 생존에 훨씬 유리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몰린 전제민과 월남민들이 서울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자 전제민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또 정부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했다. 그렇기에 서울의 전제민들이 수원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전제민이나 월남민들의 증대는 기존 거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49년 2월에는 수원역 운수부원의 폭행사건이 보도되었는데, 폭행 중 가해자는 “월남한 이북 놈들은 모조리 칼로 죽여 버린다.”고 하였다.³ 이러한 사례는 월남민과 전제민이 기존 거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전제민이나 월남민들이 증가하면서 수원역 일대 노점도 늘었는데, 단속 경찰과의 갈등도 상당했던 듯하다. 한 신문 독자는 수원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술 취한 철도경찰 한 명이 역전에 운집해 있는 떡장사 10여 명을 전부 쫓아 버리고 그 중 노파 한 명의 떡함지를 압수하려는 것을 막으려다 경찰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⁴

한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철도시설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1928년 조선식으로 신축되었던 수원역사도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이때 파괴된 수원역사는 1961년 9월이 되어서야 다시 신축되었다. 전선이 4번이나 바뀌는 전란의 한가운데에서 수원역 일대의 많은 건물들이 폭파되었고, 전세(戰勢)가 변할 때마다 전방과 후방으로 수많은 병력이 이동하였다. 수원역은 군 병력이 이동하던 주요 거점이었으며, 귀환 군인과 휴가 장병들로 북적대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경기지구 민사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그간 용초도(龍草島)로 이송되어 있던 경기도 출신 귀환용사와 휴가장병 〇〇〇명은 지난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육로로 수원역에 이송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 일행은 도착 즉시로 도 사회과에 인도되어 각 출신 시군으로 오래간만에 귀향하리라고 한다.⁵

1950년대 수원에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인 ‘위안부’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1952년에 전방에 거주한 성매매 여성을 후방인 수원으로 보냈는데, 포천지구의 성매매 여성 200명은 수원역전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고향으로 보내지거나 남쪽으로 다시 이송될 계획이라고 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수원역(국가기록원 제공)
피난열차가 떠난 수원역에는 피난민과 피난민회차가 남아 있다.



Railroad Station Suwon December 1952

파괴된 수원역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미군(1952년,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윤락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 공 양공주님들 200명이 역전수용소에 지난 23일 수용되었다. 즉 일선 지구의 육군장병들의 군기를 문란시킨다는 이유로서 포천지구로부터 200여 명의 윤락된 여성들을 강제로 미 헌병으로부터 이송하여 현재 수원역전수용소에 철통같은 경찰 감시하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도사회과의 따뜻한 원호를 받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 그들은 희망에 따라 그리운 고향으로 각기 돌아갈 것이며 또한 그 외는 남쪽으로 이송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에 광명과 새로운 행복을 줄 수 있는 동포의 온정을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⁶

이렇게 수원역전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성매매 여성들이 계획대로 이송 또는 귀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955년 성병 검진 상황을 보면 위안부 1,309명, 접대부 57명, 기타 91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접대부 또는 밀창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위안부 수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1950년대 수원비행장의 미국 제5공군(수원박물관 제공)
미국 제5공군이 접수한 수원비행장은 연합군의 수송과 보급기지였다.

자는 1,300명이 넘었다. 물론 중복하여 검진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원 관내에 상당히 많은 위안부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1> 1950년대 성매매 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1953	1955
위안부	46	1,309
접대부	45	57
밀창	13	-
기타		91

출처 :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71쪽; 수원시, 『시세일람』, 1956.

비고 : 1955년 통계는 접대부 성병 수진자 수치이다.



수원의 경우 세류동 수원비행장에 유엔군의 수송과 보급을 담당하는 미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는 미군과 동거하거나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양공주' 또는 '양색시'로 불렸다. 『민초가 겪은 6·25전쟁 야사』(신현준, 2015, 북랩)를 보면 1950년대 미군과 동거하는 양공주에게 하숙을 하는 수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는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기에 선뜻 방을 내어 주지 못하다가 당장 가족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주변의 시선을 무릅쓰고서 방을 내어 주었던 것이다.

또한 양공주들이 갖다 주는 미제 물건들을 시장에 팔아 주고 물건 값에서 얼마를 수고비로 받기도 하였다. 미군 물품을 팔았던 곳은 일명 '양키시장'이었는데, 팔달문 밖 공터에 있던 수원의 양키시장은 영동시장 양키골목으로 알려진 곳이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양키시장에는 보자기나 광주리에 물건을 담아 와서 판매하는 여성과 아동들이 많았다. 수원에 양키시장이 형성된 것은 수원비행장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었고 오산과 평택에도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미군 물품들이 영동시장의 양키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전쟁으로 생활이 궁핍한데다 사회 혼란으로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전쟁 후 수원에는 사창가가 형성되었는데, 매산로 일대에도 있었다. 수원경찰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사창 단속과 성병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1955년 12월에는 100여 명의 창부를 단속하여 이 중 부모에게 27명을 인계하고 22명을 자진 귀향시켰으며, 6명을 직업을 직업보도(職業輔導)를 시켰다고 한다. 1956년 5월에는 창부들을 집결시킨 후 성병 검진을 실시하고 이들을 직업보도 또는 귀향시키고자 하였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창(私娼) 단속에 있어서 수원경찰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관내에 산재한 101명의 창부들을 엄중 단속하고 일면 이들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계몽에 주력한 결과 지난 24일 현재로 부모에게 인계한 것이 27명, 자진 귀향한 것이 22명, 직업보도한 것이 6명으로 도합 52명이 사창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며 나머지 46명도 불인간 각자 기능에 따라 직업을 전환토록 중용하고 있다 한다.⁷

그간 사창(私娼) 단속에 부심하여 온 당시 수원경찰서에서 23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내 매산로(梅山路) 등지를 비롯한 일부지역 악질포주들에 의하여 아직도 근절하지 않고 있는 사창

굴 창부들 전원을 일정한 지역에 집결시키는 한편, 수시로 검진을 실시하여 성병을 예방하는 한편 본인들이 요구에 따라 직업보도 또는 귀향을 시켜 이들에 새로운 앞길을 개척케 하리라는 바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⁸

또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와 노약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에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이 설립되었다. 1955년 현재 수원역 주변에는 성피득보육원과 양카라학원, 경동원, 수원보육원 등이 설립되어 고아 4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었다.⁹ 그러나 고아원과 같은 후생시설은 수용할 수 있는 고아의 수도 한정적이었으며, 보호 대상도 주로 영유아였다. 이에 시설에 수용되지 못하거나 시설에서 이탈한 수많은 10대 아동들은 수원역 주변에서 구걸이나 앵벌이, 구두닦이 등을 하며 생활하였다.

이렇듯 정치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아동들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더구나 이들은 잠재적으로 범죄 집단화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경기도의 경우 소위 '범죄의 온상인 부랑아'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갱생시키겠다는 이미 1942년 선감학원을 설립한 바 있다. 선감원은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수원·인천 지역의 수많은 도시 빈민층 아동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인권이 유린된 상태에 놓였다. 수원시청에서도 수원역 일대에 사회복지과 인력을 배치시켜 이곳을 배회하는 아동들을 선감원으로 보냈는데, 선감원 수용자 서류를 보면 아동들이 불잡혀 온 장소로 수원역이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수원 피난민촌의 형성

한국전쟁 이후 수원역 일대는 피난민의 유입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1950년 10월 경기도청 내에 '경기도구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51년 2월 18일 '경기도구호대'를 편성하였다. 2월 24일 구호대를 수원으로 이동시켜 안성·평택·화성·용인·수원·광주에 집결해 있는 피난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¹⁰ 1951년 3월 20일 수원시청도 수원역으로 복귀하여 난민구호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는데 피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거처가 될 수 있는 난민수용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1952년 11월 말까지 수원시에는 모두 12개소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3만 1,516여 명의 피난민을 수용하였다.¹¹ 피난민수용소에는 남녀노약자 및 부녀자, 무의탁자 등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피난민이 우선 수용되었고, 이들뿐만 아니라 무주택 피난민도 수용되었다. 이들 피난민수용소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였으며, 주로 기존의 학교·극장·요리점·공장,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¹² 수원의 경우 공설운동장, 수원역전, 공장(성냥공장과 방직공장), 학교 등지에 피난민수용소가 마련되었는데, 전쟁 직후 수원의 피난민을 포함한 구호대상자는 <표 2>와 같다.

<표 2> 1951~1955년 수원시 구호대상자 현황 (단위: 세대, 명)

연도	원주 빈민		전재민		피난민		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1951	1,240	6,531	1,082	6,059	11,842	60,902	14,164	73,492
1952	1,784	8,283	895	4,412	12,673	64,764	15,352	77,459
1953	1,849	9,028	839	4,109	13,390	73,636	16,078	86,773
1954	1,847	9,023	838	4,106	12,336	67,465	15,021	80,594
1955	1,803	9,020	832	4,081	11,497	63,264	14,132	76,365

출처: 경기도, 『경기도지』, 1956.
비고: 작성기준은 1951~1954년이 12월 말, 1955년이 9월 말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는 계속해서 피난민이 늘어났는데,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피난민이 많았다. 그 이유는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기도 주민들과 함께 서울·북한 지역으로 돌아가려는 피난민이 경기도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유엔군들은 한강 유역으로 북상하려는 피난민들을 수원에 떨궈 놓기도 하였다.

부동(浮動)난민들이 수원으로의 집중률은 급작이 높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거중을 보게 된 원인은 한강 유역으로 북상하려는 부동난민을 그동안 유엔군이 자동차로 수원에다 실어온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원시와 수원서에서는 주로 작전상 지장을 이유로 하는 유엔군 측의 엄한 요청도 있고 또다시 자체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식량을 주지 못했으니까 작금부터는 부동난민의 식량급신청을 일시 접수치 않기로 된데 비추어 피난민은 좌우 간 수시 내에서 떠나 달라는 권고문을 기 시와 서의 연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¹³

수원시적여구위

SUWON

수원



방화수류정 부근 피난민(수원박물관 제공)

전선(戰線)이 변경될 때마다 피난민 이동금지선이 새로 조정되었는데, 전선이 교착상태에 머무르자, 피난민들의 한강 도강은 금지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피난민은 생계를 이어 나갈 방법이 많지 않았다. 1952년 정부와 유엔군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피난민 대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임시 피난 생활이 아니라 피난민을 정착시키는 방침을 세웠다.

수원시 피난민의 수는 1953년까지 증가하다가 1954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다. 1954년 11월 17일 그동안 군정이 관할하던 연천군과 포천군 일부 지역이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이곳 주민의 복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복귀가 불가능한 월남피난민이 많았기 때문에 1955년에도 6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수원에 잔류하고 있었다. 전라도나 경상도로 피난했던 미수복지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갈 욕심으로 계속 북상하였는데 특히 수원이나 광주로의 이동이 많았다.¹⁵

월남민들도 대체로 고향인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근접성과 먼저 수원에 정착한 가족 친척이 있어 수원에 정착하게 된 경우가 다수였다. 전황이 교



공설운동장 자리에 위치한 피난민촌(수원박물관 제공)

착상대에 빠지면서 '피난민촌'이라 불리는 월남민 정착촌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화흥문이 피난민 수용소처럼 되어 나날이 변모되어 가고 있으나 그들을 내보내자면 주택지를
알선하여 주어야 하겠는데 예산관계로 속수무책이며 경기도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부기
관에서 지시 있기를 기다릴 뿐이다.¹⁶

정부는 임시 막사를 지어 월남민끼리 살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월
남 피난민과 남한 내 피난민이라 할지라도 복귀가 어려운 피난민들이 오랫동안 피난생활을 할 것이므
로 주택알선과 직업소개 등 현 거주지에서 정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¹⁷



Shelters in Suwon Late 1952

세류동 피난민촌(수원박물관 제공)

시내 영화동 피난민 집단수용소는 한미육군본부로부터 동 지점에 고급부관학교를 신축하기로
되어 오는 20일까지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도에서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9
일 민사처(CAC) 당국과 절충한 결과 450여 세대 중 이주 불가능한 83세대에 대하여 1세대
당 구호목재 300「보르프-트」의 무상 배부하여 줄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다.¹⁸

수원의 경우 유엔의 원조 자재로 반항구적인 간이주택 200호와 월동수용
소(越冬收容所) 40호를 수원 시내에 건축하여 피난민을 수용하였다. 1955년 현재 수원에 국제연합한
국지원단(UNKRA) 원조 자재로 지어진 9평(77동) 내지 12평(123동) 규모의 재건축택 200호가 있었는
데, 영화동에 50동, 지동에 20동, 고등동에 22동, 세류동에 44동, 교동에 22동, 매산로1가에 24동, 매산

로3가에 18동이 할당되었다.¹⁸ 이 지역은 수원 내에서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피난민 정착지였다. 그리고 국제연합한국지원단(UNKRA)의 무상원조 자재로 국민후생주택(國民厚生住宅)을 건축하였는데 수원시에는 1952년에 220호, 1953년에 350호가 건축되었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피난민 정착촌은 연무동 193번지 일대(옛 공설운동장 자리), 영화동 127번지와 293번지 일대, 남수동 11번지 일대(과부촌), 지동 306~309번지 일대, 세류동 244~246번지 일대, 고등동 267~268번지 일대(육교마을), 매산로1가 57번지 일대 등이었다. 특히 남수동 11번지에는 1954년 3월 31일 강원피난민 피난정착사업장이 설립되었으며, 1955년 12월 현재 83세대 46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난민 정착촌은 대체로 국가나 수원시에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곳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였기 때문에 정부의 피난민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피난민 주거지로 활용될 수 있었다.

피난민촌 동산마을과 육교마을의 생활

수원 피난민 정착지는 수원화성 주변과 수원역 일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무동·영화동·남수동·영동·지동이 수원화성 권역이라면, 고등동·교동·매산동·세류동은 수원역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수원역 바로 앞인 매산로1가와 고등동 경계에 형성된 육교마을과 동산마을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와 연관이 깊은 곳이다.

동산(東山)마을은 매산로1가 19~24번지(1910년대 매산리 141~144번지와 148~149번지) 일대를 가리킨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작은 동산이 있어서 '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미쓰비시 기업에서 운영하던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래한 이름이다. 동산은 미쓰비시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 1834~1885)의 호이다. 이와사키 야타로의 장남이자 미쓰비시 그룹의 3대 총수 이와사키 하시야(岩崎久彌)는 1910년대 매산리에 18필지 3만 3,969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산리 148번지(매산로1가 19-1)에는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사무소가 있었다.

'동산'이라는 명칭은 해방 후에도 사용되었는데, 동산공민학교와 동산정미소 등이 그것이다. 동산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사람들에게 기초 교육

수원
SUWON
수원



1947년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동산농사주식회사 부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을 실시하기 위하여 1953년에 교장 김상집이 설립하였다.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동산정미소(매산로1가 2)는 1965년 현재 건물규모가 1,024㎡(310평)에 종업원 인원도 100명으로 수원에서 가장 큰 정미소였다.²⁰

동산공민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난민촌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55년 현재 3명의 교원이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학생은 총 280명(남자 138명, 여자 142명)이었으며, 이미 1회 졸업생 70명을 배출하였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자리 거기에 동산초등학교가 있었다. 정신이 깨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하는 곳이었다. 정확한 명칭은 동산공민학교였다. 그 당시 부모가 억척스러운 교육열을 지니고 있으면 아이가 학령을 초과해도 학교에 보냈으나, 나의 부모는 좀 달랐다. 하지만 나의 경우 철이 좀 들었었다. 스스로 학교를 다녔는데,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다들 담배도 피우고 하는 어른들이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 점심때는 미군이 보급하는 우유 가루를 가져다가 찌꺼기나 식사대용으로 큰 가마솥에 끓여 한 컵씩 나누어 주곤 했다. 지금은 우유를 먹으나, 그때만 해도 말린 건우유를 가져다가 물에 부어서 끓여 먹었다. 교장도 나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불량 학생들을 데려다가 한 자라도 주입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하지만 그마저도 없어졌다.²¹

1953~1955년 수원 피난민 정착촌 주변에 5개의 공민학교가 설립되었다. 1955년 현재 매산로1가에 동산공민학교(280명 재학), 지동 4번지에 동광공민학교(450명), 교동 2번지에 수원공민학교(428명), 서둔동 209번지에 서둔공민학교(110명), 세류동 62-2번지에 세류공민학교(126명)가 운영되고 있었다.

동산마을 인근에는 육교마을이라는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육교마을은 국도 42호선과 경부철도가 교차하는 부근인 고등동 267~268번지 일대에 형성된 마을로, 경부철도 위로 지나는 수원-인천 간 국도 42호선 도로가 육교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촌인 육교마을이 형성되던 상황은 『농촌교회 60년사』(2010년)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농천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인 서울농대의 이태현 교수가 주도하여 1950년 4월에 세운 교회이다. 이태현 교수는 적산 처리를 담당하는 신한공사에서 근무하던

수원시정여고원

SUWON

수원학연구산



농천교회가 불하받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 건물(수원박물관 제공)

친구 강주홍 소장을 통해 일제시기 일본인회사 농장 건물과 대지 등을 불하받아 교회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1·4후퇴 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교회 건물에 피난민 40~50명이 살고 있었다.

이태현 장로는 다시 신한공사 강주홍 씨와 교섭하여 옛날의 육교주유소(현재 도로) 자리에 건물 38.3평과 대지 413평, 사택 건평 33평과 대지 138평을 불하받았다. 이 건물은 농장관리 사무실로 지어진 것으로 예배장소는 부적당하여 당시 수원에서 유명한 오모(吳某) 목수를 시켜 개조하였다. ... 1951년 1·4후퇴 시 피난을 갔다 전세가 바뀌어 수원으로 돌아오니 교회 건물 바닥을 파고 피난민 40~50여 명이 웅거하며 살고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 비워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피난민 대표들에게 저녁을 먹고 캐나다 선교부에 의뢰해서 전세를 얻을 돈을 나눠 주면 설득해서 이들을 내보냈다.²²

농천교회가 불하받은 건물과 교회 부지는 고등동 268번지(268-6, 268-8)



매산양곡시장(현 역전시장)

에 소재하였다. 이곳은 1910년대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국무합명회사 농장이 있었던 곳으로, 1940년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피난민촌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 50~60가구였던 육교마을은 100호가 넘을 정도로 마을이 커졌는데, 육교마을 주민 10명 중 1명이 농천교회 교인이었다고 한다. 농천교회는 전후 복구사업과 난민 구호사업을 위해 미국에서 보내 온 물자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²³

육교마을에 관장집을 짓고 정착한 피난민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방팔방 어디를 찾아봐도 일할 데가 없었다. 하다못해 뚝 지계를 지고 싶어도 그걸 퍼 달라는 사람이 없었다.”²⁴ 하루 품삯을 받는 일용직도 얻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나마 피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시장 부근에 노점을 차리는 것이었다. 수원역 바로 앞에는 1948년에 설립된 매산양곡시장(현 역전시장)이 있었는데 이곳 노점은 고등동·매산동·세류동 일대의 피난민들로 채워졌다.

육교마을에서 30년을 살았던 피난민 한금택(1943년생)은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한다. “일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목숨 걸고 도둑질을 일삼았다.”고 하면서 “훔치지 않으면 굶어야 했다.”고 그 시절 삶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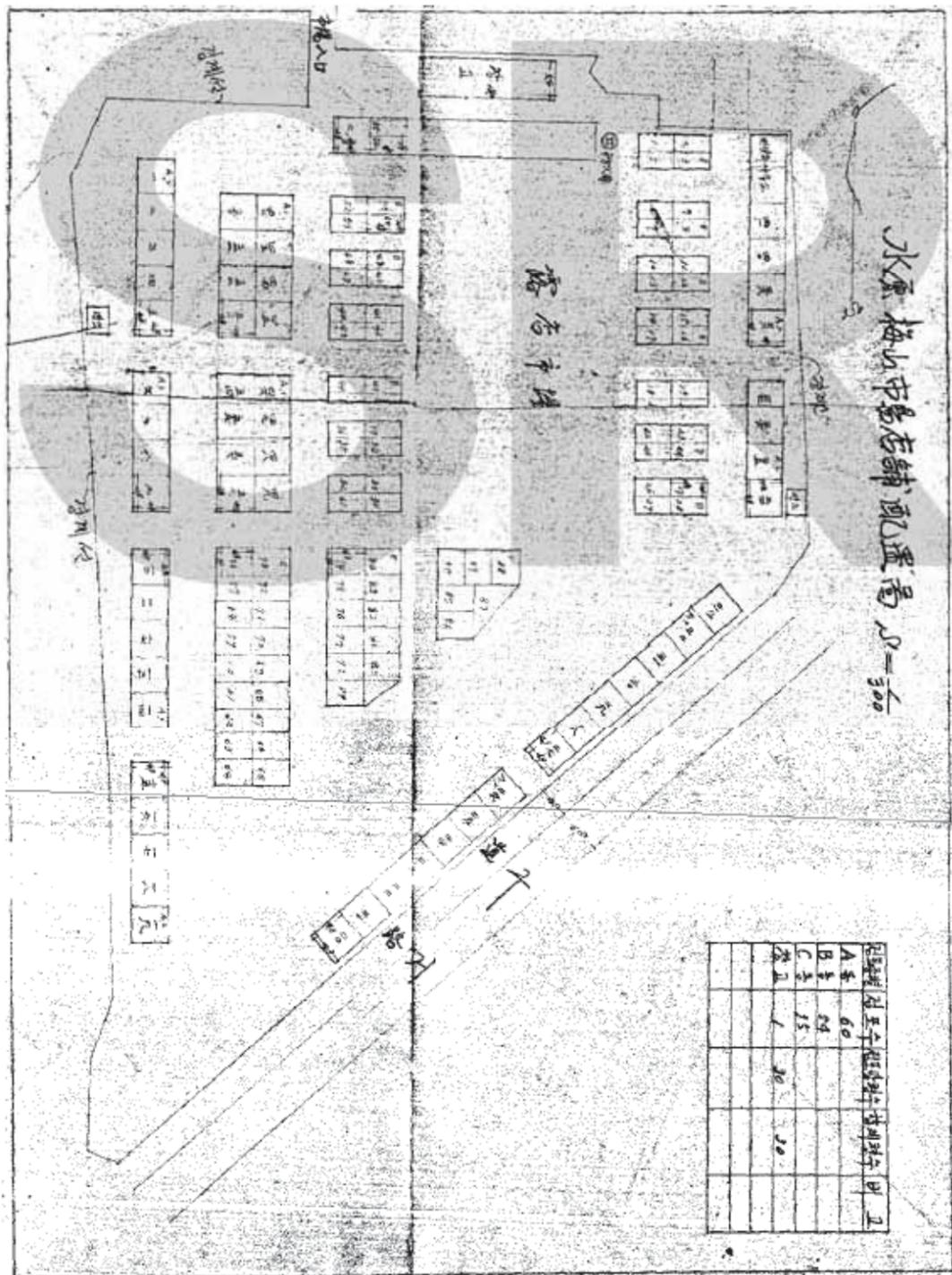
한금택 먹고살기 힘들다는 게 어느 정도나 하면, 지금은 젊은 아이들이 유학비를 벌기 위해 강도질, 도둑질을 일삼지만 그 당시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였고 모두가 이해하던 터라 암묵리에 용인이 되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다. 나쁜 것이라는 생각도 미처 하지 못했다. 그저 배고프니까 먹을 게 보이면 집어먹고 그런 것 정도로 생각되었다.²⁵

마을 입구에는 미군 보급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가서 물품을 서리해 오곤 했다고 한다. 또한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근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주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1950년대 이미 성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는 갈탄이라는 것과 연탄, 무연탄이라는 것이 있었다. 무연탄이 원조이고, 그걸 가공한 게 연탄, 그것보다 조금 작는데 열량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 갈탄이다. 갈탄은 각 가정에서 연탄을 물에 갠 후 진흙을 섞어서 만들었다. 말린 갈탄을 그냥 넣으면 막히니까 쇠꼬챙이로 구멍을 만든 후 그걸 난로에 넣어 연료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했고, 그걸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차역에 가서 훔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 기차역에는 화물 열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무연탄 같은 거를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그 기차 칸에 구멍을 내서 연탄을 훔친 거니까, 말하자면 도둑질이었다.²⁶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걸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엔 먹는 것만 해결되어도 괜찮았다. 옷이 필요 없을뿐더러 있지도 않았다. 신발 같은 것도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그걸 구멍이 나면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얀 고무신은 호사스러운 사치품일 뿐이었다. 양말도 구멍이 나면 꿰매서 신기를 반복하였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육교마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랬다.²⁷

피난민 생활의 고단함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피난민촌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구두닦이였다.



매산양곡시장 배치도(수원시청 제공)

수원

SUWON

수원



1954년 수원역 일대 피난민촌(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한금택 : 나는 주로 시내에서 (구두닦이를) 했는데, 역전에서도 많이들 했다.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렵다 보니 먹는 게 우선적 과제였고,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다. 피난민촌이라는 특성상 더욱 심했을 것이다. 나 또한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이야 못 배운 농보다 배운 농들이 더 많지만, 그때만 해도 배운 농보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 시절이니 뭐를 더 말하겠는가. 가장 변화한 데 가서 구두닦이를 했는데, 구획이라는 게 있었다. 그렇다 보니 구두를 닦으면서 돈 좀 벌여 놓으면 힘센 농들이 와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뺏기기도 많이 뺏겼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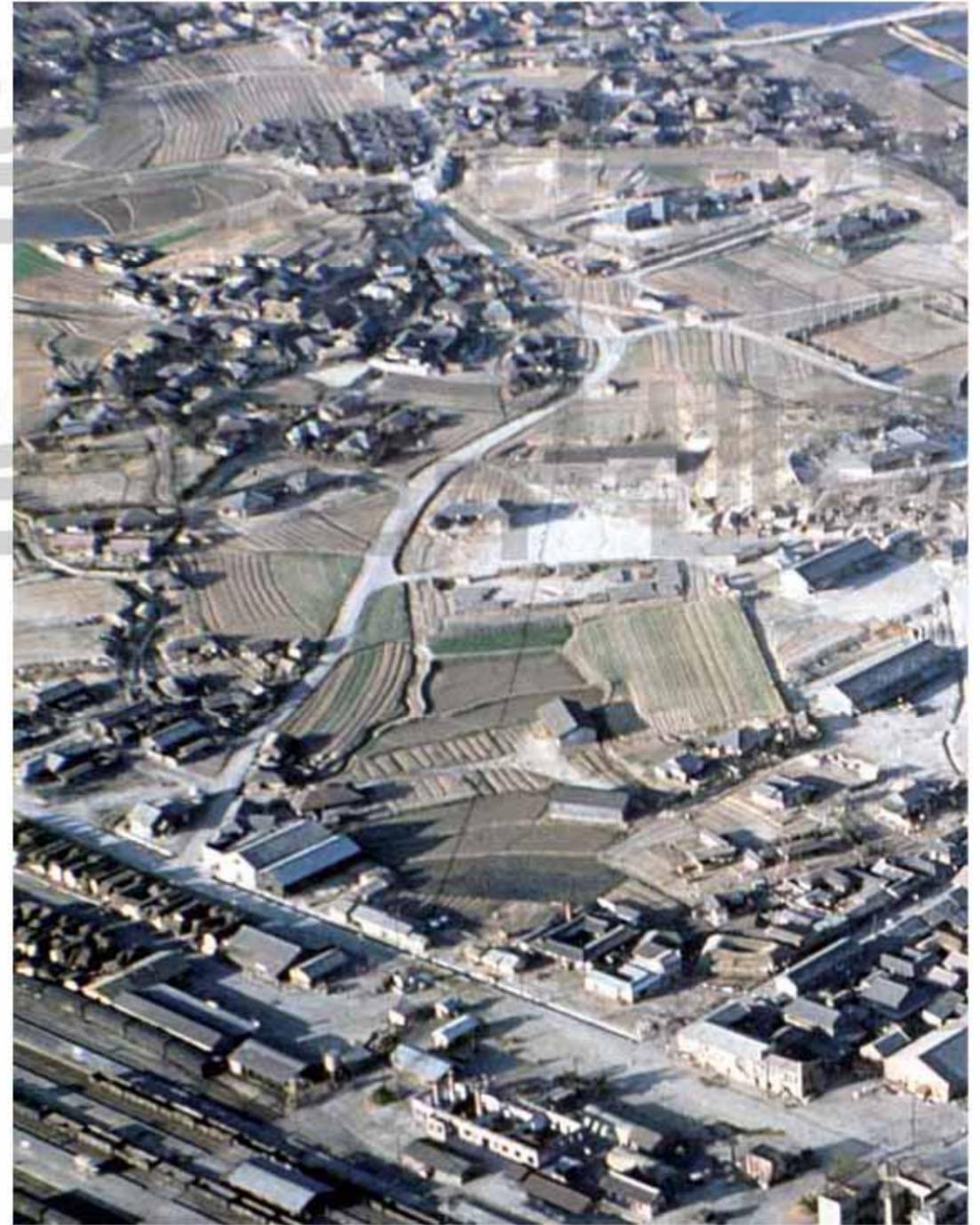
구두닦이도 구획이 있었는데 목이 좋은 곳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수원 시내에서 구두닦이를 하며 돈을 벌려고 해도 나름 '황재한 놈'한테 가서 구두를 닦아야 하는데,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역전은 그곳 나름대로 다른 구두닦이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역을 넘나들면 집단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구두닦이를 해서 돈을 좀 벌면 이를 노리는 '진달'들에게 뺏기곤 하였다.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고 그 과정이 참으로 비참했다고 한다.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사람이 악다구니가 생기더라. 좋은 말로 말하면 강해지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악해지는 거."²⁹라며 일찍 철들 수밖에 없는 피난민촌 아이들의 각박한 성장 과정을 말하였다.

한국전쟁 후 피난민, 전쟁미망인, 고아 등 삶의 기반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원역 주변으로 밀려들어 왔다. 한국사회와 수원 지역사회는 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방안과 여력이 없었고, 이들이 성매매와 절도, 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일상과 삶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범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수원

SUWON

수원



한국전쟁 직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바로 앞에 미군 보급창고와 군부대 막사가 보인다.
1950년대에 이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

- 1 『동아일보』 1946년 3월 10일.
- 2 『경향신문』 1949년 8월 17일.
- 3 『경향신문』 1949년 2월 22일.
- 4 『동아일보』 1949년 1월 15일.
- 5 「경기(京畿)출신 귀환용사」, 『서울신문』 1953년 10월 31일.
- 6 「倫落女性二百名 一線서 後方으로」, 『경향신문』 1952년 8월 31일.
- 7 「55名을 救出 水原署管内私娼」, 『조선일보』 1955년 12월 30일.
- 8 「私娼을 集團收容 水原署서 構想」, 『경향신문』 1956년 5월 30일.
- 9 수원시, 『시세일람』, 1956. 1955년 현재 수원시 관내 고아원과 양로원은 다음과 같다. 성피독보육원(교동 2, 1946), 양카라학원(서문동 45, 1950), 경동원(고동동 13, 1952), 수원보육원(고동동 95, 1953), 자유동원(팔달로2가 4, 1951), 중앙재생원(팔달로1가 88, 1952), 해광원(남창동 134, 1952), 수원육영원(메향동 34, 1952), 동광원(남수동 100, 1953), 삼일애육원(복수동, 1953), 감천장(영화동 15, 1954).
- 10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 11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42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 12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24~325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 13 「유동 피난민 수원체류는 금지, 시경(市警) 양 당국 금명 離水 권고」, 『조선일보』 1951년 5월 26일.
- 14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15~316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 15 『조선일보』 1952년 12월 1일.
- 16 「버림받는 문화재, 피난민들의 기거(起居)로 파손일로(破損一略)」, 『서울신문』, 1953년 10월 13일.
- 17 『연합신문』 1952년 4월 14일.
- 18 「피난민 철거에 CAC서 목재 분배」, 『경향신문』 1954년 9월 18일.
- 19 수원시, 『시세일람』, 1956.
- 20 수원시, 『수원도시계획보고 기본자료조사서』, 1965.
- 21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동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3쪽.
- 22 농천교회, 『농천교회 60년사』, 2010, 90~92쪽.
- 23 농천교회, 『농천교회 60년사』, 2010, 107~108쪽.
- 24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동동지』, 수원박물관, 2012, 117쪽.
- 25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동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5~106쪽.
- 26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동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6쪽.
- 27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동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6쪽.
- 28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동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4쪽.
- 29 「육교다리 마을과 함께 한 삶」, 『고동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4쪽.

수원시지정연구추진위원회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활성화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0~1980년대 수원역 일대 도시 변천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수원도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산업화의 핵심 지역인 서울이 비대해지자, 산업·교통·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울의 기능을 수도권으로 분산시켜 나갔고 안양과 수원 등의 위성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서울시의 팽창과 위성도시의 성립으로 양 지역 간의 교통망이 대거 확충될 필요성이 커졌다. 경부고속도로는 경부선 철도와 함께 서울과 수원 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더욱 확대되면서 그 중간 거점으로 수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는 수원역 일대의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음도 주목된다. 즉 수원의 서부에 해당하는 수원역에서 멀리 떨어진 동부 지역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고 북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면서 수원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동차 교통이 확대되면서 철도역 중심의 수원역 일대는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72년 수려선이 폐선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1968년 한 신문은 “한국의 심장인 서울의 도로망은 이제 폭주하는 교통량과 포화상태의 인구를 포용하기에는 벽찬 실정으로 도로의 확장, 신설 등 도로망의 재정비가 불가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1년 수원여왕장이 조성되기 전 수원역전 학교로 인구(수원박물관 지점)



1971년 수원역 부근의 경기도청과 수원시청(경기도청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1968년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 개통(경기도청 제공)



1974년 8월 14일 수원역에 정차한 수도권 전철(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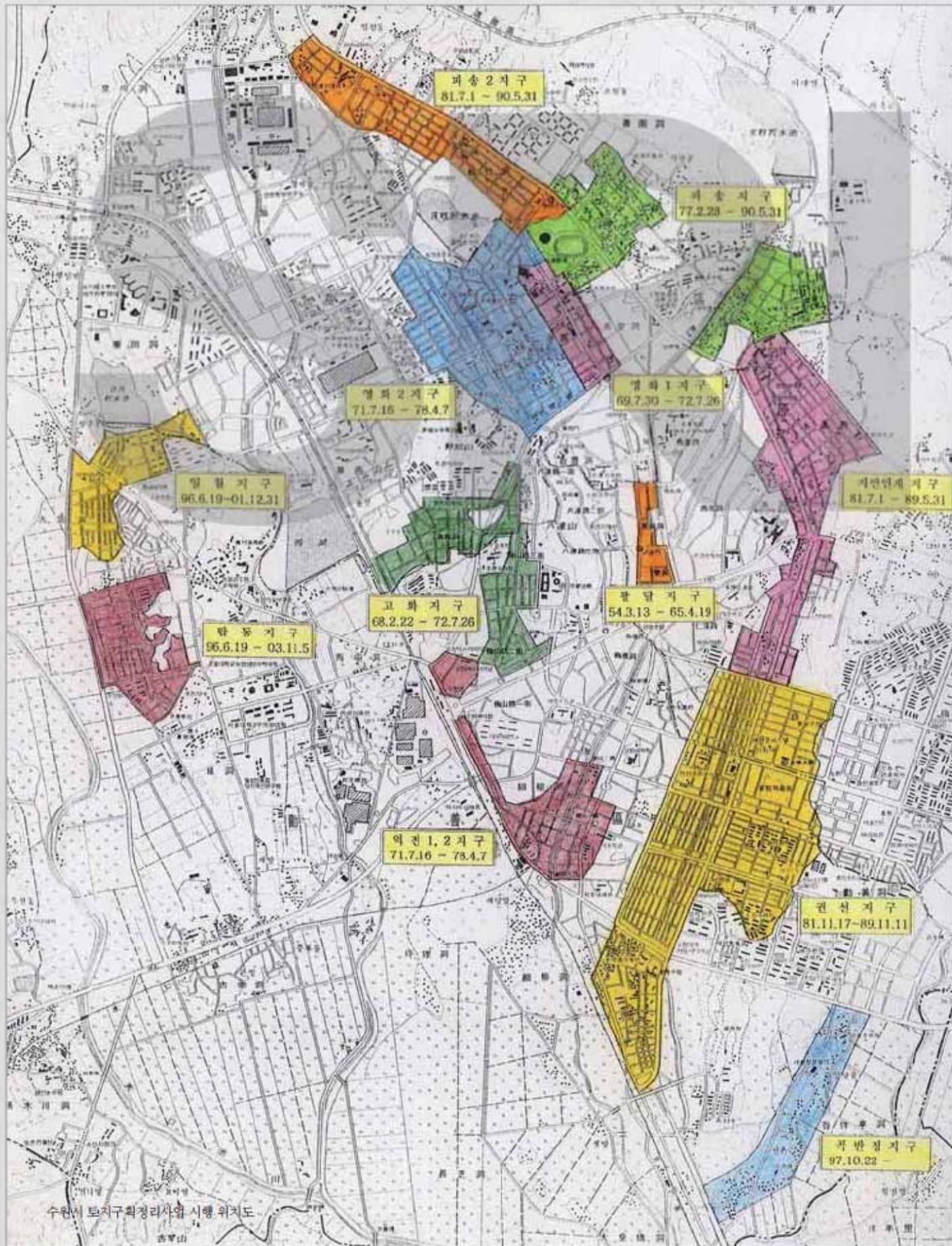
한 단계"라고 규정하였다. 서울의 팽창이 간선 도로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북으로 의정부, 남으로 수원, 동으로 광주, 서편으로 인천을 꼽았다.¹ 그렇다고 철도교통이 갑자기 약화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수도권전철의 부설이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의 개발계획이 점점 더 빈번하게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 건설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경수, 경인 축이 개발의 양대 축으로 설정되었다.²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전철화 사업이 가시화된다. 1970년 10월 정부는 서울 인근의 철도망을 전철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서울-수원 간 전철화 사업이 본격화된다.³ 서울과 수원 간 이동시간이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렸으나 1974년 수도권전철이 개통되면 50분이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원에서 서울 어느 곳이나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⁴ 실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전철을 통한 이동인구는 평일 3만 2,000~3만 7,000명, 휴일 5만~7만 명이 되었다.⁵

1960~1980년대 매산로와 향교로를 따라 고등동 및 고동에는 관공서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동수원이 개발되기 전까지 수원역 동쪽에는 경기도청, 수원시청, 수원세무서, 수원소방서, 수원전화국, 전매청, 농협 등과 같은 여러 기관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수원역 서쪽인 서둔동에는 농촌진흥청이 위치하였는데 6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었다.

수원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정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자 대기업이 대거 입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연초제조장, 선경합섬과 한일합섬,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필립스전자 등의 기업체가 유지되었다. 특히 수원역 주변에는 대한방직과 대한통운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산업체들이 있었다. 섬유 및 전자 산업 분야의 대기업이 입지하게 되고 더불어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도시 발달과 도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가지 개발의 절대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1979년 말까지 신규 사업지가 지속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업들은 1980년대까지 시가지 정비와 신규 택지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960~1970년대에 수원시는 고화지구, 영화1-2지구, 역전1-2지구, 파송지구 등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중 고화지구와 역전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원역 일대인 매산로1-2가, 고등동, 화서동, 세류동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 1970년대 수원역 일대의 기관과 사업체



〈표 1〉 수원역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사업지구	위치	면적(m ²)	시행기간
고화지구	매산로1가, 매산로2가, 고등동, 화서동 각 일부	705,115.7	1968. 2. 22.~1972. 7. 26.
역전1·2지구	세류동, 고등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각 일부	718,906.5	1971. 7. 16.~1978. 4. 7.

1960~1980년대 수원시는 교통, 산업, 도시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인구집중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인구집중도는 경기도 내 인구가 어느 정도 집중되었나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인구집중도는 1971년 5.09%를 보였으나 1987년 약 2배가 증가한 9.52%, 1990년 12.7%를 보였다.

수원시역사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버스터미널의 설치와 터미널 상권의 특성

경인고속도로(1968년)와 경부고속도로(1970년)의 완공을 계기로 전국의 교통망이 도로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도로교통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와 시설이 정비되었는데, 자동차터미널도 그중 하나였다. 수원시도 기존에 운영되던 버스여객자동차 전용정류장과 공용정류장 4개소를 1972년에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 정류장은 수원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설치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인가되었기 때문에 1976년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이 개장되기 직전인 1976년 7월 인가가 취소되었다.

〈표 2〉 1972~1976년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현황

번호	정류장	소재지	대표자	인가일
1	버스 수원공용정류장(하행)	신공동 305-24	이재기	1972년 5월 17일
2	버스 수원공용정류장(상행)	팔달로1가 11-10		
3	수원영업소(인천직행)	팔달로1가 11-5	태화상운 김옥련 용일여객 이예자	1972년 5월 1일
4	서울-수원 간 직행버스 정류장	팔달로3가 29-4	경남여객 남령우 신원여객 안영락	1972년 5월 1일
5	수원-이천 직행버스 정류장	중동 30	경남여객 남령우	1972년 5월 6일



1972~1976년 시외버스정류장(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정류장들이 남문 일대 정자로 옆에 설치되어 있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남시외버스공용정류장(매산로1가 57-69번지) 위치와 시설 배치 계획도

수원시는 수원시외버스공용터미널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갔다. 우선 수원시는 1973년 1월 26일 시 소유지인 매산로1가 57-69번지(821평)를 정류장 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후 같은 해 10월 30일 터미널 설립 의사가 있던 허정운에게 매각하였다. 그러나 허정운은 1974년 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정류장 설치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자, 정류장 예정부지 821평 중 1/2을 윤용렬에게 매각하였다. 그 후 윤용렬은 1974년 12월 정류장 면허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1971년 제정)에서 정한 설비 및 부지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이를 반려하였다. 윤용렬은 애초에 수원시가 자동차공용정류장 면적으로 821평을 고시하여 시유지를 불하하였으므로, 설비 부지 기준미달의 책임이 수원시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수원시는 자동차정류장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고시된 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에 1개소를 추가로 고시하여 도합 2개소의 정류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개소 중 역전시장 바로 옆인 매산로1가 57-69번지에 설립될 정류장은 수원남시외버스공용정류장으로 불렸다. 또한 추가로 정류장 부지로 선정된 곳은 역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인 매산로1가 2-8번지(현 매산로1가 23번지)로, 이 정류장은 수원북시의



1976년 수원시의외버스터미널 공사현장과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수원박물관 제공)

버스공용정류장으로 불렀다.

〈표 3〉 1975년 수원시의외버스공용정류장 인가 과정

구분	일자	내용
정류장 제2지역 결정고시(제265호)	1975년 8월 12일	위치 매산로1가 2-8 면적 2,746평(9,061㎡)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행승인	1975년 10월 27일	위치 매산로1가 57-69 시행사 윤응렬
	1975년 10월 30일	위치 매산로1가 2-8 시행사 남도산업주식회사 조정환
버스여객자동차 공용정류장 사업면허	1975년 11월 19일	면허취득자 제1지역 윤응렬 제2지역 조정환
버스여객자동차 공용정류장 공사시행인가	1975년 11월 20일	면허취득자 제1지역 윤응렬 제2지역 조정환



1976년 10월 11일 수원시의외버스공용정류장(매산로1가 2-8) 개장식(수원박물관 제공)

그러나 수원남시의외버스공용정류장은 정류장 부지 추가 매입이 늦어져 건
축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1976년 9월 최종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맨 처음 정류
장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던 지역인 매산로1가 57-69번지에는 터미널이 설치되지 못하였다.

수원북시의외버스공용정류장은 남도산업주식회사 조정환이 사업면허를 얻
어 공사를 추진하였다. 1976년 7월에 제출한 공사변경 인가신청서를 통해 정류장 시설의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데, 대합실, 정류장소, 승강장, 주차장, 사무실, 배차실, 경비실, 유도로차를 갖추었다.



1979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시설(수원박물관 제공)

〈표 4〉 1976년 수원북시외버스공용정류장 시설 공사변경 내역

(단위 : 평)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합실	148,5	221,2	증 72,7
정류장소	139,1	248,2	증 109,1
승강장	131,4	229,7	증 98,3
주차장	1,234,6	752,4	감 482,2
사무실	26,5	70,2	증 43,7
배차실	8,2	15,5	증 7,3
경비실	4,5	11,8	증 7,3
유도차로	155,9	325,6	증 169,7
계	1,848,7	1,874,6	증 25,9

수원시외버스공용정류장은 1976년 10월 11일 개장하였는데, 설립 당시에는 1일 평균 버스 운행횟수가 530회였으나 1990년에는 1,800여 대의 대형버스들이 1만 8,000~2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게 되었다.⁶ 이렇듯 수많은 유동인구들이 밀집하면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일대는 수원역의 새로운 상권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수원역 상권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상권은 1905년 수원역 설치 이후 향교로와 매산로를 따라 형성된 가로형 상권으로, 이곳은 관공서와 금융기관, 인쇄업, 음식업, 건축업 등 규모가 큰 중심적인 시설과 업종들이 자리하였다. 두 번째 상권은 역전시장과 매산시장 일대로, 이 상권은 피난민과 이촌향도민 등 유입인구의 증가로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역전시장은 1948년 '매산양곡공설시장'으로 개설되었으며, 일용·잡화류를 판매하였다. 원래 매산시장으로 불리던 역전시장은 1969년 9월 시장 건물 안 점주들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때 '수원역을 앞에 둔 시장'이라는 뜻으로 '역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종합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수원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 좌판과 판자집 형태로 시작한 역전시장은 설립 37년 만인 1985년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1969년 법인화한 역전시장에 속하지 않은 노점과 상점들은 계속 매산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세 번째 상권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일대로, 1980년대 이후 소비 유흥문화의 성장과 함께 숙박업과 유흥업 등이 번성하였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술집, 유흥주점, 포장마차, 카바레, 성인오락실 등의 업소들이 자리하게 되었는데, 1978년에 이미 하행선 입구 주변으로 불법 건물과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수원시가 시내 한복판에 조성한 체비지를 7년째 방치해 두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곳에 불법으로 고정식 포장집을 짓고 전기 상수도 보일러 시설까지 갖춘 채 버섯이 영을 하고 있어 체비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지역은 수원시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하행선 입구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쳐 이곳을 찾는 외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⁷

1978년 역전지구를 구획정리한 후 대부분의 토지는 매각되었으나 이 중 터미널 입구인 역전지구 7블록 551㎡의 체비지는 감정가격이 너무 높아 입찰 때마다 번번이 유찰되어 방치되었다. 빈 땅이 생기자 1978년 가을부터 이 일대에 포장마차가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1984년 현재 40여 채의 불법 포장건물이 들어서 무허가 전자오락실, 술집 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였다.⁸



1978년 수원시외버스종합정류장 하행선 입구에 들어선 무허가 유흥업소(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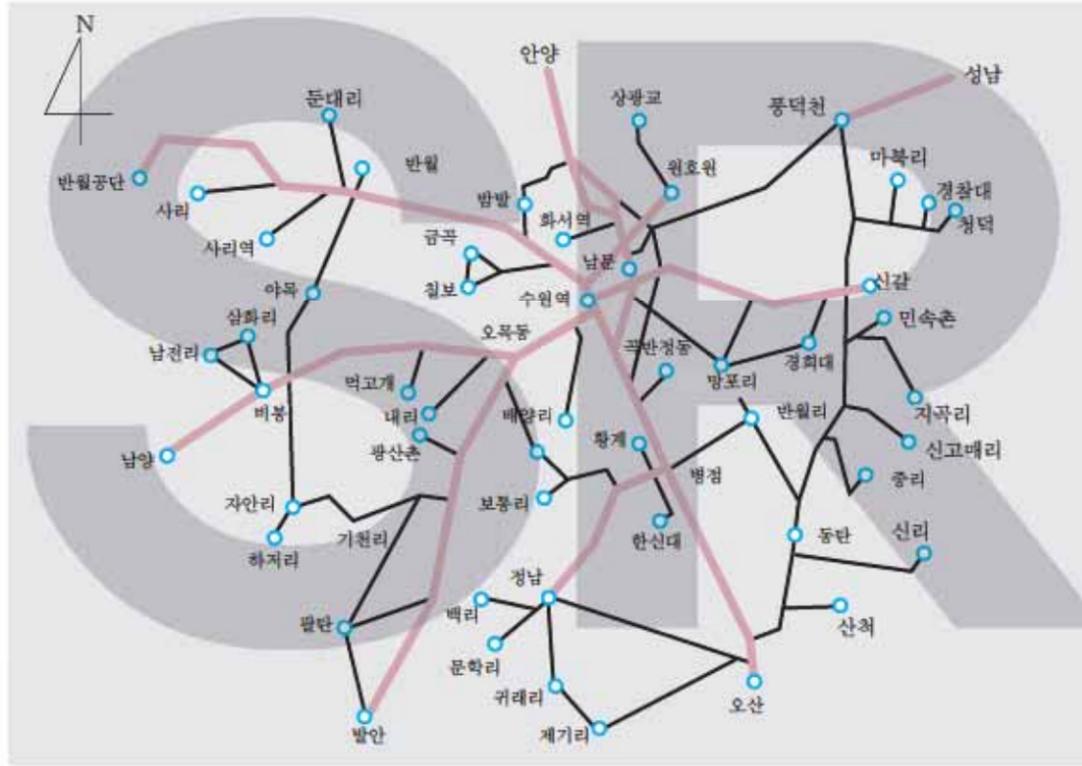


1980년 수원시외버스종합정류장 하행선 입구에 들어선 건축물(경인일보사 제공)

수원
SUWON
수원



1985년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가 들어선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상권(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대 수원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버스 노선망

매산동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의 상당수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밀집되었다. 1979년에 78개였던 매산동 숙박업소는 1985년 127개소였다가 1991년에 153개(수원시 숙박업소 528개소의 30%)로 최대로 증가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터미널 주변에 건축된 건물들의 대다수가 숙박시설, 식당, 다방, 주점 등으로 사용되었다.

서울, 용인, 오산, 인천, 성남, 남양 방면으로 향하는 6개의 외곽도로가 있는데 이들 연결점이 모두 수원역 일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기 남부권 주민들은 시외 버스를 타고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수도권전철 수원역을 이용할 수 있었다. 수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매산로 반경 500미터 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990년에 이르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하루 평균 20만 명에 달하였다.

수원버스터미널의 또 다른 승객은 수원 일대에 설립된 지방캠퍼스를 오가는 대학생들이었다. 서울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들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추

수원
SUWON
수원



1985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수원역과 주변 대학을 오가는 버스(수원박물관 제공)

진되었다. 수원 관내에는 서울대 농대(1906년), 성균관대학교 자연대캠퍼스(1975년), 아주대학교(1976년), 동남보건전문대(1976년), 경기대학교(1978년), 세무전문대학(1981년), 수원여자전문대(1984년), 합동신학대학(1984년) 등이 설립되었고,¹⁰ 용인과 화성에 설립된 경희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수원대학교의 학생들도 수원을 거쳐 통학하였다. 지방캠퍼스 중심으로 대학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서울로부터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수원 주변 대학의 학생들은 통학을 위해 수원역과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였다.

1980년대는 소득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행락철 또는 주말이 되면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나가는 것이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수원의 푸른지대와 원천유원지, 용인의 자연농원과 민속촌은 인기 있는 행락지로 손꼽

수원전철역에서 터미널 방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역 앞 명보극장과 자연농원 야간개방 홍보물이 보인다



수원시정역사

SUWON RESEARCH

수원시정역사

했는데, 이곳을 찾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수원역과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였고, 터미널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¹¹

매산동 일대에는 1980년대에 아카데미극장(1957년 매산극장 설립, 1974년 개칭), 서라벌극장(1984년), 명보극장(1984년), 피카디리(1985년) 등 4개의 재개봉관이 운영되었다. 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아카데미극장은 1976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근 거리에 생기면서 불황이 없었다고 한다. 변두리 재개봉관은 영화산업의 위축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가며 10~20대 젊은 하층노동자를 상대로 나름의 호황을 누렸다.

아카데미극장도 그중 하나였으며, 하류극장이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했던 장소였다.¹²

수원역과 터미널이 가까운 장소에 문을 연 피카디리, 명보, 서라벌극장은 다른 지역에서 온 타지인들이 차 시간을 기다리는 중간에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였다. 또한싼 입장료는 주머니가 가벼운 관람객에게 극장을 찾는 요인이기도 했다. 한창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사복을 입은 고등학생들과 고단한 하루살이 육체노동자들은 갑자기 열린 심야시간에 한층 검열이 완화된 에로영화의 남성판타지라는 마취제를 맞고 기이한 자유를 함께 공유하였다. 간혹 자극적인 영화를 주로 취급했던 소극장들은 에로영화인 줄 알고서 예술영화들을 종종 끼워 넣기도 했다.¹³

경기 남부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 수원역(수원전철역)과 수원시외버스 터미널은 인접해 있어 환승은 편리하였지만 엄청난 교통량을 발생시키고 혼잡을 가중시켰다. 이에 교통난 해소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터미널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일부 노선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전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⁴ 더구나 3,000평밖에 되지 않는 터미널 시설은 이용객의 증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90년 11월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수원시의



수원역 일대 극장



1991년 화성과 평택 방면 시외버스(수원박물관 제공)



1993년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수원시외버스터미널(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수원



1993년 터미널 이전 추진설명회(수원박물관 제공)

버스터미널을 1992년 권선동으로 이전하기로 했다.¹⁵ 그러나 사업은 곧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1995년에 권선동 1189번 일대 1만 6,000여 평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 그 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주)남도산업의 지배주인 태일정밀이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1999년까지 완공하려던 계획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¹⁶ 버스터미널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01년 10월 14일에 이르러 이전할 수 있었다. 이로써 수원역 교통체계의 한 축이었던 매산로1가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활성화

피난민촌으로 형성되었던 매산로1가 동산마을과 고등동 육교마을은 1960년대에 이촌향도민의 유입으로 마을이 더욱 확장되면서 두 경계가 사라져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다. 일제시기 동산농사주식회사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경부철도주식회사 소유였던 동산마을과 육교마을의 토지는 1950년대 적산으로 처리되어 점차 민간에 불하되었다. 1960년대가 되면 육교마을의 고등동 267번지는 136필지, 268번지는 55필지로 분할될 정도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어 정착하였고, 고등동 253~260번지와 매산로1가 철도관사 부지 부근까지 민가들이 뻗뻗하게 자리하였다.

육교마을과 동산마을 주민들은 토지를 불하받고 살 집을 마련하여 정착 기반을 만들어 갔다. 비록 초가집이었지만 살 집을 마련한 마을 사람들은 수원역 부근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하숙집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1961년 수원역 철도여객 운수 상황을 보면 연간 승차 인원은 59만 5,091명, 하차 인원은 95만 5,591명으로 승하차 총인원은 155만 683명이었다. 즉 1일 평균 4,248명의 승하차 인원이 수원역을 이용하였다.¹⁷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수원역에 도착한 승객은 역 주변에서 숙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수원역 일대는 숙박업이 성행하였다.

(1960년대) 수원 시내에 호텔이라는 것은 없었고, 숙박업 중에서 여관이 가장 상위의 숙박시설이고, 그 아래 여인숙이 있고, 또 그 밑에 하숙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숙은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내부시설이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문 안에서는 하숙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수원역 근처에서 오다가다 간판만 보았다. 아마도 완행열차에서 내린 가난한 사람들이 묵고 갔을 것이 분명하다. 처음 시내로 들어와 하숙이라는 간판을 보았을 때 나는 그곳이 학생들이 하숙하는 집으로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전혀 그러한 집이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¹⁸

1960년대 수원에서 운영되던 숙박시설은 여관, 여인숙, 하숙이었다. 하숙의 경우 성 안에는 거의 없고 수원역 근처에 많았는데, 완행열차에서 내린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하숙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투숙객 중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숙박업소는 성매매도 알선하였다. 또한 숙박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1963년 육교마을(유입지역) 일대(사진제공:지평)



1966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포주들도 있었다.

투숙한 손님이 여자를 요청하여 불러 왔는데 ... 각 숙박업소마다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는 곳이 없었고,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을 은밀하게 보호하며 공급하는 이른바 포주업도 여러 군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⁹

하지만 숙박비보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는 이익이 커지면서 수원역 주변 무허가 하숙집들은 성매매에 더 주력하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을 직접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수원역 앞에서 호객해서 영업하였고, 성매매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성매매업소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1960년대에 육교마을 일대에 집촌화된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되

수원시정연구회



1960년대 운영되던 수원역 앞 머관파 술집(1971년, 수원박물관 제공)

기에 이른다.

경제 성장과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성매매를 가속시켰다.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전국의 사창과 기지촌을 없앨 수는 없었다. 정부는 성매매 지역을 일반인 거주지역과 유리시킨다는 목적으로 1962년 전국에 104개소의 특정 윤락지역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성매매를 방조하고 성매매집결지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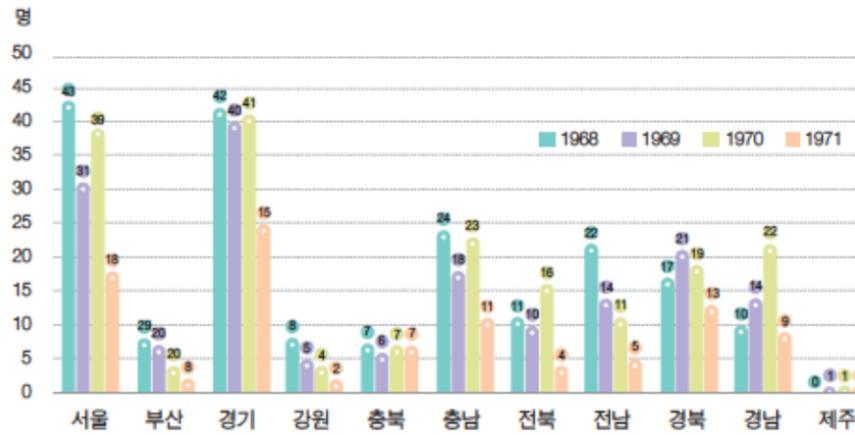
1962년 경기도에서는 61개소가 특정 윤락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68년에는 91개소로 늘어나면서 마약, 퇴폐풍조, 미군부대에서 유출되어 나온 음란영상물 반입 등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1967년 7월 수원시를 시범케이스로 지정하고 적선지대를 철폐하고 정화시키려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1월 1일부로 다시 적선지대로 환원해 그동안의 선도사업 성과는 헛수고로 그치고 말았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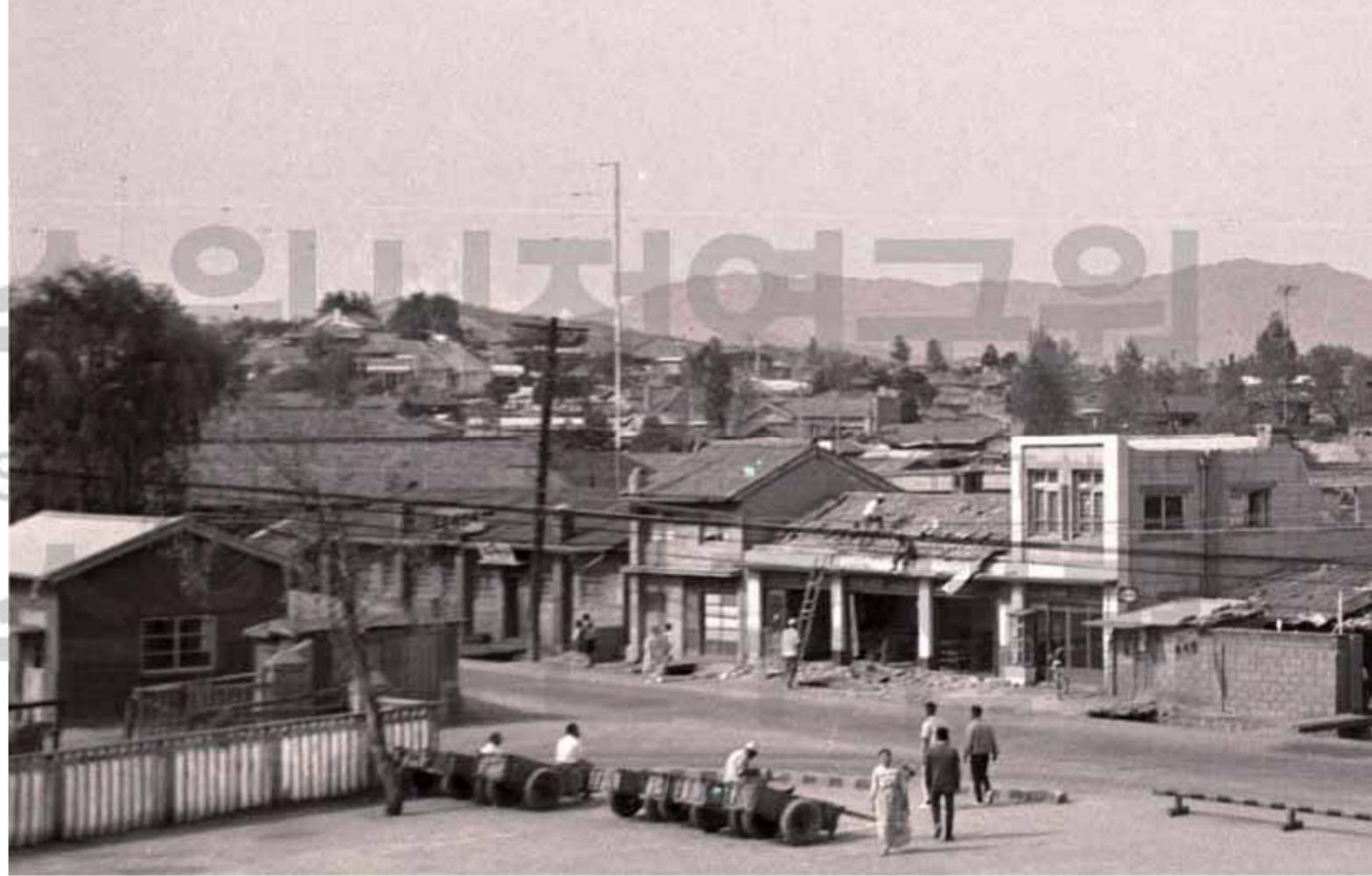
1968-1971년 수원 성매매 여성의 연령별 분포(『수원통계연보』)



1968-1971년 수원 성매매 여성의 교육 정도(『수원통계연보』)



1968-1971년 수원 성매매 여성의 성장지역(『수원통계연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입구(1971년, 수원박물관 제공)

1960년대 후반 수원 관내 성매매업소가 밀집된 곳은 매산동, 구천동, 세류동, 영화동이었는데, 성매매 여성은 1968년 192명, 1969년 167명, 1970년 187명, 1971년 97명이 등록되어 있었다.²¹

한편 1970년대 육교마을은 수원역 일대 도로 정비와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간구조가 변화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71년 육교-역전 간 도로(현 덕영대로) 확장공사로 도로 폭이 30미터로 넓혀지고 수원역광장이 조성되었다. 이 공사로 성매매집결지의 외곽에 해당하는 매산로1가 8번지에 있었던 주택들이 철거되었다. 둘째, 1972년에 수원역고-육교 간 도로(현 팔달로)가 신설되었다.²² 이 도로(현 팔달로)는 육교마을을 가로지르며 건설되었는데, 이는 육교마을을 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팔달로 북쪽에 놓은 육교마을은 계속 주거지로 유지되었으나, 팔달로 남쪽은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결국 수원역성매매집결지로 전락하였다. 셋째, 1971년 7월 16일



1971년 육교-역전 간 도로(현 덕영대로) 확장과 수원역광장 조성공사(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역광장 분수대(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수원여고-육교 간 도로(현 팔달로) 건설공사(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수원



수원여고-육교 간 도로(현 팔달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뉜 육교마을(1981년, 경기도청 제공)



1975년 수원여고-육교 간 도로(현 팔달로, 수원박물관 제공)



1981년 수원여고-육교 간 도로(현 팔달로)와 성매매집결지(경기도청 제공)



197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인 역전지구(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
SUWON
수원



1987년 수원역과 성매매집결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81년 수원전철역 매표소(수원박물관 제공)



1981년 승객들로 혼잡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상행선 출입구(현 갓매산로,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수원



1992년 수원전철역 앞 교통(수원박물관 제공)

부터 1978년 4월 7일까지 시행된 역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육교마을이 포함됨에 따라 농경지와 대지, 도로 등이 혼재되어 있던 지역이 정비되었다. 이로써 성매매집결지의 내부 이면도로(덕영대로895번길, 갓매산로, 향교로1번길, 향교로3번길, 팔달로 10번길)와 공간구조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거지역 1만 8,000㎡는 상업지역으로 조정되었다.

1970년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수도권전철의 개통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수원고속버스터미널 설치, 상업지역 지정 등을 통해 성장하였다. 특히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바로 옆에 설치됨으로써 성매매집결지는 수원역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수원역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유동인구는 성매매집결지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수도권전철 개통과 시외버스터미널 설치의 수원역 일대 성매매업소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1974년 수원시에 성병검진 대상으로 등록된 성매매 여성은 167명이었으나, 1975년 307명, 1976년 457명, 1977년 576명으로 나타나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²³ 시 전체에 해당하는 수치라 수원역 일대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수도권전철 개통(1974년)과 버스터미널 개장(1976년) 시기와 맞물려 성매매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차량으로 흐르던 수원시의 비스듬한 상행선 출입구 (원 것대산로, 수원리글방 복귀)



1983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경관(수원박물관 제공)
골목길을 따라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골목길은 2021년 도로 개설공사(소로3-1757호선)로 사라졌다.
1978년까지 화성군교육청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산정카바레와 삼정식당, 수석다방이 영업하고 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터미널이 있을 때 가장 호황을 이루었는데, 1970년대 중반 성매매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업소가 20여 개소였으나 1980년대가 되면 40~50개에 이르게 되었다. 주요 구매자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군인, 학생, 노동자층이었지만, 대기업 직원들과 자영업자, 시장 상인, 공무원 등 '굵직굵직한 손님'들도 많았다.

업주 E 그때 터미널 있을 때는 손님이 많았죠. 엄청 많았죠. 돈을 많이 벌었지.

연담자 그러니까. 수원역 쪽하고 터미널 쪽 있었으면 어느 쪽이 좀 더 그런 거(성매매 영업)에 영향을 줬어요?

업주 D 터미널이 아무래도 더 저기였죠.

업주 E 터미널 있을 때는 손님들이 뭐 그냥, 사실 금·토 같은 날은 줄을 섰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또 영향이 컸던 거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있을 때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때 삼성전자 직원들이 카드가 좋았잖아요. 카드가 빵빵했잖아요. 금·토만 되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여기 깔렸었어 진짜. 그래 갖고 저 뭐야 카드로 한 이백 삼백씩 긁어 두고 아가씨랑 있고 그랬어. 옛날에 카드가 좋았었어.

연담자 카드도 긁어 드려요 여기서?

업주 E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카드깡도 해 주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소주방을 했었다 그러면 그 사와 하면서 그냥 쓰고 그랬었으니까. 깡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없어지면서 그런 굵직굵직한 손님들도 많이 없어지고, 일반 사람들만 이렇게 오고 많이 변한 거지.

1980년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업소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숙박업소 형태의 성매매업소로, 상가형 건물에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업소와 일반 주택에 여관·여인숙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업소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성매매 여성들이 기거하면서 성매매를 하거나 주변 술집이나 여관에 기거하는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였다. 둘째는 후미진 지역에 작고 허름한 판잣집이나 무허가 건물 형태의 성매매업소이다.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골목길 뒤쪽에 위치하며 나이 든 고령 여성이 생계를 위해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방을 빌려 주고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내에서

수원

SUWON

수원



1983년 성매매집결지 골목(메산로1가 114-21번지 부근, 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성매매집결지 골목(메산로1가 111-12번지 부근, 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매산로1가 111-21) 호객행위(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수원



1985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매산로1가 10-9번지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매산로1가 111-19, 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매산로1가 11-7번지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1987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방향(수원박물관 제공)



1987년 수원역 역전시장 부근(수원박물관 제공)

술 접대, 춤, 스트립쇼 등과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이다. 술값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술이 제공되지 않는 업소들도 있다. 술이나 음식보다는 성매매가 주된 영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술집, 음식점과는 구별된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은 수원역 일대의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각종 유흥업소들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시기이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5·18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3S정책'(Screen, Sports, Sex)을 펼쳐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요구를 다른 것으로 돌리려 하였다. 이에 1982년 1월 6일부터 야간통행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는데, 1945년 9월 8일 미군정의 서울과 인천 지역에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킨 지 36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에 통금 때문에 야간에 귀가를 서둘러야 했던 상황이 사라지고, 늦은

밤까지 술집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 유흥업소인 나이트클럽과 카바레가 새로 개장을 하였는데, 수원역 주변에는 맘모스성인나이트클럽, 꽃마차카바레(매산로1가 14-8, 1983년 2월 28일 인가), 삼정카바레(매산로1가 111-2, 1983년 2월 26일 인가), 낙원카바레(매산로1가 57), 노송카바레(매산로1가 11-10, 서라벌극장 5층) 등이 네온사인을 깜빡이며 사람들을 불러들였다.²⁴ 성매매업소도 통금이 있던 시기에는 보통 5-6시에 영업을 시작하여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였지만 밤 10-11시면 자고 갈 손님 받고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통금이 해제된 이후에는 영업이 가능한 시간이 늘어났고 2교대도 가능하였다.

이 시기에는 성매매 공간도 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사우나, 호텔, 스탠드바, 룸살롱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소비 증대와 유흥문화 확산으로 성매매를 통한 이득이 커지고 성 산업이 급격하



수원역성매매집결지와 관련된 인신매매조직 검거기사(『경향신문』 1988년 12월 7일)
 인신매매조직 검거기사임에도 인신매매범보다 피해자인 여성을 범죄자처럼 다루고 있다.

게 팽창되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성매매' 수요만큼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창출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즉 여성들을 유인·납치하여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조직이 활개를 쳤는데, 인신매매 조직은 광고를 통해 부녀자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역과 터미널 부근 유흥가, 심지어는 주택가까지 침투하여 귀갓길의 여학생과 부녀자를 납치하였다. 결국 1980년대 후반 인신매매는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수원시정규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업주 E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진짜로 인신매매 같이 그런 것도 있었겠지. 그리고 선 불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아가씨들 아침에 영업 딱 끝나잖아 새벽에 5시, 6시 끝나면, 아가씨들 줄 꼭 서 갖고, 포주라고 누군가 같이 해 갖고 목욕탕 같이 가고 그랬어요. 도망갈까 봐, 도망간다고.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그랬거든. 도망갈까 봐. 옛날에는 이런 데 옛날에는 빗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빗을 떠안은 사람들이.

업주 D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저의 집을 예를 들면, 뭐 인신매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아가씨가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동서방이라 그러나요? 기동서방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동서방들이 인제 닳지를 보고 여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업주 E 아가씨들 돈 번 거 돈 들어먹고 살았던 거죠. 한 마디로 옛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창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나 그 영화 봤는데 진짜 비슷하게 잘 만들었더라고.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내가 보기엔 누가 그거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연답자 현장조사해 가지고 한 것 같다고?

업주 E 맞아. 진짜 그랬어. 그리고 이제 뭐 그 여자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 아니면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야, 뭐 이번에 청량리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수원역 성매매업소 중에도 인신매매조직과 관련된 업주가 있었는데, 1988년 12월 검경합동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었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인신매매업자들은 용산, 청량리, 수원역전과 시외버스 주차장, 심야다방 등에서 16명의 소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쇠파이프 등으로 협박, 윤락가에 팔아넘기고 옷돈을 붙여 전매하는가 하면 화대를 가로채 왔다는 것이다.²⁵

정영두(47) 씨는 함께 구속된 정병현 씨(28) 등 전문납치꾼 7명을 고용, 지난 10월 16일 새벽 2시경 충남 온양의 수경장 여관 종업원 정모양(16), 김모양(19) 등 2명을 "술 한 잔 하자."고 꾀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에 태워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1가 14-16 삼화여인숙에 데려가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지금까지 28명을 납치,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 가운데 월 평균 3,000여 만 원씩을 가로채 왔다는 것²⁶

지난 5일 인신매매조직 수사에 나선 검경합동수사대에 고양이 갈혀 있던 여인숙을 덮치자 포주 정영두 씨(47)는 북부경찰서 오광선 순경에게 “나는 2년 전 징역 2년을 산 적이 있으니 동생을 대신 입건해 달라.”며 현금 8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2장 등 1천 만 원의 뇌물을 선뜻 건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씨는 담당검사에게 태연히 1억 원의 뇌물을 제의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포주 정씨는 핫바리꾼들이 납치해 온 20여 명의 윤락녀를 고용, 이틀로부터 월평균 2천여 만 원의 화대를 뜯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생 혼두 씨(40) 등 3형제는 같은 업소포주로 일해 왔다는 것²⁷

이 기사에서 구속된 업주는 자신 대신 동생을 입건해 달라며 태연히 경찰과 검사에게 뇌물 제공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미 구속 경험이 있는 업주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대신 구속하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실제 이런 일은 종종 벌어졌다. 대리 징역살이는 경찰이 묵인해 주어야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뇌물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것이다.

성매매업소를 오랫동안 운영한 업주는 수많은 단속을 겪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일도 잦았다. 이에 단속과 징벌에 대처하는 방안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 대리 징역살이도 있었다. 성매매집결지는 폐쇄적인 곳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쉽게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대개 친인척관계로 얽혀 있었다. 이런 친분관계는 업소 운영과 성매매집결지 관리와 단속·징벌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용이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었고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수원경찰서 관할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서 벌어지는 폭력·마약·치안문제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을 예방·처리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나, 파출소의 적은 인력으로 수원역 일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사고를 일일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성매매집결지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업주에게 맡겨 관리하는 일종의 ‘위임 관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즉 성매매 업주 중 한 명이 파출소의 방법대장으로 위촉되어 성매매집결지를 관리하였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까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파출소 운영비를 감당했을 만큼 경찰과 성매매 업주들의 유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수원시정원구원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업주 D (아버지가) 민정당 때 방법 활동도 하셨고 이 동네에서 파워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저의 아버지는 본토 사람이고 ... 저의 아버지가 여기 거의 힘이 되게 좋으셨어요. 절으셨을 때, 방법대 대장하시고 막 이러면서 지구대 사람들하고도 파출소 사람들하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파출소 사람들하고 형님 동생 하고 방법대원 하시면서, 형님 동생 하고 술도 먹고, ... 원래 여기에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못 했어요. 골목에서 이 바깥으로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저의 아버지가 저기(반대) 하나까는. 그랬다가 저의 아버지한테 조율을 봐서 오케이를 해 갖고 아가씨들이 나와서 양분화가 된 거예요. 저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다 커트만 했으면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다.

또한 수원역이 개발의 기점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이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 폭력조직들은 수원역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 왔다. 1972년 11월에는 수원역과 그 부근의 유흥업소를 무대로 활동한 ‘갈비파’란 이름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보도되었다.²⁸ 1992년 2월에도 매산로·고등동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로 ‘역전파’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 수원역 일대의 조직폭력배 문제는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문파’, ‘역전파’, ‘Y파’ 등 이름을 달리하면서 조직폭력배는 끊임없이 나타났다.²⁹

수원지검 강력부는 21일 유흥업소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어 온 한광현(21, 교동 187), 신길현(남수동 55) 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인범(26, 매교동)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한씨 등은 지난 89년 6월 수원역 주변의 폭력배들로 ‘역전’라는 폭력단체를 만든 뒤 수원시 매산로 고등동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월정금을 뜯어내고 안주 물수건 등을 강제로 팔아 온 혐의이다.³⁰

이렇듯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유지되는 데에는 여러 조건과 환경이 결합되어 있었다.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유입, 사회적 빈곤층 발생, 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할 경찰의 방조, 지역사회의 묵인, 성 구매자들의 성 인지 부족 등 수많은 요소들이 관계를 맺으며 집결지를 성장시켜 간 것이다.

주

- 1 『매일경제』 1968년 1월 8일.
- 2 『경향신문』 1970년 7월 29일.
- 3 『동아일보』 1970년 10월 22일.
- 4 『동아일보』 1972년 11월 14일.
- 5 양종섭, 「수원시의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21쪽.
- 6 박해진, 「용도경기를 이끌어 가는 심장-수원시」, 『도시순례』, 129쪽.
- 7 「포장집 짓고 버섯이 영업도 시대 체비지 7년째 방치」, 『매일경제』 1984년 2월 18일.
- 8 「포장집 짓고 버섯이 영업도 시대 체비지 7년째 방치」, 『매일경제』 1984년 2월 18일.
- 9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 10 수원시, 『70, 수원시 도시공간의 역사』, 2019, 392쪽.
- 11 「관광지 신문 황포 용인-서울 7천원 받아」, 『경향신문』 1977년 5월 6일.
- 12 김형아, 「매산동 소극장 전성시대」, 『매산동』, 2018, 487쪽.
- 13 김형아, 「매산동 소극장 전성시대」, 『매산동』, 2018, 495쪽.
- 14 「인파 차량 홍수로 복세동 짜증-수원시외버스터미널」, 『경향신문』 1988년 5월 23일.
- 15 「권선택지개발연내 착공. 시외버스터미널 등 32만여㎡」, 『매일경제』 1990년 11월 10일.
- 16 「경기 버스터미널 이전 곳곳서 차질. 수원-성남-안양 주민반대. 업체부도로」, 『동아일보』 1997년 10월 30일.
- 17 수원시, 『수원도시계획보고 기본자료조사서』, 1965, 54쪽.
- 18 조규윤, 『조규윤 자서전』, 92쪽.
- 19 조규윤, 『조규윤 자서전』, 105쪽.
- 20 『경인일보』 1968년 11월 4일.
- 21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71.
- 22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보고서』, 1965, 105쪽.
- 23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1977.

- 24 2000년대에는 한국라나이트(매산로1가 14-5번지, 1997년 4월 29일 인가), 한국관성인나이트(매산로1가 57-3, 2001년 2월 1일 인가), 타워콜라텍(구 터미널 앞, 터미널쇼펍타워 지하1층), 터미널콜라텍(터미널쇼펍타워 2층), 금마차콜라텍(역전시장 3층), 뉴서울콜라텍(매산로1가 57-3 역전상가) 등이 운영되었다.
- 25 「길가는 소녀 때려 실신시킨 뒤 매매·전매...인신매매 17명 영장」, 『동아일보』 1985년 3월 18일.
- 26 「부녀자 120명 납치 유흥가에 팔아넘겨 5파 11명 구속」, 『동아일보』 1988년 12월 7일.
- 27 「귀가길 주부·여중생 등 무차별 납치」, 『경향신문』 1988년 12월 7일.
- 28 『동아일보』 1972년 11월 27일. 검거된 사람은 홍광수(32, 매산로1가 20), 남궁택(28, 신풍동 21)이다.
- 29 1990년 11월 16일 수원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남문파 행동대원 김옥민, 역전파 두목 김도규, 복문파 행동대장 위재진 등이 구속되었다(『경향신문』 1990년 11월 16일). 1992년 2월 28일 폭력조직을 재규합해 유흥가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온 수원 역전파 행동대장 신범철 등 3개 파 25명을 붙잡아 폭력행위동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인들과(화성 송산) 장부환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 30 「유흥업소 금품갈취 폭력조직 7명 구속」, 『한겨레』 1992년 2월 22일.

SR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수원역 일대 도시공간의 쇠퇴와 재구조화

수원시정

SUWON RESEARCH

수원학

1980년대 후반 동수원 개발로 새로운 시가지와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수원역 일대의 역할은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원역 주변은 업무 중심지로서의 매력을 점차 상실해 갔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부터 수원역과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매산로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발달한 수원역 일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노후한 도시공간으로 변화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교동에 있었던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한 후 신청사 뒤편 블록으로 모텔과 유흥업소가 하나둘 영업을 개시하더니 이제는 인계동 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성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전국에서 가장 유흥업소가 밀집한 동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구역의 건물마다 유흥업소가 생겨났고 이 업소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다른 업종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청 뒤편 격자형으로 구획된 블록을 의미하는 '박스'와 멀티플렉스 CGV 건물 뒤편 사거리 일대를 가리키는 '무비사거리'에는 클럽과 헌팅 술집 등 다양한 유흥공간이 모여 있다.

또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전화방, 성인PC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의 성매매가 생기면서 성 산업이 발달하고 2000년 이후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 등 성매매의 매개역할을 하는 업종의 다양화에 성매매 장소도 특정지역 중심에서 일반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 2000년 수원역
2. 2000년 수원시청 일대 상업지역
3. 2018년 수원시청 뒤편 유흥업소



2000년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기 전 덕영대로895번길 상권(수원시청 제공)

이처럼 성매매 형태와 공간, 성문화가 다양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와 같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성매매업소는 점차 사양화(斜陽化)하였다. 특히 2001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성매매집결지를 찾던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폐쇄에 대한 여론이 지역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환경개선작업이 추진되었는데, 덕영대로 변에 있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들을 이면도로(지금의 덕영대로895번길) 주변으로 옮겨 보이지 않게 정비하였다. 이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 손님이 없어 폐업한 여관과 모텔 등의 숙박시설들이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로 개조되었다. 유리방은 성구매 남성들이 업소 안에 있는 여성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이 설치된 업소로, 유리문 안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고객행위를 하는 형태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는 1990년대 초중반에 유리방 형태의 업소가 등장하였으나 이 시기에 대거 확산되었는데, 단속이 강화되어 업소 밖에서 고객행위가 어려워지면서 성매매집결지에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양화하던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다시 한 번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었다. 수원역 일대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가 노후화하여 주택 임대료가 저렴하였다. 이에 일자리가 풍부한 안산·화성·평택 등으로 접근이 편하고, 주거



2002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와 폐쇄된 시외버스터미널

비도 저렴한 수원역 일대의 고등동과 매산동·세류동으로 많은 외국이 노동자와 조선족들이 유입되었다. 이에 수원역과 고등동 경계인 갓매산로와 고매로 주변으로는 외국인과 조선족 상권이 형성되었다. 또한 주말·명절에는 각 지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편한 수원역 주변에서 모임을 갖고 여가를 즐겼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는 새로운 성매매 수요로 다시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수원역 일대 도시공간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는다. 첫째, 민자를 유치하여 연면적 2만 500평, 부지 6,200평 규모의 새로운 수원역 건물이 2003년 2월에 준공되었다. 민자역사인 수원역에는 역무시설과 함께 백화점, 영화관, 편의시설 등의 복합물을 거느린 AK 플라자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던 원도심의 팔달문 상권을 뺏어 오는 데 성공하여 현재 수원시의 가장 큰 상권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둘째,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제조업 공장들이 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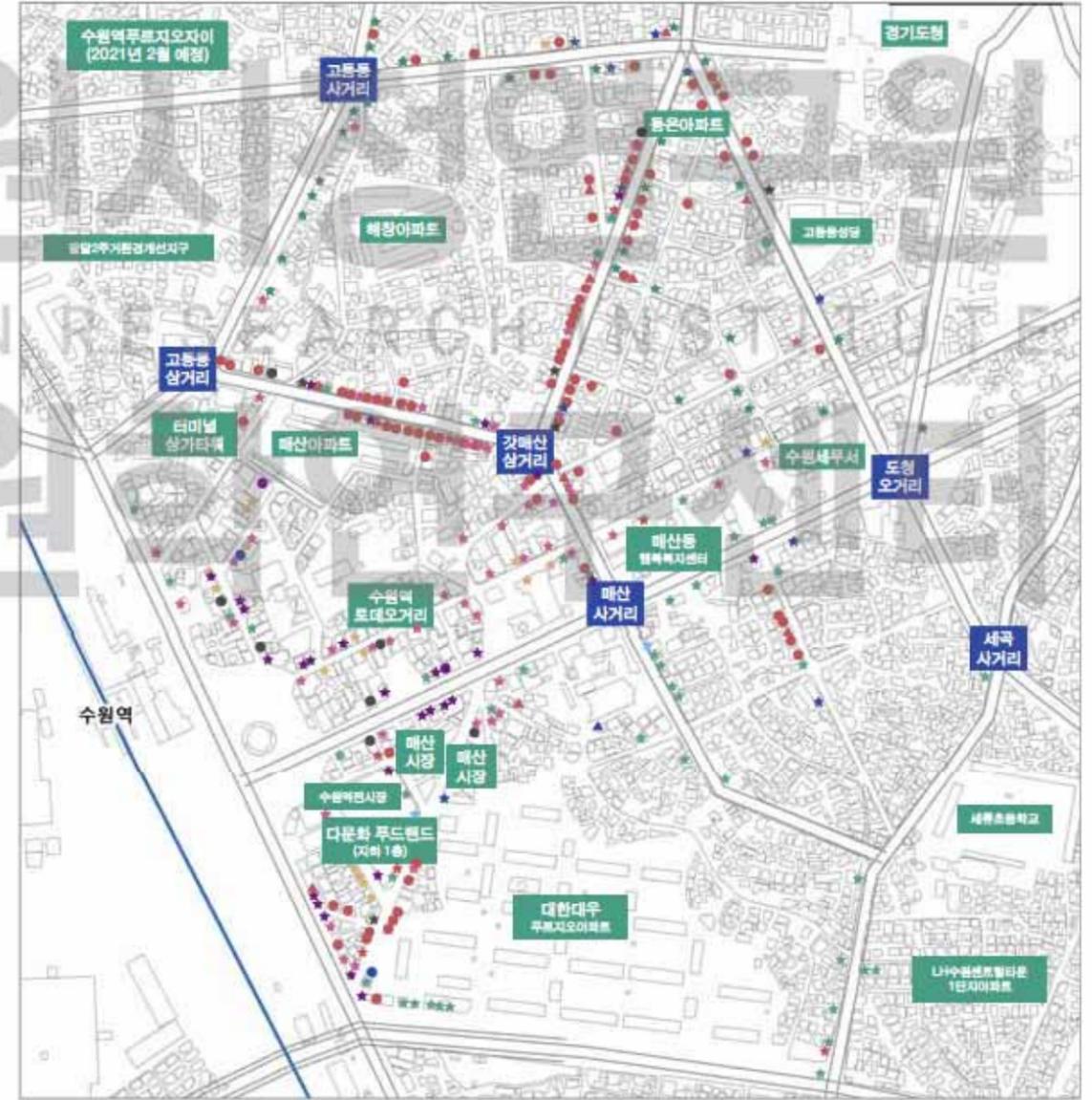
수원역을 이용하는 외국인



갯메산로 조선족 상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

SUWON



▲ 중국식품	▲ 외국음식재료 판매점	● 타이식당	● 인도&네팔식당	● 캄보디아식당
● 중국식당	● 베트남식당	● 공인중개사	★ 여행사(행정사)	★ 중국물류
★ 환전소	★ 비자번경학원(기술습득학원)	★ 게임장	★ 당구장	
★ 휴대폰 서비스점	★ 노래방			

수원역 주변 다문화거리와 업소(정수열 · 이정현, 「수원역민자역사준공」, 『100만 도시 성장기』, 2019, 222쪽)



신축된 수원역사(200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지고 이곳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왔다. 수원역 주변의 대표적 공장인 대한방직, 금강스레트, 연초제조창, 선경직물 등이 폐업한 후 공장 터에 고층 아파트와 대형 쇼핑센터(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KCC몰) 등이 건립되었다. 셋재, 고등동과 매산동 등의 노후화된 시가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고등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1만 2,365명(4,871가구)이 거주하는 신형 주거타운으로 탈바꿈되었다.

수원역 일대 도시공간이 재구조화되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가장 변화한 수원역 상업지역이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집결지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데에 모두 놀라곤 하였다. 더구나 2021년 2월 성매매집결지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하여 입주 시작되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집단민원은 행정 및 사법 당국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조속히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문제로 인식하게 하였다.



신축 중인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인근 아파트단지(이용장 제공)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노력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드러나는데 2001년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은 『수원일보』와의 면담에서 “수원역 주변의 유탁가 문제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꿈이 담긴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수원일보』 2001년 11월 26일), 언론을 통해 여론을 모아 적극적으로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2006년 성매매방지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당시 협의회는 형식적인 절차와 회의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활동은 지역 여성단체에서 2007년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정도였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민선 5~7기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의 관문 수원역은 하루 14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가 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전경(김승일 제공)

지만 성매매집결지가 아직 남아”있고, “더 이상 방치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의미가 없어 정비하기로 결심”하였다며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자활지원’이 공약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원시청의 각 부서에서는 집결지 정비와 관련해 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진행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자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수원시는 2016년 12월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민·관 합동으로 새로이

조직하였다. 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피해자 지원반(여성정책과장)과 정비 지원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도시재생과·교육청소년과 등 성매매 관련 부서, 수원서부경찰서·수원소방서·수원시교육지원청·성매매피해상담소·수원시여성문화공간·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 구성원의 각각 역할은 탈(脫)성매매 여성 지원대책 마련,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집결지 자진폐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세부추진방안 협의 및 기관별 진행상황 점검 등을 맡고 있다. 협의체의 단장을 맡은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 협의체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를 구축, 집결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관해 시민계획단에서 의견을 구하고, 집결지 내 토지 소유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정비사업의 방식으로 업종전환 유도, 중소기업, 전면 재개발 등을 고려하였다.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2014년 8월~2015년 2월)과 기본계획 용역(2015년 3월~2016년 5월)을 단계별로 시행하였다. 수원역세권 개발 축 분석 및 수원시 시책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을 통한 대안 검토하고, 사업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석해 Guide Line을 설정하고,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였다.

2014년에 실시한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문화중심형 계획안과 상업형 계획안으로 제시하였다. 전자는 중규모로 철거하여 문화기능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하는 개발방향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자원을 통해 지역을 상업적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후자는 전면 철거 후 중심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대형 상권으로 재생하는 거점개발의 효과를 둔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정비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기로 계획되었으나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공고되었고, 정비사업 소관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2부시장 산하 도시개발국에 속한 도시개발과로 이전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재개발과가 성매매집결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4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수원시청 포토뱅크 제공)



2017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회(수원시청 포토뱅크 제공)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SUWON REAL ESTATE TRANSACTION CONCENTRATION AREA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수원시는 2014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발표 후 본격적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사업용역 추진 이후 담당 부서별 과제가 설정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속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은 가장 큰 고민이었으며 우선적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성매매 피해자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립·자활로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방침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에 여러 차례 전문가와 관련 단체, 수원시의회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2015년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연대' 출범과 동시에 수원시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 계속되어 온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방안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020년 7월 10일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2020년 8월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현장상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원시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탈성매매 지원과 사회복귀 지원 절차 안내에 들어갔다. 그동안의 아웃리치 활동을 기반으로 2021년 2월 13명의 지원 신청자가 모였고 동월 19일 '제1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여성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현장상담소 팀장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자활지원 신청대상자 13명 중 지원 대상자 12명을 선정하고 선정 대상자별 관리방안, 개인 맞춤 프로그램 제안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 2월 자활지원 선정 대상자 12명을 시작으로 지원사업이 순탄하게 시작되는 듯하였으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전달되는 잘못된 정보들과 한집안의 가장으로 '성매매'를 업으로 버티어 온 이들의 경제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중도 포기 대상자 발생 등 지원 대상자는 10명으로 줄고 신규 신청자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시 자활 담당 부서에서는 직접 집결지 현장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5월 6일부터 11일까지의 집중 현장 홍보기간을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현장 홍보와 자활 신청 독려에 돌입하였다. 업소별 종사자 근무 시간을 파악하고 개인별 방문 상담 홍보를 통해 100여 명의 종사자들과 직접 상담에 들어갔다. 그 결과 5월 '제3회 자활지원위원회'에서는 20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게 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제37대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취임과 더불어 2021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맞춤형 치안에 대한 시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합하고자 '국민의 안전



2015년 성매매피해여성 인권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을 지키는 경기남부 경찰'을 약속하였다. 이에 60여 년간 묵인되었던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폐쇄 의지를 갖고, 집결지 폐쇄를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세부계획의 일부로 성매매 의지 차단을 위한 첩보 활동 중,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수원역성매매 여성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의 이송을 수원서부경찰서에 요청하여, 해당 사건을 배당받았다. 뒤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회복전담수사팀을 즉각 편성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종사하던 성매매 피해자 2명은 최근 1~2년간 집결지 내 모 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겼다고 2020년 10월 성매매 업주 C씨를 비롯한 가족 4명을 고소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된 해당 사건을 이례적으로 이첩받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2021년 3월 19일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문제의 업소와 피의자의 주거지 등 9곳을 압수 수색하였다.

압수수색을 통해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에서 현금 4,800여 만 원, 황금 열쇠 등 귀금속 64개(7,200만 원 상당), 영업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을 압수하였다. 특히 금융계

수원

SUWON

수원



2021년 3월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업소 압수 수색

좌 435개를 추적해 범죄 수익 128억 원을 확인하였는데 이 중 62억 원은 추정 보전으로 동결 조치하였다. 이들 가족은 1998년 모친으로부터 성매매업소 5곳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23년간 챙긴 불법수익이 12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피의자의 보유자산 등을 고려해 추정금을 62억 원으로 산정하고 기소 전 추정보전을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불법 수익 동결은 매우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성매매업주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업주가 수익을 늘리려고 휴무일을 제한하고, CCTV로 감시하며 몸이 아픈 날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혐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가족 5명 중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 사건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연시키려고 남아 있던 일부 성매매업주들에게 더 이상 성매매업을 지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확인한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합의하였다.



2021년 4월 15일 여성안심구역 지정 홍보캠페인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2021년 3월 31일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3년 경찰청에서 성범죄예방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든 이후 처음이다. 이는 수원역 주변 4,586가구에 달하는 고층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집결지를 지나쳐 가야 하는 고통 호소에 따른 대책으로, 집결지 일대를 여성안전취약지로 지정함으로써 방범시설물 설치, 집중 순찰 등의 중점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원천적인 수요를 차단하고 집결지에 다수의 경력을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늘릴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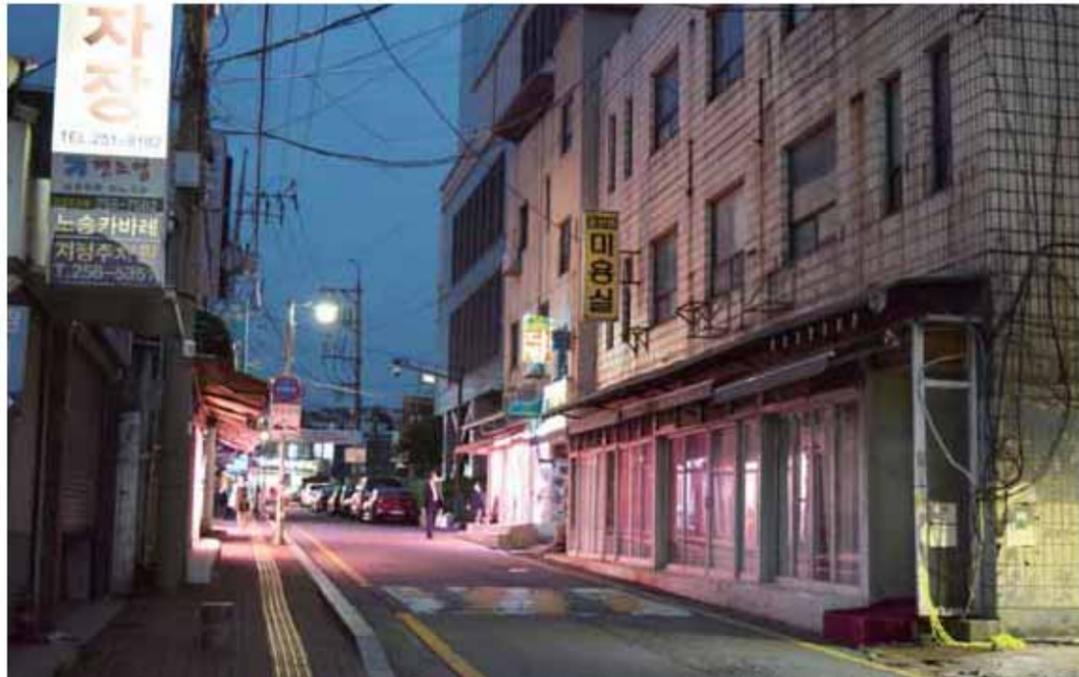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사물과 사람이 갖는 의미를 정의하고 구획한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성매매집결지가 어둠의 공간이고 두려움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집결지 속 폐쇄된 삶을 이어 온 이들에게는 보통의 사람들이 누려 온 일상이 두려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차근차근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여력을 모았다. 집결지 속 자리 잡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대상자 발굴을 위해 개개인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사항들을 바탕으로 매산동 맞

춤형 복지팀과 협의, 지원사항 등을 논의·결정하였다.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진행하고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는 이주 전 임시주거시설을 제공과 부식 등의 물품을 지원하여 바늘도 빠져 나가지 못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 수색에 이어 시에서는 수원시만의 히든카드를 꺼냈다. 성매매집결지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교육이다. 해당 법에 따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팔달구 종합민원과에서는 상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팔달구 매산동-고등동 일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총 137개소에 발송하고, 이 가운데 수원역성매매집결지와 근접해 있는 26개소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시 거래 당사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수원시 팔달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안등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내 보안등 전수조사에 나섰다. 스마트 보안등 관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안등 현황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주로 좁은 도로,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정비요청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철거·신설 등 변동사항이 많다. 기존 보안등 관제시스템은 PC로만 보안등 현황을 수정해야 해서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운 보안등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안등 정비작업을 한 후 현장에서 즉시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정비요청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안등 자재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또 도로조명 관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을 연동해 관리자가 보안등의 상태(정전·누전·이상 점등 등)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필요에 따른 원격 점·소등이 가능해졌다.

2021년 5월 31일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됨에 따라 성매매 구조의 변화로 인근 다방, 호프, 주점, 모텔 등의 식품·공중위생업소로 성매매가 유입되는 변종 성매매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업소들은 외부에서 영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시설 내 높은 칸막이 설치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시설 내 성매매나 소위 말하는 2차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집결지 인근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시 여성정책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해당일 집결지 인근 총 19개소 위생업소를 점검했고, 식품위생법 위



2021년 5월 31일 밤 성매매집결지(이용장 제공)

반·방역수칙 위반 등 위반사항 8건(6개소)을 적발하였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CCTV 설치는 2017년 '외국인 범죄예방사업'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그러나 집결지 종사자와 업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기초공사 및 CCTV 풀까지 설치하였으나 결국 철거하게 되었다. 사업의 목적이 외국인 범죄 예방이었으나 집결지 단속을 위한 CCTV라는 의혹 속에 반발과 집회가 계속되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새벽 6시 어둠을 가르고 모든 작업 인력을 한 번에 모았다. 사실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도 조용히 진행해 놓은 상태였다. CCTV 설치를 위한 현장 사전 답사를 마치고, 4월 초 CCTV기초공사를 비밀리에 완료하였다. 공사 당일에는 사업의 내용이 확인되는 폴대 작업과 카메라 설치, 후 공정에 속하는 전기·통신 연결 작업만 남아 있었다.

CCTV 설치 예정지 3곳 중 반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결지 중심지역 공사를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 서둘러 진행했지만 낮 12시가 다 되어서야 CCTV화면이 센터에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만 설치되면 나머지 두 곳은 일반 시민들도 통행하는 곳으로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역시나, 두 번째 수원역에서 집결지 입구 방향 설치공사를 시작하자 집결지 인근 업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항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폴대와 카메라 설치, 전기공사까지 마무리된 시점이라, 통신업체에 다음 날 통신망 개통을 요청하고 업주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기 전 철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고등지구 방향 CCTV 설치 예정지로 옮겨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였다. 퇴근시간이 가까워지자 교통량이 증가, 1개 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자 일대의 정체가 심해지고 자칫하면 수원역 주변 전체의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 현장 지원 중이던 남부경찰청 직원이 바로 본청으로 SOS를 쳤다. 즉각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출동했고, 수원역부터 화서역까지 6개 사거리의 신호등을 수동으로 작동하였다. 곧 정체가 풀렸고 작업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매산로1가 집결지 안과 밖에도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성매매 방지와 집결지 폐쇄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과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21년 5월 31일,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밤마다 밝혀졌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흥동의 불은 조용히 꺼져 갔다.

장교로1번길 34+1
가동 1층 102호 (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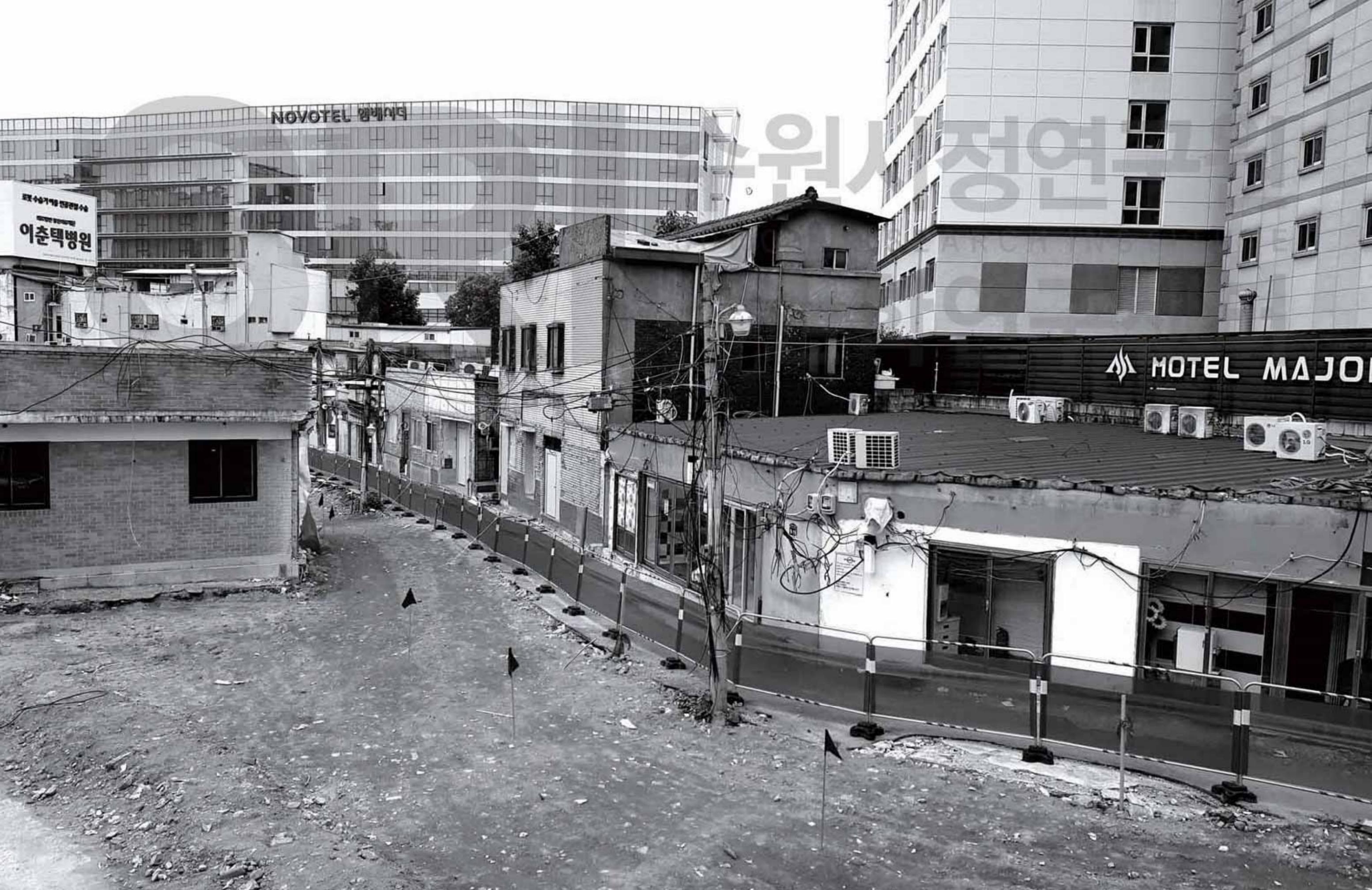
은하스 마트의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의 품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은하수마을 주민 일동 -

주차금지
이곳은 구역으로
은하수마을 주민
은하수마을 주민
은하수마을 주민
은하수마을 주민

NOVOTEL 캄베시더

의료수술기억상실예방수술
이춘택병원

MOTEL MAJOR







수원
SUWON
수원







수원시
SUWON RESEA
수원학



제2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생태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생태계

01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운영구조

02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03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상권

04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영향

업종 변경

업종 변경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운영구조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을 만나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1962년 이에 반하는 '관광산업진흥법'을 함께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일부의 성매매를 허용하였다.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전국적으로 공식 설치하고 이 지역 내의 성매매와 특수 관광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은 원칙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적용을 유보하는 형식으로 묵인하였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상태로 존재해 왔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자 2004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역시 성매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글은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전개하고자 한다. 성매매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현재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결지의 구성원 즉, 건물주, 업주, 성매매 여성, 주변 상인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성매매집결지가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는 밀집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전에는 사창가(私娼街), 윤락가(淪落街), 집창촌(集娼村) 등으로 불리던 것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성매매(性賣買)라는 용어가 성을 판매하는 여성과 구매하는 남성 그리고 성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판매자인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2021년 5월 31일 폐쇄되었다. 폐쇄가 논의되는 동안 업주들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존속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결지 명칭을 '은하수마을'로 정하였다. 집창촌·빨간불·홍등가 같은 부정적인 명칭이 불편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의 동네 이름을 짓자는 의견들에 따라 '은하수마을'이라 지었다.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희로 인해서 (성)범죄도 좀 줄고 또 은하수같이 주변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뜻을 담아"서 명명하였다고 한다.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업소에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 성을 구매하는 남성으로 구성된다. 성을 구매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이용하는 남성도 구성

은하수마을 플래카드(강석우 촬영)







수원역과 노보텔 건너편에 위치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이용광 촬영)

요소에 포함되지만, 정주성(定住性)을 갖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과 달리 유동성(流動性)을 갖는 '불특정 다수'라는 특성상 조사의 어려움으로 이번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연구에서 다룰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조사는 성매매 여성, 업주, 주변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구술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구술자 현황

구분	이름(가명)	연령	이력
업주	업주 A(남)	60대	전 업주연합회장,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성매매업소 운영, 삼촌 역할도 함. 형제들도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B(여)	40대	모친이 하던 성매매업소를 이어받음. 자신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C(여)	50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의 추천으로 뒷장에서 소규모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D(남)	40대	수원 출신으로 부모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음.
	업주 E(남)	50대	수원 출신으로 앞장에서 업소 운영.
	업주 F(여)	60대	1980년대 초반 수원으로 올라왔다가 성매매 시작. 업주로 전환.
	업주 G(여)	50대	사촌간인 업주 F 소개로 성매매업소 운영하다가 10여 년 전에 그만둠.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여성 A	40대	2000년대 초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진입 후 폐쇄 때까지 수원역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에서 생활.
	성매매 여성 B	40대	직장생활하면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하다가 성매매업으로 전환. 출퇴근.
	성매매 여성 C	40대	2000년대 초반 서울의 술집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진입. 다른 지역 집결지로 이동했다가 재진입. 출퇴근.
주변 상인	옷 장사 A(여)	60대	20년 정도 영업. 인천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진입.
	옷 장사 B(여)	60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20여 년 영업.
	미용실(여)	60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40여 년 영업.
	세탁소(남)	60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40여 년 영업.
	약국(남)	60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20여 년 영업.

성매매업소

'앞장'과 '뒷장'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앞장과 뒷장으로 구분된다. 앞장은 수원역 앞 덕영대로에서 갓매산로 이어지는 덕영대로895번길의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을 가리키고, 뒷장은 덕영대

로895번길과 팔달로 사이의 좁은 골목(소로3-1757)을 따라 성매매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수원시를 비롯한 외부에서는 앞장을 1라인, 뒷장을 2라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앞장과 뒷장은 업주의 성향, 업소의 규모, 성매매 여성의 연령과 외모, 화대, 손님 분류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다.

앞장하고 뒷장은 왕래를 안 해. 회의 가서도 얼굴만 보지 얘기를 잘 안 해. 뒷장은 뒷장대로 앉아서 얘기하고 앞장은 앞장대로 앉아서 얘기하고. 옛날 사람들은 바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천호동 사람이 들어와서 말 잘 안 해. 바꾸기 전에는 앞장이랑 뒷장이랑 얘기도 잘 하고 그랬죠.<업주 F>

앞장(성매매 여성)은 낫날 세우고 나 잘 낫어 하는 것들만 있고 이기적인 애들이 더 많고 그게 있더라고. 앞장 애들은 지네가 뒷장보다 더 쪽쪽뽕뽕 더 잘 낫고. 또 화대비도 또 틀린 일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우월. 레베루가 틀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성매매 여성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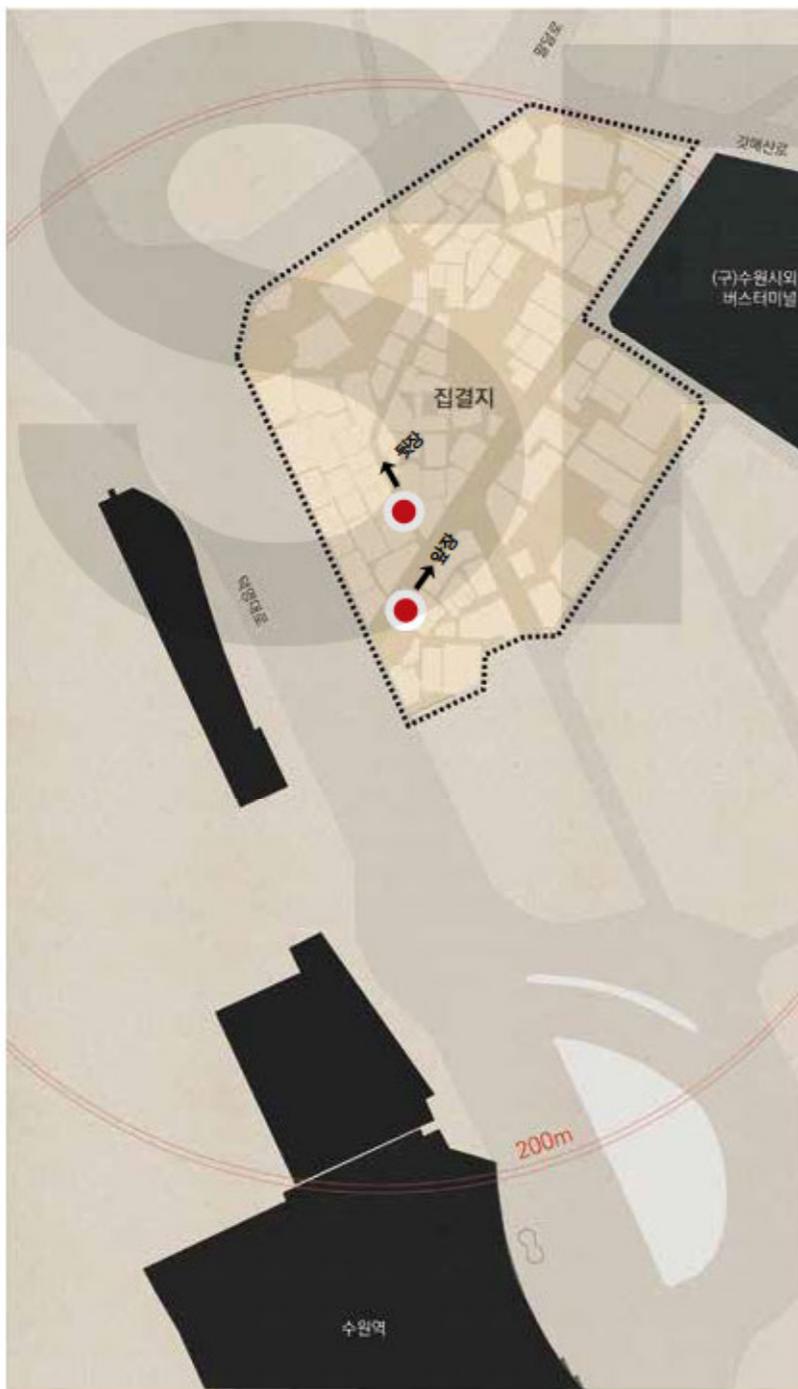
앞장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변에 업소가 위치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나이가 뒷장에 비해 젊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다. 화대는 기본 15분에 8만 원 선이며 한국인 손님만 받는다. 뒷장에 비해 남자 업주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월세도 비싸다.

뒷장은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골목 좌우로 업소들이 늘어서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연령대가 60대까지 올라가며 40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손님의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이며 화대는 기본 15분에 4만 원 선으로 앞장의 절반 정도이다. 월세도 앞장의 절반 수준이다.

성매매업소의 구조와 규모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업소는 공식적인 상호가 없다. 그러므로 간판도 없다. 그러나 집결지 내에서는 'ㅇ사장네', 'ㅇㅇ이모네'처럼 업주의 이름이나 성을 붙여 부르거나 업주 자녀의 이름을 붙여 'ㅇㅇ네'라고 부르거나 출신 지역명을 붙여 'ㅇㅇ이모' 등으로 구별하여 지칭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소는 여성들이 서서 고객을 하는 유리방이 전



수원역성매대집결지의 앞장과 뒷장 위치(김라니 작도)

수원역성매대
SUWON
수원역성매대



앞장(강석우 촬영)



뒷장(김인수 촬영)



유리방(김인수 촬영)

면에 위치하고 유리방을 통해서 업소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유리방은 '미스방' 또는 '박스'라고도 부르는데 업소의 출입문이 되는 셈이다. 기존의 단층 주택을 증·개축하여 방과 유리방을 만든 경우는 유리방 안으로 들어가면 방, 부엌, 욕실 등이 나온다. 복층 상가형 건물의 경우는 1층에 유리방이 있고 유리방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계단을 통해서 지하층부터 각 층으로 이동하는 구조이다. 여관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개조한 경우는 층마다 업주가 다른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 1층 유리방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해서 유리방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의 경우도 앞쪽 건물의 유리방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한 업소가 붙어 있는 두 건물을 사용하면서 유리방을 통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유리방 숫자로 업소의 수를 파악할 수 없다. 보이는 것보다 성매매업소의 수가 더 많다고 보면 된다.

방에 욕실이 딸린 경우도 있지만 건축연한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공동욕실을 사용하는 업소도 적지 않다. 앞장의 여관 건물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던 시절 숙박업소로 운영되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이전하고 대로변의 성매매업소가 집결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서 성매매업소로 이용되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최고 호황기에는 모텔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사용하는 업소도 있었다고 한다.

미용실 하나 놔두고 여기 집은 지하로 빼 갖고 지하, 다방 자리였는데 거기를 이제 아가씨 방 쓰고 이렇게 했던 거고, 저 옆에 계단, 계단에 올라가는 데를 또 유리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2층 쓰고, 3층 쓰고 뭐 이렇게 했겠죠. 주차장 앞집 같은 집, 그런모텔 자리에 장사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았죠. 아가씨가, 앞장에서 황금기였을 때는, 그 건물을 통째로 다 썼으니까. 나이트였던 자리인데 거기를 이제 뭐 개조해 갖고 아가씨 장사를 하고.<업주 D>

폐쇄 직전의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3~4명의 성매매 여성이 일하는 업소가 대부분이었다. 앞장에는 10명 이상이 일하는 업소가 몇 곳 있었지만 5명 이하의 여성이 일하는 규모가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의 수와 업소의 크기, 즉 방의 개수는 정비례하지 않다. 업소에서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생활하는 방과 일하는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성매매 여성을 구하지 못해서 방을 비워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의 규모는 방의 수보다 일하는 여성의 수로 가늠해야 한다.

다른 데는 그냥 3명 4명 뭐 있었고, 저기 저 끝에 지금 텅스 맞은편에 그 알뜰매장이라고 써 있고 엘리베이터 집이 있어요. 거기는 층층마다 업주들이 다 틀리고, 박스마다 다 틀리고. 한 집당 아가씨가 요즘에 많아 봐야 2명 3명이야. 그리고 소문으로, 사실 다 소문인 거지.<업주 D>

그건 주기적으로 어떻게 말은 못 해요. 4명도 있다가 5명도 있다가 2명도 있다가 없어서 잠깐 문도 닫았다가.<업주 A>

성매매 여성들이 서서 호객하는 유리방은 1990년대 초반 월출(매산로1가 19-8)이라는 업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집결지 안쪽 골목에서 대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일반적인 풍경이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남성을 붙잡거나, ' 쌤 쌤' 라고 부르던 호객꾼이 골목 밖에 나가서 데려오는 남성을 대문 안으로 들여보내는 식이었다. 2000년대



숙박시설 건물을 개조한 성매매업소 유리방(강석우 촬영)

초반까지도 뒷장에는 유리방이 거의 없었다. 유리방을 설치한 업소가 좋아 보이자 유리방을 설치하는 업소가 늘어났고 호객행위가 금지되자 유리방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이런 박스가 없었고 그냥 집으로만 되어 있고 아줌마들이나 젊은 여자애들 나와 가지고 직접 나와서 손님들 지나가는 걸 잡았다고. 그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영업들을 이렇게 하다가 조금 변하면서 이제 이런 박스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한 거지. 앞골목처럼.<업주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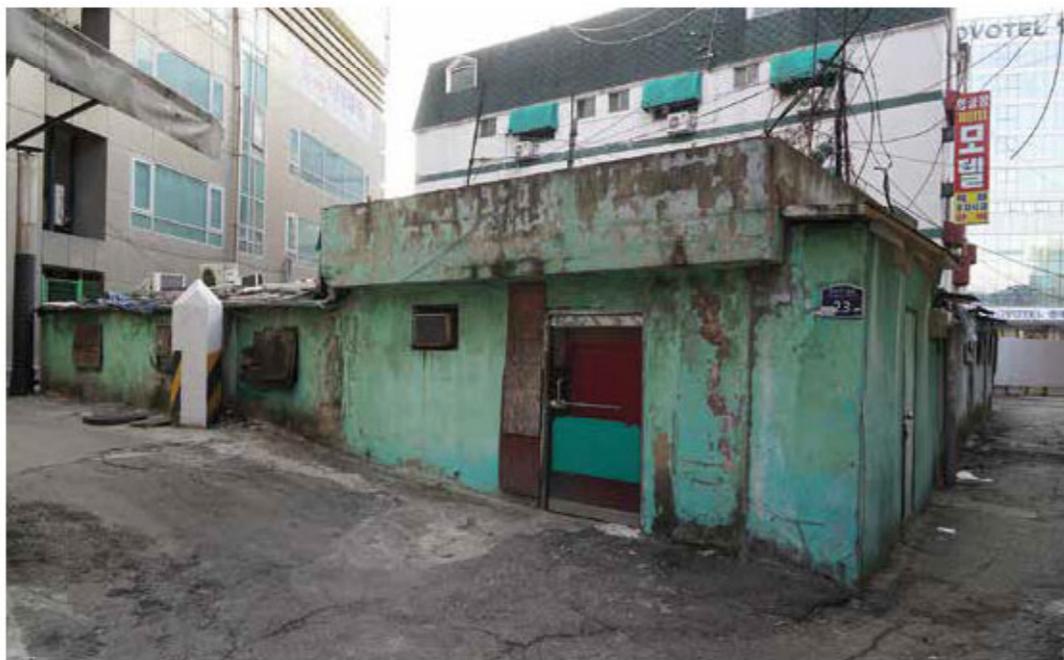


1980년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뒷장

유리방이 있긴 했는데 지금처럼 좋은 유리는 아니었어. 완전 후지구리했지. 대문 있는 집도 있었고 사시라도 조그만 문에 쇠 이렇게 대서 옛날 사시. 갈색으로 돼 가지고 유리도 통유리가 아니고. 그런 집들도 있었고. 내가 처음 일했던 가게는 통유리로 곁에 테두리가 화이트였지. 강 화유리. 잘 안 깨지는 두꺼운 유리. 뭘 일 있으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지. 여기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 한 집에서 세련되게 문을 바꿔 놓으니까 좋아 보이면 우리도 바꿀까 하고. 아무래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해 보이지. 종사자들의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이고, 아리따워 보이고. 서서히 한 집 두 집 바뀌면서 골목을 지나가면 좀 밝아지고 깔끔해 보이는, 세련돼 보이는 분위기가 생기지.<성매매 여성 A>



일반 주택을 개조한 뒷장의 성매매업소(이용창 촬영)



성매매집결지 초기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성매매업소(김인수 촬영)

수원
SUWON RES
수원



뒷장에 설치된 유리방(김인수 촬영)

성매매업소 점포의 거래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업소는 일반 점포와 달리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업주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특성상 정식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집결지 내부 사람들이 중개를 한다. 특히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가 결성된 이후는 전국 성매매집결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업소 매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통해서도 여러 정보가 공유된다.

여기는 이제 내놓을 거다 싶으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권리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싶으면은, 소개로 이제 해 갖고 조인을 시켜주겠죠.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끼리 다 커뮤니티가 다 돼요.<업주 D>

직거래예요. 업주가 나 그만들 거야 하면 아가씨가 알잖아. 아가씨가 업주를 알잖아. 아가씨들끼리 야 우리 업주 그만둔대. 그러면 아가씨가 자기 업주한테 얘기하고 업주들끼리 그럼 내

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저거, 전국업주연합회. 왜 그러냐면 성매매특별법 때 다 모였잖아.<업주 A>

아는 사람 이제, 나 이거 이제 아파서 그만할 건데, 네가 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부동산 내놓고 이런 거는.<업주 C>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소의 권리금은 시설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2015년경 앞장에서 10개 이상의 방을 가진 업소의 권리금이 7,000만 원~1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같은 건물이라도 일반 업소와 성매매업소는 임대료가 다르다. 성매매업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비싼 편이다.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험부담금을 성매매업소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게로 세 주면 내가 지금 이거 45만 원 내죠. 이게 아가씨집으로 하면 150만 원 돈 되는 거야. 주인은 기껏 해 가지고 건물주만 좋은 거야. 시대가 그렇게 됐더니까. 그래 놓고 이 새끼들이 뭐라고 하면 나가라고 큰소리치고, 또 옆에서 방세 더 준다고 쑤시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업주 A>

제일 싸게 넘겼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딴 사람은 7~8천, 1억에 넘겼는데 나는 5천에 빨리 가져가라고, 제일 커요 제가. 바로 옆에. 그냥 줬어요. 제일 싼 거야. 업소는 제일 크죠. 방도 제일 많고. 한 집인데 다섯 칸.<업주 A>

얼마인지를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어머 우리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거기는 얼마였구나. 내가 좀 비싸게 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서로가 몰랐던 거야.<업주 C>

인테리어

성매매업소의 인테리어 비용은 대개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함께 부담하는데, 업주들은 유리방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한다. 업주 입장에서 유리방은 여성을 돋보이게 해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방은 이미 구매를 확정하고 돈을 지불한 손님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여성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은 주로 사용하는 여성이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는데 침대와 수납장 등의 기본 가구는 업주가 준비해 주고 여성은 커튼, 조명, 장식용 소품 등으로 분위기를 만든다.

다 스타일이 틀려. 심플한 사람이 있고, 이 성격이 다 틀려. 꾸미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꾸며. 근데 좀 뭔가, 자기가 쓰는 방도 그게 사람 성격이 나와. 내가 스타일이 아끼자기한 거 좋아해. 그림 또 그 방도 아끼자기하게 꾸며놔. 이 사람은 공주 스타일이야. 그림 방을 공주 스타일로 지가 해놔.<성매매 여성 A>

업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해바라기와 부엉이다. 민간에서는 해바라기와 부엉이가 재물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재물운을 기대하고 집 안이나 사업장 등에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여성들도 방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 두거나 꽃병에 조화를 꽂아 두기도 하고 해바라기 리스 장식을 방문에 걸어 두기도 한다. 벽지에 포인트로 부엉이 스티커를 붙여 놓거나 장식용 인형을 놓아 둔다. 가끔은 나비도 볼 수 있다. 성매매 여성 자신을 꽃으로 비유하여 꽃을 찾아드는 나비처럼 손님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개체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다고도 한다.

그건 아가씨 방에는 많아. 돈, 해바라기, 나비, 부엉이.<성매매 여성 A>

여성들이 업소를 옮길 때 자신이 사용하던 가구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간다면 다른 것들을 대체해 놓아야 한다. 업소를 옮기더라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이전의 여성이 사용하던 가구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편이다. 새로 구입하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님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쉬는 공



성매매업소 영업방(이용장 촬영)

간이 되기도 하니까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선불금을 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한다.

언니들이 어떤 언니들은 한 곳에서, 자기가 일하는 패턴이 좋으니까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다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언니들이 웬만해서는 거의 잘 안 바꾸고, 그냥 넣어 준 상태로 많이들 써요. 주로 봤을 때, 이게 집집마다 틀리나 모르는데,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다들 업주분들이 싹 꾸며 주시죠.<업주 B>

방은 자기 방이에요. 방은 원래 주인 분들이 침대랑 이런 것 갖다 놓으면, 언니들이 자기 방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내 방이니까. 원래 커튼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커튼도 바꾸고, 침대 커버, 조명도 바꾸고, 다 하는 거예요. 언니들이 이제 바꾸고 싶으면 바꿔요. 그니까 이제 업주



성매매업소 실내 장식(이용장 촬영)

분들이 바꿔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 이거 바꿀게.” 그러면, “그래, 너 이거 갈 때 놓고 가야 된다.” 왜냐면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업주 B>

업주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포주(抱主)라고 한다. 포주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현재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소 운영방식이 과거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업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주들은 성매매업을 ‘아가씨장사’로, 업소를 ‘가게’로 언급하며 자신들을 서비스업 종사자로 인식한다.

업주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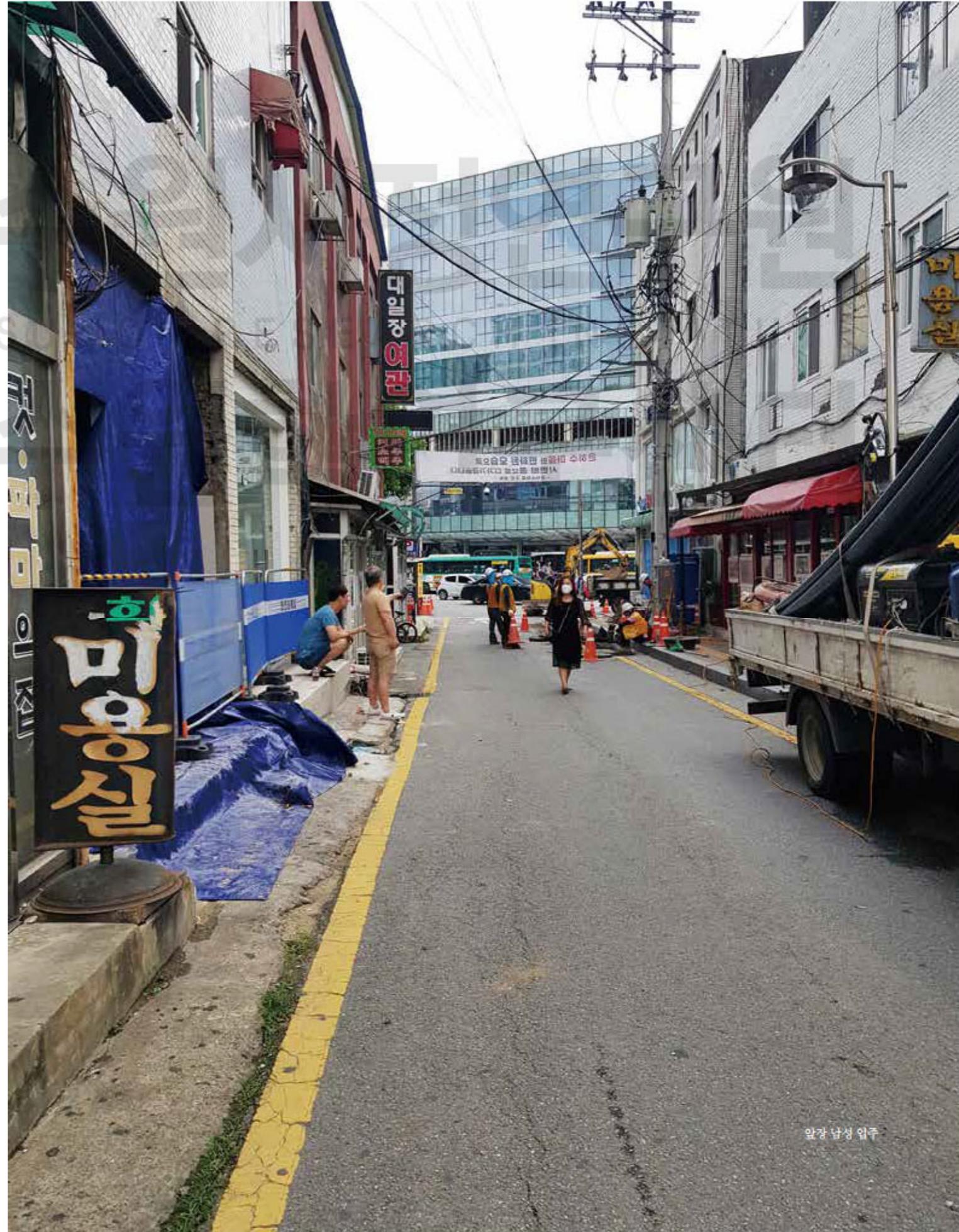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주들은 어떤 관계로든 서로 얽혀 있다. 기존 업주의 친인척이거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상권에서 장사하던 사람이거나,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다. 아무 연고 없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에 전혀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업주들이 건물주에게 임대하지 않도록 중용할 정도라고 한다. 비록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건물주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일원이므로 업주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마련이다.

옛날 터를 잡았던 사람들은 지역이, 우리 같은 저기나 마찬가지로 된 거고 나중에 들어오는 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했지. 왜냐면 여기 수원이 새로 식구로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수원 사람들이라. 옛날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〇〇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에 저기 했던 사람들이야. 뭐냐면 리어가 끌고 핀 팔고 방을 팔고 했던 사람들. 핫도그 팔고.<업주 E>

룸 해서 번 돈을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시덕이 수원 토박이고 해서 뭐라도 다시 하나 잡아서 하자고 했던 게. 친구 분이 여기서 장사하다가 앞쪽으로 나갈 테니 언니가 인수받아서 하라고 해서 들어온 거더라구요.<성매매 여성 A>

옛날에는 50년 전부터 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걸 하나 사 놓고 술술 빠져나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괜찮아. 해 봐."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업주 E>

가장 많은 경우가 친인척 관계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오랫동안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3~4명의 친척들이었다. 뒷장 골목에서 소규모 슈퍼를 운영하다가 성매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주는 점차 업소의 규모를 확장하였고 돈을 벌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건물을 매입해 나갔다. 성매매업소 운영과 부동산 매입으로 재산을 형성한 업주는 자녀들에게 업소를 물려주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직전 적발된 업주들도 어머니가 운영하던 업소를 물려받은 남매였다. 건



물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남매도 있고, 자매가 수원과 동두천의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작은아들하고 사위. 그 사위는 ○○씨 친사위고 슈퍼는 부인 쪽 처형 사위. ○○씨 처형.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 사돈에 8촌에.<미용실>

저의 어머니가 저기를 저의 사촌형을 얻어 주고 저의 사촌형이 하다가 또 나가고.<업주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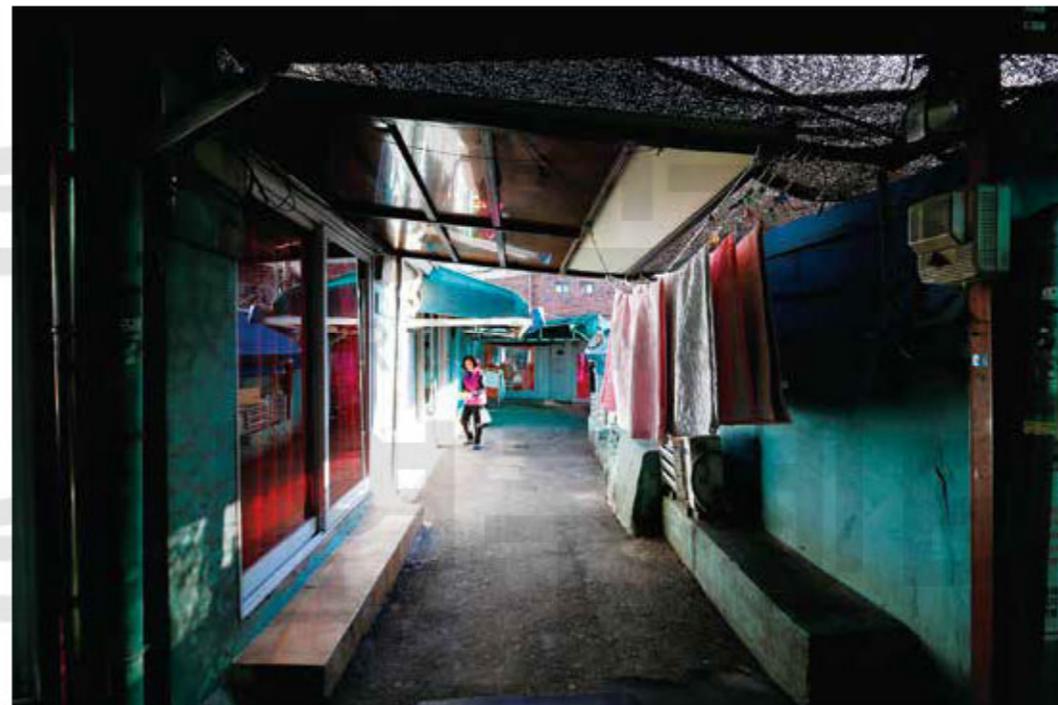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상권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장사하다가 성매매업소의 수익을 확인한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과 안면이 있고 성매매업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 비해 관대한 편이라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옷 보따리를 들고 장사하러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드나들다가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업주도 있다.

아가씨들 맨날 머리를 하다 보니까 이 영업이 나아. 그러니까 이 영업으로 돌려 선 사람도 있어.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미용실을 하고 있어. 근데 저런 사람이 미용실을 열어서 한 5년 10년 했어. 그러다 보면 동네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하고 싶어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업주 E>

거기서 장사를 소주방을 하시다가, 소주방을 열고 거기서 아가씨 장사를 하셨던 거죠. 왜냐면 이런 장사들을 다 하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아, 우리 소주방 때려치고 이거 하자.” 해 가지고 부수고 박스를 만들어서 한 거지.<업주 E>

성매매 여성으로 혹은 주방이모로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업소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업소는 여성을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성을 구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업소에서 일하다가 업주가 된 경우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성매매 여성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수원
SUWON
수원



뒷장 성매매업소 업주(김인수 촬영)

폐쇄를 앞둔 시점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은 60대 이상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한다. 젊은 연령대의 업주도 있는데 이 경우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3:7 정도로 여성 업주의 비율이 높다. 앞장은 남성 업주가 많고, 뒷장은 거의 여성 업주들이다. 부부가 운영하는 업소는 주로 부인이 관리한다. 성매매 여성을 상대하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유리할 수 있고 작은 업소는 주방이모를 따로 두지 않고 여성 업주가 그 일을 대신함으로써 운영비를 아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결정결명한 사람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업 못 하게 했어 절대로. 왜냐면 이런 데도, 그래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꼭 사고를 쳐. 그리고 안 좋게 하고,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누구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뭐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깡패들, 장사 절대 못 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업주 E>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야간 풍경(김인수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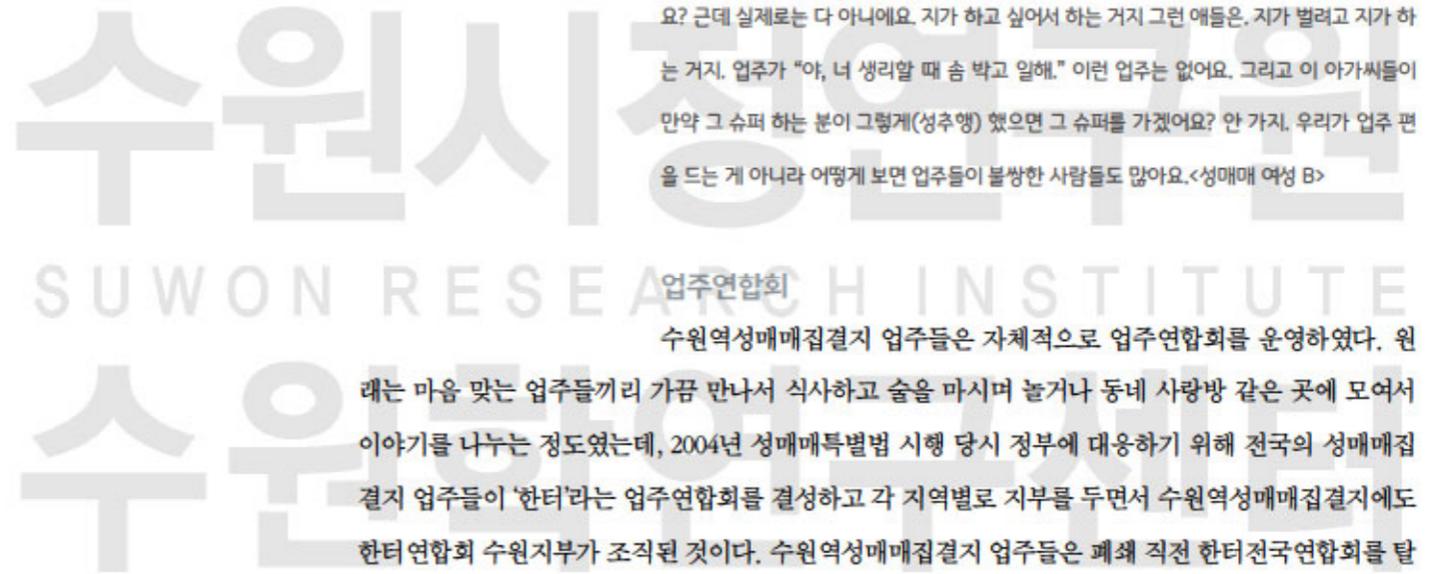
아가씨는 때먹고 도망가지만 그 사람은 여기 있는 나를 보고 준 일수잖아요. 여기서 계속 살려면 갇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빗만 계속 저지는 거지. 남는 것도 없고. 병만 생기고 빗만 저지고.<업주 F>

내가 지금 여기서 포주도 오래 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 다 뭐 췌장암, 폐암, 정말 많아요. 여기, 그게 뭐, 정말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맨날 긴장 속에서, 사실 일하는 사람도 긴장 많이 하니까.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손님들 땀도 많이 나고 사실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맨날 긴장하고 살고 아가씨들 때문에. 맨날 그런 상황과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중에 그게 병으로 오는 거야 병으로.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어 그 때만 해도.<업주 E>

예전에는 도망간 여성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성매매업 바닥이 뻥하기 때문에 '다찌'라고 부르던 남성이 도망간 성매매 여성을 찾아서 데려왔다. 현재는 '다찌'가 없어서 선불금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선불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기도 한다. '다찌'가 없어진 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관계가 많이 변했고 심지어 갑을관계가 역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주들도 있다.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옛날 같은 경우엔 선불금 있는데 도망가면 그냥 전화 한 통 화해요. 그러면 가는 데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동서방들이나 누구들이 가서 다시 잡아 와요. 얘기하고 잡아 오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법이 터지고 나서부터 지능화된 거지. 아가씨들도 이제는 하루 이틀 일하고 도망가고.<업주 D>

업소마다 사정이 제각각이겠지만 최근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업주가 여성을 감금하거나 협박해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다가 탈성매매를 한 여성의 경험담을 들으면 이러한 상황은 업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보다 강제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 확실한 듯하다.



뉴스에는 무조건 이 업주가 악덕 업주고 이 아가씨는 완전 피해의 아가씨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은. 지가 벌려고 지가 하는 거지. 업주가 "아, 너 생각할 때 숨 박고 일해." 이런 업주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들이 만약 그 슈퍼 하는 분이 그렇게(성추행) 했으면 그 슈퍼를 가겠어요? 안 가지. 우리가 업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주들이 불쌍한 사람들도 많아요.<성매매 여성 B>

업주연합회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은 자체적으로 업주연합회를 운영하였다. 원래는 마음 맞는 업주들끼리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놀거나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한터'라는 업주연합회를 결성하고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도 한터연합회 수원지부가 조직된 것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은 폐쇄 직전 한터전국연합회를 탈퇴하였다.

어느 지역인 거간에 아가씨들 옮겨 다닌단 말이지. 아가씨들도 옮겨 다니면 또 인맥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이 연합회라고 했던 게 전에는 그냥 친목도모였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술이나 마시고, 부동산에서 만나 갖고선 대화하고 축치고 이랬던 건데. 제 기준에는요. 한터가 왜 생겼을까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미아리가 뭐 어찌고저찌고 단속하고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특별법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왜? 단속이 힘든 게 아니야. 아가씨들이 그걸 악용하니까. 악용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터지부라는 게 생기고. 그럼 그 회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자가 하는 게 낫겠어요? 했던 사람들 중에 좀 그나마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돼 온 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예요.<업주 D>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주연합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업주는 참석한 업주에게 회의 내용이나 의결사항을 전달받았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모든 업주가 연합회에 가입하며 매월 회비를 냈다. 청량리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된 후 수원역성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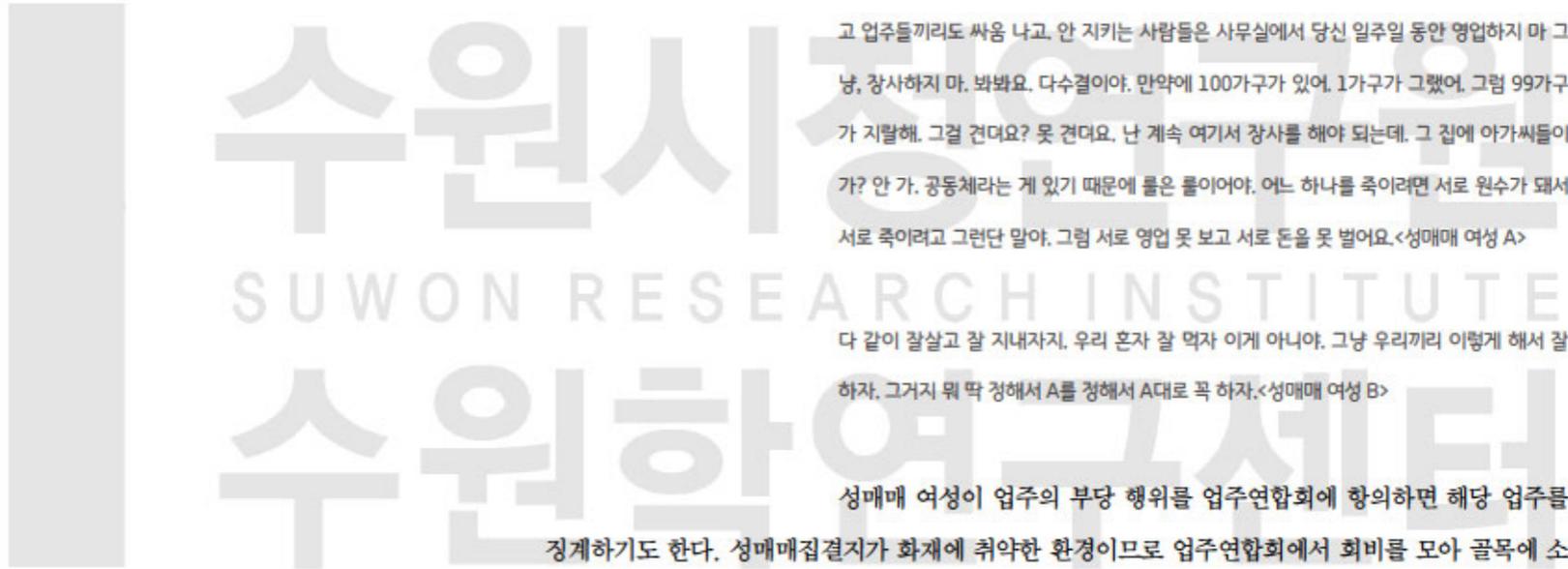


한터전국연합 수원지부 사무실(이명재 촬영)

매집결지로 옮겨 온 7명의 업주는 연합회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업주연합회에서는 업소 운영에 관한 일종의 규정을 정하였다. 그것은 성매매 여성에게도 적용되었다. 혹시라도 경찰에 단속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유리방에서 있는 동안 입는 흉복도 일반인이 통행하는 앞장의 업소에서는 목 부분이 깊게 파이거나 팔다리를 드러내는 디자인을 입지 못하도록 하였다. 미성년자가 성매매 여성으로 오는 경우 받지 않으며,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저런 약물을 자주 복용하는 여성도 받지 않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인 셈이다. 이런 자구책 때문인지 주변에서는 수원역성매매 집결지가 조용하고 사건 사고가 별로 없는 곳이라고 보았다.

싸움이나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더 조용하죠. 바깥보다. 잡히면 자기들이 들어가니까. 요새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들이닥치는데 뭐. <약국>



물이라는 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개판 5분 전이야. 맨날 싸움 나고, 아가씨들끼리도 싸움 나고 업주들끼리도 싸움 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당신 일주일 동안 영입하지 마 그냥, 장사하지 마. 봐봐요. 다수결이야. 만약에 100가구가 있어. 1가구가 그랬어. 그럼 99가구가 지랄해. 그걸 견뎌요? 못 견뎌요. 난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아가씨들이 가? 안 가. 공동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은 물이어야. 어느 하나를 죽이려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려고 그런단 말야. 그럼 서로 영입 못 보고 서로 돈을 못 벌어요. <성매매 여성 A>

다 같이 잘살고 잘 지내자지. 우리 혼자 잘 먹자 이게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잘 하자. 그거지 뭐 딱 정해서 A를 정해서 A대로 꼭 하자. <성매매 여성 B>

성매매 여성이 업주의 부당 행위를 업주연합회에 항의하면 해당 업주를 징계하기도 한다. 성매매집결지가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므로 업주연합회에서 회비를 모아 골목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었고 자체적으로 CCTV도 설치하였다.

성매매 여성

성매매를 하는 사연

'아가씨' 혹은 '언니'로 불리는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집결지 구성의 핵심에 놓여 있다. 성매매 여성이 받는 화대를 매개로 성매매집결지의 모든 경제적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성매매집결지로 들어오는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 이전에 어떤 일을 했건 관계없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돈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한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빚을 갚아 주기도 한다. 결혼과 동시에 탈성매매를 했다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 부모가 되면 자녀 양육을 위해 이전에 했던 성매매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 성매매는 소득이 높은 편이며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익숙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골목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강석우 촬영)

엄마가 시집을 강제로 보내서 남편이 싫어서 무작정 도망왔어. 시집 동네에서 옆방에 사는 여자가 수원에 가라고 나를 꼬셨어. (중략) 패물 팔아서 왔으니까 돈도 떨어질 때도 됐고.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아줌마가 행길에서 있어서 여기 어디 취직할 데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줌마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야. 난 이런 덴 줄 몰랐지. 그게 이 집 자리야. 초가집에 나무대문이 있더라구. 나보고 기다리라고 해서 밥 먹고 있다가 방에서 잠이 들어. 나중에 아줌마가 와서 깨우는데 선하게 생겼더라구. 애기 컷 먹이고 있는 아가씨가 여기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큰데 남자하고 헤어지고 와서 애기를 키우더라구. 그 사람이 있으라고 해서 거기서(성매매업소) 있었어.<업주 F>

옛날에 인천에서 했대요. 인천에서 손님 모셔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대. 했는데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끌어다가 자기가 돈이 좀 되면, 이제 그 사람 한 번씩 하다가 돈을 모아서 그걸 다 썼대, 자식을. 한 푼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내친 거야, 엄마를. 이제

수원시정연구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인천에서 손님 모셔다 주는 거는 안 한대. 이제 수원을 왔어요, 저의 집으로 왔는데. 여기는 누구네 집을 알고 온 게 아니고, 여기를 일단 와.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 써요? 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 써요? 다 물어봐. 이제 이 언니 혼자만 나이 먹었으니까 우리 가게 지키고 있는 거고. 그런 집들이 몇 집 있어요.<업주 C>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집안 사정이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지. 다른 일을 해보려고 다른 데 갔다가도 도로 여기로 오게 돼요. 돈도 벌이가 그렇고 일도 일자리도 안 되고 하니까 다시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일을 했던 게 없으니까 다른 일은 선불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오는 거죠.<성매매 여성 C>

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때문에, 룸 생활, 빠순이 생활하다가 동생 때문에 이리로 접어들었지. 우리도 여기 직장이에요. 친해졌어. 근데 다른 데로 가.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래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연락을 할 거 아냐. 그러다 보면 우리 회사가 더 괜찮아. 이리 와봐. 이런 식인 거야. 케이스가. 그런 경우도 많고 뭐 술집에 있다 오는 사람도 많고. 그냥 대학생이었다가 바로 오는 사람도 있어.<성매매 여성 A>

직업에 귀천이 어땠어. 그리고 내가 뭐 진짜 빛이 있어 가지고 팔려 오고 이랬으면 못 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얼마를 어떻게 모아서 그럼 집을 얼마쯤 살려야 되니까, 어찌 됐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돈을 벌기에는. 내가 함부로 사치 생활만 안 하면 벌어서 집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나중에 내가 청산하면 내가 일했다는 거 누가 알아. 내가 정말 다 끊어 버리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딱 생각하고 왔어요.<성매매 여성 B>

그만두고 이제 민간인 생활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집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사업할 사람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 무조건 오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갔다가 실패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 몇 년 만에. 뭐 3~4년 만에. 그럼 우린 축하한다 했다가 민간인 돼서. 우리는 축하예요 그게. 민간인 생활한다는 게. "오! 벗어나." 이런 생활 안



성매매 여성(김인수 촬영)

하니까 이제는, 결혼하면은 잘살았으면 좋겠다 돈독하게. 그러면 또 이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왜? 남자가 알고 결혼한 경우도 있던 말야. 근데 부부싸움, 말다툼을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야. 과거사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성매매 여성 A>

성매매업소로 들어올 때 여성들은 대개 목표를 정하고 들어온다. '언제까지만 하겠다.' 혹은 '얼마를 벌어서 나가겠다.' 같은 식으로 성매매 기간과 목표액 등을 미리 정하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해서 나가는 여성은 많지 않다. 시간당 단가로 볼 때 성매매로 버는 돈이 다른 직업에 비해 큰 것은 분명하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경력이 오래된 성매매 여성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매매를 그만두거나 업소를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을 모아도 가족이 돈을 필요로 하거나, 집결지 내 동료에게 돈을 빌려 줬다가 떼이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 일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모으지 못하고 계획보다 오랜 기간 성

매매업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내가 뭘 가게를 하나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게 좀 좋아하는 게 생기잖아. 아무리 여기 있었어도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요리 쪽에 관심 있으면 조그마하게 분식집이라도 할까? 샌드위치 가게라도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그래서 그걸 실천해 가면서 자격증 따는 애들이 있고, 그냥 이제 빨리 돈을 모으자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성매매 여성 B>

내가 함부로 써서가 아니라 사람 일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모았어 집도 해 줬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왜. 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있잖아요. 일이 항상 터져 와. 1억으로 해결될 일이 뭐 10억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진짜 아무지게 살고 뭐 했는데. 돌아서서는 정말 그러니까 돈적인 거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한 다음에 내 자립을 해야 되잖아.<성매매 여성 B>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20대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20년 정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50대와 60대도 있다고 하니 이 경우는 성매매 경력이 20~30년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뒷장의 업소들은 40대가 주류이고 50대도 적지 않은 편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로 들어오는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집결지에서 일하다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업소를 이동하는 경우와 룬싸롱이나 다방 같은 다른 형태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성매매업소로 갈아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성매매업소로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스스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찾아와서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 아가씨 구해요?" 이라고, 자기 스스로 동네에 들어와서 아가씨 구해요? 뭐 직원 구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성매매 여성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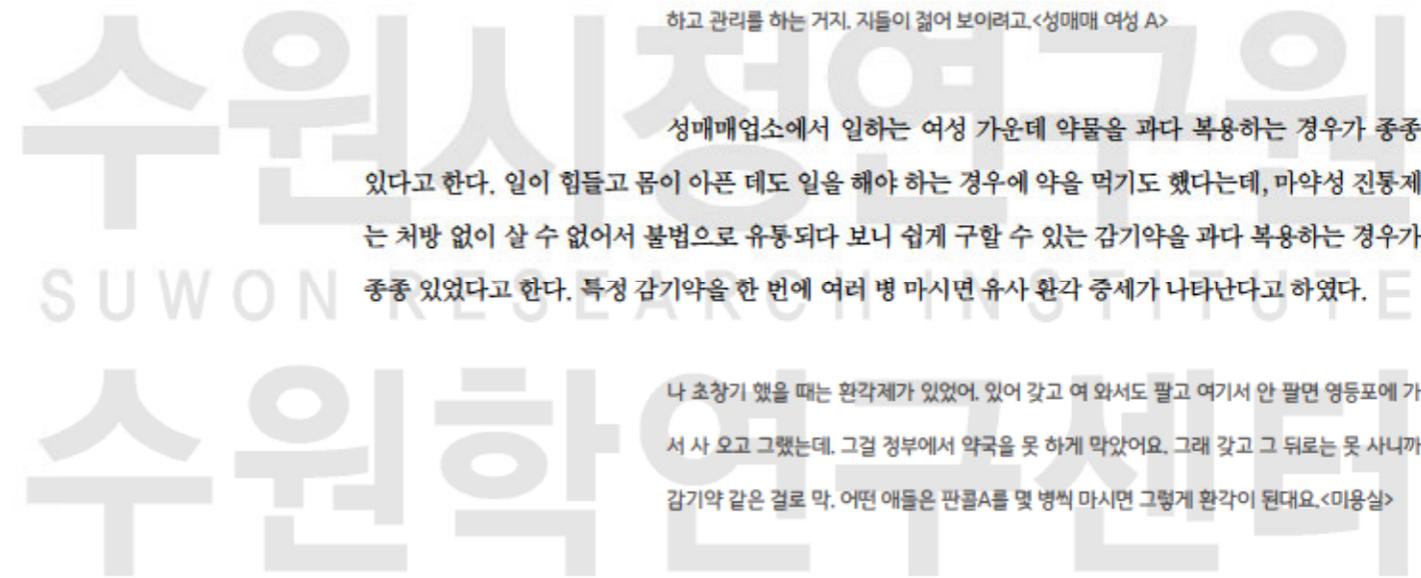
화류계라고도 하는 유흥업계 종사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일할 곳을 선택하는 편이라고 한다. 술을 잘 마시거나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면 술집이나 톰싸롱에서 일하고 술을 못 마시거나 싫어하는 성향이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이다. 성매매업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면 '여관발이'라고 해서 자신이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일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 성향이면 집결지의 업소에서 일한다고 한다.

처음 간 데는 언니가 세 명이 있었어요. 아니면 주인언니, 사장님이 애길 해주든가. 사장들은 영업시간이라든가 롤이라든가 외상값이라든가 쉬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만 애길 해주는 거지 일에 관해서는 선전에 된 사람들이 애길 해 주는 거지. 잘 아는 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동료 들한테 물어보고 돈 액수에 따라서 시간은 어떻게 잡아 두는 거냐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배우는 거죠.<성매매 여성 A>

영업전략 ① : 다이어트와 성형

성매매 여성들은 손님에게 자주 선택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 선택이 곧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가능한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기 위한 성형수술은 성매매 여성에게 있어 일종의 영업전략인 셈이다. 실제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40대 여성들은 20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도 성행하는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업주가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처럼 외모를 가꾸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금액이 크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영업비용이다. 다만 영업비용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돈을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성매매 여성이 돈 벌어서 사치한다는 말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성형 안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했어. 뭘 땀긴다든가 뭘 어렸든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다못해 눈 쌍꺼풀이라도 했지 손 안 댄 사람은 없어. 그런 데다 돈 써 갖고 돈이 없어 애들이.<미용실>



거기도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 근데 시술을 하나까 어려 보이는 거야. 몸매는 되니까 시술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 지들이 젊어 보이려고.<성매매 여성 A>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가운데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일이 힘들고 몸이 아픈 데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약을 먹기도 했다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 없이 살 수 없어서 불법으로 유통되다 보니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특정 감기약을 한 번에 여러 병 마시면 유사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 초창기 했을 때는 환각제가 있었어. 있어 갖고 여 와서도 팔고 여기서 안 팔면 영등포에 가서 사 오고 그랬는데. 그걸 정부에서 약국을 못 하게 막았어요. 그래 갖고 그 뒤로는 못 사니까 감기약 같은 걸로 막. 어떤 애들은 판콜A를 몇 병씩 마시면 그렇게 환각이 된대요.<미용실>

다이어트 약이든 감기약이든 과다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은 몸이 돈벌이 수단이므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직업의 특성상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가는 병원은 산부인과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근처의 이○○산부인과가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이 비교적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 피부과, 내과, 정형외과 등도 자주 찾는 병원이고 주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였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이○○산부인과랑 강○○산부인과. 이○○산부인과는 잘 알죠. 소견서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써서 주고, 치료도 더 신경 써주고. 이○○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전통이에요. 그분은 알아.<성매매 여성 A>

허리 디스크 쪽이 많이 관절이랑 허리. 이게 많죠. 이게 우리가 이 뼈를 맞춘다고 그러죠? 이게 골반이 들어지면 한 번씩 맞춰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허리랑 관절 이런 데는 다 어긋나게 되죠. 직업병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도 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한 자세로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한다거나 서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들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 이걸 하다가 보면 자세가 틀어지니까 목 디스크라든
가 목 쪽으로.<성매매 여성 A>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성병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성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건소에서 콘돔도 지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
지 않다고 한다. 여성들이 각자 알아서 자신들의 건강관리를 하였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저가의 콘
돔은 품질이 좋지 않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건강검진이나 질병 치료도 단골로 가는 개인병
원을 이용하는 편이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아가씨를 관리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때는 보건증이 아니라 그때 검
사해서 아가씨들, 예를 들어서 주사 안 맞고 그랬다 그러면 영업 안 시켰다고. 임질이나 그런
검사 항상 하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니 아가씨들 각자가 병원을 잘 다니잖아. 산부인
과도 잘 다녀, 본인이 잘 다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지.<업주 D>

영업전략 ② : 업소 옮기기

성매매 여성들은 한 업소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가 드물고, 같은 집결지
내에서 업소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의 집결지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업소에서 영업을 잘 안 되
거나 갈등이 생기면 분위기를 바꿔 보려는 일종의 영업전략인 셈이다. 영업을 잘 안 되면 터(업소)를
바꿔 본다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와 관련된 것으로 나와 기운이 잘 맞는 터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업주
와 관계가 불편하거나 동료와 사이가 틀어져서 옮기려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업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경우는 앞장과 뒷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앞장에서 일하다가 나이
를 먹어서 일이 안 되면 뒷장으로 옮기기도 한다. 일단 성매매업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서 오랜 기간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젊은 여성보다 중년 여성이 더
많은 편이다.

오래 있는 아가씨가 드물어. 로테이션으로 빙빙 돌아. 여기 가서 몇 개월 저 가서 몇 개월 이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식으로.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아가씨가 너무 많이 알려졌으면 장사가 안 되지. 그럼
옮겨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옮기는 거지. 연때가 맞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천 원을 벌었으면 밑에 내려가면 3천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옮
길 수가 있는 거지.<업주 G>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자리도 옮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어느 때는 장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안 좋은 시기니까 자리 한 번 옮겨 보는 거고.<성매매 여성 C>

앞장에서도 영업을 하다가 빨리 접었을 때 벌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 번 사람도
있잖아. 그런 아가씨들은 어떤 존재냐면 일을 하긴 하되 뭐 이렇게 모으지를 않고, 버는 대로
쓰고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간 거지. 나이가 먹었고 앞장에서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어
디로 가냐. 뒷장으로 가는 거야.<업주 E>

새로 옮길 업소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는 성매매 여성들끼
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이 안 좋거나 업소에서 생활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평가
받는 여성은 업소 이동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는다. 소개해 주는 쪽도 소개받는 쪽도 부담스럽기 때
문이다.

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며 가며 언니들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아가씨들끼리. 업주들은 자
기 가게에 실수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가게에서 실수한 여성이면 옮겨도 똑같
으니까 그런 사람이면 웬만하면 데리고 있지 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자유죠. 내가 내 직장 옮기는 거는, 신용도 안 좋고 술 먹으면 팔라 되는 애도 있고 어느 가게를
가도 그 가게 애들이랑 못 어울리고 오래 있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성매매 여성 A>

업소를 옮길 때는 소개받은 업소에 직접 가서 업주와 면담 후 일을 해 보
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정도 지내 보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임
시로 일하는 기간이 짧아서 몇 시간 일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잠깐 일했어도 자신이 받은 화
대는 업주와 5:5로 나눈다.

아는 사람 통해서 가고 이 사람도 일단은 싸 들고 가기 전에 가서 주인하고 얘기를 해요. 조건 들어보고. 중간에서 아는 사람이 해 준다 하더라도 주인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며칠 일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와도 되고, 미리 뭐 짐 싸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바식으로 한 번 일을 해 보고 내가 여기 스타일 적응되나, 여기 스타일이 괜찮네 하면은 언제든 짐 싸갖고 올게.<성매매 여성 A>

예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업소를 옮기기 어려웠다. 특히 같은 집결지 내에서 업소를 옮기는 것은 다른 지역의 성매매업소로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한다.

이 동네서는 이 동네로 못 갔어요. 지금은 가. 다른 동네로 가 갖고 한 뒤, 다른 데로 가도 어떤 주인들은 수원 오면 자기 가게로 와야지 다른 가게로 못 가게 하는 주인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 아무 데고 갈 수 있어 지금은. 업주들이 안 받았어요. 한 동네 애기들은 안 받고 이 업주가 데려가쇼 하면 데려갔어도 그냥은 안 받았어.<미용실>

집결지를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명 '소개비'와 '선불금'이다. 개인 휴대폰이 보급된 후 성매매 여성들은 업소를 옮기는 데 필요한 정보와 연락을 각자의 휴대폰을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소개소를 매개로 이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성매매 업소를 옮길 때 '소개소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소개소를 통해서 여성을 데려오면 업주는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 만 원의 돈을 소개소에 지불했는데 업주가 지출한 소개비가 여성들의 업소 이동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아무리 짧게 있어도 여성이 소개비만큼은 업주에게 수익을 남겨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선불금이 발생하면 계속 늘어나서 갚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이 선불금이 성매매 여성에게 족쇄였던 것이다. 업소를 옮길 때마다 선불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소개비가 있었잖아요. 소개를 타고 아가씨가 왔으니까, 우리가 그 아가씨에 대해서 소개비를 줬잖아. 당신 같으면 소개비를 줬는데 이 아가씨를 옮기게 하겠냐구요. 그러니까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개비가 없으니까 옮기게 하는 거예요. 애가 몇 달 있어 줘야 그 소개비가 빠지는데 금방 간다고 하면 소개비 내노라고 하면 걸려. 걸리니까 못 가게 하는

수원
SUWON
수원



성매매 여성의 이사질

거야.<업주 G>

그때는 선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언니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언니 아는 분이라서 그 돈을 빌려줬어요. 내가 일하는 가게 가르쳐 주고 일하면서 갚겠다 해서. 그분도 나의 신용을 믿고서 그렇게 해 준 거죠. 어마한 돈이었으니까 그 때 당시에. 여기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몇 달 만에 다 갚죠. 다 갚고.<성매매 여성 A>

소개비가 여기 뒷장은 200, 앞장은 400, 석 달 기준으로. 그거는 업주가 내키는 거에 따라 틀린 거죠. 업주가 이거를 받을 수 있다. 일 며칠 써보고, 아 괜찮다, 먹힌다 싶으면 해 주겠죠. 근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보내요. 저는 아가씨, 빚 있는 아가씨들이랑은 일 안 해요. 그게 임마랑



업소 이동
성매매 여성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만을 상대로 이삿짐을 옮겨 주는 이사업체도 있다.

저랑 틀렸던 부분이예요.<업주 D>

업소를 옮길 때 들고 가는 짐은 여성들마다 차이가 있다. 커다란 보따리 하나 정도 들고 가는 여성도 있고 차를 불러서 짐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매매집결지의 이삿짐을 전문적으로 운반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삿짐이라고 해도 큰 가구는 없기 때문에 이삿짐 운반 업자는 주로 승합차를 이용한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우리로 똑같은 사람'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왜곡된 사실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된다고 말한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항변한다.

일명 계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온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섞여서 하는 거야. 여기 아니신 분들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 할매들 만나서 하고, 여기도 똑같아요. 할매들하고 아줌마들하고 아가씨들하고 다 섞였어.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옛날부터 여기 오며 가며 친해지잖아요. 경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만 친분 있게 지내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분이고 자주 다니는 데는 친하게 지내고.<성매매 여성 A>

쉽게 설명한다면 일반 직장하고 똑같아요. 직장이고, 사람마다 생활력이 틀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쓰러운 여자들이 많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화장도 진하고 차가워 보이고 말 걸기도 어려워 보이고 무식해 배운 것도 없어 일반적인 게 그거예요. 지들 마시고 쓰고 이런 데, 돈을 우습게 벌고 쉽게 벌고,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배경만 틀리지. 밖의 일반인들 사회랑 똑같아요. 월급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 내가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거니까 내 월급이야.<성매매 여성 A>

자신들은 절도나 강도, 살인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매매집결지는 성욕을 해결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완충지로서 기능을 한다고 자부한다. 독신 남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남성들에게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바깥에서는 성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표현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남자 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업주 B>



성매매업소의 일상(강석우 촬영)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우리를 안 무서워해. 더 좋다고 그러지. 여기 없어서 어떻게 하나고 걱정해 주지. 약국이고 어디고 전부 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네들 때려죽이는 덴 줄 알아.<업주 F>

또한 성매매 여성을 쉽게 돈 벌려는 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택한 길이라고 변명한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약덕포주는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가족에게 성매매업소에서 일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업주와 동료들과 회로애락을 나누는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낸다는 것이다.

여기 동료애도 많아요. 예를 들어 성기를 과대하게 수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궁이 약해서 못 받는데 하는 중사자도 있던 말야. 방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저는 못한다고 말하고 내보낼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 다른 아가씨 있는데 하세요." 하고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결해 준다.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아가씨가 오늘 스타트를 못 했어. 근데 나는 했어.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아가씨 새로 왔으니까 오빠가 스타트를 좀 끊어 줘라. 오늘 와서 아가씨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 남자들은 좋아라 한다. 그러면서 일부러 큰소리로 "알지? 오늘 처음 왔으니까 매너 있게?" 그러면 서로 축이 온다고, 나중에 고맙다고 그러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일하면 다 내 집 식구야. 다른 데 가면 그 집이 내 집 식구 되는 거고.<성매매 여성 A>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게 불법이지만 살면서 법에 어긋나는 일 더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눈물들도 많아. TV 드라마나 만화 보면서도 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감정도 더 풍부하고 정도 더 많고, 가끔 노숙자도 들어와서 다니고 한단 말이야. 들어와서 박스때기 들이대면 그냥 못 지나쳐. 장애인들도 와서 볼펜 같은 거 사 달라고 하고, 외국인들은 이런 거 달고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자기네들 전통 팔찌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팔아 달라고 그러고 많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배경만 틀리지. 밖의 일반인들 사회랑 똑같아요. 정도 더 많고.<성매매 여성 A>

너네가 불법 장사를 하니까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뭐 건물 뱅방하게 살고, 너네보고 그런 장사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통장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이 보면. 어느 여자 분이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지 표현을 하자면, 나는 직업으로 이것을 선택 안 했을 뿐이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먹고살아야 되니까 직업으로 선택한 것뿐이에요.<업주 B>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한다.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는 것인데, 성매매 여성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으니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옛날에는 여기 초창기 때는 뭐라 말할까 그 전에는 팔려 온다는 말도 있었어. 어디서 팔려 오고, 부모들이 양심이 없고 한 쪽이 저기하고 그러다보면 소개소에 들어가 갖고 소개소에서 팔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아가씨들도 못 배웠어도 고등학교는 다 나왔어요. 옛날에야 아



유리방 안 여성

가씨들이 팔려 오니까 억울해서 저기니까. 지금은 아가씨들 자기 스스로 오기 때문에. 회사 명
기다가 돈이 저기(필요) 하면 자기 스스로 오기 때문에. 아가씨들이 오하려, 주민들이 아가씨들
눈치를 봐야 돼. 그 전에는 주민들이 아주 그냥 저기했는데. 지금은 아가씨들이.<미용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주와 여성들은 '우리', '바깥' 또는 '일반'이라는
표현으로 '집결지'와 '집결지 외 지역'을 구분한다. 유리방 문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시선과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유리문 밖에서 안을 바라볼 때는 밝은 조명이 비추는 쇼윈도우에서 있는 성매매 여
성이 보인다. 그들을 바라보는 구매자는 자신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치장한 일종의 상품으로서 여성들
을 바라본다. 이 시선 속에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유리방 안에서 밖을 보면 있
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인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주장한다. 구매자
가 여성을 선택하듯이 여성도 구매자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인격적 주체
임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원시 성매매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내가 회장을 하면서 웃긴 게 뭐냐면, 권력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들은 뭐가 됐
든 벌써 사람을 쳐다보는 게 사람을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해. 무시하는 경멸의 눈빛.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들이 무식한데 뭘 말을 하겠어. 그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구. 우리
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중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도 기자회견이든 뭐든 독대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도. 왜 쓰레기 취급을 하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듯
이 해.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어디 사람이냐. 세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난 어
디 출신인데. 인간같이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 대화하는 자체를. 그런 경우도 많이 겪어 봤어
요.<성매매 여성 A>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

계약과 선불금

성매매 여성이 일할 업소를 정하면 업주와 계약을 한다. 주거지를 업소로 할 것인지 출퇴근할 것인지, 화대 배분은 5:5로 할 것인지 독장사를 할 것인지, 독장사의 경우 월세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영업시간은 언제로 할 것인지, 화대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한다.

내가 알바식으로 하고 싶어. 알바식 뭐 일주일이면 7일이에요. 그러면 얘기할 때 난 3일만 일 할래요. 그러면 영업시간 같은 것도 만약에 이 집은 12시간에서 10시간이야. 난 8시간밖에 영업 못 해요. 그리고 영업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게 조정이 되면 그 집 들어가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됐다고 그래. 내 입맛에 맞게 골라 들어가는 거예요.<성매매 여성 A>

여성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주 방식을 먼저 정하게 되는데, 업소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는 소위 '떡자' 방식과 출퇴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불금 액수가 1,000만 원 단위이던 시절, 업주가 여성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예전에는 '떡자'가 일반적이었다. 그러

나 업주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불금 액수를 낮추면서 출퇴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집결지 인근에 집을 구해 놓고 일하는 시간에 맞춰 업소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24시간 영업을 하였는데, 일하는 시간이나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업소에 여성이 새로 오면 기존의 여성들과 일하는 시간이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간을 정한다. 생리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일하는 여성, 주 5일 일하는 여성, 주말에만 일하는 여성 등 각자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조정한다. 영업시간은 수입과 직결되므로 성매매 여성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모두가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밤 시간대에 일하는 여성에게는 핸디캡을 주거나 낮 시간대에 일하는 여성에게 화대 배분이나 월세에서 이익을 더 주는 식으로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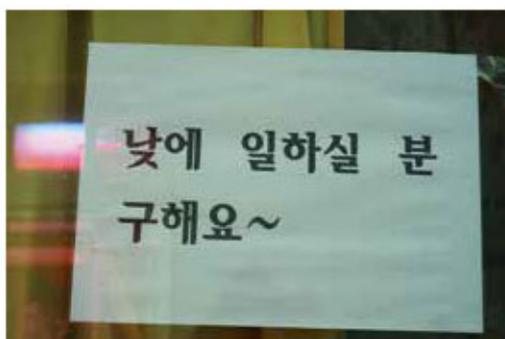
말해서 아가씨들끼리, 니들끼리 알아서 해 봐 그러면 지들끼리 조율을 해서 하다가 정하지. 왜냐면 다들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어쨌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대신 낮 영업 같은 경우 손님이 떠날 때 시간 서는 아가씨들은 대신 업주가 복비를 덜 받지. 대신 덜 받을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밤에 하는 애들은 낮보다는 좀 더 받고. 밤에 하고 싶은 애들은 더 내고 하고.<업주 E>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는 성매매로 버는 돈을 '화대'라고 한다. 예전에는 화대를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다. 업주의 착취가 심하던 시절에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7:3으로 화대를 나누었으나 6:4로 바뀌었다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5:5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다. 간혹 6:4로 성매매 여성이 더 많이 가져가는 업소가 있는데 이는 철저히 비밀로 한다고 한다. 집결지 내에 소문이 나면 화대 비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소문의 진원지가 된 여성과 업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 간의 암묵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에는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매월 일정한 월세만 주고 나머지 수입은 자신이 가져가는 독장사 형태도 등장하였다.

수원만이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다 5 대 5예요. 통일되어 있는 거야. 6 대 4는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왜냐면 소문이라는 게 "저 집이 6 대 4야." 그러면 이게 입소문이 돌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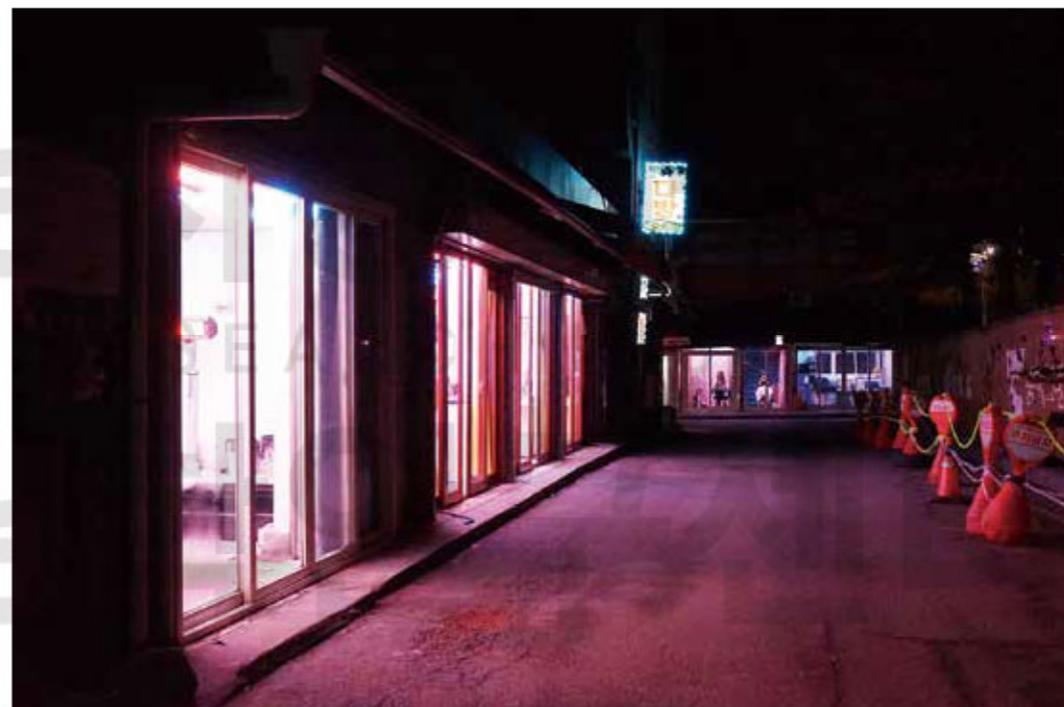


주간 영업 중인 성매매업소와 주간 근무자를 구하는 전단지(김인수 촬영)



큰 집도 다 그렇게 바뀌어 된다고 쉬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6 대 4도, 어떤 조건이냐면 이 사람이 돈을 못 벌 어. 그럼 6 대 4 안 해 줘요. 어느 정도 에이즈급으로 벌여 주는 사람이야. 6 대 4를 해 주는 거야. 다른 여성보다는 더 우월하게 벌여. 그래야지 6 대 4를 해 주는 거지. 못 버는 데 뭘 6 대 4야.
 <성매매 여성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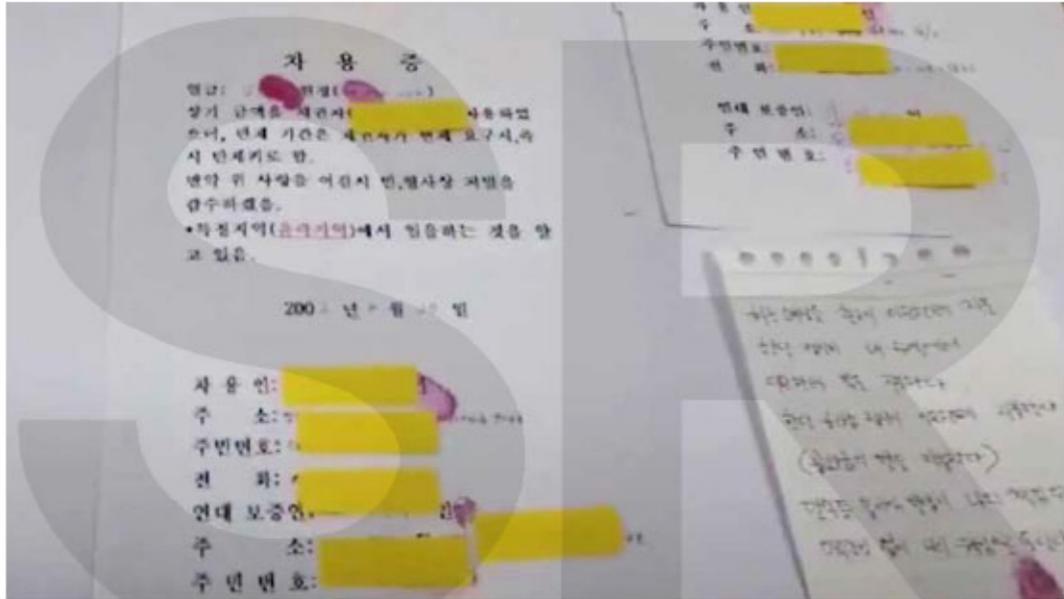
아가씨가 돈을 벌어서 업주가 반반씩 나눠 가졌잖아요. 6 대 4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10년 15년 전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 그게 아니라, 그냥 아가씨한테 방세만 받는 거야. 버는 건 니네 가 다 갖고 가. 그냥 방세만 내. 이런 시스템이 된 거야.<업주 E>



야간 영업 중인 성매매업소(김인수 촬영)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기사 중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빚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빚은 성매매업소에 처음 들어올 때 개인적으로 필요한 급전과 업소에서 일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일종의 가불금인 셈이다. 그런데 이 선불금을 갚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성매매업소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면서 탈성매매를 하기 힘들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선불금의 액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여성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가거나 여성단체에 탈성매매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처럼 선불금이 큰 빚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여성단체에 탈성매매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는 "만세 부른다."고 표현한다. 성매매 여성이 업주나 집결지 상권에 진 빚은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탕감되기 때문이다.



차용증과 각서

일부 아가씨들이 짜고서 판 데 가서 한 삼천, 애네는 빚을, 지금은 그렇게 절대 안 해줘. 옛날엔 빚을 한 삼천 오천 일억까지도 해주고 그랬던 말이야. 왜냐면 아가씨가 그만큼 버니까. 벌여 주니까. 벌어서 빚을 갚아가니까, 됐단 말이에요 수요가. 근데 이제 뭐 삼천 땡겼어 해줬어, 한 일주일 하고 도망가. 그래서 연락을 계속 하면 거꾸로 사장님 신고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야.<업주 E>

선불금은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초기에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업주가 돈이 없으면 일수를 얻어 주기도 한다. 일수는 100만 원 빌리면 이자가 30만 원이고 100일간 갚는 조건이다. 일수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원금은 성매매 여성이 갚고 이자는 업주가 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이 일수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업주가 다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받지 못한 선불금이 역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죽었을 거야. 폐암으로. 아주 악질적인 여자야. 아가씨가 돈을 안 주면 문 닫어 그래.<업주 A>



하루 매상을 충실히 이모한테 지불.
한 달 정산 시 내 수익에서 이모한테 빚을 지불한다.
한 달 공과금 정산 시 이모한테 지불한다.
<공과금의 반을 지불한다.>
단속 등 불이익 발생 시 나의 책임으로 돌린다.

차 용 증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채권자 ()에게 차용하였으며,
반제 기간은 채권자가 변제 요구시, 즉시 반제기로 함.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음.
*특정지역(윤락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
200 년 월 일
차 용 인:
주 소:
주 민 번 호:
전 화:
연대보증인:
주 소:
주 민 번 호: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단속에서 압수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소의 각서 내용과 차용증 양식

거의 다 자기 돈인데 이제 돈이 어쩌다가 없는 업주들은 자기가 이자는 대신 찍어 줘요. 자기가 그냥 찍어. 그렇다고 이 이자를 아가씨한테 받는 게 아니야. 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일수쟁이를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오는 아가씨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짱이 있어요. 근데 너무 세. 그럼 안 해. 어우 너무 많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 한다. 한 몇 백 선에서는 해 주는 거지. 이상백이면 이상백. 오백까지는 한정돼서 해 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거는, 일수쟁이들은 주인을 보고 주인이 보증인인 거야. 그래 갖고 500까지는 해 준단 말야. 그

러니까 이자는 자기가 갖고 원금만큼은 니가 5대 5로 계산해서 갚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냥 안 갚고 가버리면은 그냥 자기가 다 갚아야지. 어떡할 거야 자기가 해준 건데.<성매매 여성 A>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들과 계약하면서 선불금을 줄 때 차용증을 썼다. 만약 계약을 깨고 다른 업소로 이전할 때 선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도망간 여성들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용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매매업계가 한두 사람을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곳이기엔 언젠가는 만나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21년에 단속에서 적발된 한 업소에서 2000년대 초반의 차용증과 수기로 작성한 각서 형식의 계약서가 발견되었다.

5:5 vs 독장사

수원여성매매집결지 업소의 수익배분 구조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화대를 5:5로 나누는 방식과 성매매 여성이 업소의 방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업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는 독장사 방식이 일반적이다. 폐쇄 직전에는 독장사의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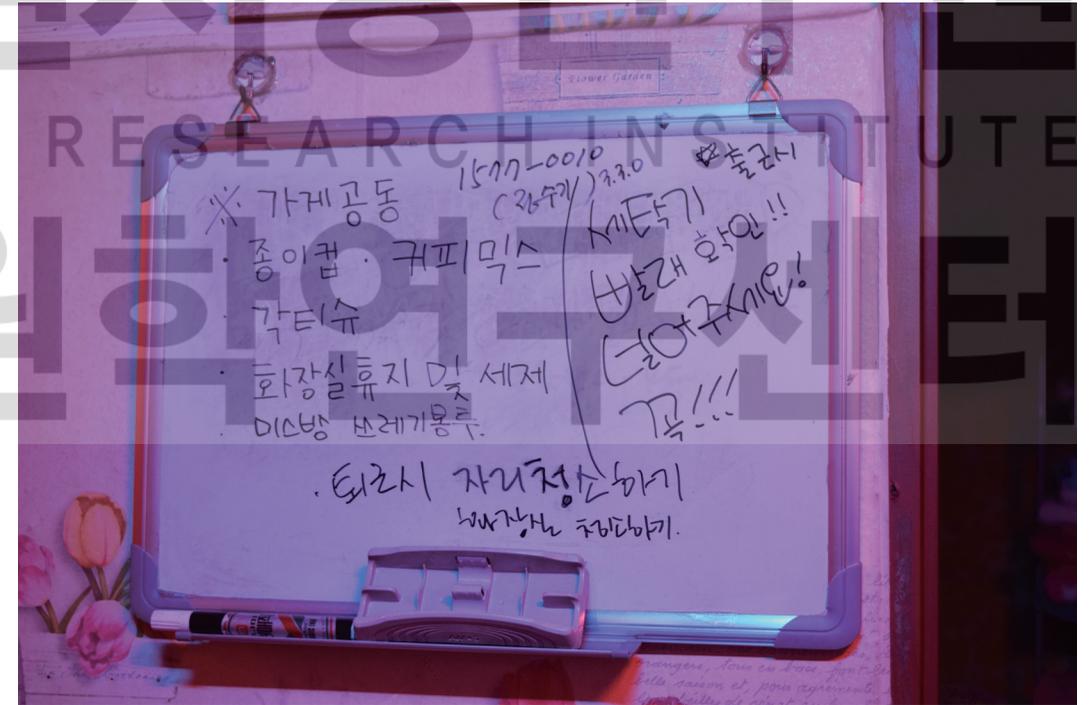
5:5 방식은 업주가 여성에게 업소에서 식사와 세탁,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비용을 여성에게 별도로 받는 업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소는 업주가 제공하였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료 역시 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에게 공동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업소에서 생활하는 여성에게 방값을 별도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였다. 모두 업주가 정하기 나름인 셈이다. 식사나 청소 같은 서비스는 업주가 '주방이모'라고 불리는 중장년층 여성을 고용하여 담당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여성 업주가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펌푸가 호객행위를 하던 시절에는 펌푸가 주방이모를 겸하는 업소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유리방에서 여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피믹스, 종이컵, 휴지 등의 물품 구입비용은 여성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내가 있을 때는 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밥은 주인이 주방이모한테 돈 주고 시장 봐오라고 시켜서 하고. 주방이모는 매일 나오셔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때 퇴근하시고. 그때는 5:5로 나누었다. 그것만 냈다. 커피 이런 거는 같이 걸어서 그런 것만 하는 집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

수원시정여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여구원



업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용장 촬영)

는 주인이 그것도 다 부담했어요. 집집마다 다 틀려요. 그렇게 하는 집이 있고, 커피 공과금 휴지 종이컵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거 따로 돈 걸어서 사는 집도 있고. 그렇다고 매번 걷는 것도 아니고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몇 만 원씩, 2~3만 원 정도 걸어서 박스때기로 사놓으면 한참 먹니까. 업주가 좀 더 해 주는 데가 있고 덜 해 주는 데가 있고 그 정도 차이.<성매매 여성 A>

독장사는 말 그대로 혼자 하는 장사이다.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업주에게 월세를 내고 방을 빌려서 영업하는 방식이다. 매월 수입에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이다. 업주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시키지 않고 여성에게 월세를 받는 임대업자가 되는 셈이고 성매매 여성은 일종의 개인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5:5 방식과 독장사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다. 5:5는 여성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업주의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많은 편이었다.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벌금이 있었고, 여성들의 옷이나 화장, 헤어스타일 등에



성매매집결지 출입구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김인수 촬영)

대해 간섭하고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등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생리 기간에 일을 강요하는 업주도 있었다. 여성들도 화대를 많이 받을수록 수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업주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다. 독장사는 업주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 장소 제공만 하는 셈이어서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볍다.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업주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대신 영업이 잘 되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성매매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업이 안 되면 월세 부담이 커지고 5:5 배분보다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업주의 강요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느슨해지기 쉽다고 한다.

저는 독장사 하다가 5:5도 하다가 왔다갔다해요. 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자주 빠지다 보니까 늘어진다고 사람이. 몸이 아프고 자주 못 나오게 된다고. 이게 나사가 풀려서 사람이 해이해져. 오래 치대다 보니까. 쉬고도 싶고 그게 늘어지다 보면 정신 차려야겠다 싶으면 5:5 하자. 사람마다 틀려서 독장사하는 사람도 박세게 해서 돈 벌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



성매매집결지 입구(이용창 촬영)

는가 하면 나처럼 오래 하다 보면 몸도 아프고 자주 빠지고 면역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회의도 자주 느끼게 되고 그러잖아. 언제까지 이려고 살아야 하나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훑 들어온다고 여자다 보니까.<성매매 여성 A>

호객행위

정확한 시점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는 2000년 전후로 해서 행인을 상대로 호객하는 일명 '히빠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집결지 내에서만 호객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잡아당긴다.' 혹은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의 일본어 'ひっぱり'에서 유래한 '히빠리'는 길에서 행인의 팔을 잡아채서 끌고 가는 호객행위를 말한다. 성매매집결지 밖으로 나와서 행인을 상대로 호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전까지 '뽀뽀'라고 부르는 중년 여성이 수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길에서 지나가는 성인 남성과 흥정해서 혹은 잡아끌어 성매매업소로 데려오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곤 하였다. 뒷장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골목 입구에 나와서 직접 호객을 하기도 했는



유리방 내부(김인수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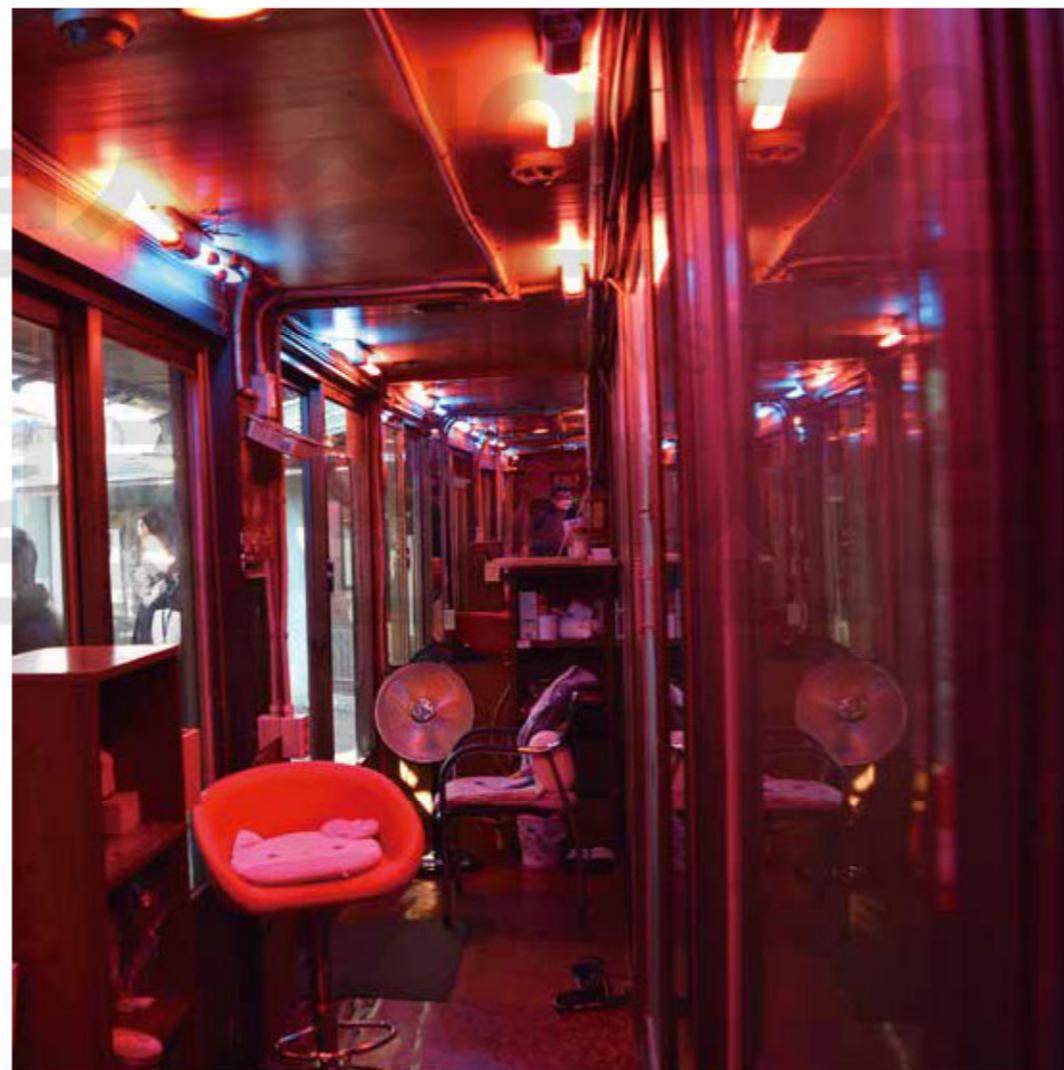
데 고객을 하는 중에 다른 업소 여성들 간에 경쟁이 과열되면 싸움이 나기도 하였다. 지금처럼 유리방이 있던 때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이런 박스가 없었고 그냥 집으로만 되어 있고, 아줌마들이나 젊은 여자애들 나와 가지고, 직접 나와서 손님들 지나가는 걸 잡았다고. 그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영업을 이렇게 하다가, 조금 변하면서 이제 이런 박스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업주 D>

여기 아가씨들이 있으면서 저기 골목 나가서 히바리를 이제 해 갖고.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낚아채서 "오빠, 놀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의 영업을 했던 거죠.<업주 D>

'유리방', '미스방', '박스'라고 부르는 쇼윈도우 형태의 공간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경우 1990년대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울 청량리에서는 이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유

수원 SUWON 수원



유리방 내부(이용창 촬영)

리방이 생긴 후에는 업소의 유리문을 열어 놓고 골목을 지나는 잠재적 구매자를 상대로 여성들이 직접 고객을 하였다. 유리문 밖으로 나와서 손님을 잡아끌 수는 없지만 말로써 고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객행위에서 첫 말씀을 트는 것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처음 오는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다.

처음에 입으로 말 뱉는 게 힘들지. 룸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나. 없잖아. 여기 와서는 나한테

오든 안 오든 지나가면 불러야 하나까 처음에 말은 트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랬더라구. 이미 말은 하고 있어. 그런데 소리가 걸로 나오지 않는 거지. <성매매 여성 A>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는 이 호객행위에 나름의 규칙을 적용하였다. 업소마다 유리문의 개수가 다르지만 대체로 유리문 2짝을 한 구역으로 보고 한 명의 여성이 한 구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즉, 남성이 업소를 지나는 동안 자신의 구역 안에 있을 때만 말을 걸면서 호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도 끝까지 부르는 게 아니라 선이 있거든요. 본인 구역에서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후다닥해야 되거든요. '바바바' 몇 마디밖에 못 한다구. "놀다 가요." "와 봐요." 요 정도. <성매매 여성 A>

내 집 식구부터 롤이라든가 매너를 지켜야지. 선 넘어서 하는 건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 앞에 올 때만 부르고 옆에 아가씨 문짝으로 넘어가면 내 집 식구라도 방해가 되는 거지. 내가 쓰는 문이 있는 거고. 한 문 가지고도 돌아가면서 쓰는 구역이 있는 거구. 한 집에 문이 세 개 있으면 아가씨가 각자 자기 문이 있어. 자기 문 앞을 지나갈 때만 말을 걸어야 돼. 옆에서 아가씨가 얘기할 때 나 같은 경우는 고개를 돌려줘요. 난 그게 매너라고 생각해. 아이 컨택이 되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왔다가도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 안 그런 종사자도 있어. 뚱어지게 쳐다보는 애들도 있어.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도 매너는 지켜줘야지. 여우짓 하는 애들은 이미 알아. 나는 성격상 내 집에서 그렇게 하는 언니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박 줘요. 개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 생활이 물 흐르면 되겠어? <성매매 여성 A>

남성이 구매 의사를 보이면 흥정이 이루어진다. 화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화대 액수와 시간을 정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보통은 가게 입구에 서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서서 얘기를 해 주는 거지. 물어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많아 그런 사람. 내가 불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고 백퍼 이

수원
SUWON
수원



성매매업소 복도(김인수 촬영)



성매매집결지 방 앞에 설치된 타이머(김인수 촬영)

1 5 분 - 8 만 원
 2 0 분 - 1 2 만 원
 3 0 분 - 1 6 만 원
 1 시 간 - 2 4 만 원

시행일자:2017/09/30 이후



1. 시간별 화대(앞장)
2. 화대를 넣는 돈통(이용창 촬영)
3.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 둔 사탕(김인수 촬영)
4.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료수(이용창 촬영)

사람이 나하고 그걸 하란 법 없어요. 싸구미처럼 돌아다니면서 안 볼 것처럼 하면서 여자들 다 본다고. 다 보고 자기가 맘에 드는 사람 봐 둔다고. 그리고 돌아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유명이 많죠. 나한테 물어보고 옆에 내 집 식구 아가씨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 기분이 나빠도 내 식구라서 얘기를 못하죠. 그 아가씨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물어보고 나한테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근데 티는 못내. 백퍼 담배에 손이 가. 그때는 손님 데리고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오면 손님 보내고 나서 "고마워요, 언니." 그러지.<성매매 여성 A>

수원성매매연구회

SUWON RESEARCH FOR PROSTITUTES

수원성매매연구회

남성이 돌아갈 때 재방문을 부탁한다는 의미로 양말이나 우산 같은 사은품을 주는 여성들도 있다. 여럿이 함께 와서 방에 들어간 친구를 기다리는 다른 남성들은 잠재적 구매자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사은품이나 접대용 음료수 구입비는 성매매 여성의 영업비용이 된다.

이모와 삼촌

성매매업소에서는 친족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주가 여자면 이모, 남자면 삼촌으로 부르고 간혹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소의 식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도우미는 주방이모라고 한다. 아저씨나 아줌마 같은 호칭은 성매매집결지에서 듣기 어렵다. 업주와 여성은 고용관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사장님이라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업주와 여성 간에 친족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쩌면 업주가 여성에게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집결지 안에서는 가족처럼 지낸다고 말한다. 가족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동료와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며 함께 생활하는 업주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업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정이 그리운 성매매 여성들이 그렇게라도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업주랑 아가씨랑 오래 있다 보면 되게 친근감이 생겨요. 그러면 민게 되고.<업주 E>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여기 나와서 영업하면서 했던 누나들이 남문에 데리고 가서 리복, 필라 이런 데서 옷을 사주고 그랬어요. 오면은 계속 이빠해 주고, 이모라고, 지금도 물론 연락하는 분도 있고요.<업주 D>

예를 들어서 나는 업주고, 너는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야. 벌써 이게 금이 가면 아무것도 여기는 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려요. 형제한테도 못할 얘기를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서로. 그러면 서로 이해해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또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이걸



성매매업소 이모(김인수 촬영)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돈만 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왜 가족보다 이웃이 낫다고 하잖아요.<업주 B>

여기 업주 분들이나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이 먹고살기 위해서 서로 같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형제자매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기서 일한다는 사실을. 여기 그리고 언니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여기서 이런 장사한다고 선불리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형제 시간에도.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 와서 아프고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서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업주 B>

수원여성성매매집결지
SUWON RESEARCH CENTER
수원여성성매매집결지

불법이라서 불안한 성매매 여성, 불법임에도 당당한 성매매 남성

성매매업소를 찾는 남성들은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돈으로 성을 사는 것이다. 불법 성매매의 구매자이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구매자인 남성에게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은 가급적 경찰에 어떠한 빌미라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자신이 불법행위인 성매매의 당사자이면서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 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이 있다. 소위 '진상'이다. 진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본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화대 반환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특히 술 취한 손님은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린다. 성매매업이 불법임을 알고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는 행동이다. 다찌 또는 삼촌이 있을 때는 이들이 진상을 데리고 나가서 집을 주거나 달래서 보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예전에는 “어, 저 새끼 봐라.” 이러면서 “너, 이리 와. 무슨 소리야. 때려? 돈 내놔. 어디 아가씨를 갖다가.”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못 해요. 그 분들(삼촌들)이 그렇게 돈 태워가는 사람들 교육시켜 주지.<성매매 여성 A>

다찌의 존재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사라진 후에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이 돈을 주고 달래서 보냈다. 이런 행위를 “돈 태워 간다.”고 표현한다. 성매매집결지의 특성상 여성들만 있는 업소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가급적 회피하려 하였다.

그걸 노리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하루에 2건도 생기고 3건도 생겨요. 그럼 아가씨가 성질나서 내줬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머리고맹이 잡고 싸우고.<업주 A>

여자만 있는 것을 알아 갖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있다고요. 여자만 있는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면요. 지금은 언니들이 그 장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언니들도 안 나가 하

려고. 언니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당해서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가끔씩 저희가 "삼촌! 삼촌!" 이럴 때도 있고, 삼촌 소리만 들어도 가는 사람 있고, 전화로 거짓말 전화를 하는 거야. 플리스 빨리 오라고.<업주 B>

유리방에 서 있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시비 걸고 행패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술에 취한 채로 집결지에 들어오는 남성들인데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하면 신고한 사람과 성매매 여성이 함께 파출소에 가야 하므로 여성들은 최대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시비 거는 경우가 많다 했잖아요. 근데 지가 시비 걸어 놓고는 지가 신고를 해요. 애네가 시비 건다고. "나 맞았다." 이러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지 맞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다가 속 시끄러우니까 피해 버린다고. 진짜 동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피했는데도, 일부러 문을 잠그고 파하는 경우인데 문을 막 깨는 경우도 있어요. 창문을 깨고, 그래 놓고 지가 신고해요.<성매매 여성 B>

기본 잡치고 영입 못하고, 성질은 성질대로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인들은, 자기 집에선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데 와서 큰소리치는 거야.<성매매 여성 B>

성매매 여성은 진상 손님을 만나면 손해가 매우 크다. 폭행을 당해서 신체적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화대를 돌려주면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 선불로 받은 화대는 방에 들어가면서 돈통에 넣는데 손님이 화대를 돌려 달라고 진상을 부리면 대개 여성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손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떠넘기는 업주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불한 화대보다 더 요구해서 받아 가거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며 내놓으라는 손님도 있다고 한다. 어쨌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아무리 진상 손님이라도 잘 달래서 보내야 한다.

이모님들이, 장사하시는 업주 분들이 와서 달래고. 언니들은 이미 부딪쳤으니까 잘 안 되면, 업



주 분들이 들어가셔서, "언니들이 고생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술 먹으신 분들은, 이게 겨울에는 술 풀리니까, 이분들이 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살살 달래 가지고 따뜻한 물 한 잔 주면서 "얼른 가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언니도 집에 가지요." 뭐 이렇게 해서 구슬리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화도 냈다가, 달랬다가. "아우 이렇게 멋있게 생겨서, 젊은 분이 왜 이러세요." 이래 가지고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언니들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업주 B>

휴대폰이 대중화된 후에는 방에서 몰래 촬영하는 손님도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유포가 활발해지면서 성매매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여성들은 초반에는 잘 모르다가 누군가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을 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에 대처하고 있다. 손님과 방에 들어가면 우선 핸드폰 위치를 확인하고 녹화나 녹음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성매매집결지 골목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찍혀서 공개된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을 보면 여성들이 촬영을 제지하는데 이럴 때는 실랑이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에게 심한 욕설이 쏟아진다.

성매매 여성을 향해 폭언이나 폭행 등을 가하는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다. '윤락녀', '창녀' 등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던 이전의 사회적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매매가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성매매 여성의 인식과, 돈을 주고 여성의 몸을 샀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성매매남성의 인식은 간극이 매우 크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는 다 받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죽을 때까지 못 들어볼 욕이란 욕은, 희한알딱까리한 욕은 다 들어본다고. 벽에 통칠할 때까지 살 거예요 우리들은 아. 가만히 있어도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욕하고 시비 걸고. 가만히 서 있다 쳐맞고. 그러니까 여자라고 너무 우습게 보고. 여자들만 짝 있는 데니까. 상해 같은 거 우리가 당할 수가 있던 말이야. 무작정 괜히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성매매 여성 A>



몰래카메라 촬영 금지 안내문(강석우 촬영)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가져온 변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2004년 3월 22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두 법률을 합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부르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4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성매매 단속에 걸려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 성매매특별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결지 내에 거주하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14명의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중심에 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동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경찰은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이로써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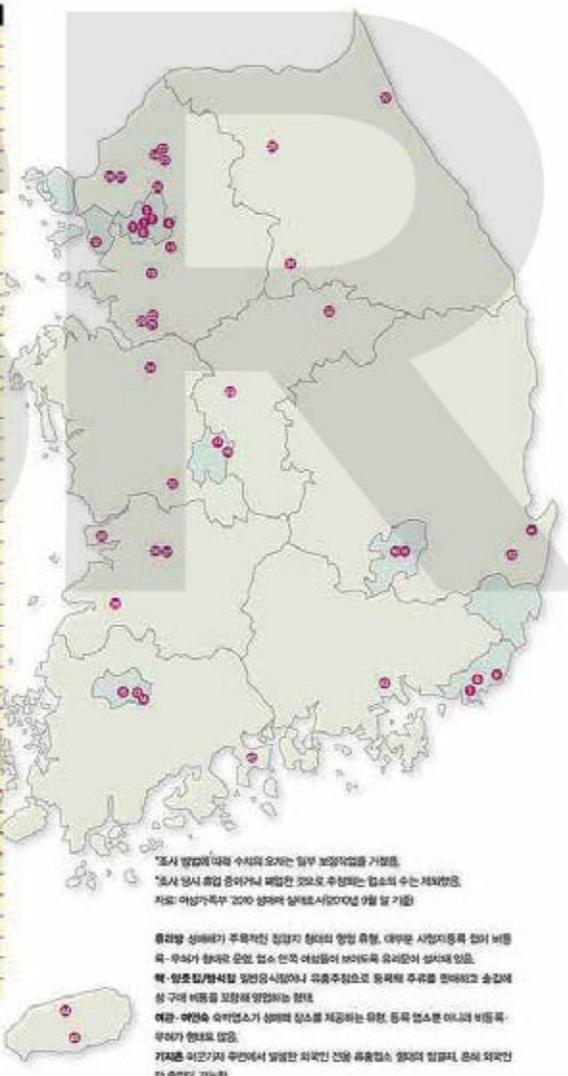
성매매특별법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다른 점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며 이들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보고 교화와 선도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들을 기술교육 시설에 보내서 탈성매매를 유도하였다.

그냥 문 부수고 들어와서 다 우당탕탕하고. 그러면 아가씨들이 어디를 갔나면 학원으로 보냈어. 인천에 있는 학원, 세곡동에 있는 학원. 입주는 구속돼서 재판 받고 집행유예 받고 8개월 살고 나오고 그랬어요. 아가씨들은 걸리지 않고 인천으로 많이 보냈지. 그게 지금의 퇴폐이발소가 됐고 안마시술소가 된 거야. 원리가 그렇게 된 거야. 배운 게 뭐야. 면도, 안마. 그게 나와서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퇴폐이발관으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퇴폐가 되는 거야.

<업주 A>

전국 45개 성매매 집결지

지역	약칭·숙명	주요 업소 유형	성매매 업소 수*	성매매 여성 수
서울 용산구	용산역전	유리방	102개	129명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유리방	60개	117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지역 일대	유리방	73개	140명
서울 강동구	천호동 택시승	유리방	47개	154명
서울 성북구	미로역 택시승	유리방	105개	400명
서울 용작구	이수역 광화문역	택·양웃집/방석집	14개	20명
부산 서구	원월동	유리방	60개	220명
부산 부산진구	범선동 3000번지	유리방	15개	59명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609	유리방	27개	107명
대구 중구	자갈마당	유리방	48개	234명
대구 중구	나룻배 공목, 귀금속 상가	여관·여인숙	36개	76명
인천 남구	영종대우초	유리방	26개	80명
광주 동구	대인동 금남로5가	유리방	48개	220명
광주 동구	무등로	택·양웃집/방석집	11개	67명
광주 서구	월전거리	택·양웃집/방석집	35개	212명
대전 중구	중앙동 여인숙, 박촌	여관·여인숙	70개	100명
대전 대덕구	중이동 택·양웃집, 카페촌	택·양웃집/방석집	36개	85명
경기 수원시	수원역전	유리방	99개	189명
경기 성남시	중동	택·양웃집/방석집	47개	183명
경기 평택시	쌍곡	유리방	109개	52명
경기 평택시	신정동	기차촌	77개	29명
경기 평택시	안정리	기차촌	24개	89명
경기 동두천시	생원거리	유리방	24개	64명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기차촌	63개	345명
경기 동두천시	광일동(타기과)	기차촌	9개	32명
경기 파주시	양주골	유리방	71개	264명
경기 파주시	범원 20호	유리방	14개	27명
경기 의정부시	백암	기차촌	8개	36명
강원 춘천시	난소촌	유리방	15개	39명
강원 속초시	금호실업	유리방	5개	8명
강원 원주시	화매촌	유리방	22개	27명
충북 제천시	제천역 여인숙 골목	여관·여인숙	46개	107명
충북 청주시	범고개 일대	택·양웃집/방석집	54개	60명
충남 아산시	장미마을	택·양웃집/방석집	26개	120명
충남 논산시	스루리전	여관·여인숙	27개	26명
전북 전주시	신매동	유리방	40개	122명
전북 전주시	선화동	여관·여인숙	43개	96명
전북 군산시	아미리(타운)	기차촌	17개	71명
전북 정읍시	천주교 골목	택·양웃집/방석집	8개	36명
전남 여수시	여수역	여관·여인숙	26개	26명
강원 포항시	중앙광화	유리방	60개	148명
강원 경주시	죽산(자매300고지)	유리방	7개	19명
강원 마산시	신묘동 골목네	유리방	20개	19명
제주 제주시	산지촌	여관·여인숙	13개	20명
제주 서귀포시	중앙시장 뒷골목	택·양웃집/방석집	24개	29명



*도시 행정구역에 따라 수치의 오차는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음.
 *도시 성시 중심 중이거나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의 수는 제외함.
 자료: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2010년 9월 말 기준)

유리방 성매매가 주목적인 집결지 형태의 형성 유형. 대부분 사업지점용 2층 보통
 목·우리가 한때의 문호. 업소 안의 여성들이 보이도록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음.
 택·양웃집/방석집 일련성 시설이나 유동주점으로 동래해 주류를 판매하고 술집에
 상 구해 비용을 포함해 영업하는 형태.
 여관·여인숙 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유형. 동쪽 업소뿐 아니라 보통 목·
 우리가 형태로 있음.
 기차촌 역안거리 주변에서 밀려난 최빈민 건물 유동업소 형태로 있음. 흔해 최빈민
 단을 형성 가능함.

2010년 9월 현재 전국 45개 성매매집결지(여성가족부 제공)

이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을 성 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이
 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한 피해 회복과 주거, 직
 업훈련, 법률구조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 시위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한 자'를 구분함으로써 성
 매매업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성매매된 자'는 수동적 희생자로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자 피해자이지만, '성매매한 자'는 적극적 범죄자로서 처벌의 대상이자 성산업 구조의 부역
 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을 성매매된 자로 인식하기보다 성
 매매한 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택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강조하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다 생존권이 더 중
 요하므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성매매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성매매집결지를 단속하고 폐쇄하면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음성화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정부는 성매매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7년
 까지 전국의 모든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결정하였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대대적인
 경찰의 특별 단속이 실시되자, 성매매집결지 등 대부분의 성매매업소는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가 되었
 다. 경찰 단속에 반발한 성매매 여성들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생존권 위협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2004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을 시작으로 2007년 여의도, 2009년 강남구 봉은사 앞, 2011년 여
 의도와 종로 보신각 앞 등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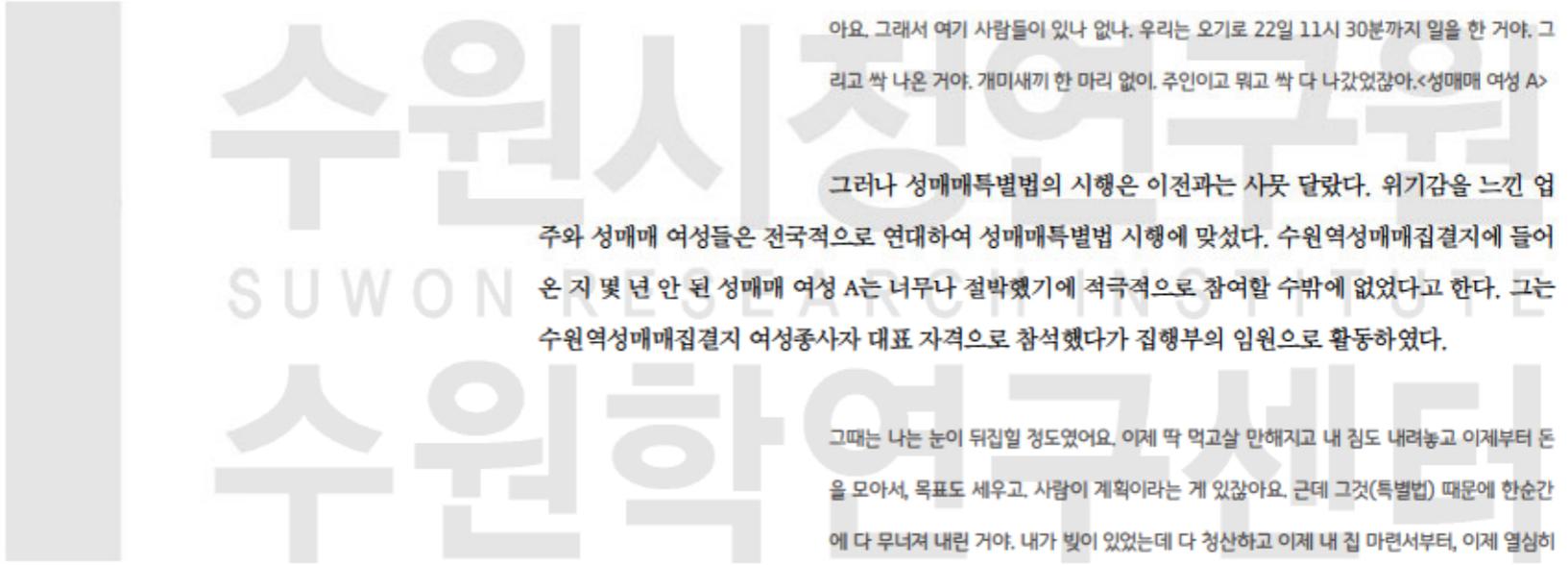


탈업소를 위한 성산업인 전국대회(한터 전국연합 홈페이지 제공)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대응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다는 발표가 났을 때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여태까지처럼 잠깐 단속하고 다시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업 가능 시간이 언제까지냐는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9월 23일 0시냐.' 아니면 '9월 23일 24시냐.' 하는 것이었다.

우린 티비를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설 때는 사우나 가거나 개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뉴스에 뭐 큰일 났다고 하는데 우린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했어요. 못 한다고 하는데 “그냥 단속 좀 하다가 말겠지.” 이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러는데 9월 23일 12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다 여기를 쏘아버린다, 달는다는 거야. 우리는 그때 그 12시가 23일 되는 날 12시나 23일 밤 12시나 어떤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그랬더니 백퍼(100%) 23일 되는



12시일 거다. 그때 여기에 열감지 카메라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먹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우리는 오기로 22일 11시 30분까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싹 나온 거야.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주인이고 뭐고 싹 다 나갔었잖아.<성매매 여성 A>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위기감을 느낀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맞섰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성매매 여성 A는 너무나 절박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여성종사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집행부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때는 나는 눈이 뒤집힐 정도였어요. 이제 딱 먹고살 만해지고 내 짐도 내려놓고 이제부터 돈을 모아서, 목표도 세우고, 사람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특별법)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야. 내가 빛이 있었는데 다 청산하고 이제 내 집 마련서부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목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싹 다 없앤다고 하고, 하루아침에 그 소식을 들으니,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로 갈 생각보다 내 터전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내 직장이잖아. 내 일터고, 우리가 지켜야지.<성매매 여성 A>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다 그냥 몰살당하고 그냥 싹 다 이게 없어질 판이다. 그래 갖고 이제 올라간 거야. 종사자 대표자들이 각 지역 영등포면 영등포, 용산이면 용산. 회장 임원 해 갖고 서는 아가씨들이, 대표들이 다 모인 거야 지역에서. 어우 꽤 되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는 밥줄이 끊긴다 상황이. 시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성매매 여성 A>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일제히 상경하여 집회를 하였다. 여성A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황청심환을 먹고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한다. 막상 앞에 서서 집결지별로 색깔을 맞춰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여성들을 보니 울컥하는 마음에 용기가 났었다고 한다. 전국적인 시위는 성매매 여성들만 참여하였고 업주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성매매 여

성들은 이 싸움을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날 우리 버스 타고 갔는데 야 난 정말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 집창촌 여성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일렬로 딱딱딱, 지역별로 모자 색깔 뭐가 짝 있는데, 감동 받은 거야. 난 진짜 그때 감동이, 서로 모르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그 어마어마한 여성사자들이 다 모여서. 손 떨리고 했던 게 싹 사그라드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시위를 시작한 거야 거기서. 이거는 우리 싸움인 거야. 우리 밥그릇 싸움인 거야. 업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성매매 여성 A>

그때 자살한 종사자들도 많아요. 정말로 많았어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성매매 여성 A>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어쩌면 최초였기에 국내외 언론들이 앞다투어 취재를 하였다. 언론과 인터뷰는 물론이고, 청와대에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러 가기도 했고,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하였다.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때 전국적으로 대표자들 소집해 가지고 종사자들 필두로 해서 서울에서 모여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자 해 가지고서. 옛날에 그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9·23 성매매특별법 시위하는 거 봤죠? 길거리에서 3개월씩 계속 농성하고. 큰 시위로 대대적으로 보여지는 건 한 번 했고, 그거 하고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투쟁도 했고. <성매매 여성 A>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전국 성매매집결지의 불이 꺼졌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은 한 달간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였다. 경찰은 열감지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단속을 하였다. 집결지를 잠정폐쇄한 채로 한 달을 지내고 나서 여성들은 항의의 의미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밤이면 업소에 불을 켜 놓았다고 한다. 그렇게 3개월 정도 투쟁을 하고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영업을 재개하였다.

수원시청연구위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화학연구센터

집에 간 애도 있고 사우나 간 애도 있고. 일단은 뭉쳐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잠깐인 건지 계속인 건지. 이게 심각한 거야 보니까. 법 자체를 바꿔서 여기를 없애는 거니까 심각한 거더라구. <성매매 여성 A>

불잡혀도 하자. 아니 먹고살아야 될 거 아냐. 일단 뭐 맞더라도 하자. 어느 한 집이 걸리면 소문이 나니까 그 때 불 꺼버리고 다 달으면 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하자 그냥 부딪하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이다 뭐 한다 해서 이제 서서히 지금 10년 넘게 있으면서는 조용했다가 이제 저기 된 거죠. <성매매 여성 B>

전국적인 투쟁 이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일종의 노조 집행부 같은 것이 생겼다. 성매매 여성들을 대표하는 2~3명이 업주의 부당한 사례가 생기면 업주회장에게 항의해서 고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내가 반영을 해 주는 거야. 종사자들이 내 연락처를 다 아니까. 아니면은 한 동네 식구니까 내가 왔다갔다 하면은 불려서 애길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 불만을 갖다가 이제 사무실에 연락을 하는 거야. “좀 뽀죠?” 해 갖고서는 조용조용히. 막 떠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집의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종사자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느 집이야? 알았어! 누구네 집.” 그러면은 그 업주들 회의를 하나까 명단이 있을 거야. 그러면 불려서 얘기를 하면 연락이 와요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런 건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매매 여성 A>

그리고 6월 29일을 종사자의 날로 정하고 그날은 전국의 모든 성매매집결지가 휴업을 한다. 왜 6월 29일로 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보장된 하루의 휴가를 성매매 여성들은 그냥 푹 쉬는 것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음식 해서 주는 걸 좋아해요. 애들이랑 같이 음식 해서 먹고, 자고, 그럼 하루가 그



2017년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12주년 기념 휴무 플래카드(취회진 촬영)

냥 지나가 버려요. 쉬는 날은 오히려 진짜 폭 자야지. 언니다 보니까. 챙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자 하는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해서 먹고 커피타임 해 가면서 누가 좀 까다가 밖에 볼 일 있는 애들은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이지. 한 번씩 또 누구 욕도 하고 주인 뒤통수도 까고.<성매매 여성 A>

성노동자의 출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서비스업으로 인식하면서 자신들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인식하고 '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성매매를 통해 손님은 나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서비스를 산 것이며, 손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준 돈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손님이 준 돈이 아깝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4월에 개최된 제7회 서울여성영화제 기간에 국내외 여성 영화학자와 활동가, 감독뿐 아니라 인도와 대만의 탈성매매 여성,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들이 모여 '아시아 지역 성매매의 현실'을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다. 한티여종사자연맹 대표로 참석한 성매매 여성 A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노동자로서 권리를 갖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발제하였다.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성매매 여성 A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집결지를 없애는 것만이 여성들을 성매매에서 구제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차라리 성매매 여성을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으로 봐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2015년 대의원 총회에서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침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성매매 여성은 물론 성매수자와 알선업자 모두 처벌하여서는 안 되며 성노동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성매매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주와 성매매 여성의 관계 변화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이 반기지 않았어도 성매매특별법은 분명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었다.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업주의 강압에 의한 성매매나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업주가 겁이 많고 여성이 울이었던 관계가 역전되어 업주가 울이 고 여성이 겁이 되었다는 업주들의 자조적인 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서서히 겁과 울이 바뀐 게 9·23 성매매특별법 터지고 나서부터. 다시 영업 재개하면서부터. 우리가 노조 아닌 노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성매매 여성 A>



한타가 왜 생겼을까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생긴 거 같아요. 미아리가 뭐 어찌고저찌고 단속하고. 한타,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특별법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왜? 단속이 힘든 게 아니야. 아가씨들이 그걸 악용하니까. 악용해 힘들어지니까.<업주 D>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가씨들이 갑질한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해 주고 한여름에도 땀 삐질삐질 흘려 가면서 지네들 먹고 싶다는 거 다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갑이라니까.<업주 G>

지금은 아가씨가 갑이고 업주는 그냥 식모야 식모. 옛날로 말하면 그냥 식모. 밥해 주고, 빨래해 주고, 심부름해 주고 하는 식모.<업주 C>

2004년부터 달방으로 바뀌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업주랑 이렇게 했는데, 그때서부터 달방으로 바뀌었어. 지금은 거의 다 방세로 받아. 아가씨들이 꿈을 많이 깬 거야. 그래서 달방으로 가고, 업주로 가면 구속되잖아. 그런데 달방으로 가면 구속이 안 돼. 자리 제공이잖아. 아가씨가 걸리지. 아가씨는 처소 제공이지. 건물주는 자리 제공이고.<업주 A>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사람들(김인수 촬영)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상권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주변 상권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업소와 성매매 여성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이들, 특히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권을 포함시켜야 제대로 된 전체를 볼 수 있다. 성매매집결지의 상권은 세탁소, 미용실, 슈퍼, 식당 등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의 점포들이 앞장의 성매매업소들과 혼재하거나 근거리에서 자리 잡고 있다. 세탁소와 미용실 등은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있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40년 정도 지속해 온 점포들이다. 이 점포 중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면서 함께 문을 닫게 된 곳들이 있다.

여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사해서 먹고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도 그렇고 화장품 파는 데도 그렇고 세탁소도 그렇고, 여기는 진짜 그래요. 생존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업주 B>

여기는 장사를 할라고 하면 아가씨들 업종 위주로 들어와야지 뭐가 들어와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하나에 벌어들인 사람이 많죠. 사라지면 식당이고 음식점이고 다 죽죠.<약국>



성매매집결지 내 일반 상가(강석우 촬영)

갯산로에서 성매매집결지 진입 초입에 있는 상가(강석우 촬영)



될 수 있으면 동네 사람들 하시는 분들 불러서, 여기는 그래서 그런 상생이 많아요. 아는 사람 불러서 하고 고쳐 주고 하고.<업주 E>

건물도 오래되고, 나이 드시고 오래되신 분이라도 옛날부터 종사자들 머리를 많이 만졌으니까 이 계통의 헤어스타일 같은 거는 말하면 금방금방 캐치를 해 주잖아. 그게 편하니까 또 가깝고 하니까 종사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 일반인들이 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골목 안에 있잖아. 종사자들 골목 안에 있잖아.<성매매 여성 A>

상인들도 같이 잘 살고 잘 버는 거고,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상인 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굳이 나가서 사지 않아도 되고 뭐가 떨어지면 늦게까지 급하게 뭐 좀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우리가 나갈 수 없잖아. 일하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상부상조, 이 안에서 사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인이고 뭐고 다 공동체인 거예요. 내 일같이 아휴 어떡 하나 이려고, 하다못해 야쿠르트 아줌마들도.<성매매 여성 A>

미용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는 몇 곳의 미용실이 있었다. 폐쇄 직전까지 문을 연 미용실은 2~3곳 정도였지만 이전에는 더 많았다고 한다. 헤어기기의 발달로 여성들이 직접 머리를 만질 수 있게 되면서 영업 이익이 줄어들자 몇 군데 미용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1980년대 초에 개업한 회미용실은 위치가 한 번 바뀌었을 뿐 40년을 유지해 오고 있다. 미용실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야간에만 영업을 하던 시절 성매매업소가 문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여성들이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화장을 하거나 수다를 떨면서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지금은 아가씨들 상대로 장사하지 일반 손님이 없어요 저는. 그때는 아가씨들도 많으니까 이 쇼파에 꼭 앉아 갖고 화장들 하고 순서 기다리고 그랬거든.<미용실>



회미용실과 한은하미용실(강석우 촬영)

미용실 원장과 성매매 여성들은 자주 만나다 보니 친밀한 관계가 되기 쉬웠다. 회미용실 원장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 고향 이모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애기'라고 표현하고 여성들은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다.

다 정들이 그리운 애들이여. 그래 갖고 조금만 질해 주면 너무나 애들이 착해. 아가씨들이 정 들어 갖고 빨리 못 떠나고 이려고 있다.<미용실>

나는 아가씨들한테 뭘 애길 들어도 절대 업주들한테 애길 안 해. 머리 하러 오는 애기들은 자식 같아 갖고, 그냥 안쓰러워. 명절 때는 발 디딜 데가 없었어. 그때 애기들이 대목 보는 거지. 우리도 같이 일해 주는 거야. 아가씨들 일하니까.<미용실>



미용실 내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은 파마나 커트 실력이 좋지 않다고 자평한다.

뽀글 파마는 안 해. 초창기에는 조금 했어. 초창기에는 조금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부터는 뽀글 파마가 없어. 남자들이 파마를 싫어한다. 한 번 파마를 해 보고 싶어 갖고 파마를 했는데 손님 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바로 풀고. 머릿결 좋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미용실>

헤어 매직기가 나온 후에는 여성들이 매직기를 구입해서 직접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미용실의 수입이 이전만 못하게 되었다. 요즘은 붙임머리를 많이 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붙임머리 전문점이 생겼다.

옛날에는 머리들을 못 하니까 아줌마들이 파마머리 미용실 가서 했지만. 지금은 언니들이 나 이 드신 분들도 다 각자 매직기로 기동차게 머리를 만져요. 다 자기들 스스로. 그것도 돈이잖아 요.<업주 B>

패션용품점

성매매 여성들은 일할 때 입을 옷을 '홀복'이라고 부르며 일상복과 구분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입구에는 홀복 전문점이 있었다. 일반 여성들이 입기 어려운 스타일의 옷을 입은 마네키가 진열대에 서 있는 옷가게는 성매매업소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영업을 시작하였다. 여성들이 시간 날 때 가게로 와서 옷을 구경하고 입어 보기도 하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면 업소에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손수레에 옷을 싣고 집결지를 한 바퀴 돌면서 직접 업소마다 찾아다녔다.

옛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의 터미널타워빌딩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잡화를 파는 점포가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어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버스터미널이 이전한 후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집결지 내 업소들을 찾아다녔다. 옷, 화장품, 이불, 전기장판, 쿠션, 신발, 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터미널 있을 때 장사가 잘 됐대요. 터미널이 없어지고 이리 구루마를 끌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지. 터미널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아가씨들이 그러로 왔대.<업주 C>

그때도 영업 안 했는데, 내가 아가씨들한테 “야, 역전 지킬게. 걱정 말고 쉬어.” 하면서. 그때도.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가면서 “이모는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역전 지키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갔는데 여기 오래 있어야지. 애기들이 여기 자기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미용실>

희미용실이 개업했을 당시에는 '달머리'라는 게 있었다. 한 달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간의 할인 혜택이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일하는 날은 거의 매일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만졌다. 희미용실 원장은 개업 초기에는 고데기를 사용해서 헤어 스타일링을 하다가 헤어 드라이어가 나오고 나서는 드라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손님이 긴 생머리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긴 생머리 스타일로 머리를 했기 때문에 희미용실 원장



지화컬렉션



터미널타워빌딩 내 잡화 점포(이명제 촬영)

애견용품점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는 애견용품점이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10여 년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왔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거의 모든 업소마다 여성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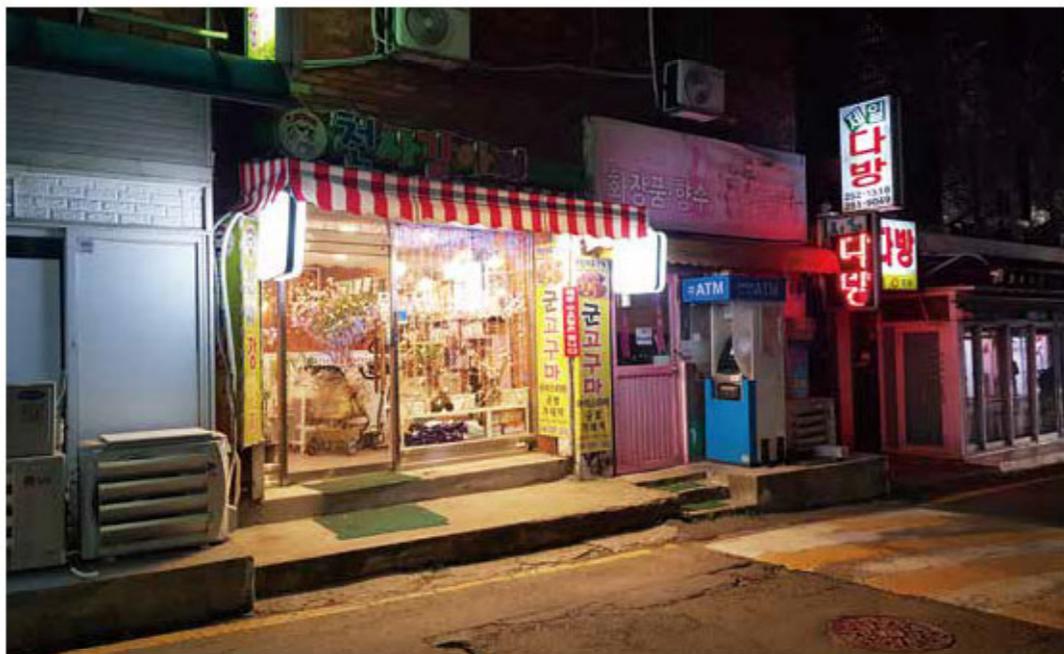
성매매 여성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이 그럽고 외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릴 수 없는 처지의 여성들은 작은 정이라도 나누고 싶어 한다. 소위 '기동서방'이라 불리던 남성들이 성매매집결지에 존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수려한 외모와 언변으로 여성의 마음을 빼앗는 기동서방은 여성과 함께 업소에서 지냈다. 낮에는 남편 역할을 하고 여성이 일하는 밤에는 업소 인근에 머무르다가 여성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과였다고 한다. 여성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기동서방의 용돈까지도 책임졌고 기동서방을 따라서 업소를 옮겨 다녔다. 심지어는 한 명의 기동서방이 여러 곳의 성매매집결지에 여성을 거느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힘들게 돈을 벌어서 기동서방을 먹여 살렸던 여성들은 그만큼 외롭고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모양이다. 기동서방이라는 존재가 어느 시점에 자취를 감추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의 기능을 반려동물이 대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종사자들이 정들이 많아. 왜냐면 혼자 나와서 혼자 사회생활을 하잖아.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집에서 나와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타지에서 외로움을 많이 타요. 내 부모 있는 데서 할 수는 없잖아. 타지에서 타지로 오가며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도 많이 키우고, 나부터고 그랬고, 우리 딸 향구 13년 키우다가 무지개다리 건넌 지 2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만지고 싶고 못 잊어요. 가족으로 생각해요. 끝나고 나 반겨주는 건 개고, 내가 힘들고 슬픈 거 다 아니까 말만 못 할 뿐이지.<성매매 여성 A>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의 많은 부분이 반려동물 케어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개나 고양이 한두 마리를 키우는 성매매 여성들이 많다.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도 반려동물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키우는 애완견(이용창 촬영)



애완용품점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 애들, 애기를 어린이집 보내는 그것보다 더 세요. 나는 오전 원짜리 입는데 강아지는 이삼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를 쳐다보며 “애, 애는 나보다 더 좋은 옷 입는다.” 하고 웃었거든. 저번에 어떤 애기는 눈도 실명되고 그랬더라고. 그래 갖고 안락사 시켰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 안락사 시켰다고 와서 울고 아휴. 내가 그 애기도 하잖아. 보내 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내냐고 그러잖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지가 힘들어하니까.<미용실>

다방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일명 ‘떡자’ 여성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집결지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싫고 바깥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외출을 꺼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밖에서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심부름 서비스를 이용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심부름 서비스는 제일다방에서 했다고 한다.

여기 가면 제일다방 있었잖아요. 아가씨들 심부름해 주고 커피 배달해 주고 그런 거 했었어요. 아가씨들이 이제 나오기가 귀찮잖아. 잠자다 일어나 보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사 오라고 하면서 커피면 커피 음료수면 음료수 이렇게 시키면서 뭐 심부름 좀 해 달라 그러면, 심부름해 주고 하는 언니들이 있었어. 아가씨들 없어지니까 문 닫아 버렸는데. 언니들 들 있었잖아. 그 언니들이 아가씨들 커피 갖다 주고 심부름해 주고 다 그런 거 했었잖아. 하다못해 강아지들 병원도 데리고 가고 미용도 시키고 하는 것도 언니들이 다 배달해 주고, 어디 가서 뭐 찾아 달라 그러면 뭐 찾아다 주고, 뭐 사다 달라 하면 사다 주고. 먼 거리는 출장비가 붙어요. 택시 같은 거 타고 가면 택시비도 내야 되고, 거기 갔다 오는 시간. 긴 시간이면 또 시간.<미용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인근의 다방들은 대개 음성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제일다방은 이들과 달리 성매매 여성들의 심부름을 하고 대행료를 받았다. 제일다방은 중년의 여성들이 아가씨에게 커피를 배달하면서 부탁받은 일을 대신 처리해 주었다. 여성들이 필요한 것을 사다 주거나 반려동물 케어를 대신 해 주는 식이다. 커피는 기본 2잔부터 주문을 받았



제일다방(이용장 촬영)

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를 했던 50~60대 여성 두 명이 심부름을 했는데 한 명은 20년 정도 이 일을 한 것 같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인근에서 음성적 성매매를 하는 다방들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영업이 더 잘 되는 반면 제일다방은 일거리가 없어져서 문을 닫았다.

세탁소

세탁소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상권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성매매 여성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역 일대의 상가와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고객이 되기 때문이다. 한 세탁소 주인은 50:50의 비율이라고 보았다. 일반 고객과 성매매 여성의 세탁물이 반반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로 영업 이익이 반 토막 나는 셈이다.

여성이 업소에 있는 세탁기로 빨래를 하거나 주방이모가 있더라도 부피가 큰 이불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은 세탁소에 맡겨야 하였다. 홀복 수선을 맡기기도 하였다. 외출을 꺼리는 성매매 여성의 특성상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해 주는 식으



삼정세탁소

로 영업을 했다고 한다.

주방이모 계시면 이모가 빨아 주고, 없으면 자기 빨래 자기가 세탁기 돌리고, 그게 귀찮아서 세탁소에 맡기는 사람도 있어. 이모가 없으면 주인이 하는 집도 있고. 내가 있던 가게는 이모가 없어서 주인 언니가 했는데 나는 내 빨래는 내가 해요. 큰 이불은 세탁소에 맡기고.<성매매 여성 A>

기타 : 식당, 슈퍼, 약국

주방이모가 없는 업소에서는 여성 업주가 밥을 해 주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밥을 해 먹는다. 그도 아니면 가까운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는다. 5:5의 경우는 대개 업주가 식사를 제공하므로 업소에서 하는 식사는 무상제공이다. 그러나 독장사는 먹자를 하든 출퇴근을 하든 식비는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여성은 업소로 식사를 배달시키기 때문에 수원

역성매매집결지 근처 식당을 단골로 이용한다. 그래야 외상도 가능하다.

성매매집결지 앞장 중심에 위치한 권약국은 수원시의버스터미널이 이전하기 직전에 이 자리에 있던 한독약국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고객의 대부분은 갓매산로와 고매로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로, 이들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고객에게서 이나 베틀 등이 오는 경우가 있어 주로 피부 질환 치료약을 사간다고 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는 성매매 여성을 주로 상대하는 소규모 슈퍼가 영업을 하였다. 팔달로 쪽 뒷장 입구에 진성슈퍼, 덕영대로895번길(앞장) 초입의 창현슈퍼가 대표적이다. 슈퍼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은 담배로, 여성들 대부분이 흡연을 한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지만 외상거래가 많아서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창현슈퍼(이용창 촬영)



정구네 식당(강석우 촬영)



권약국(강석우 촬영)



진성슈퍼(이명재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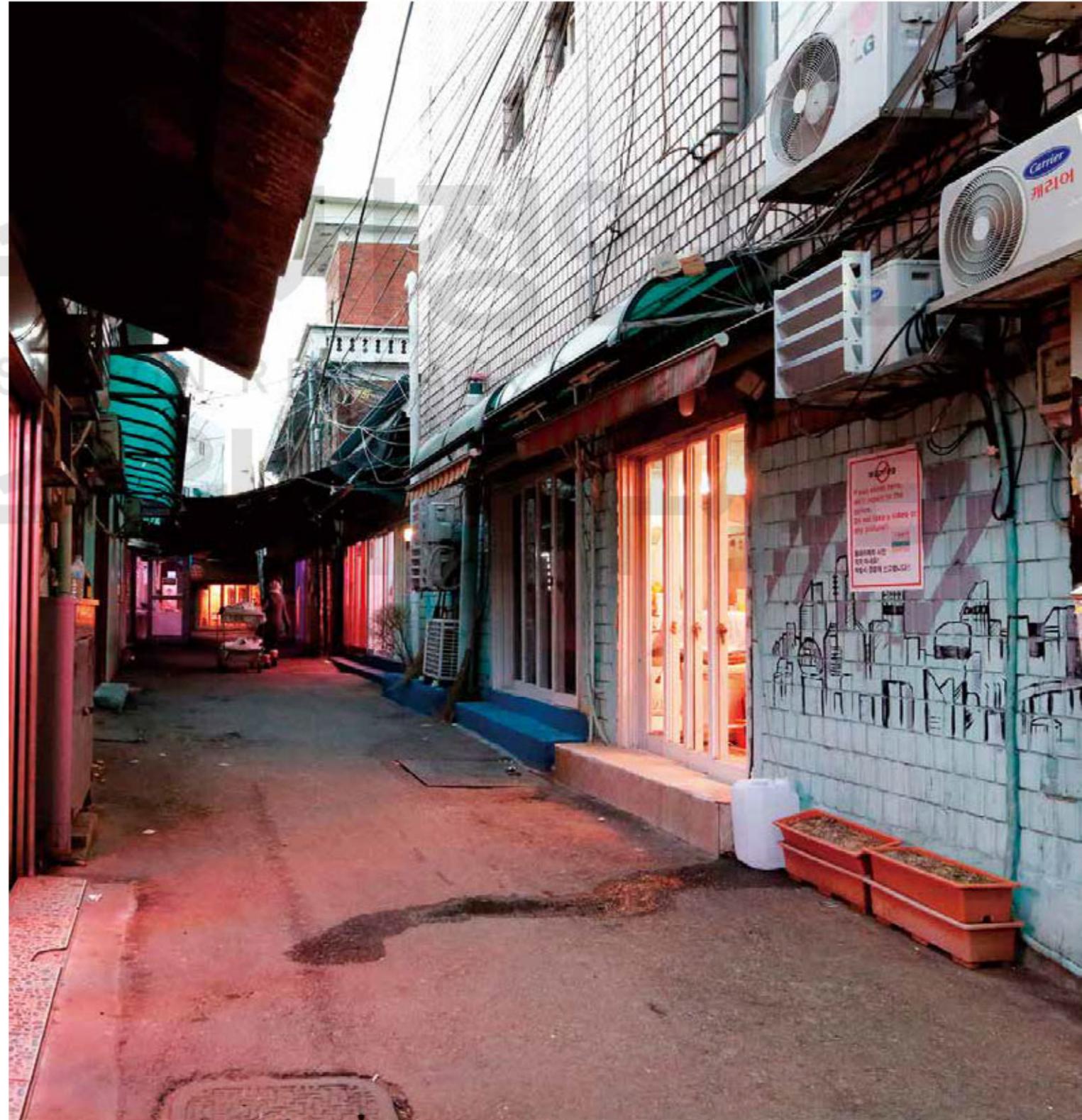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방문 상권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집결지 밖으로 나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낮에 일하는 여성들은 시간의 여유가 없었고 밤에 일한다 해도 낮에는 잠자고 쉬느라 외출하기 어려웠다. 업주의 감시가 심할 때는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고, 출퇴근을 하게 된 후에도 쇼핑을 위해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서 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물품 구입을 대행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을 잘 아는 상인들은 직접 물건을 들고 성매매집결지를 찾아온다.

옷, 신발, 화장품 등 일하는 데 필요한 물품 외에도 생활 잡화, 이불, 반려동물용품, 콘돔, 음료수 등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드나들었다. 네일아트나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도 들어왔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김밥이나 떡, 야쿠르트를 팔러 오는 경우도 있고 금산에서 인삼을 팔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점술 봐 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전국의 성매매집결지를 찾아다닌다고 한다.

여기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랑 언니뿐만 아니라. 식당, 뭐 이런 데 다. 음료수 잡화, 뭐 비닐 봉다리. 언니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그리고 또 가끔 뜨내기 분들도 여기가 이런 곳이라는 것 알고, 속옷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고, 핀 파는 분들도 오고, 인삼 파는 할머니도 있어. 저기 금산에서. 그 아줌마는 지금 할머니 됐어. 지금까지 다녀.<업주 B>

여기 점 봐 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뭐 철학 한다고. 하나도 안 맞더라. 김밥도 파시고 떡도 팔러 들어오시고, 예전에. 그분은 아들 집도 사주고, 오래도록 장사하셨다는 거지. 그 아줌마 김밥이 맛있긴 맛있어. 집에서 싸가지고, 좀 힘들다 싶으면 배가 안 고파도 하나 사드리고. 또 할머니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 어디서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뽕이." 그러면서 파시는 분도 있어. 용돈벌이 할려고. "몇 개 안 남았어." 그러면 몇 십 만 원도 아니고 몇 만 원도 아니고, "그냥 다 주세요." 그러구 다 사드리고. 여기가 다 똑같아요. 생활이 예전에는 건강식품 파는 상인도 여러 명 들어왔어요.<성매매 여성 A>



수백을 팔고 성매매업소를 들고 있는 상인(김인수 촬영)

점 보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언니들한테. 그분은 이 언니들이 생활하는 곳을 아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할아버지가 점을 안 봐도 언니들이 약을 것도 주고, 용돈도 그냥 드리고. "너네 좀 봐라." 그러면 또 오천 원도 드리고.<업주 B>

눈썹 그리는 언니. 출장 와서도 눈썹 다 하고. 옛날에는 여기가 어두컴컴하니까 들어오시지 못했지만 이제 점점 밝아지고 언니들이 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의 그 패턴의 흐름에 같이 가는 거예요.<업주 B>

음료수 그런 거, 생활용품은 다 아저씨가 차로 갖고 와. 심지어 모기 잡는 그거까지. 검은 봉지 그것도. 아가씨들이 다 전화가 있잖아요. 그럼 전화로 "나 뭣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수원 누구 누구네집 누구예요" 그러면 배달해 주는 거죠. 이분은 차로 용주골 이런 데 다 오는 분이야. 그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시키잖아.<업주 G>

만물아저씨는 콘돔 그런 거. 콘돔은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이런 데서 사죠. 방향제 이런 거 팔아요. 잡동사니 다 팔죠. 음료수아저씨 있고, 주로 비타, 음료수 캔, 캔커피, 콜라 이런 거. 나는 비타아저씨한테 사요. 계좌이체를 해 주든가 현금으로 주든가. 두 분은 외상결제가 되는데 두 분은 안 되고.<성매매 여성 C>

연계가 다 있죠. 우리로 인해서. 세탁소, 미용실, 편의점, 여기 음료수 배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화장품을 여기서 밀고 다니면서 매일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썹 이런 거 해 갖고 창업들도 많이 들어와요. 와서 언니들 주고 가요, 명함. 그리고 그분들도 여기 와서 단골들도 생기고.<업주 B>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는 방문 상인들도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장사가 한창 잘 되던 시기로 12명 정도가 상인회에 가입했다고 한다. 품목이 중복되면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 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아무나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방문 상인들에게 품목을 조율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수원
SUWON RE
수원



인천이모의 옷 수레와 보관창고

만들라고 했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터넷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들어오는 방문 상인들의 수가 줄어들자 상인회는 해체되었다고 한다. 최근까지 옷과 잡화를 취급하는 상인 서너 명 정도가 매일 혹은 주 2~3회 들어왔다고 한다.

여기 상인회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옷 장사, 화장품 뭐 액세서리 뭐 별거 별거 다 들어가 갖고, 만물삼촌, 강아지삼촌, 뭐 없는 게 없었어. 그때 당시에 상인이 12명인가. 한창 잘 될 때. 한 7~8년 전에. 그니까 입주들이 회의해 갖고, 이것저것 안 겹치게 총무, 회장이 상인회를 만들더라. 그래서 업종이 이제 두 가지는 못 들어와. 한가지씩만 들어오게 했지.<옷 장사 A>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자꾸 이런 것을 갖다 파냐. 팔지 말라고 경고를 몇 번 했어. 안대.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 사무실로 불러 갖고 아단을 쳤어. 눈물 속 빠지게 아단을 쳤어. 그런데도 또 갖고 팔아. 그래서 팔지 말라는데 너 왜 자꾸 갖다 파냐.<옷 장사 A>

수원역성매매집결지로 들어오는 상인은 주로 옷 장사로, 이들은 거의 매일 손수레를 끌고 집결지를 방문하였다. 인천이모, 차이모, 타워이모가 대표적이다. 방문판매를 하는 옷 장사라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옷을 보관하는 장소나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차이모는 지화컬렉션이라는 이름의 옷가게가 있었고, 타워이모는 타워빌딩에 매장이 있고, 인천이모(옷 장사 A)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보관창고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가게가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문을 똑같은 날 닫고 똑같은 날 여는 게 아니잖아. 한 가게가 열 때도 있고, 두 가게가 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나오는 거예요. 돌아요. 매일 매일. 그리고 옷 파시는, 홀복 말고도 평상복, 속옷도. 그분들도 매일 들어와요.
<입주 B>

옷 장사들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물건을 해다가 팔았다. 이들 시장에 가면 성매매 여성들이 입을 홀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가 있고 특히 특수하게 제작된 굽 높은 신발을 취급하는 점포는 동대문시장에 한 곳 있다고 한다.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신는 굽 높

수원
SUWON
수원



화장품 수레(김인수 촬영)

20~30cm 신발은 한 켤레의 값은 10만 원을 훌쩍 넘긴 가격이다.

오래되니까 이제 간단단단한 거는 재봉틀로 수선 같은 거 할 수가 있고. 홀복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물건 때 오죠. 그런데 이제 남대문은 거의 의미해지고 동대문이 많이 그거 됐잖아. 그 역사가 오래되신 분야야. 그분도. 예전에 내가 박스 할 때는 남대문으로 다녔었으니까. 한참 내가 사 입고 할 때는 내가 이모한테 "디자인 좀 이렇게 해 줘요." 거기 공장 가서 옷 만들 때 디자인 좀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직접 그려서 해 달라고도 한 적 있으니까 디자인해 갖고.
<성매매 여성 A>

옷 장사들은 손수레에 물품을 싣고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한 바퀴 돌았다. 시간대는 업소가 저녁 영업을 시작해서 바빠지기 전까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유리방에 있는 여성들과 인사를 나누며 돌아다니다가 여성들이 부르면 업소의 거실로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여기서 장사할 때 얼마나 재미있는데. 애들한테 옷 하나를 줘도 재미있게 팔고, 개도 “이모, 괜찮아?”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안 사도 열 벌은 입어 봐. 열 벌이면 열 벌, 스무 벌이면 스무 벌 다 입어 봐. 거기서 또 입어 본 중에서 괜찮은 것 있으면,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그걸 주문 해. 그러면 맞춰다 주고, 나는 막 이집 저집 다니면서 담배 피고, 커피 먹고, 화장실 들어가 고, 나는 재밌게 살아.<옷 장사 A>

최근에는 홀복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여성들이 많다. 옷 장사에게 사는 것보다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별도의 수선비가 들고 구매 시에 결제를 해야 하므로 옷이 비싸더라도 몸에 맞게 수선해 주고 외상거래도 가능한 옷 장사에게 홀복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소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을 때는 생선, 과일 등 식재료를 파는 상인들도 단골로 왔다고 한다. 오랫동안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드나들며 장사를 하다 보니 정이 들어서 한동안 안 오면 걱정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생선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저의 엄마 여기서 했을 때부터 했으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거든요. 여기 골목에는 리어카가 들어오지 차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막 “생선이야, 생선!” 하고 저기서부터 소리를 외치고 들어오셨으니까. 안 나오시니까 우리가 걱정을 한 거예요. “왜 안 오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 이러시는 거예요.<업주 B>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생선 갖고 오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추우니까 소주 한 잔 따라 드려서 이거 잡수고 가시라고, 여기 앉아서. 그리고 밥 해 가지고 바로 찌개 끓여 갖고 나눠 먹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업주 B>

여기서 왜 돈을 더 잘 버셨냐면. 어렵게 사니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니까 어르신이 맨날 리어카 갖고 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시장 안 가는 거야. 과일 아저씨도 리어카로 들어 오시고.<업주 C>

수원성매매집결지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보험설계사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들어왔다. 업주와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업소에 찾아오면 업주는 여성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성매매 여성이 혼자 지내는 처지이다 보니 보험이 필요하다면서 강권하는 것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보험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거절하지 못하는 여성은 월 보험료로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보험설계사는 업주로부터 다른 업소들을 소개받기도 한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영향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

오랜 세월 단속과 영업 중단을 반복하면서 유지되어 오던 수원역성매매 집결지는 2021년 5월 31일자로 폐쇄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덕영대로 변에 있던 성매매업소들을 모두 폐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수원시의버스터미널 이전으로 비어 있던 터미널 인근의 점포로 성매매업소들이 이전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의 앞장이 형성되었고 이후 성매매업소의 수는 증가하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에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몇 개월간 영업을 중단했지만 결국은 영업을 재개하였다.

수원시가 2014년 4월 16일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내걸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다시 불을 붙였다. 2017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대를 역세권 중심상권으로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맞서서 2018년 6월 28일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 모여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폐지 및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성노동자가 배제된 수원시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하였다.

수원
SUWON
수원



2018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관계부서 연석회의(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8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 집회(기호일보, 2018년 6월 29일)



옛 수원시의버스터미널 자리에 세워진 텡스(강석우 촬영)

그러나 수원시는 2019년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여 성매매집결지 안에 설치하고 정비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전과 다른 양상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옛 수원시의버스터미널 부지에 텡스물이 착공될 때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더 이상 성매매업소 운영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수원시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재개발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성매매집결지 인근이라는 입지 조건 탓에 텡스물은 미분양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결국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살아남았다.

터미널이 없어지고 여기 텡스가 생기면서 장사를 한다 못 한다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특별법도 생기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저길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우연치 않게 텡스가 부도가 나고 막 그랬잖아. 그래도 여기가 텡스를 이겼다.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해 왔던 거죠.<업주 D>



수원역 집창촌 '트로이목마 작전' 통했다...60년 만에 정비(『중앙일보』 2021년 4월 28일)

그런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사무실을 두고 정비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안에 소방도로 개설이 결정되었고 이를 위해 2021년 4월 도로 부지에 해당하는 19개 업소가 철거되었다.

수원시가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철거에 들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업주들은 3년의 유예시한을 주면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그만두고 나갈 수 없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을 샀고 업주들은 2021년 12월까지 영업을 보장하면 이후에 자진 폐쇄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여태까지 해 왔던 게 있는데 별 큰 문제없이. 단속만 좀 주의를 했다 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소방도로 뚫린다고 했을 때 저는 한 2-3년은 더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업주 D>

올해 연도 완공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공 끝날 때 여기가 이제 다 우리가 자진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2021년 3월 15일 소방도로 개설 지역 지장물 철거 및 석면 제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21년 3월 15일 소방도로 개설 지역 지장물 철거 및 석면 제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21년 4월 1일 도로 개설 지역 성매대업소 철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21년 4월 수원시-경기남부경찰청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합동순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성매매집결지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 성매매연구위원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 또 들리는 말이 시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공사가 시청 땅도 있으니까. 건물 안에 시청 땅도 있으니까 그것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8월 달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장마철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성매매 여성 A>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다 정리를 하겠다. 그 대신 조금 시간을 줘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그냥 속된 말로 한 3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5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랬대. 올해도 5년, 내년도 5년.<업주 C>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이 2021년 4월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업주였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아 운영하던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였다. 경찰은 이들이 1998년부터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이 중 62억 원을 기소 전 추정 보전하였다. 이 사건은 업주들에게 자신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 주었고 결국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2021년 5월 31일에 폐쇄되었다.

맞아서 단속을 당하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면 단 몇 년이라도 해서 그나마 조금 벌은 사람도 있을 거고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갑자기 똑같이 저런 상황이 와 갖고 몰수되고 그래서 거지 되면,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갈랜다. 왜? 저렇게 당하면 어떡해.<업주 E>

나도 뭐 뺏길 게 없고 혼자 몸이었으면 영업했지. 걸려 봐야, 추징금 100억이 나오면 뭐할 거여. 재산이 없는데. 뺏길 것도 없는데. 징역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가씨들한테 옛날처럼 협박을 하고 감금을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걸려 봐야 사실 다 윤락행위예요. 그래 봐야 벌금 내고 아니면 저긴데. 근데 이번에 그런 이상한 사건이 생기면서 이게 이슈가 되고, 바깥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가 이러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오 때 걸리면 저런 상황 나오겠다 문을 달아야겠다 그렇게 결심들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하



홍등이 꺼지고 있는 2021년 5월 31일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이용창 촬영)

다 보니, 난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문 닫고 하나까 나 혼자 버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또 표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서서히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빨리빨리 진행이 됐지.<업주 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그 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폐쇄가 전격적으로 결정되자 성매매 여성들과 일부 업주들은 당황하였다. 특히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차 업주들은 제대로 장사를 해 보지 못한데다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요번에 갑자기 이렇게 탁 되니까, 아가씨들이 공중에 붕 떠서 일 안 하고, 현재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뭐 보험료도 내야 되지, 뭐도 내야 되지,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 내야 되지, 이런 급한 애들은 파주던 영등포든 어디든 막 가는 거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사실 문만 닫았지 아가씨들은 다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뭐 호텔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안마시술방 일을 하고 있고.<업주 E>

다른 데 간 사람들도 있고. 일단 한두 달을 더 하든, 없어도되라도 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집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가서 당분간 쉬면서 생각해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답답은 하죠. 당장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있는데, 마냥 설 수도 없고. 근데 거기 답이 없어요. 나부터도 지금 뭘 해 먹고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성매매 여성 A>

삼촌 가게 딴 데 가서 다시 하자고. 아 진짜로 아가씨들이 삼촌 그냥 딴 데 가서 해요 우리. 그냥 따라갈 거라고.<업주 E>

업주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의 사회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존재의 당위성도 주장한다. 독신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하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남성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갓산로의 중국인 상권이 수원역 중심상권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게 나쁜 거긴 하지만, 여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덜 늘어난다고 쓰는 사람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를 알리는 안내문

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악인데. 너무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 보니까.<업주 B>

여기가 꼭 성적으로 연애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린 상담 아닌 상담자가 돼. 남자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불알친구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수치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오면 창피하고 말 못 할 게 없어. 왜? 오늘 한번 보면 15분~20분 사이 그것만 보면 돼. 만약에 한 시간을 끊었으면 그 시간만 보면 돼. 나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알겠어. 속 풀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데는 그것만 하고 가는 텐 줄 알았지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장애인 분들 오는 거 보면 안됐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난 그걸 추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성매매 여성 A>



폐쇄를 반대하는 업소

차이나나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여기 너무 위험한데. 그나마 여기라도 있으니 그걸 다 우리가 받아치는 건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위험해요.

<업주 C>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주와 여성들은 경찰, 수원시, 여성단체, 아파트 입주민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내용은 신경 안 쓰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시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힘을 실어 준 것은 집결지 옆 4차선 도로 건너에 위치한 고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집단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입주를 앞둔 고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시청 담당부서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단지에서 수원역으로 가려면 성매매집결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청소년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니 불법적인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동지구 공사 현장(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실제적인 계획들을 해 나가면서 정책을 펴야 이게 없어지면서도 피해들을 안 보고 아가씨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지. 그냥 자기네들 정책만 가지고 무조건 폐쇄, 없애, 그리고 시에서는 밖에 보여 줄 수 있는, 우리는 조례를 하고 있고 아가씨들한테 돈을 주고 있어. 실제로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아가씨들 백 명 갖다 놓고 물어 봐. 어느 아가씨가 고맙다고 하나. 한 명도 없지. 한 달에 몇십 만 원 받고 어디 취직해. 쉽게 말해서 맨날 짜장면을 먹고살던 애들이 갑자기 딱 거 먹으라고 하면, 그게 먹어지냐고요.<업주 E>

우리가 왜 부당하게 당했냐. 이 집창촌이 집결돼 있고 우리가 크면서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타케트가 돼 버리는 거야지. 단속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제일 첫 뼈대가 우리 집창촌이었다고, 자기네들도 그래요. 왜 여기만 맨날 치냐고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오픈된 거야. 그래서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전용으로, 정부에서는 딱 좋은 게 이런 집창촌. 오픈된 게 일단 없어지는 거니까. 외관상으로 보이는 게 싹 다 없어지는 거니까. 발간 불빛서부터.<성매매 여성 A>

그리고 저 아파트 사람들이 민원 넣으니까 안 돼. 실제로 저기서 민원 안 넣었으면 영업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만 사람들이냐고, 재네들은 정말 목적이 불쌍사나운 거여. 아니면 자기들 아파트값 올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니네 아파트값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것도 이해한다 이거야. 저 사람들도 좋고 우리도 좋게 양보해 주면서 했으면, 여기 있는 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갈 때 좀 만들어 나가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없어진 거 하나만 얘기 잘 된 거지. 나머지는 다 딱 데로 가고, 딱 곳에 유입되고, 딱 집창촌만 아가씨가 더 많아진 거야. 그리고 거기 아닌 다른 오피, 이런 데만 더 많아진 거야.<업주 E>

청량리588에서 이주해 온 업주와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폐쇄 이후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폐쇄 이후 업주 가운데 한 명이 서울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반발의 강도도 높아졌다. 이들은 청량리와 용산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고 나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로 이전한 업소의 업주와 여성들로, 영업은 하지 않아도 업소에 붙을 켜 두는 식으로 시위를 하였다. 자진 폐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강제 폐쇄라는 입장이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폐쇄되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이 크니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베틀는 중이다.

여기 불 켜져 있는 집들, 밤에 나오시면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불만 켜놓고 이사비 받으려고. 왜? 그 사람들은 천호동 재개발, 청량리 재개발 거기서 돈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무조건 받아서 나가야겠다.<업주 D>

성매매 여성들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없어질 경우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였다. 다른 일을 찾기보다 성매매를 지속하기 위해 결국 음성화



폐쇄 후 변화하는 모습(이용창 촬영)

외상값을 꼭 갚아 놔는데. 일수이모 같은 사람들도 울고 다녀. 지금, 거의 다가 외상이지. 현금으로 주는 애들은 몇 명 안 됐지. 도망간 애들이 지금, 간 애들만 해도 몇천이 돼 지금. 벌어 놓은 돈은 칸 것이 벌어 놓은 돈이야. 인천 때도 그랬지, 신길동에서도 그랬지.<웃 장사 A>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혐오지역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터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폐쇄에서도 각각의 처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음에도, 폐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폐쇄 이후를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매매가 결코 정당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도로 개설(수원시 포트뱅크 제공)



2021년 11월 도로 개설 현장점검(수원시 포코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제3부 **탈성매매로 가는 길**
: 반성매매 활동가와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탈성매매로 가는 길
: 반성매매 활동가와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01
새로운 삶을 여는
반성매매 활동

02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이야기하다

03
탈성매매,
새로운 세상으로의 내딛음

업종 변경

업종 변경

새로운 삶을 여는 반성매매 활동

그들을 만나다

수원역은 국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KTX가 지나가는 곳으로,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경기도 각지에서 인파가 몰린 곳이다. 이러한 수원역에서 200m 거리에 반세기 동안 정체되었던 공간이 있는데,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그것이다.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일원, 2만 2,000㎡에 달하는 곳으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반경 1km에는 민자역사인 수원역을 비롯하여 AK몰, 롯데백화점, 로데오거리, 노보텔엠버서더호텔, 버스환승주차장,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거리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어 입주가 진행되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는 2021년 수원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부근에서 60년 넘게 도심 속 흉물,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으로 인식되는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다 보니 이곳을 폐쇄하지는 여론이 뜨거웠다. 이어 불법으로 영업을 자행한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압수수색, 추징금 선고와 처벌 등이 잇따르면서 여성들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실제로 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자 업주들은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2021년 5월 31일 영업을 중단하였다.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수원시 여성정책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수원시의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시·

수원
SUWON
수원



2021년 4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고등동·매산동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폐쇄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였다. 그 중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반성매매 활동을 전개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활동가들은 집결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실태와 현황을 조사했고,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과 라포를 형성해 왔다.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상담, 긴급구조,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업주들의 위협, 욕설, 비난 등을 감수하기도 했다.

한편 100여 개에 달하는 업소가 문을 닫고, 200여 명의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들도 집결지를 떠났다. 업소는 폐쇄되었지만, 그곳을 직장으로, 혹은 일과 주거를 병행하는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들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 여성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어떠한 공간일까?' 성매매 당사자였던 여성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자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의료·법률·인권·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 이들의 활동 사업, 상담과 지원 실

태, 성매매에 대한 입장, 당사자들과의 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이루어진 성 산업의 내부 특징을 살펴본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당사자 여성들과 업주들의 복잡한 관계, 여성들이 경험한 어려움 등을 확인한다. 셋째, 과거 집결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중단하고 자립 과정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과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본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둘러싼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성격을 확인해 보겠다. 이에 (사)수원여성인권동음 활동가 3명과 탈성매매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여성 2명을 직접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술자 5명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구술자 인적사항

구분	활동명	연령	경력
여성 활동가	유경	50대	전(前)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현(現) (사)수원여성인권동음 대표
	은수	30대	(사)수원여성인권동음 부설 성착취피해상담소 '오늘' 활동가
	찬란	30대	(사)수원여성인권동음 부설 성착취피해상담소 '오늘' 활동가
전(前)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 A	30대	전(前)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성매매 경험 당사자, 성매매 중단 (사)수원여성인권동음을 통해 자립 준비 중
	여성 B	30대	전(前)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성매매 경험 당사자, 성매매 중단 (사)수원여성인권동음을 통해 자립 준비 중

비고 : 신상보호를 위해 성명은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표기한다.

반성매매 운동과 여성 인권 지원

수원의 여성단체 중 수원역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하여 가장 꾸준히 활동해 온 단체는 (사)수원여성의전화이다. (사)수원여성의전화는 수원에서 여성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2015년 수원역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연대 2차 회의(수원여성의전화 제공)

동해 온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1994년 창립되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아내 구타, 시집 갈등, 성폭력, 직장 내 성추행,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매매 등 여성문제 전반에 대해 전화, 면접, 사이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사)수원여성의전화의 성매매 여성 인권운동, 반성매매 운동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성매매집결지 아웃리치를 진행했으며, 수원 지역 성문제 실태를 조사하였다. 2007년 4월은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를, 2017년 7월에는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를, 2018년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모아'를 개소하였다. '어깨동무' 상담소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긴급하게 구조 등 도움을 요청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및 진술조력이 필요할 때, 진학·취업·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로 인한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과 상담을 진행한다. '모모이'는 '여성들이 모두 모여 성평등한 세상을 이루자'의 줄임말로, 여성 스스로 가치와 일상의 의미를 찾아가는 공간이다. 상담소, 쉼터 등 성매매 유관기관 등에서 연계를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통합



2016년 성매매방지 캠페인(수원여성의전화 제공)



2016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캠페인(수원여성의전화 제공)

수원시정여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프로그램, 진학 및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및 진로 상담, 기타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모이에서 운영하는 '모모공방'은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참여자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 판매한다. 여성들은 팔찌, 티셔츠, 손가방, 열쇠고리, 미니가방, 지갑, 수세미 등을 수작업으로 만들며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에 참여한다.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모아'에서는 성매매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지원, 긴급보호, 반성매매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수원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인권 지원 활동을 해 오다 2019년 총회에서 반성매매 활동에 대한 독립을 승인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19일 창립총회를 통해서 (사)수원여성인권돋움으로 독립하였다. 여성주의 반성매매/반성착취운동과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사업은 여성인권운동에 주요 축이 되었기에 인권지원 사업을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 전문성과 통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독립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로써 (사)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인권지원을 통해서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수원역에서 2km 남짓 떨어진 팔달문시장 인근 사무실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성매매 당사자들이 여러 지원 및 자활 참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은수 수원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체를 다 다루었어요. 현재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좀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반 성매매 팀이 분리되는 과정들이 좀 다 있었고. ... 저희는 어쨌든 (활동의 이유를) 내담자 중심으로, 그리고 성매매 관련 이슈들을 핵심 이슈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리가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서는 더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올해 4월, 수원에서 '돋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폐쇄는 수원 시민들에게 오랜 소망이자 숙원이었다.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아파트, 팔달3구역 재개발조합,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수원시민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연대하며 집결지 폐쇄 활동을 이어 왔다. 학부모, 대학생 등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반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수원과 근접한 화성·군포에서도 실태조사와 지원을 펼쳤다(표 2 참조).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기억과 기록을 위한 기획전시 '여기-있다' 포스터

(사)수원여성인권돌움에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기억과 기록을 위한 기획전시 '여기-있다'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 2인, 작가 7인의 참여로 진행된 기획전시는 한국의 성매매 정책 변화 및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성매매 여성에 부과되는 착취의 구조를 작품으로 드러내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수원여성인권돌움의 활동가들은 성매매를 성 착취로 규정하고 여성들이 성매매할 권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인권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바꾸어 낼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수원여성인권돌움의 활동가들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성 착취 카르텔을 타파하고, 수요차단운동을 통해 성매매가 여성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며, 여성폭력 없는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쉽지는 않지만 활동을 이어 왔다.

집결지 현장에 뛰어들어 활동가들

활동가들은 단체를 방문하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결지 현장에 직접 들어가 상담소를 홍보하고, 현장 실태를 조사·관찰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성 인권 운동, 반성착취 운동에 뜻과 열정을 갖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아웃리치 활동

사람들로, 상담활동가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자격을 갖추었다.

성매매가 국가의 방치하에 버젓이 행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기시되고, 또 성매매 당사자를 혐오하는 문화에서 성장했던 활동가들에게 유리방과 흥등가로 대표되는 집결지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었다. 1980~1990년대 집결지는 인신매매, 성폭력, 마약, 조직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사)수원여성인권돌움의 유경 대표는 서울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매매 밀집지역인 '미아리 텍사스' 주변에 위치한 학교를 다녔다. 이 지역 여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절대 그 주변을 가지도, 보지도 말고, 조심하라."는 신신당부를 들으며 성장하였다. 붉은 조명이 켜진 좁은 골목길, 진한 화장과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치장하고 유리문 뒤에 서 있는 여성들, 술에 취한 채 주변을 어슬렁대는 남성들의 존재는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에게 낯선 공간이었다. 집결지는 한 마디로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곳'으로 각인되었다. 유경 대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 본인하고 너무나 다른



(사)수원여성인권진흥원의 활동을 알리는 팸플릿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하고 살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딸들에게 “낮에도 여자들을 잡아 가니까 바로 오는 길을 놔두고 돌아서 오라.”고 했다. 여학생들은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다.”라는 반복적인 학습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활동가들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들어가 아웃리치(outreach)를 실시하였다. 아웃리치 사업은 현장방문 상담을 의미한다. 활동가들은 아웃리치 시 단체에서 진행되는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팸플릿이나 각종 정보가 있는 소식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물품 등을 전달하였다. 물품들은 작은 대화의 소재가 되었고 상담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사)수원여성인권진흥원의 활동을 알리는 팸플릿

활동가 은수는 아웃리치를 했던 첫날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가기 전 사전 교육을 하면서 시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막상 현장에 가니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되어 상대방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한다. 활동가들이 집결지에서 있으면 성 구매를 하러 들른 남성들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묻기도 하였고, 자신에게도 팸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 달라고 하기도 했다.

업소의 업주들은 활동가들 때문에 당사자 여성들이 동요하거나, 집결지를 이탈할까 봐 늘 경계했고 활동가들의 존재를 꺼려워 했다. 초창기에는 업주들이 직접 활동가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거나 모욕을 줬는데, 점차 성매매 당사자 여성들이 활동가들을 쫓아내도록 유도하였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24시간 운영하였기에, 활동가들은 실태 조사와 여성 지원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볐다. 이들은 아웃리치를 진행하다가 쫓겨나기도 하였다. 업주들은 자신들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활동가에게 압박을 가하지는 못한다. 업주들은 활동가들이 여성들



건물 옥상에 바라본 성매매업소(김인수 촬영)

에게 해가 될 일은 지양한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여성들이 활동가들을 내쫓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활동가들은 여성들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여성들이 난색을 보이면 재빨리 이동하였다.

활동가들은 성구매자 실태 조사를 위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몇 시간씩 머물면서 어느 시간대 몇 명이 오가며, 남성 한 명이 얼마씩의 시간을 머무는지 일일이 확인하였다. 저녁 시간인 19시나 20시쯤에도 갔고,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3시, 0시인 새벽에도 갔다. 수원역 집결지는 24시간 운영하기에, 시간을 가리지 않고 활동가들이 시간대를 나누어 현장에 들어갔다.

활동가들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성매매 여성들도 여성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여성단체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결지의 업주들은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에 영구히 기록으로 남는다거나, 여성단체에 가면 무조건 신고당한다거나 남편과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식의 소문을 퍼뜨렸다. 집결지 외의 사회활동이 없고, 인간관계가 좁은 당사자 여성들은 이를 그대로 믿었

다. 그래서 당사자 여성들은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집결지를 빠져 나오고 싶은데 업주와의 트러블 등이 있어 혼자 힘으로 불가능할 때, 현실이 막막한데 도저히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때 등 극한 상황에 처해서야 연락한다.

은수 피해 상담소가 2007년부터 생겨서 활동을 했어요. 저의 단체 이름은 사실 원래 다 알고 계시구요. 근데 이제 바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은 잘 없죠. ... 그 안에서 여성 단체에 대해서 업주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듣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없고, "너 거기 그냥 기록에 남는다."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다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협을 하고. 그거는 어떤 분들한테 되게 사망 선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해서만 사실 비난을 하는 방식이고, ... 그러면 정말 너무 너무 몸이 아플 때, 사건이 터졌는데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그렇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 같고.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하기

공적 기록으로 남는다거나 주변에 알려질 거라는 험박과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을 이용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여성단체를 찾는 당사자 여성들에게는 대단한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은 활동가들에 대해 경계심과 불신감을 갖고 상담을 시작한다. 단체를 통해 상담과 의료지원 등을 받는 과정에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과 이력이 외부로 노출될까 봐 염려한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경계를 풀고, 자신을 드러낸다. 활동가들은 당사자들을 '언니'라고 부른다. 활동가들은 '성매매 종사자'라는 언어는 성매매를 노동의 관점에서 보는 언어로써 성매매에 존재하는 착취를 가리는 언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당사자 운동의 동료로서 동지애를 드러내는 호칭으로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언니'들은 집결지에서 부르는 닉네임이 있다. 처음 전화로 여성단체에 접촉할 때는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후 신뢰와 친근함이 형성되면 실명을 밝히기도 한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에 의하면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은 기회만 있다면 100% 성매매를 중단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는 자립 과정에 있는 여성, 당사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2015년 어깨동무 이동상담소 운영(수원여성의전화 제공)

수원

SUWON

수원



2015년 어깨동무 이동상담소 운영(수원여성의전화 제공)

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의 부모에 대한 병원비와 경제적인 뒷바라지, 자녀 양육비 등 주로 가족에 대한 시급한 부양이 해결되거나, 선불금을 갚고 나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종자돈을 마련하면, 작은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을 모으면, 지금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활동가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황과 개인 신상을 솔직히 털어 놓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상담을 받고 자활을 준비한다는 것이 업주에게 알려져서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도 된다. 활동가들은 단체를 찾아오는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큰 용기를 내었는지 이해하기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한다.

여성들 입장에서 업주는 매일 함께 하며 어쨌든 본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람이다. 수년 넘게 같은 공간에서 보던 사람과 어쩌다 한 번 집결지에 방문하여 "언니! 상담 받으세요." "이런 거 지원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는 업주에게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여성단체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들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수원여성인권동음에서 상담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탈성매매 여성 2명은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업무로 자신들을 대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고 지원해 주는 모습에서 경계가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고, 상담을 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재미있다 보니, 상담 중단 없이 자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성매매 당사자들의 자활을 준비하여 탈성매매를 이끌어내기까지 활동가들의 헌신과 노고는 결코 작지 않다. 당사자들 중에는 자신을 착취하는 남성 구매자들, 거친 업주들을 장기간 겪으며 강한 성격과 자존심, 고집으로 뭉친 이들도 적지 않다. 활동가들이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 싸움,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다.

활동가가 성매매 당사자를 지원하는 업무는 일방적으로 혜택과 동정을 베푸는 성격이 아니다. 활동가들 역시 지원 과정에서 타인과 교감하고 이해하며, 변화를 목격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 힘이 되는 존재가 되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발

전한다. (사)수원여성인권동음의 대표 유경은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성장 과정이나 삶의 맥락에서 다른 존재들이다. 그러나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만나고, 존중하고,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수원여성인권동음 활동가들과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방문한 내담자들 간 시너지는 수원 시민의 오랜 바람인 집결지 폐쇄를 이루는 데도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 대표 유경은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실수해도 괜찮다는 시선과 사회 공동체로의 일원이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격증 취득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 수강생 또는 학원강사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하나씩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경은 본인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 실현에 기여한다는 신념이 있기에 여성단체 업무를 하면서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표 2〉 (사)수원여성의전화 및 (사)수원여성인권동음의 활동

시기	활동
2002년	5월 여성부 위탁사업 Women-net계약 / 사이버 상담 시작 / 상담원 모임 성매매방지법 강의
	3월 성매매집결지 아웃리치
	7월 상담원 모임 성매매 함께 공유하기
2003년	9~10월 성매매 예방 전문상담원 육성교육
	10월 성매매 대중의식 변화 사업
	12월 수원지역 청소년 성의식과 성문제 실태조사
2004년	8월 성매매 근절사업 :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성매매근절 워크숍
	10월 상담원 인식 개선사업 : 경기도여성복지관련 상담원 연수
	12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식 변화사업 캠페인
	2월 성매매 상담처리절차 교육
2005년	5월 폭력 없는 세상 인권 한마당 : 성매매 근절 캠페인
	9월 성매매 형사적 처리절차(중부경찰서) 교육
	10월 소식지 기고 :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보내며 성매매 없는 경기도 만들기 캠페인
	11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대학생 성매매 인식개선 현장상담
2006년	4~12월 성매매 예방교육 진행
	6~8월 성매매 실태조사
	6월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2007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캠페인
	4월 성매매 피해상담소 '아깨동무' 개소 / 경기도 성매매방지위원회 참석
	2~11월 성매매 피해여성 집단프로그램 진행
	4~9월 성매매 피해상담소 아깨동무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
	4~12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갑담회
	4~12월 성매매 근절캠페인 11회 진행
	4~12월 수원역집결지 아웃리치 및 산업형 아웃리치
	6~11월 심아이동상담 20회 진행
	6~12월 소식지 비상 7회 및 벗바리 8회 발행
	6월 여성연예인 성상품화에 대한 거리조사 및 캠페인
	7~8월 청소년 미디어 모임 여성연예인 성상품화 모니터 분석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캠페인	
2008년	1~12월 소식지 비상 6회 및 벗자리 6회 발행
	2~12월 여성 긴급구조 진행
	3~11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갑담회 11회 진행

시기	활동	
2008년	4~12월	성매매 근절 캠페인 10회 진행
	5~6월	성매매 방지 대학교 순회 캠페인 7회 진행
	5~12월	성구매 반대 캠페인 5회 진행
	5월	대전 유천동 불법 성매매업소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3~10월	경기도민 성매매의식 실태조사
	3~12월	성매매 예방교육 진행
	9~10월	민들레 전국순례
	12월	당사자 치유프로그램 진행
	4~12월	미디어 사업 : 방송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4~10월	성매매유입 차단을 위한 생활정보지 모니터링
	10월	전국 민들레 순례단 보고대회
	4~11월	청소년 성매매관련 미상대책위원회의 진행
	12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 : 청소년 인터넷 중독강의
2009년	1~12월	피해여성 긴급구조 7회 진행
	2~3월	경찰을 위한 매뉴얼 제작
	4~7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11회 진행
	6~12월	성매매 근절 캠페인 5회 진행
	3~10월	성구매 반대 캠페인 4회 진행
	3~12월	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 캠페인 6회 진행
	5월	대학교 순회 캠페인 5회 진행
	3~5월	여성주의 상담 강화교육
	3~7월	성매매 알선·유인광고물 생활정보지 모니터링
	3~11월	아웃리치 진행 : 수원역집결지 8회, 산업형 16회
	3~10월	소식지 비상 8회 및 벚바리 4회 발행
	4~7월	아동인권 생각 키우기 교육 진행
	4~9월	경찰연계 성매매피해상담 및 교육
	5~6월	자원 활동가 교육 진행
	6~9월	수원지역 성매매알선 가능업소 실태조사 및 보고회
6~12월	성매매 예방교육	
2010년	1~12월	사이버 모니터링 시작
	1~12월	존스쿨교육
	2~12월	성매매 예방교육
	2~12월	아웃리치 진행 : 수원역집결지 8회, 산업형 15회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여성인권센터

시기	활동	
2010년	2~12월	소식지 새날 13회 발행
	3~9월	피해여성 긴급구조 5회 진행
	5~6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사업 : 청소년 자원활동가 교육
	5~11월	성매매근절 캠페인 5회 진행
	7월	청량리 성매매 피해여성 살인사건 공동대책위
	8~12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사업 : 성의식과 성문제 실태조사
	9월	성매매방지법 6주년 기념 캠페인 / 수원지역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 실태조사 / 성구매자 실태조사 : 수원역집결지 /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11월	내담자 역량강화교육
	12월	엄청난 미용실 프로젝트 : 소식지 배포 및 아웃리치 / 치유프로그램 진행
	1~12월	현장기능 강화사업 시작
	1~12월	소식지 새날 71회 발행
	2011년	1~10월
2~12월		수원역집결지 아웃리치 43회 진행
2~11월		산업형 아웃리치 14회 진행
3~5월		성구매 방지를 위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교육
3~12월		유관기관 협의회의 7회 진행
1~12월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3~12월		성매매 예방교육 진행
4~11월		성매매 예방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 '미로탈출! 보물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진행
4~12월		성매매 반대 캠페인
7~9월		외국인 노동자 대상 : 성구매 반대 캠페인
9월		성매매 방지법 7주년 기념 캠페인 : 페달에 인권을 달고 달리자 '쌍쌍 고고'
11월		성매매 예방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아지트' 개발 / 성매매예방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미로탈출! 보물지도 그리기' 보고회 / 성매매 유입차단 프로젝트 : 사이버 모니터링 및 생활정보지 모니터링
3~12월		성매매 예방교육 진행
10~12월		학부모를 위한 성매매예방교육
12월		치료회복프로그램 진행 / 2011 아동 인권생각 키우기 / 여성문화모임 : 난타
2012년	1~12월	내담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여성문화모임 : 난타 및 사물놀이 진행 / 소식지 새날 25회 발행 / 수원역집결지 아웃리치 44회 진행 / 인턴십프로그램 진행
	2~11월	산업형 아웃리치 11회 진행
	3~12월	수원역집결지 폐쇄관련 설문지 조사
	4~7월	당사자 학습 '내 안의 숨은 틀 넘어서기'
	4~12월	성매매 예방교육

시기	활동
2012년	5~6월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5~12월 청소년열린터 꿈꾸는 빨래방운영 시작 / 성구매반대 캠페인 4회 진행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기념 캠페인 : 인권을 향한 '나'부터 한걸음
	11월 치료회복프로그램
2013년	1월 인턴십프로그램 진행
	1~12월 청소년열린터 꿈꾸는 빨래방 버스 홍보 등
	2~12월 수원직결지 아웃리치 44회 진행 / 소식지 새날 47회 발행
	3~4월 화성탈북여성살해사건 대응
	3~10월 산업형 아웃리치 6회 진행 / 매탄동·영동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3~12월 내담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3~11월 청소년 이웃치리 41회 진행
	3~4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31회 진행
	4~5월 청소년 가출충동 및 성매매인식에 대한 설문지 조사
	4~12월 성매매 예방교육
	5~12월 성구매 반대 캠페인 5회 진행
	5~7월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10회 진행
	6월 당사자네트워크 '무한 발설'
	7월 치료회복 프로그램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9주년 기념캠페인 : 인권을 향한 수상한 몸부림
	10~11월 수원역직결지 실태조사
12월 청소년 성매매유입 차단 이동상담소 운영	
2014년	1~12월 청소년 아웃리치 31회 진행
	2~12월 소식지 새날 47회 발행 / 수원직결지 아웃리치 45회 진행
	4~11월 성구매반대 캠페인 8회 진행
	4~12월 내담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성매매예방교육
	5~7월 청소년치료회복프로그램:집단미술치료 24회 진행
	6~19월 청소년 체험활동: 조금 다른 세상, 다른 느낌 LOVE&LOVE
	6~11월 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 캠페인 / 산업형 아웃리치 7회 진행
	7월 치료회복프로그램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10주년 기념 캠페인 / 민들레 순례단
	9~10월 인계동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10월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12월 수원역직결지 폐쇄관련 정책토론회 / 청소년 열린터 2주년 평가 및 협력방향 논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시기	활동
2015년	2~12월 소식지 새날 28회 발행 / 수원역직결지 아웃리치 26회 진행
	1~9월 청소년 성매매유입차단 거리 홍보 22회 진행 / 언론 및 포털사이트 홍보 92회 진행 / SNS 홍보 진행
	3~11월 동탄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3~12월 성매매예방교육
	4~11월 성문화 개선 캠페인
	5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캠페인
	5~12월 청소년 대상 사회향상프로그램 23회 진행
	5~12월 수원역직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시민연대
	6월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지원을 위한 간담회
	6~9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야간이동상담소 운영
2016년	7~11월 수원역직결지 이동포차 8회 및 이동카페 2회 운영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11주년 기념 캠페인 : 인간을 돈으로 사는 당신이라면 / 수원역직결지 폐쇄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9~10월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 수원역직결지 성구매 실태조사
	10~11월 산업형 아웃리치 5회 진행
	11월 치료회복프로그램
	12월 청소년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 내 삶의 긍정과 열정 회복하기
	1~12월 수원역직결지 역사 추적 및 기록작업
	3~7월 수원역직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연대회의
	3~12월 성매매예방교육 / 수원직결지 아웃리치 22회 진행 / 소식지 새날22회 발행 /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온라인 아웃리치 / 청소년 가출 충동 및 채팅어플 및 SNS 사용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4월 치료회복프로그램
2017년	4~7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오프라인 아웃리치 7회 진행
	4~9월 청소년 대상 사회향상 프로그램 12회 진행
	4~12월 수원보호관찰소 연계프로그램
	5~7월 산업형 아웃리치 4회 진행
	8~12월 10대 여성 자리 프로젝트 '브랜드 공작소' 사업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행사 :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민들레 순례
	10월 성매매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콘서트
	11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캠페인
2017년	1~12월 10대 성매매 피해 여성사건 기사모니터링 / 성매매사건 모니터링 156건
	2~12월 수원직결지 아웃리치 22회 진행 / 소식지 새날 19회 발행 / 수원역직결지 기억과 기록
	3월 치료회복프로그램
	3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오프라인 아웃리치 진행

시기	활동	
3~9월	수원역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연대회의	
3~10월	수원역집결지 '함께 걷기' /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오프라인 아웃리치 7회 진행	
4~12월	청소년 대상 사회향상프로그램 14회 진행	
7월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개소	
9월	지역자활간담회	
9~11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캠페인	
10월	수원역집결지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4~5월	경찰서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체계 홍보지 4회 배포	
4~11월	성매매예방교육	
4~12월	산업형 아웃리치 10회 진행	
5월	성구매반대 캠페인	
5~10월	산업형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6월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 수원역 인근 모텔 아웃리치	
7~12월	모모이 공동작업장 운영	
8~9월	자활 사회향상 프로그램 5회 진행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13주년 기념행사 민들레 순례 / 성매매방지법 시행 13주년 기념 캠페인 :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말한다 / 자활참여대상 학력취득을 위한 공부방 운영	
9~10월	성매매방지 캠페인 5회 진행	
9~11월	자활참여대상 집단심리치유프로그램 / 자활참여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진행	
9~12월	자활참여대상 권리 및 성매매재인식 프로그램	
10월	성매매 방지법 시행 13주년 기념 행사 : 뭉치와의 집담회	
10~12월	공동작업장 일상프로그램 진행	
11월	당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11~12월	안마미술소 및 안마원 아웃리치 4회 진행	
2018년	1~12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운영 시작 / 공동작업장 운영 / 자활참여대상 자활스텝 ONE '두발로 나아가기' / 자활참여대상 자활스텝 TWO '함께 걷기' / 인턴십 프로그램
	3~4월	자활 이용자대상 집단심리치유 프로그램
	3~11월	산업형아웃리치 32회 진행 / 수원집결지 아웃리치 22회 진행 / 소식지 새날 54회 발행 / 전업형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 수원역 집결지 기사 모니터링 /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역사 기록
	3~12월	성매매사건 기사 모니터링 / 전국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네트워크 8회 진행 / 자활참여대상 일상프로그램 소담하루 / 자활참여대상 기술습득을 위한 내부기술 운영
	3~12월	수원역집결지 플랫폼 '숨길' 운영 시작
	4~12월	수원역집결지 지도 그리기
5~11월	청소년 대상 거리 아웃리치	

수원시정여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원센터

시기	활동	
2018년	7월	청소년 대상 숙박업소 아웃리치
	7~8월	자활참여 대상 : 푸드로 떠나는 힐링 여행
	8~11월	청소년 대상 치유회복프로그램 8회 진행
	9월	치유 프로그램 / 민들레 순례 / 성매매방지법 시행14주년 기념 캠페인 : 성매매 끝장 캠페인
	9~10월	자활참여대상 경제코칭 더 나은 미래와 연결하다
	11월	자활참여대상 뭉치와의 남
	11~12월	자활참여대상 여자이야기 '나의 삶을 이렇게! 몸과 나와 너와 함께!' / 아동청소년 성매매조사 연구 활동
	12월	성매매인식개선 사업 : 강유가람 감독과 함께하는 이태원 영화상영 / 성매매수요처단을 위한 기획토크 / 성매매인식개선 기획강좌 / 수원역 집결지 공간에 대한 설문지 조사
	1~12월	성매매사건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 15회 진행 /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 모모이 공동작업장 운영 / 모모이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 모모이 내부기술 훈련 74회 진행 / 모모이 외부직업훈련기술 35건 진행 / 모모이 학력취득 지원 9건 진행
	2~7월	어깨동무 2019 여성가족부 평가 / 모모이 2019 여성가족부 평가
	2~12월	모모이 역량강화사업 소담하루 9회 진행
	2~12월	수원역집결지 기사 모니터링
2019년	3~9월	수원역집결지 아카이빙
	3~11월	산업형 성매매알선가능업소 실태조사
	3~12월	산업형 아웃리치 24회 진행 / 소식지 새날 49회 발행 / 반성매매 소모임 'SIGN' 11회 진행 / 수원집결지 아웃리치 25회 진 / 아동청소년대상: 거리 아웃리치 15회 진행 / 모모이 역량강화사업 : 드로잉으로 떠나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여정 34회 진행 / 모모이 역량강화사업: 문화 활동 체험프로그램 7회 진행 / 모모이 역량강화사업 : 인권활동 7회기 진행
	4월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진행
	4~8월	공간활성화 사업-영화 상영회 3회 진행
	4~11월	수원역집결지 '함께 걷기' 4회 진행 / 모모이 권리 및 성매매 재인식 프로그램 10회 진행
	4~12월	모모이 역량강화사업 : 요가 30회 진행
	5~9월	성구매 수요차단 캠페인 3회 진행
	5~11월	아동청소년 대상 : 사이버 아웃리치 7회 진행
	5~12월	모모이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
	6~12월	모모이 공부방 16회 운영
	7~9월	성매매알선 가능업소 밀집지역 실태조사
8~9월	전업형 성매매 실태조사	
8~12월	모모이 역량강화 사업 : 낮가림 타파 16회 진행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캠페인 : '2019 성착취 카르텔 박살' 캠페인 / 민들레 순례단 '성매매 여성인권! 기억과 기록의 공간을 돌아보다'	
9~10월	모모이 외부판매 체험 프로그램 2회 진행	
10월	모모이 참여자 타 자활기관 체험프로그램 2회 진행	

시기	활동	
2019년	9-12월	모모이 인터십 업무계약 체결 5회 진행
	11-12월	모모이 내부판매 체험 프로그램 2회 진행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제정
2020년	1월	사단법인 수원여성전화(27차) 제4차 총회에서 부설기관인 아깨동부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분리 독립화 결의 / 사단법인 수원여성전화 부설 성착취인권지원국으로 분리 독립화 준비
	2-3월	사단법인 관련 서류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4월	수원여성인권센터(가칭)으로 설립화 준비
	7월	반성착취인권행동 이음(가칭)으로 설립 준비
	7월	반성착취인권행동 이음(가칭)으로 단체명 변경 및 준비위원회 구성
	9월	발기인 모집 및 구성 논의
	10월	준비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한 업무 협업을 진디 프로그램 도입
	11월	회원 가입을 위한 효성 cms 프로그램 승인 / 정회원 100명 모집 / 발기인 모집
	12월 7일	발기인 창립총회준비위원 회의-수원여성인권등으로 확정
	12월 19일	수원여성인권등을 창립총회

수원시성매매집결지를 이야기하다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폭력과 착취의 공간

성매매 경험 당사자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겪고 기억하는 수원역성매매 집결지는 어떤 공간일까?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각자의 경험과 기억하는 바는 다르다. 성매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 존재한다. '쉽게 큰돈을 번다.' '개인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소비한다.'라는 인식이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 산업의 구조 속에서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집결지가 폐쇄되기 전, 성매매를 중단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던 여성 2명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폭력과 착취가 행해지던 공간"으로 기억한다. 활동가들은 성매매 당사자들 100% 모두 다른 대안만 있으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성매매를 하는가? 활동가 은수는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여성 폭력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지 맥락을 파악하기보다는 여성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낙인을 찍고 배제해 버린다는 것이다.

은수 성매매에 유입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안전



수원의성매매집결지 유리창(김인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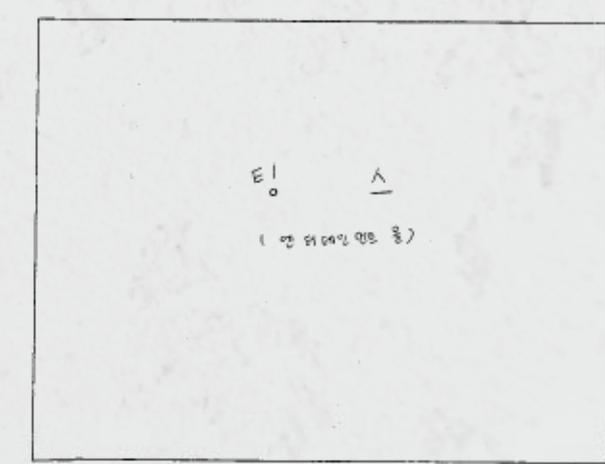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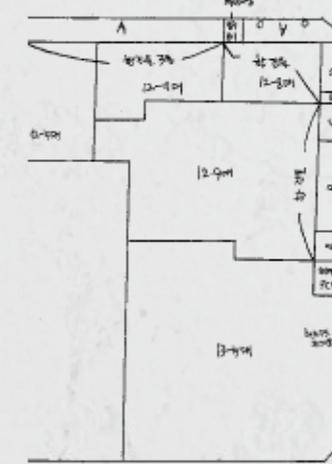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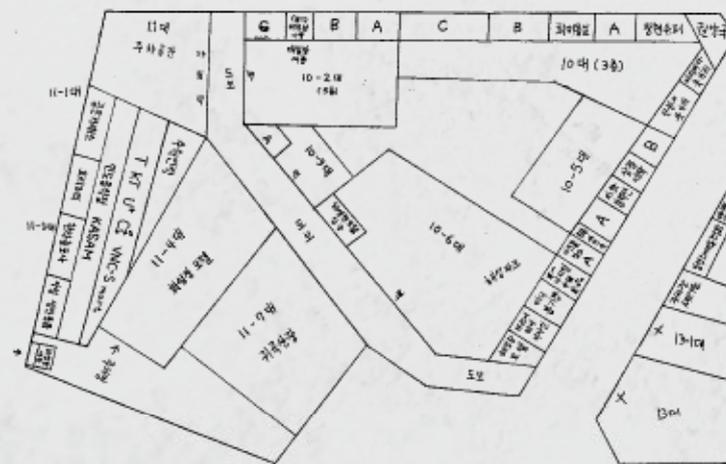
한 장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유입의 배경들은 사실은 그것 또한 여성 폭력과 관련이 있죠. 보통 가정폭력, 가출, 성폭력, 그런 경험들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걸 궁금해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왜 유입됐는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길래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지. 그런 것들은 궁금해 하지 않고, 뭔가 좀 계속 다른 점들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여성들만 낙인찍어서 처벌하는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주들은 당연히 더 업소를 열려고 하겠죠. 이렇게 나라가 나서서 자기를 보호해 주고 처벌도 안 하고, 경찰들은 오히려 업소와 유착 관계가 있고, 온 나라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어느 사람이 업소를 더 하려고 하지 왜 그만두려고 하겠어요? 근데 왜 탈성매매를 하지 않느냐? 성매매를 했냐고 물어보는 건 항상 여성들한테만 그런 질문을 하고, 구매자들한테

는 왜 성매매를 하는지, 왜 성매매를 그만두지 않는지, 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게 유용이고 놀이 문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잣대를 절대 들이밀지 않아요.

강력한 성 산업의 구조 내에서 여성들은 쉽게 성매매로 유입된다. “학력 무관, 초보자 환경, 숙식제공, 고소득 보장”이라는 문구에 학력이 낮거나, 경력이 없거나, 당장의 숙식을 해결해야 하거나, 고소득이 필요한 여성들은 쉽게 유혹된다. 성매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발을 디딘다. (사)수원여성인권동음의 대표 유경은 성매매는 일반 직장에 유입되는 것과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친구 혹은 소개쟁이를 통하거나, 벽보에 붙여진 구인 광고를 보고 본인의 출신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다고 해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데리러 온다. 여성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법적인 이름은 버리고, 가명을 부여받는다. 이름도, 연령도, 외모도, 성 산업 시스템에 맞추어 바뀌게 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대 여성들은 다방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많이 유입되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하거나 홀에서 단순 노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결근한 여성을 대신해 성매매를 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성폭력을 당하면서 점차 성매매로 유입된다. 처음 다방에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가 성매매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집결지로 옮겨 가게 된다. 수원역에서 성매매를 하던 40대 이상의 여성들 중에서는 이러한 경로로 들어오게 된 여성들이 꽤 있다.

집결지에서 당사자 여성들은 업주들을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등으로 호칭한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으로 명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여성의 신체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기에 끊임없이 외모에 대해 언급하고, 차별하며, 다이어트와 성형 등을 부추긴다. 감금과 감시가 없더라도 업주는 여성들을 길들이고, 여성들은 이에 순응하는 시스템이 생긴다. 여성들은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가 오늘 쉬어서, 혹은 내가 손님을 더 하나라도 못 받아서 업주가 화가 났구나. 다음에 저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일을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요, 감시, 감금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위력에 의해 통제된다. 성 산업의 굴레 안에 한 번 발을 들 여놓으면 나오기 쉽지 않다. 업주들끼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간 여성에 대한 신상(얼굴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일부 등)을 공유하고 서로 붙잡아 주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있다.

은수 이게 맨날 가족이라고 하고, 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아빠, 삼촌, 이모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활동가들이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성매매집결지 현황



수원역성매매집결지(김인수 촬영)

이 여성의 몸 하나를 거래 대상으로 사실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왜 안 하나, 좀만 살 빼면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돈을 잘 벌 때는 잘 번다고 예뻐해 주고 뭔가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잘 못 버는 언니한테는 그 앞에서 반찬을 뺏다거나, 밥 먹는 이 테이블 안에서 그렇게 여성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치사한 방식으로 하나하나 여성들을 통제하는데.

집결지 안에서 여성들은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돈을 모아 쇼핑을 하거나, 게임, 오락 등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 속에 늘 폭력과 위협이 존재한다. 성병은 물론, 임신과 임신중단도 빈번하게 겪는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 피부병, 척추관절 질환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업주와 구매자들에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모욕도 당한다. 불법촬영, 폭행, 협박, 언어폭력은 상시적이다. 성 구매자,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배회하는 남성들 중에는 사회, 가정, 직장 등에서 받은 모욕감, 열등감 등을 성매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CENTER

매 당사자 여성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면서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외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재수가 없다.” “마음에 안 든다.” 며 욕을 하고 트집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한다. 성 구매자 중에는 성 구매비용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를 한다며 더 많은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의 물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경우도 있다. 업주들은 소동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면 장사가 되지 않기에 되도록 이를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한다. 여성들이 심한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얻어맞는 소리가 들려도 개입하기 싫어서 일부러 모른 체하다가 늦게 나타나 처리해 주는 업주도 있다. 소란을 피우는 구매자들에게는 성구매 비용을 돌려주고 빨리 내보낸 후 다음 구매자를 받도록 유도한다.

여성 A 일하다 보면 손님한테 맞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술 취한 손님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으면 또 (업주의) 눈치가 보이고, 괜히 받았다가 그냥 우리는 화풀이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두 명밖에 없으니까 손님이 갑이고, 우리는 올인데. 때리면은 그냥 맞는 거예요. 맞다가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업주가 이제 말리는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화대비(성구매비용)로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고 억지로 손님을 달래죠. 미안하다면서, “그냥 이 돈 가지고 가라” 이러면서. 사건 안 만들려고 쉬쉬하고, “너네 이거 영업하는 거 불법이잖아!” “신고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연애를 하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해서 “다시 돈 가지고 와!” 이랬을 때 저희가 “저희 돈 못 내드려요.” 그럼 경찰에 (우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요. 손님들이. 신고를 하면 피해 보는 건 우리 쪽인 걸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하구요.

성 구매자 남성은 본인도 불법 성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여성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성매매 여성이 사회에서 더 약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모욕, 협박, 폭력에 노출되고 돈을 빼앗기는 것은 업주가 아니라 당사자 여성들이다.

여성 B 그냥 현금 같은 거 싹 훔쳐 가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 갖고 저금통 같이 돈이 보이는 건 다 자물쇠를 잡아서.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신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손해 볼 거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구매자가 그런 비용 같은 거는 여성들한테 줬다가 그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찾은 성 구매자(김인수 촬영)

여성들이 그 돈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만 받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더 없어서 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여성들이 주는 거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죠. “그냥 너 한 번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런 셈 치고 뭐! 액땀했다 생각하고.”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발리 이 사람해서 보내야지. 그래야 되니까 앞에서 힘들고, 여차피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구요.

당사자들은 집결지가 다른 성매매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한다.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밀폐된 공간에 남녀 단 두 명이 있다 보니 폭력은 물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도 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리방은 건물 하나에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며 방음도 잘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소리를 지를 경우 옆방 여성이 도와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 그나마 안전하다고 한다.

수원역은 교통의 요지이기에 인근 안산, 시흥, 광명, 화성 등 경기도 각지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 성 구매를 한다. 외국인 구매자들은 주말, 명절에 많이 찾는다. 혼자 혹은 집단으로 다니며 인근에 모텔을 잡아 두고 계속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여성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거나, 혼인신고를 해 달라는 등 본인에게 당면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후, 종적을 감추어 이를 받아들여 준 여성 당사자를 곤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여성이 집결지 내부에서 겪는 위험 중 하나는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것이다. 구매자를 가장하고 들어온 남성이 핸드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유통할까 봐 늘 주의를 기울인다. 어느 업소에서 남성 한 명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면 곧 집결지 내에 소문이 퍼진다.

여성 A 초반에는 몰랐다가 이제 “누가 저랬대.” 하니까는 아가씨들은 이제 들어가면 핸드폰 찾기 바쁘죠. 손님 핸드폰 실재로 되게 많고. 그 바지 뒷주머니에 이렇게 거꾸로 뽑아 가지고 옷걸이에 걸어 놓으면 보이잖아요. 방에 딱 들어가면 저희가 옷을 딱 벗기 전에 휴대전화 위치부터 확인하고. 휴대전화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혹시라도 음성 녹음할까 봐.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돈을 쉽게, 많이 번다고 여긴다. 그런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 당사자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낫일 만한 작은 방의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들어 한다. 선불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여성들은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난다.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불법 원인급여, 즉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거나 자신이 꼭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여긴다. 혹은 돈을 빌려 고마우니, 꼭 갚아야 한다고 여긴다. 업주들은 선불금이 불법 원인급여임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미끼로서 제공한다. 그리고 업주들은 일하는 동안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계속 세뇌시킨다. 피임 도구, 구매자들에게 나눠 주는 음료수, 옷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 미용실에서의 헤어 관리, 화장품 구입, 성형수술 비용, 다이어트약 구입 등은 여성들의 몫이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만만치 않으며, 성매매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강요된다.

여성 A 돈을 벌면 수입을 나누잖아요. 저 반반 나오고 업주는 그 돈을 가져가 버리면 저희는 또 일



유리방 내부(김인수 촬영)

할 때 쓰는 물품도 사야 되고, 방값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내야 되요. 가스비 이런 걸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없어요. ...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천 단위가 넘었어요. 빛이 “보통이야.” 하는 언니들도 500~600만 원, 이 정도 돼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안 값아도 되는 돈인데 그거를 아는 아가씨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값아도 되는 돈이라고 들었는데 겁이 나는 거죠. 업주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너 이거 안 값으면 너 결혼할 때 찾아가서 이렇게 할 거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안 값아도 되는 돈이지만 값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차용증 같은 거 쓰면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잖아요.

업주에게 선불금 차용증을 쓸 때 성매매 당사자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하고 도장이나 사인으로 날인한다. 업주에게 값아 나가는 돈, 이자, 수익 배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혹시 자신의 고향이나 가족에게 찾아가 신상을 알릴까 봐 값으려고 한다.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돈에 묶여서 탈출하지 못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찬란 일단 (차용증에 있는) 주소로 찾아간다거나, (적혀 있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 안 산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근처를 서성거린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공포죠. 신변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내가 여기(성매매집결지)에 있었다는 걸 알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한 공포죠.

성 구매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에 시달린다. 업주로부터 직접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언어폭력과 위력에는 상시적으로 노출된다.

여성 A 그 사람들은 아가씨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를 돈 벌면 끝이니까. 옛날부터 이어졌던 건데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죠. 딱 정해진 수원역은 이렇게, 이렇게요. ... 업주랑 아가씨는 몇 대 몇이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한 두 명이 나서서 “이렇게 못하겠으니까 바꿔 줘.” 이런 거(해야 하는 거죠) ...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될 걸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죠.

성매매 산업구조 속의 여성 당사자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은 연령과 외모에 따라 앞장, 뒷장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성매매를 하며, 급이 나뉘지고 가격이 매겨졌다. ‘가족’이라는 명칭을 하고 있지만, 여성 한 명의 신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생계를 꾸렸다. 혹자는 성매매 당사자들을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성 노동자’라고 표현하지만, 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는 끊임없는 폭력과 모욕에 노출되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없다. 여성은 물건이자 수익 구조로 취급되며 착취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성 산업구조에서 여성들은 착취당하는 피해자로 인지한다. 그리고 중립적 용어인 ‘성매매 경험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수원여성인권동음 활동가들은 성매매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인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찬란 (누군가에게 집결지는) 없으면 안 되는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착취하는 거죠. (성 산업 구조의 구성원이나 인근 상인들도) 착취하는 데 다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수익 구조를 이 (집결지) 안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집결지 폐쇄하면 인근 상인까지 다 나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 이유들이 (왜겠어요?)

유경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의 '먹이사슬'이란 말이에요. 거미줄처럼 성매매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성매매를) 여성의 문제로 이미지화시켜 버리는 문제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묵인한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부추겼죠.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거기 안에 택시 기사들, 그다음에 경찰들, 굉장히 유착이. 그래서 쉽게 바뀌어요? 진짜 없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했던 건데 법대로 하면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쉽지만, 그 법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더 신고 못하죠. 단속 나오면 더 두려운 존재는 누구겠어요? 여성들이죠. (처벌은 여성들만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는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없죠.

활동가들은 여러 산업 중에서도 유독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 산업의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 여성 개인의 도덕적 타락, 비윤리성 등을 논하며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업소 업주들, 남성 구매자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데 비해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임에도 여성 당사자에게는 비난이 쏟아지고, 남성 구매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찬란 (성매매에 대하여) 사회의 시선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죠. 개인의 어떤 자발성, 비자발성을 논한다든지. 개인이 조금만 참고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 사실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 착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성매매에 대해서만 개인의 문제로 봐요. 그 이유는, (이 성착취 자체가) 여성 폭력 피해의 기본이거든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 가장 쉽기도 하고.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언어들이 구매자와 업주의 언어가 많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여성들의 언어는 사회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도는 거죠.

유경 여성들은 끊임없이 처벌되고 있는 문제들에, 그리고 3중 세트로 보호 관찰과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이 같이 떨어지기도 하구요. 여전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더 신고 못하죠.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업주들은 자신들은 외부에 알려진 만큼 부를 축적하지 못했으며,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들이라고 항변하기도 하였다. 물론 업주들 중에는 영세한 이들도 있고, 빛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집결지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을 하

는 과정에서 놀랐던 건, 업주들이 친인척을 끌어들이며 영업을 확장하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방식이 아주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굳이 사회적 인식이 나쁜 일에 온 가족이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수년간 자신과 함께 지낸 당사자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고 염려하기보다는 당장 며칠간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을 수 있는 손실, 선불금 등을 계산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목격하였다. 이는 여성 당사자가 성 산업구조 속에서 단순한 성적 도구와 상품으로 거래되며 여성의 몸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유경 이 구조는 그렇게 영업을 하는 구조죠. 그래서 업주들이 불쌍하고 가난하다? 글썄요! 장사가 되니까 친인척을 다 끌어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또 물려주는 것이구요.

은수 놀랐던 건 이제 언니들이 자살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하는 그 과정에 와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무리 업주라고 해도 그 오랜 시간을 알아온 정이 사실 있잖아요. 사람들간에 미워도, 어때도.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안에서는 정말 어렸든 여성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말 거래의 대상이고, 그냥 돈일 뿐이지, 어떤 관계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9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23년간 업소 5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 가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 원가량도 추정하였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확인한 일가족의 수익은 128억 원에 달하였다. 범행을 알면서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해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서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 '징역형', 『노컷뉴스』 2021년 11월 24일). 이들의 불법 수익이 천문학적인 것에 대해 수원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였다. 반면 이들에게 이토록 큰 수익을 가져다준 여성 당사자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각종 질병을 겪으며 나이 들어갔다.

수원시성매매인권지원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탈성매매,
새로운 세상으로의
내딛음**

제도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치유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여성들은 집결지가 폐쇄된 이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은 학력이 중단되었거나, 지지 자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 왔고,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수원시는 이들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돕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통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특정 기간 성매매를 경험한 당사자 여성을 대상으로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연 800만 원, 직업훈련비 연 360만 원을 최대 1년간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월 2회 자활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경 생계비가 월 100만 원이잖아요. 12개월, 1년이잖아요. 거기에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800만 원. 직업 훈련을 1년 360만 원. 이걸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활 조희 자격 조건이라는 게 탈성매매하고 정기 상담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 지켜 주셔야죠.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포스터 (수원여성의전화 제공)

그런데 활동가와 여성 당사자들은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를 하고, 취업에 성공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압박감을 느낀다. 학력, 자격증, 직업경력이 없는 여성이 1년여 남짓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몇 명이 언제 어디에 취업했다는 통계를 통해 자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매매 당사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집결지 안에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숙식을 하며 오랜 기간 생활한 여성들은 대중교통 이용, 관공서 이용, 은행 업무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서툴다.

집결지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이 필요로 하는 옷이나 화장품 등 각종 물품을 비롯해 여 보험판매까지 직접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물품 가격이 높아지거나 수수료가 증가되지만, 여성들은 집결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의식주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한 여성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어린 나이에 집결지에 유입되었거나 나이가 많아 기기 사용이 어려운 여성들은 집결지 내에서 생활의 모든 것들 해결해야만 하고, 비싼 수수료를 내고 물품을 구입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원과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며 일상을 살아가기에는 모든 부분이 낯설다.

유경 수원시 조례를 만든 거는 여성들한테 보상의 의미인 거지, 수혜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성매매 그동안 20년이고, 10년이고, 10년을 했던 사람은요, 탈성매매하는데 20년이 더 걸리고, 30년이 더 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공간에 머무는 기간에 따라서 이견 달라져요. 그냥 모든 여성이 다 똑같지 않아요. 속도가 달라요. ... 무슨 등냥 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성과를 이야기해요) 여성들한테 다른 대안적인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죠). 이 시스템이 너무 다른데, 단번에 어떻게 끊어요?



수원여성인권동음과 수여성병원의 성평등한 사회·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은수 사실 집결지에 계신 분들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수원 지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버스를 탈 줄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 아주 단순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않으세요. 만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안이 이 사람들의 세계의 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착취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업주가) 유일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전을 느껴요. 벗어났을 때 안전을 못 느껴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QR코드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활동가들은 성 산업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을 일반인들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며, 경제적 지원과 직업 훈련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수치와 통계를 중시한다. 한국은 학력 중시 사회이기 때문에 정규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업을 마치지 않았으면 무엇을 하든 걸림돌이 된다. 무엇보다도 심리·정서적 치유와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많고,

우울·무기력·불안감·분노 때문에 정신과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이들이 다수이다. 일반적인 직장
에서 당장 하루 8시간의 노동을 감당할 만큼 심신이 건강하거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학력에 대한 보
충, 심리·정서적인 자활이 선행되어야 경제적 자립을 통한 홀로서기도 가능하다. 활동가들은 자활지
원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묻는다. 탈성매매 후, 일시적으로 취업하였다가 중단하고 다
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민 정서적 자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회적 자활이 이루어집니다. ... 우리나라 같은 경
우에는 기본 학력을 엄청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활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서의 회복. 그런 부분이 진
행되지 않고 지금 당장 상태에서 취업률만 올리겠다고 하거나, 어떤 실효성을 올리겠다고 취
업(률)부터 본다거나 하는 것, 저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경 대표는 타인의 시선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체계에 산부인과가 많을 거
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신과와 정형외과 의료지원이 더 많음을 지적했다. 외상 후 스트
레스,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젊은 여성들도 척추
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빈번했다.

여성 B 이게 기간과 딱 지원금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준비한다고 꼭 취업이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하나 준비해도 2년을 목표로 해도 10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
고. 근데 통계로(만) 조사하죠.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창원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
들의 자활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당사자들이
성 착취의 고리를 끊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포용해야 한다,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자립을 지원해야 잘못된 성산업도 없어진다는 의견을 펼친다. 반면 일부 세대들
은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 낸 사람들을 왜 성매매 피해자라고 부르
는가? 이들이 어째서 약자인가?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들을 돕는 데 지원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한다.



반성매매 활동가

활동가와 탈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에서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성매매의
이미지는 실제와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10대에 성매매에 유입된 후,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과정 속에서 성 산업에 유입된 이들이 많고, 중년·노년이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가 많지
않다. 활동가 찬란은 비자발/자발 논란에서 구매자와 업주가 삭제되는 것이 사회/국가 시스템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 외부적 상황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늘 자발성 논쟁의 중심에 서지만, 정작 자
발적으로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나, 자발적으로 성을 구매하기 위하여
업소를 찾아온 구매자는 그 논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

집결지 가까이에 경찰서가 있었지만 통제하지 않고 수십 년간 성매매를
묵인하였다. 이제까지 국가의 방관 속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다른 일을 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고령

의 여성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근거지를 떠나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으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은수 여성에 대한 비난은 사실은 끊이지 않아요. 지금 자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매번 나온 얘기는 왜 국가의 열세를 낭비해서 그렇게 돈 쉽게 벌려는 여자들한테 뿌리느냐?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도와줘도 모자란데, 그런 식으로 이 여성 혐오의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죠. ...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성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위치성,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될 수밖에 없게 하는 이 구조를 강화하는 거죠. 여성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여성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업주나 구매자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여성들은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도전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다. 활동가들은 한 명 한 명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매번 놀라움을 느낀다. 이는 취업률, 합격률 등의 통계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성과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보다 값진 변화이기 때문이다.

유경 어느 날 몸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고, 아침에 약속을 지키고, 9시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

'성매매 여성이 일반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남성들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공장에 가서 일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하다. 활동가들도, 탈성매매 여성들도 사회의 이러한 시선과 여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 수년간 다니던 사람들도 직장을 잃고 있는 시대이다. 특히 서비스업종부터 해고가 시작되었고,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은 상태이다.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당사자 여성이 탈성매매 후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종은 서비스업인데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0대 여성이 탈성매매한 후,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고 향후 최소 20여 년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자활프로그램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활동가 찬란은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취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공장 같은 데 취직은 쉽지 않느냐?"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학력과 경력을 중시하는데, 요즘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시장 자체에 대한 진입이 어렵다. 학력이 단절된 당사자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노동의 질이 굉장히 낮고 불안정한 직장일 수밖에 없다. 40대를 넘어간 중년의 무경력자는 공장에서도 채용을 잘 하지 않는다.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추세 속에서 기술과 자격이 필요 없는 단순한 노동 업무를 추천하는 것은 시대 상황을 고려해도 적합하지 않다.

탈성매매 여성에게 필요한 자립과 자활은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새로운 직업을 찾아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성을 회복하고, 집결지 이외의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다. 본인의 삶을 계획하고 원하는 바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진 후,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을 꿈꾸는 이들

2021년 5월 31일,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된 후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 살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아 짧게는 수년에서 30여년 이상 수원역 골목 안 유리방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도 이미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다. 생계를 위해 인근 주거지로 스며들어 성매매를 지속하거나, 타 지역의 집결지로 옮겼다는 여성도 있다. 집결지 폐쇄가 바로 탈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립과 자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탈성매매 후 몇 년간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성매매로 복귀하는 이들도 있다.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로 생활해 왔기에 성산업 구조 외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구매자들과 우연히 마주칠까 봐,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소문을 낼까 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한다.

유경 첫 내담자인 친구는 (탈성매매 후) 4년을 ○○마트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무너졌어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일반 사회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정말 너무 잘해 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쉼터에도 계시고 그러시다가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어요. 매일 출입문을 봐요. 왜 그럴까?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왜냐하면 그들은 알거든요. 저희 여성분들은 어디 마트에 학력을 속여서 들어갔다가도 다시 무너지시는 분들 있어요. 구매자들,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매장에서 만나 가지고 다시 허물어져서. 그래도 거기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저희와 학력 취득해서 지금 대학교 준비하고 있어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은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집결지

골목길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 골목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당사자인 게 표시가 난다는 것이었다. 일하는 시간 외에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이도 있었지만, 핸드폰 게임이나 TV 시청 등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여성 A 다른 아가씨들은 퇴근하고 밖에도 나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활동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일 끝나면 (제) 방, 또 (그 방으로) 출근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밖에 나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 시선이. 그냥.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는 건데. 나는 오늘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 가지고 그냥 혼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 ... 못 알아보겠고 못 알아보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싫었어요. 수근거리는 거 같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저기 시내로 나가려면 그 골목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거진 성매매. 여기 여성들이고 하니까요. ... 먼저 겁을 먹는다고 그래야 되나? 해 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그냥 해오던 일이 이거니까 난 그냥 (하던 대로), 여기서 내가 하던 걸로 돈 벌래. 이런 생각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이들의 결심은 대단한 것이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삶, 자신의 나이 또래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며 개인의 의지 외에 주변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단체의 지원을 통해 학력을 취득해 취업을 하기도 했고, 개명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이도 있다. 성매매의 불법성과 착취 구조를 알리고 여성들을 탈성매매로 이끌기 위해 현장 활동가가 된 이도 있다.

유경 저는 "(성매매를) 좋아서 한다."라는 언니는 전혀 저는 못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만난 사례니까. 대안이 있었으면 이 일을 안 했을 거예요. ...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평생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개명까지 싹 하고 가시는 거 봤구요. 그리고 저희처럼 현장 활동가로 계시는 분들 계세요.

탈성매매 후, (사)수원여성인권동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 2명은 앞으로의 바람을 "남들과 똑같이", "또래랑 비슷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정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팽배한 사회에서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새삼스러워 보인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공간을 구성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까지 60명의 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원하는 평범한 삶,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손을 내밀고 지지해 주는 시선이 필요하다. 반세기가 넘도록 수원 시민에게 수치의 공간이었던 집결지가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 왔듯, 당사자 여성들도 수원 시민들 틈에서 자유롭게 건강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여성 A 힘들게 나왔으니까 저기로 돌아갈 일도 없겠지만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냥 바르게 살고 싶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여성 B 제 또래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비슷한 삶을 살기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살기에는 뭐 하지만. 이제 또래랑 비슷하게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연구원



제4부

수원역성매대집결지의 건축 및 공간

수원역성매대집결지의
건축 및 공간

01

수원역성매대집결지의
건축 및 가로 환경

02

수원역성매대집결지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형식

03

수원역성매대집결지의
건축과 실내의 경관 특징

업종 변경

업종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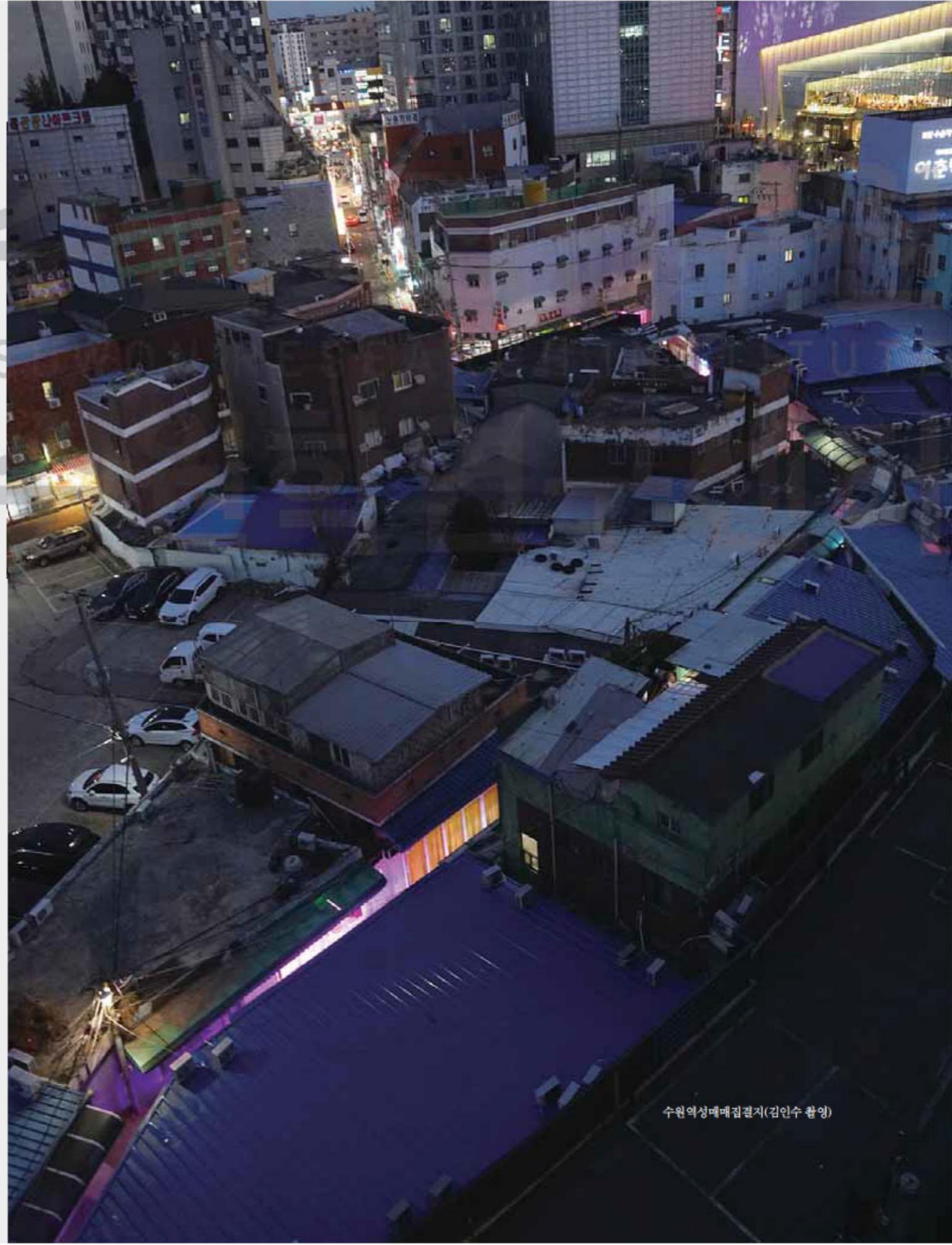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건축 및 가로 환경

조사개요

성매매(性賣買, prostitution, commercial sex) 또는 윤락(淪落)은 돈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성 구매자는 대가를 주는 쪽을 일컫고, 성 판매자는 대가를 받는 쪽을 일컫는다. 성 판매자는 성 구매자의 성적 쾌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성 구매자에게 수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성 구매자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매매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일어나는 곳을 보통 '성매매집결지' 또는 집창촌(集娼村, Brothel, Red Light District)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는 거리, 즉,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칭한다. 주로 붉은 등을 켜고 영업해서 홍등가(紅燈街)라고도 하며, 유곽(遊廓)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공창제에 의해 영업하는 곳이 아니라면 사창가(私娼街)라고 부른다. 속어로는 '빡촌'이나 '창녀촌'이라고도 한다. 붉은 불을 켜 놓고 무언가를 파는 홍등가에서 연상해 '정육점'이라는 은어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기생과 매춘부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기생집도 집창촌의 하나로 간주하였다(『위키백과』).

본 조사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중간에 있는 2m 내외의 좁은 골목길을 확장하여 6m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철거되는 일부 성매매집결지 시설을 기록하여, 개발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게 될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존하고 기억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김인수 촬영)



건축물 실측조사(유연희 촬영)



성매매집결지 사진 촬영(이용창 촬영)

수원시정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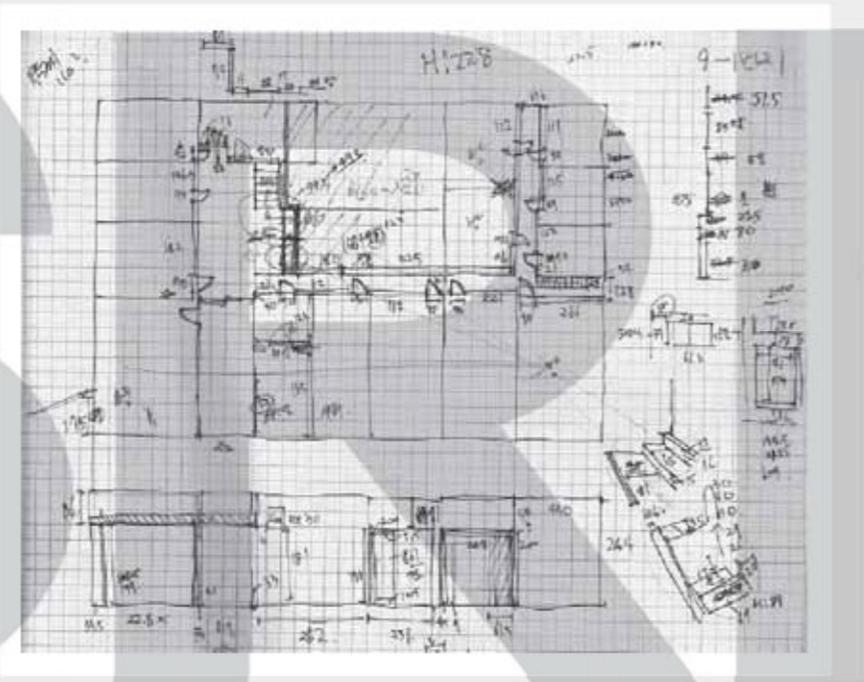
도시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도시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철거를 보름 앞두고 조사 계획이 긴급히 잡혔을 뿐만 아니라, 짧은 조사 기간 및 경비 부족, 실제 현장 접근 조사의 어려움 등 장애 요인이 많아 철거되는 지역에 있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못했으며 성매매 영업 행위의 현장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건물 1곳(매산로1가 114-18번지)과 이미 성매매 영업 행위가 중단되어 조사가 비교적 수월하고 내부 공간의 구획 상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건물 3곳(매산로1가 111-21번지 및 매산로1가 111-6-7번지)을 각각 선택하여 간이 실측조사와 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간이 실측조사는 줄자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축물 외관의 입면, 각 실의 평면 및 입면, 실내에 배치된 주요 가구의 치수를 획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야장(野帳)을 그린 다음 이를 토대로 정식 도면을 제작하는 단계를 거쳤다. 성매매집결지 건축물의 공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도면 작성은 실측한 야장과 촬영된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건축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치평면도, 주요 단면도, 주요 개별실의 사방 전개도를 작도하였으며, 매산로1가 114-18번지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복잡한 실내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투시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최종 도면과는 별도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기 서로 다른 지점에서 촬영된 사진을 도면 위에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조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측조사와 관련된 사진 촬영과는 별도로 확장되어 부분적으로 철거가 예정된 덕영대로895번길(뒷장) 가로변과 주요 건축물 내외부의 정밀한 기록 사진 촬영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크게 건축물 조사와 가로변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 조사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4-18번지 건축물,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 매산로1가 111-6-7번지 건축물의 전체 배치 평면과 실내 공간의 평면 및 입면, 가구 배치 등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로변 조사는 덕영대로895번길(뒷장 : 팔달로10번길, 매산로1가 112-1번지) 양측 가로로, 이 경우는 입면에 대한 사진 촬영을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매산로1가 111-21번지를 조사한 야장 (정원석)

1차 실측조사는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1년 2월 8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4-18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그 후 2021년 6월 1일과 6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추진된 2~3차 실측조사는 성매매가 중단되고 거주자가 이미 이주하여 건축물이 비워진 상태에서 먼저 매산로1가 111-6~7번지 건축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실측조사는 모두 3일간에 걸쳐 4개 필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사진 촬영은 2021년 2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주간과 야간, 그리고 심야 등 시간대를 달리하여 촬영을 함으로써 성매매 장소의 공간 이용 행태와 분위기 등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건축공간과 사람, 그리고 환경의 사실적인 기록에 유념하였다.

1차 실측조사는 모두 6명이 참여하여 2인 1조의 3개 팀으로 나뉘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차와 3차 실측조사에는 각각 2명이 참여하였다. 실측은 주로 건물의 전체적인 공간 배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평면과 입면 조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가구는 침대, 의자, 탁자, 냉장고, 에어컨 등 중요한 것을 위주로 크기와 배치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야장을 기반으로 완성한 최종 도면 (김라니 작도)

실측조사 일정

조사일	조사 대상
2021년 2월 8일	매산로1가 114-18번지를 대상으로 조사
2021년 6월 1일	매산로1가 111-6-7번지를 대상으로 조사
2021년 6월 12일	매산로1가 111-21번지를 대상으로 조사

조사 참여자의 소속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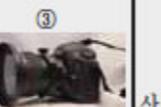
소속	성명	역할	직위	비고
한양대 공과대학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한동수	조사 총괄 및 원고 작성	교수	1, 2, 3차 현장 조사 모두 참여
	김라니	실측조사 및 도면 작성	박사과정	
	골린가브리엘 조즈	실측조사 및 도면 작성	박사과정	1차 현장조사 참여
	정예진	실측조사	석사수료	
	정혜진	실측조사 및 도면 작성	석사과정	
환경조형연구소 그란바우	정원석	실측조사 및 도면 작성	석사과정	1, 2, 3차 현장 조사 모두 참여
	김인수	사진 촬영 및 인터뷰	소장	현장 조사 2회 진행

하였다. 아울러 최종 도면 작성 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내공간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사진 촬영도 병행하였다. 또한 도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은 실측조사자의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현황 기록을 현장감 있게 남기기 위해 1명의 조사자가 조사대상 건축물의 외관은 물론 각 실의 내부 전경, 네 벽면, 실내장식용 소품 등에 대하여 고해상도의 정밀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촬영 완료 이후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6월 1일과 12일에는 실측조사를 겸하여 덕영대로895번길(뒷장)의 우측 건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된 현장에 대해서도 실측조사자의 관점에 바라본 간단한 사진 촬영이 있었다.

실측조사는 건물의 평면 및 단면, 가구배치 등 공간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간단한 실측으로써 일본 타지마 회사의 5.5m 쇠줄자를 이용하였으며, 사진 촬영은 ① Sony 7II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Carl Zeiss 24MM-70MM, ② Canon EOS 5D Mark3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 Canon TS-E 24MM, ③ Canon EOS 5D Mark3 디지털 카메라와 Sigma 14MM-24MM, ④ Leica M6 필름카메라 및 렌즈 Leica Summicron 35MM, ⑤ Voigtlander R4a 필름카메라와 렌즈 Voigtlander Color Skopar 21MM, ⑥ Noblex 135S 파노라마 필름 카메라, 그리고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등을 사용하였다.

실측조사와 사진촬영에 사용된 도구 내역

구분	이미지	비고
실측도구		실측은 건물의 평면 및 가구 배치 단면 등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간단한 실측이었음
촬영도구	     	사진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모두 김인수 소장 개인 소유

토지와 건축물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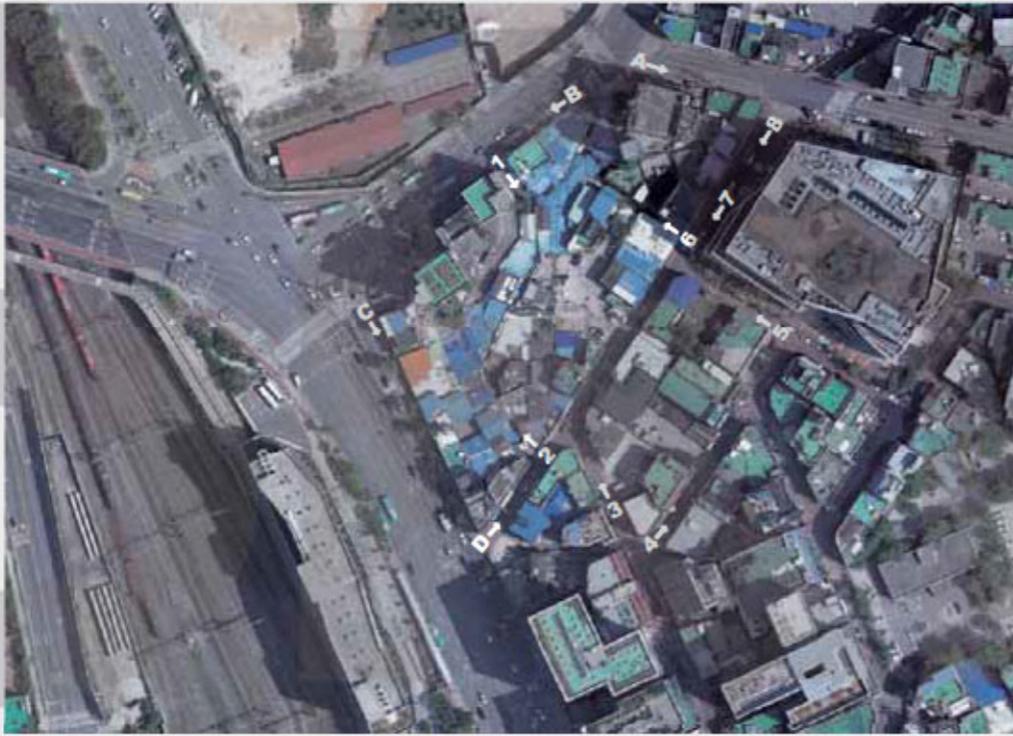
2021년 2월 덕영대로895번길 서쪽 소로3-1757호선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확정, 추진되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소 일부가 철거되었다. 이후 수원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1년 5월 31일을 기해 업주들은 전면 영업 중단, 자진 철거에 들어감으로써 60여 년 만에 역사 속의 장소가 되었다.

2016년 수원시에서 실시한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시 조사된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기초로 하여 성매매집결지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도시환경을 살펴보면 도로의 비율이 전체 면적의 12.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으며 자연발생적이고 폭이 좁은 골목길이 발달해 있다. 토지 소유는 대부분 사유지로, 전체 필지의 절반 이상이 150㎡ 이하의 소형 필지이고 개인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유도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2층 이하의 저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의 1/4 정도가 무허가로 매우 열악한 거주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도로망의 조정, 건물에 대한 정비 등 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건축물 관련 주요 지표

구분	30년 이상 건물	단독주택	무허가 건물	3층 이하 건물	필지 면적 150㎡ 이하
동수	62동	35동	27동	69동	67개 필지
구성비	57.4%	32.54%	25%	63.9%	58.2%



A	B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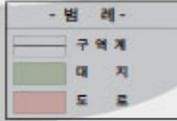
A 갓메산로
B 팔달로
C 덕영대로
D 덕영대로895번길
(앞장)

수원
SUWON
수원



1	2
3	4
5	6
7	8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대 도로 경관



토지 지목별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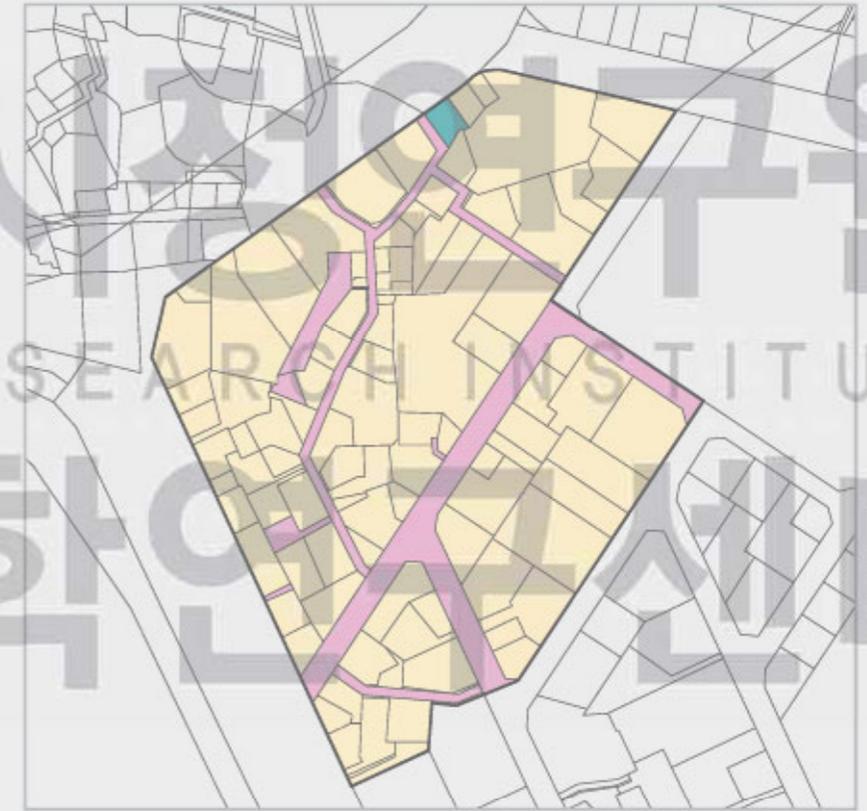
필지수를 보면 총 115필지로, 대지가 98필지로 85.2%이고, 도로가 17필지로 14.8%를 차지한다. 면적은 2만 2,662.4㎡이며 이 중 대지가 1만 9,755.1㎡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도로가 2,907.3㎡로 12.8%이다.

구분	계	대지	도로
필지수	115	98	17
구성비(%)	100	85,2	14,8
면적(㎡)	22,662,4	19,755,1	2,907,3
구성비(%)	100	87,2	12,8

자료 : 토지대장(201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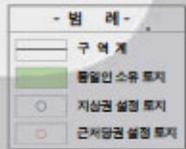
토지 소유자별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사유지가 85.1%인 1만 9,27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유지가 14.4%인 3,275.2㎡, 국유지(재정경제부)가 0.5%인 110.3㎡이다. 사유지 소유자는 총 101명이었다.

구분	계	사유지	재정경제부	수원시
필지수	115	106	1	8
구성비(%)	100	92,1	0,9	7,0
면적(㎡)	22,662,4	19,276,9	110,3	3,275,2
구성비(%)	100	85,1	0,5	14,4

자료 : 토지대장(201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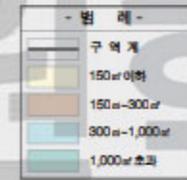
토지 근저당 설정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소유자 1인이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필지는 53필지(소유자 29명)로 나타났다. 편입 토지 중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2필지(매산로1가 13번지, 13-2번지)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41필지로 나타났다.

구분	계	다필지 소유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필지수	115	53	2	41
구성비(%)	100,0	46,1	1,7	35,7

자료 : 토지대장(201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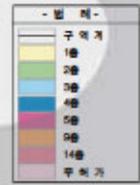
토지 규모별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전체 필지 면적의 21.1%가 150㎡ 이하의 소형 필지이며, 필지수로는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1,000㎡ 이상의 필지는 3필지이며, 필지 면적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계	150㎡ 이하	150~300㎡	300~1,000㎡	1,000㎡ 이상
필지수	115	67	27	18	3
구성비(%)	100	58,2	23,5	15,7	2,6
면적(㎡)	22,662,4	4,777,1	5,507,2	8,110,2	4,267,9
구성비(%)	100	21,1	24,3	35,8	18,8

자료 : 토지대장(2016년 7월).



건축물 층수별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건축물은 총 108동으로, 이 중 1~2층이 52동(48.2%)으로 대부분 저층이며, 3층이 17동(15.7%), 4층이 7동(6.5%), 5층 이상이 5동(4.6%) 분포하고 있다.

구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9층	14층	무허가
동수(동)	108	41	11	17	7	1	3	1	27
구성비(%)	100.0	38.0	10.2	15.7	6.5	0.9	2.8	0.9	25.0

자료 : 건축물대장(201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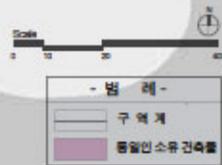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전체 건축물 108동 중에서 허가 건축물이 81동으로 75.0%, 무허가 건축물이 27동으로 25.0%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계	허가	무허가
동수(동)	108	81	27
구성비(%)	100.0	75.0	25.0

자료 : 건축물대장(2016년 2월).



다수 건물 소유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소유자 1인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한 동수는 13동(소유자 7명)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	허가 건축물	
		1동 소유	다수 소유
동수(동)	81	68	13
구성비(%)	100,0	84,0	16,0

자료 : 건축물대장(2016년 2월).



건축물 주용도별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건축물의 주용도를 보면 총 108동 중 32.4%인 35동이 주택이며, 숙박시설이 24동(22.2%), 근린생활시설이 18동(16.7%), 업무시설이 2동(1.9%), 위락시설이 1동(0.9%)으로 나타나 있다.

구분	계	단독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무허가
동수(동)	108	35	24	2	18	1	1	27
구성비(%)	100,0	32,4	22,2	1,9	16,7	0,9	0,9	25,0

자료 : 건축물대장(201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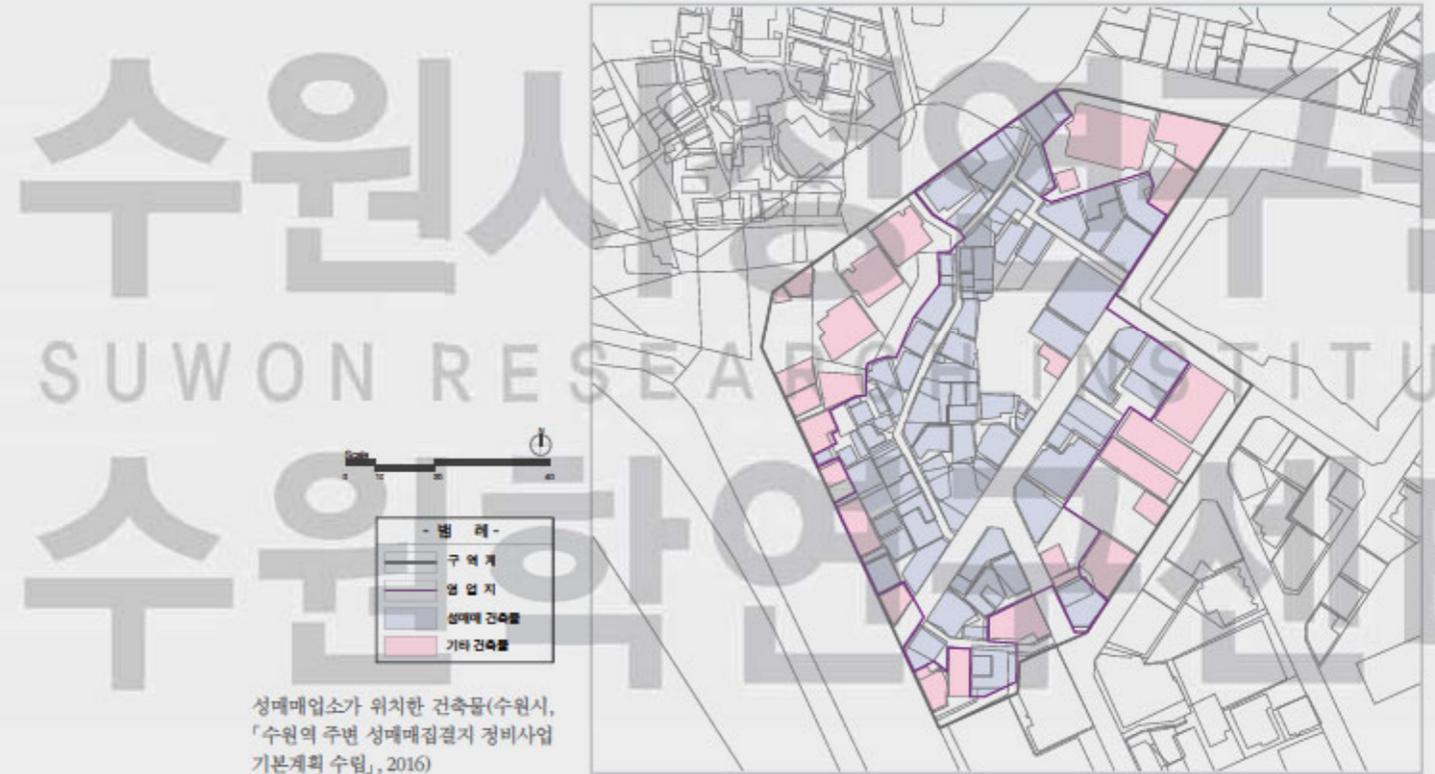


건축물 경과연도별(노후도)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건축물 108동 중 2016년 1월 기준으로 30년 이상 건축물이 62동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20~30년 된 건축물이 12동(11.1%), 10~20년 된 건축물이 6동(5.6%), 10년 미만인 건축물이 1동(0.9%)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무허가
동수(동)	108	1	6	12	62	27
구성비(%)	100.0	0.9	5.6	11.1	57.4	25.0

자료 : 건축물대장(2016년 2월).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건축물(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사업 대상지 내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건축물은 총 108동(무허가 27동 포함) 중 82동(75.9%), 토지는 115필지 중 73필지(63.5%)로 나타났다.

구분	계	성매매영업(동)	
		유	무
동수(동)	108	82	26
	허가 : 81	허가 : 56	허가 : 25
	무허가 : 27	무허가 : 26	무허가 : 1
구성비(%)	100.0	75.9	24.1
토지(필지)	115	73	42
구성비(%)	100.0	63.5	36.5

자료 : 건축물대장(2016년 2월).



- 범 례 -

- 구역계
- 영업지
- 성매매 건축물
- 기타 건축물
- (수) 거주자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현황(수원시, 「수원의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6)

2015년 1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는 총 233명으로, 이 중 성매매 영업 건축물에는 139명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7월 사업 대상지 거주인구는 총 299명이며, 이 중 성매매 영업 건축물에는 179명(전체 거주인구의 59.8%)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사이에 사업 대상지 내 거주인구가 66명 증가하였고, 성매매 영업 건축물 거주인구는 40명이 증가하였다.

2005년 49개 업소에 종사자가 102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 99개 업소에 종사자 2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소별로 종사자는 0~4명이며, 업주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업주단체 및 관할통장 면담조사 결과 업소수는 변동이 없으며, 종사자수는 경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등록형태	업소유형	업소수	종사자수	종사자 연령
무허가 숙박 등	유리방, 쪽방	99개소	200명	20~60대(대부분 30대)

자료 : 수원시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14년).

소로 3-1757호선
 덕영대로 895번길(뒷장) 가로변

덕영대로895번길은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내부를 관통하는 길로, 덕영대로와 갯매 산로를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다. 이 덕영대로895번길을 흔히 '앞장'이라 부르고, 이 길 서쪽으로 팔달로로 향하는 길인 소로3-1757호선을 '뒷장'이라 부른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내 소로3-1757호선은 자연발생형 골목길로, 길의 폭은 2m에 불과하여 내부로의 차량 통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만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영역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내부로 끌어들이 성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이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1~2층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 다닥 다닥 붙어 있고, 골목길이 미로처럼 엉켜 있어 재난사고에 취약한 곳이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소로3-1757호선 매산로1가 114-12번지에서 매산로1가 112번지까지 약 163m 구간(1단계)과 매산로1가 114-4번지에서 매산로1가 114번지까지 약 50m 구간(2단계)을 폭 6m의 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1단계 도로 개설 구간에 편입된 토지 24필지, 지장물 14개 동에 대해 2020년 11월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2021년 2월 석면을 제거하고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작으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어 노후 상수도 와 하수도 교체,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7개소에 LED 가로등과 3개소에 방범·불법주정차 단속겸용 CCTV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체계도 구축하였다.

덕영대로895번길(뒷장 : 소로3-1757호선)을 따라 건축물 정면에는 쇼룸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매우 멋있고 단조로운 가로변 풍경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처럼 균질화된 노면 공간의 단순성은 오히려 이곳을 지나는 통행인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로지 선택색의 불빛을 배경으로 그 안에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쇼룸은 쇼윈도우, 유리방, 홀이라는 명칭도 있으며 이곳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는 미스방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다. 반면 실제 매매춘이 일어나는 공간은 영업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개별실이라고 통일하였다.

네덜란드 홍등가처럼 커다란 유리문을 갖춘 쇼룸은 내부에 앉아 있는 윤락 여성들을 외부 통행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상에서의 호객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성매매집결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대명사로 불린다. 이러한 쇼룸이 우리나라 성매매집결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실시



2021년 소로3-1757호선 도로 개설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현황

수원시청외곽주원역 수원학안마을주택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된 전국적인 범주의 대대적인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사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영대로895번길(뒷장) 가로변에 대한 조사는 주로 길 양쪽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진 촬영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체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나 보다 집중적으로 촬영한 구간은 영업장과 폐업장의 모습이 대비되어 생동감 있게 드러나는 매산로1가 111-4, 6, 7, 8, 10, 13, 14, 16번지까지의 필지 양쪽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끊어서 구간 구간 촬영한 사진은 진입순서에 따라 낱장으로 정리를 하였으며 본문에서는 낱장을 서로 연결시켜 가로변의 경관을 하나의 파노라마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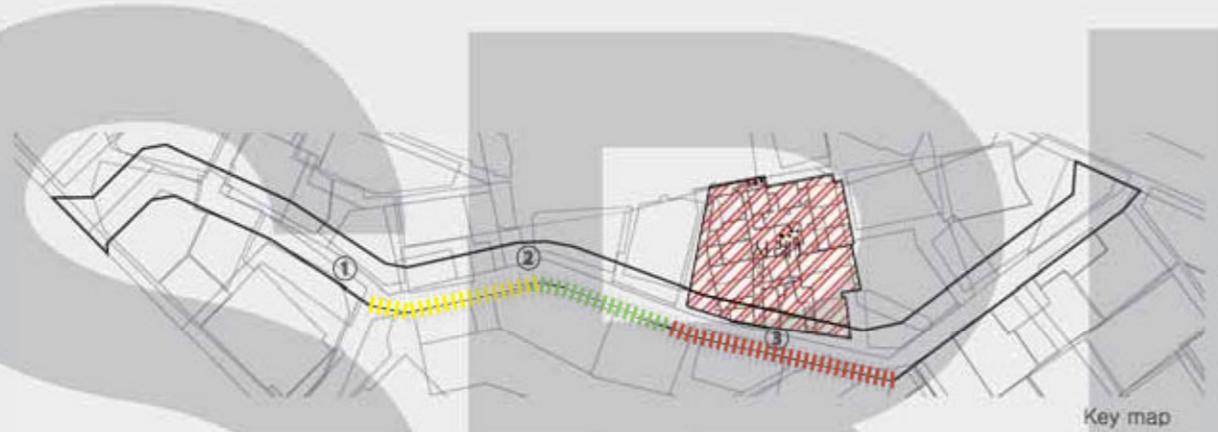
파노라마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집결지 가로변 풍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곳이든 별다른 특색이 없이 매우 단순하고 획일적인 입면의 모습을 띠고 있다. 아가씨들이 자신을 전시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실에 해당하는 이른바 쇼룸 공간은 대부분 가로 60~70cm, 세로 200~210cm 크기의 규격화된 알루미늄 새시 창호를 사용하여 일정하게 계획을 하였다. 일부 영업장은 이러한 규격의 창호 두 개를 하나의 창호로 만들어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건물의 입면이 이렇게 규격화된 까닭은 성매매집결지의 영업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매산로1가 114-18번지에서 영업장을 운영해 온 업주의 증언 따르면 이러한 입면은 개별 영업권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창호 2개는 성매매 여섯 사람의 영업장이자 호객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로 보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고객이 자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창호 2개의 범위 내에 있을 때에만 호객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나가면 일절의 행동을 중단하고 옆 사람에게 호객 행위의 권리를 넘기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보통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호 전체를 가리는 커튼을 쳐서 실내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영업 시에는 주야를 막론하고 선홍색 계열의 조명을 강하게 밝혀 실내 공간이 잘 드러나게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처리하였다.

그리고 쇼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창호 이외의 가로변 벽체 부분을 살펴보면 타 일이나 벽돌로 마감하지 않은 곳은 대부분 방수액의 색채인 청록색 계열의 페인트로 칠

수원시저여구원 수원학연구센터



덕영대로895번길(뒷장) 가로변 경관(김인수 촬영, 정원석 편집)

Key map



2



1



3



골목 상부에 아치 형태의 아크릴 지붕을 씌운 모습(김인수 촬영)

을 하였는데 이는 선홍색 계열의 조명과 강한 대비를 이룬다. 그런데 초록색은 전통적으로 돈, 재정, 야망, 탐욕, 질투와도 관련이 깊은 색이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색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 지역의 분위기와도 묘하게 잘 어울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구간의 상부는 아치 형태의 청록색 아크릴 지붕을 덮어 씌어 더욱 안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덕영대로895번길(뒷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다수 성매매집결지의 가로변과 마찬가지로 어두침침하고 음산하면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곳 덕영대로895번길(뒷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변 건물 벽면에는 통행자들의 눈길을 끄는 안내문 전단지(가)가 곳곳에 붙어 있다. 그것은 다음 아인 성매매업소의 내부나 종사자들에 대한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거의 모든 업소의 벽

아크릴 지붕을 씌운 뒷장 골목(김인수 촬영)

면이나 쇼룸 근처에서 이러한 안내문 전단지를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Warning
If you shoot here.
We'll report to
the police.
Do not take a video or any picture!!
몰래카메라 사진
찍지 마세요.
적발 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로변 벽면에 붙어 있는 사진 촬영 금지 경고문과 신규 주소 표지판(김인수 촬영)



보통 성매매집결지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글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휴대전화기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전단지 등의 등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특히 영어를 먼저 쓰고 한글을 밑에 쓴 것을 보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실제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찾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수원을 비롯한 주변의 도시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가로 양측에는 거주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에어컨 실외기, 취사 및 난방용 가스통, 쓰레기통을 비롯하여 전기 계량기와 어지럽게 연결된 전선,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 등이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오히려 길 위에는 장애물이 거의 없어 사람들이 통행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 또한 건물이 밀집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큰 탓에 다수의 장소에 소화기를 배치해 두었다. 나름 가로변의 정비를 위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장미 두 송이의 벽화가 덕영대로895번길(뒷장) 초입을 장식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수원사

SUWON RESTAURANTS

수원학

덕영대로895번길(뒷장) 출입구 (김인수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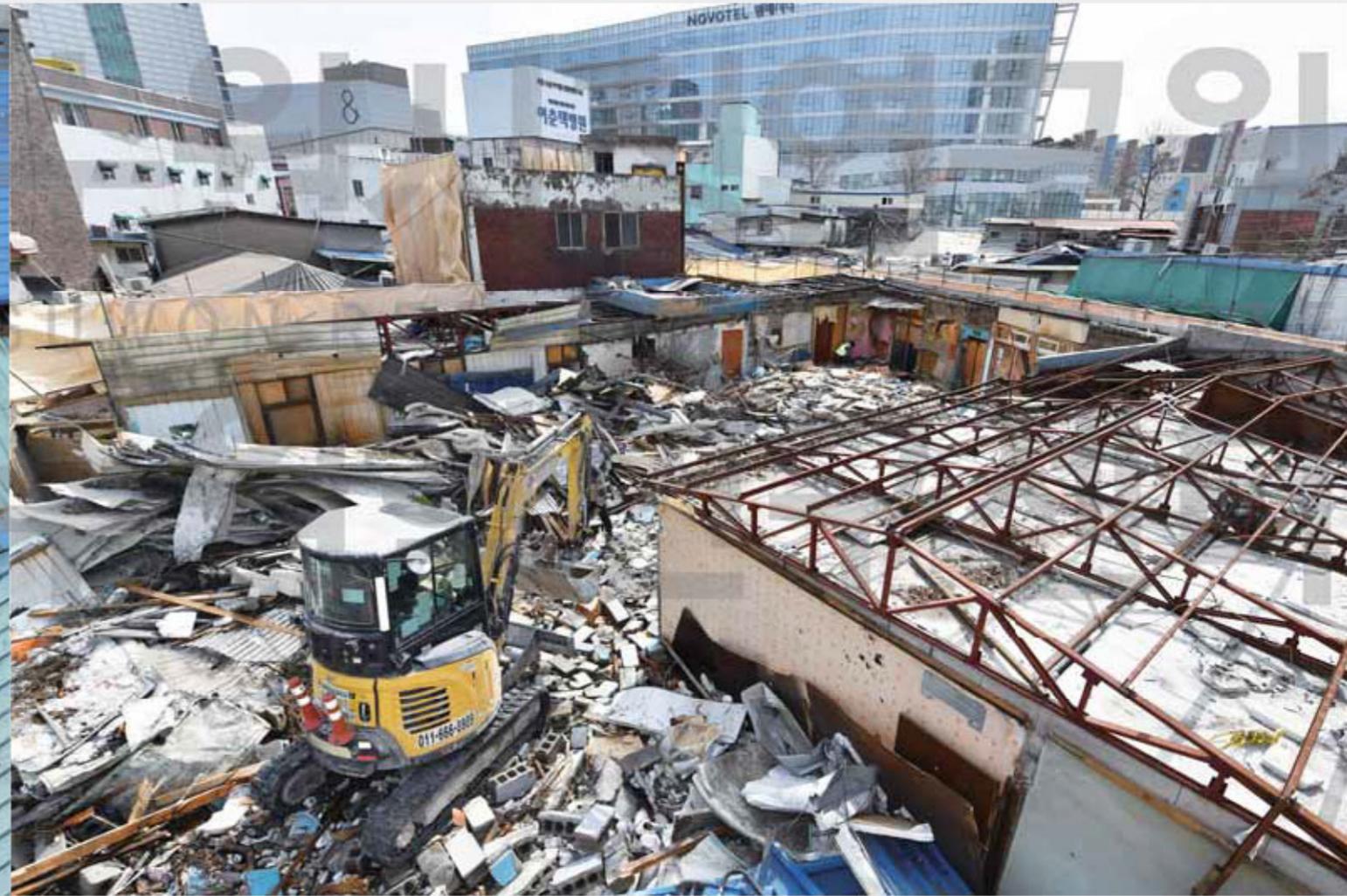


덕영대로895번길(뒷장) 출입구 (김인수 촬영)





덕영대로895번길(뒷강, 소로3-1757호선) 도로 개설 지역 지강물 철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덕영대로895번길(뒷강, 소로3-1757호선) 도로 개설 지역 성매매업소 철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형식

제한된 조사 시간과 경비로 인하여 착수 단계에서 합의된 조사 대상 건축물은 사전에 업주의 동의가 있었고,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대표할 만한 공간적 특성을 갖추었으며,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매산로1가 114-18번지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31일을 기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 스스로 영업 중단과 자진 철거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자유로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산로1가 111-6~7번지, 매산로1가 111-21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 다행히도 네 동의 건축물들은 모두 실내의 공간구조, 규모 등의 측면에서 각기 나름대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건축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었다. 여기서는 개별 건축물의 공간 구조와 평면 형식, 개별실의 내부 공간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물대장에 따른 조사 대상 건축물의 법적인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에 근거한 조사 대상 건축물의 기본 상황

지번	건축대장유무	용도 변동	공부 면적(m ²)	주용도	구조	사용승인
111-21	○	단독주택	191.6	주택	목조기와 시멘트 벽돌 슬레이트	1963년(일제시기)
111-06	×	무허가	41.5	-	-	1990년 이전(1967년)
111-07	×	무허가	16.3	-	-	1990년 이전(1967년)
114-18	○	단독주택	379.4	주택	목조	1962년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영역과 조사 대상 건축물의 위치(수성엔지니어링, 「수원의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 2016)

수원시 저역구원

SUWON RESILIENT ARCHITECTURE

수원학 연구원

건축물의 공간 구성
매산로1가 111-21번지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 위치(김라니 작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뒷장 골목 초입
(매산로1가 111-21번지, 김인수 촬영)



경부철도 관사촌(1966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매산로1가 111-21번지와 매산로1가 111-22번지는 한 동이지만 두 가구가 거주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뒷장 골목
(김인수 촬영)



매산로1가 111-21번지 경관
경부철도 관사는 한 동에 두 가구가
살도록 지어졌는데, 매산로1가 111-
21번지와 그 뒤의 매산로1가 111-22
번지의 건물도 한 동으로 지어졌다.
관사 건물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새로
운 구조물을 증개축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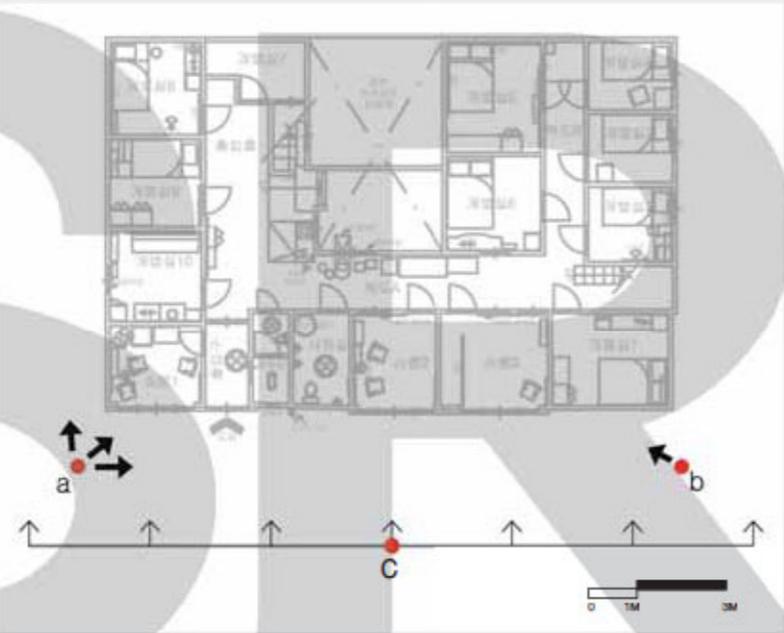
덕영대로895번길(뒷장)의 초입에 위치한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1963년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일제시기 경부철도 관
사로 지어졌다가 민간에 불하되어 1960년대 이후 증개축을 통해 현재의 구조를 이루게 되
었다. 건축 구조는 나무와 콘크리트 벽들을 함께 이용한 목조+조적조이고 지붕 재료로는
기와와 슬레이트가 혼용되었다. 일부 2층 공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층 건축물이다.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 철거
중 드러난 철도 관사 지붕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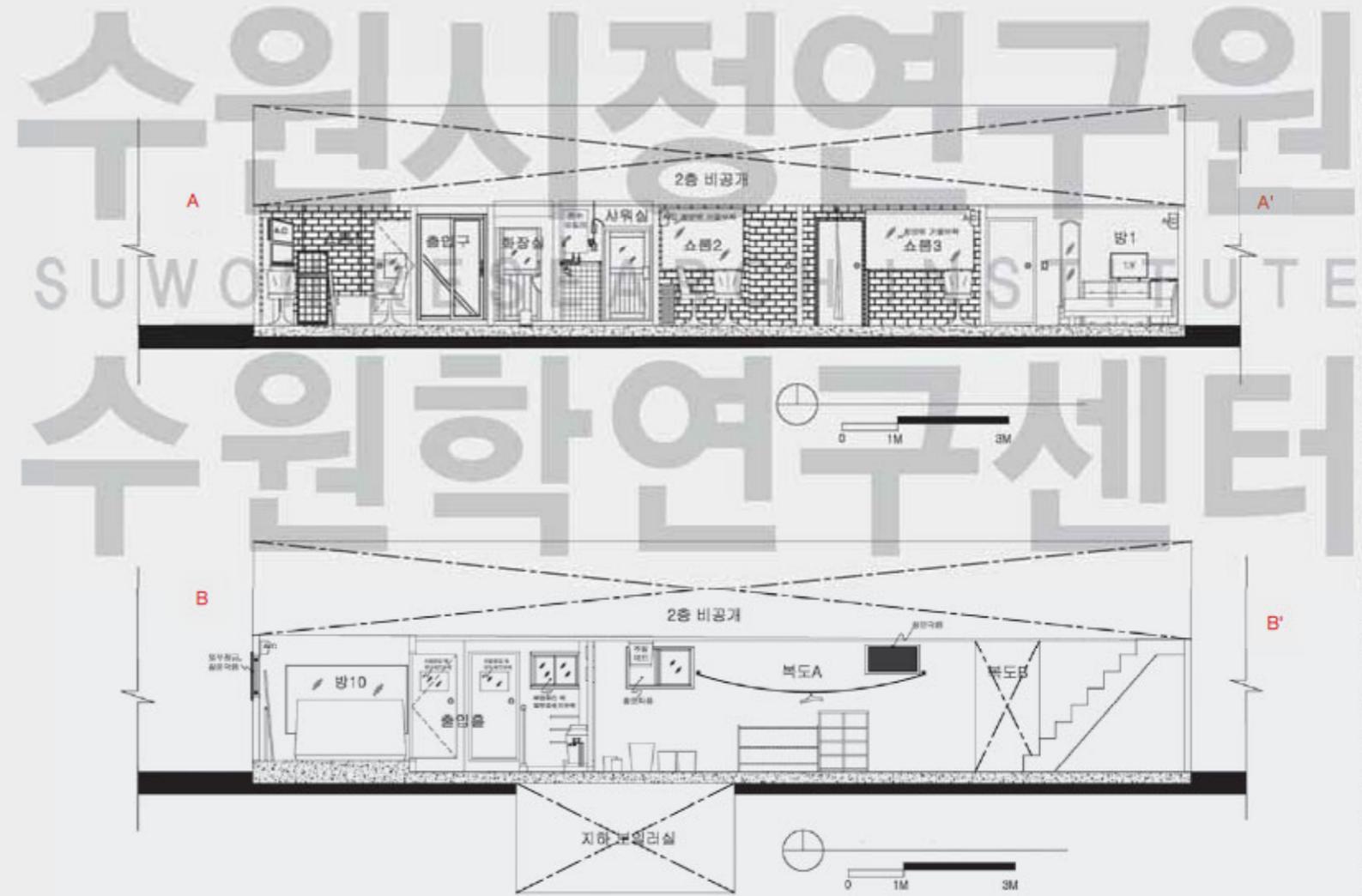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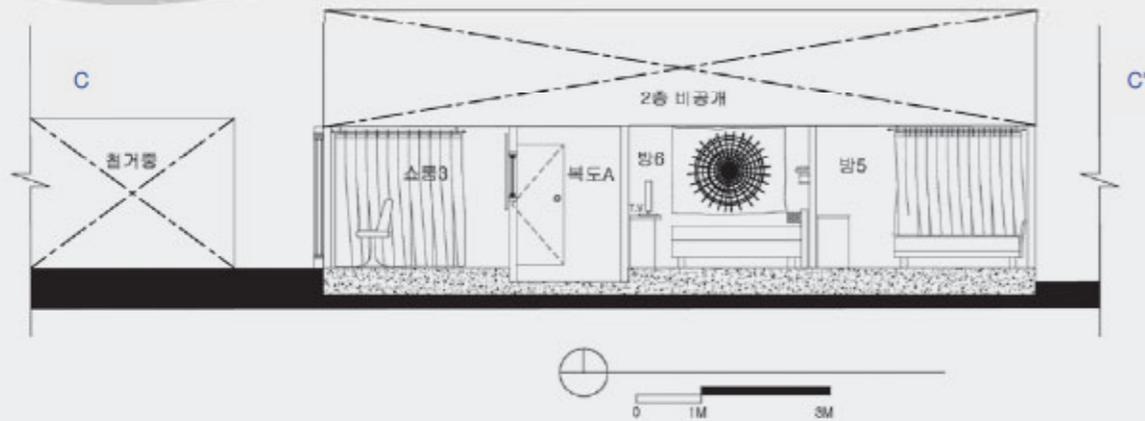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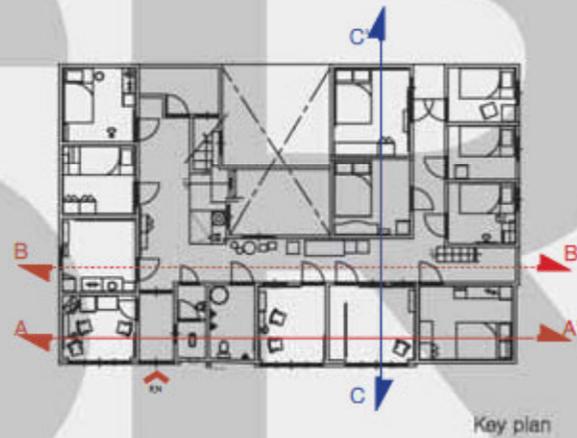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 철거 후
드러난 매산로1가 111-22번지 철도 관
사 구조



매산로1가 111-21번지 평면 위치 안내도(김라니 작도)와 가로 및 입면(김인수 촬영)



매산로1가 111-21번지 1층 평면도(김라니 작도)



매산로1가 111-21번지 단면도(김라니 작도)

매산로1가 111-21번지 평면도에 나타난 철도 관사 부분(김라니 작도) 도면의 붉은색 점선 부분은 철도 관사에 해당하는데, 현재 입주의 거주 공간과 개별실 5와 개별실 6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축물은 조사 직전에 영업이 중단되었고 입주의 생활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은 비어 있어 조사를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또한 영업이 중단되어 성매매 종사자들이 모두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개별실 내부에서 사용했던 주요한 가구와 장식들이 대부분 잘 남아 있어 영업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입주의 생활공간과 2층 부분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관계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허락을 받은 1층 공간에 대해서만 간이 실측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였다.

입주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이 건축물은 현재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과 도면상의 개별실 5, 개별실 6을 중심으로 주변에 넓은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이었으며(철도 관사), 출입문의 위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대다수 건축물들이 그렇듯이 지속적인 불법 확장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큰 규모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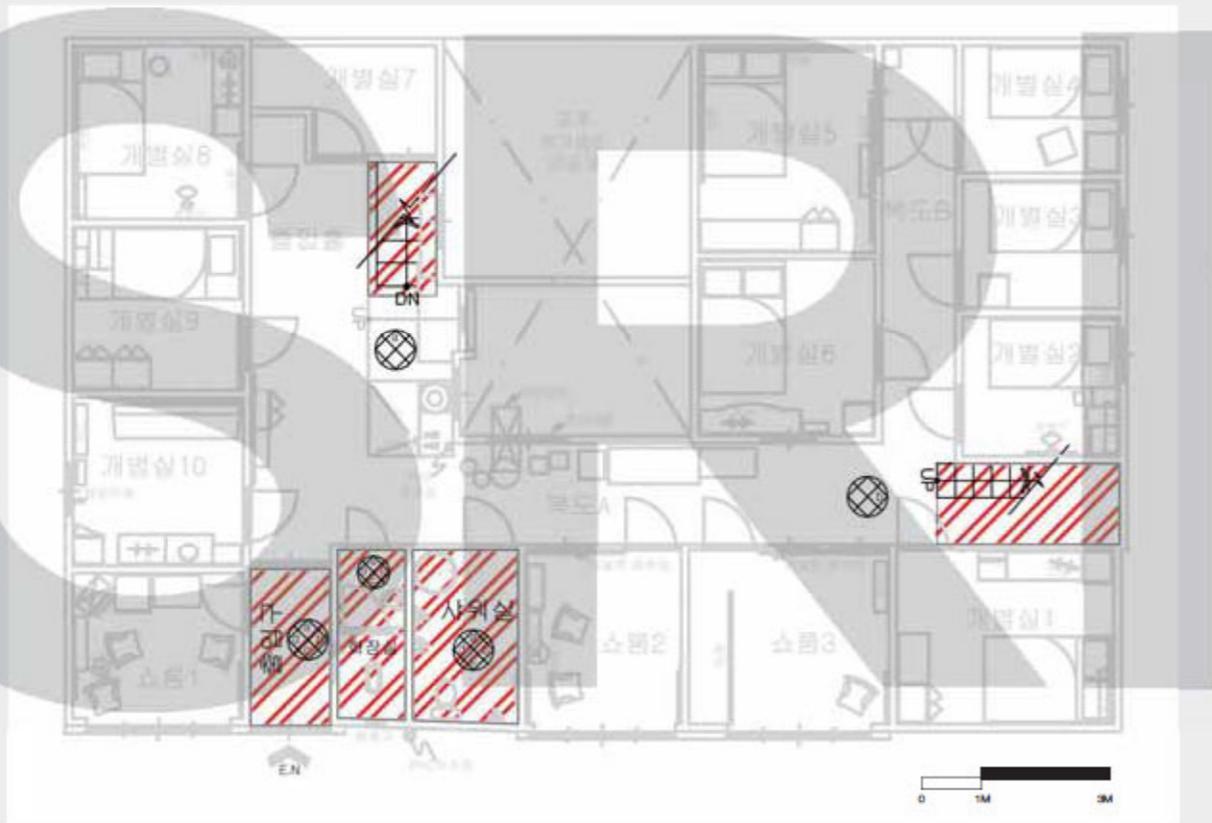
또한 개별실 5와 개별실 6은 원래 3개로 구획된 공간이었는데 벽체를 털어내고 2개의 실로 구획을 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과거 공간 구획의 흔적은 벽체에 있는 창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수원시
SUWON RES
수원역
수원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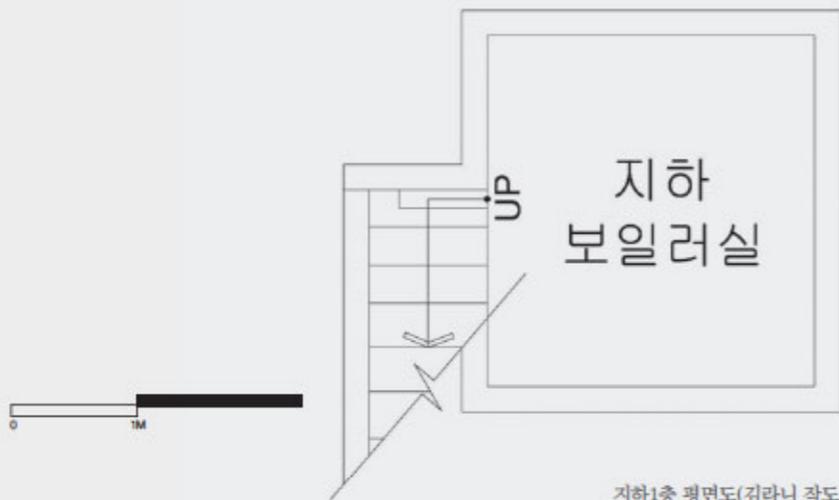
철도 관사에 해당하는 부분 (이용장 촬영)



전체 평면은 장방형이고 크기는 가로 15.5m, 세로 10.3m 정도이며 각각의 개별실들이 모두 하나의 건물처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정면 중앙에는 원래 단독주택으로 지어진 입주의 생활공간이 보이고 그 밑에는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실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3면에 T자 형태로 설치된 통로를 따라서 모두 10개의 개별실, 3개의 소통, 샤워실과 화장실 각 1개소가 위치한다. 이 가운데 출입구 왼쪽에 있는 1개의 소통과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2개의 소통, 1개의 개별실은 한 쪽 벽면이 가로변에 접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출입구 안쪽의 오른쪽 통로 끝에 위치한다. 특이한 점은 10개나 되는 많은 개별실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 내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단 1개소밖에 없으며 출입은 내부에서만 가능하여 위생시설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출입구와 화장실, 샤워실, 지하실 위치(김라니 작도)



지하1층 평면도(김라니 작도)

수원

SUWON R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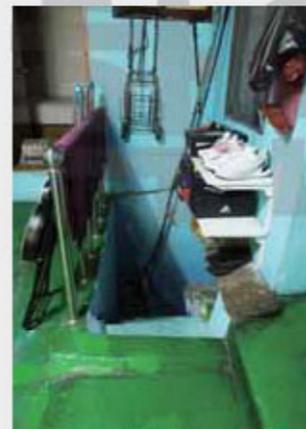
출입구(c)



출입구(d)



출입구(d-a)



지하실 계단(a)



2층 계단(b)



화장실(b-c)



샤워실(b)



샤워실(b-c)



샤워실(d-a)

출입구와 화장실, 샤워실, 지하실(한동수 촬영)



출입홀과 복도(김라니 작도)



출입홀(a)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출입홀(b-c)



출입홀(d)



복도A(a-b)



복도A(b)



복도A(d)



복도B(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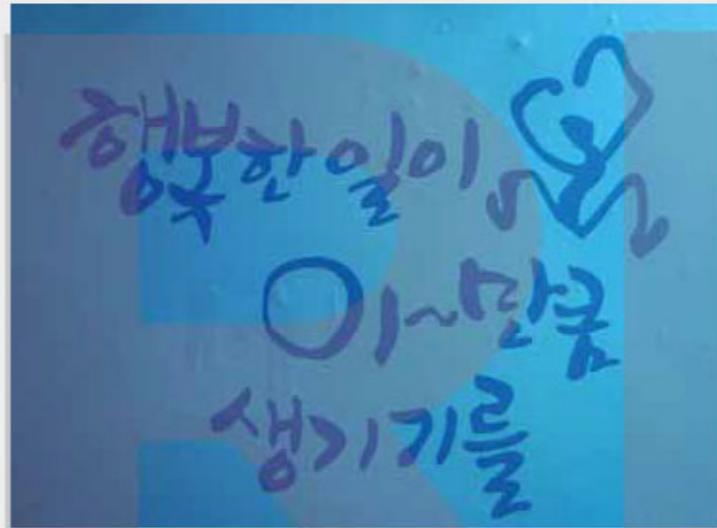


복도B(c)

단실 출입구를 통해 들어와 각 개별실로 이어지는 T자형 동로(한동수 촬영)



복도B 벽과 문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
(한동수 촬영)



2m에도 미치지 못하는 c자 형태의 협소한 통로는 원래 외부 공간이었지만 상부를 모두 베너합판을 막아 천정을 설치함으로써 실내 공간의 일부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만 통행이 가능하며 밀실로 들어가는 음침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또한 고르지 못한 바닥, 통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생활용품 등은 화재와 같은 재난이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준다.

통로를 따라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개별실로 연결이 되는데 성매매집결지에서는 소룸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룸에서 고객 행위를 통해 받은 손님은 바로 개별실로 안내되어 매매춘이 이루어진다. 개별실은 통로의 분위기와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고 컴팩트한 공간이다. 10개의 개별실을 운영한 이곳은 가장 큰 것이 가로 2.8m, 세로 3.2m 정도로 3평에 미치지 못하고, 가장 작은 것은 가로 2.5m, 세로 2.0m 정도로 1.5평에 불과하다.

개별실 내부에는 공통적으로 침대를 비롯하여 수납을 위한 간단한 서랍장, 옷장과 같은 가구와 텔레비전, 에어컨,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다. 침대는 실의 크기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대를 넣는 금고와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 협소한 공간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성행위를 자극하는 대형 거울도 빼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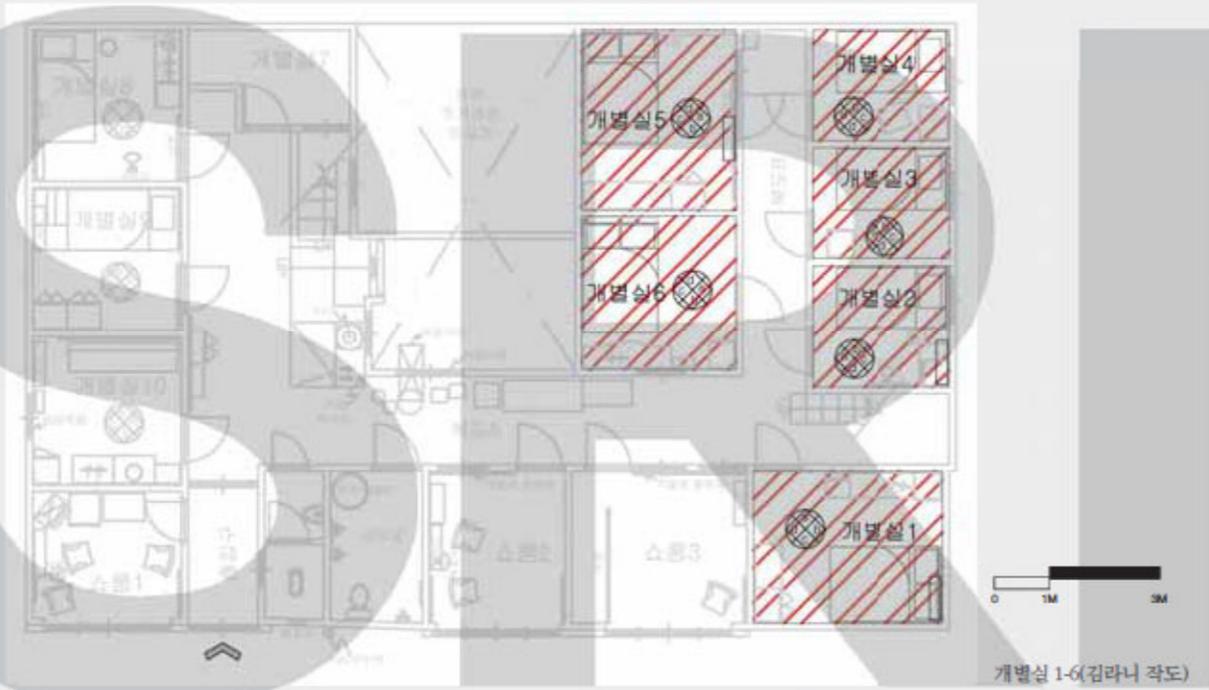
을 수 없는 물건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침대의 배치 방향인데 방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성매매 종사자가 누워서 보기에 편리하도록 출입문과 대각선 방향에 머리를 두도록 하였다. 그 밖에 선홍빛의 조명, 화려한 벽지와 커튼은 성매매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벽지 위에 그려진 해바라기 그림, 잡귀를 막기 위한 부적과 북어, 부귀를 상징하는 올빼미 인형과 같은 것들은 모두 성매매 종사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소룸은 성매매 종사자의 영업장으로 창문을 통해 고객 행위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이다. 이 건축물에는 모두 3개의 소룸이 운영되었는데 크기는 가로 2.4~2.9m, 세로 2.3~2.8m 정도의 규모로 매매춘이 이루어지는 개별실의 규모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하나의 소룸에 대략 3~4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머물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룸 내부는 별다른 구획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 1개를 유리문 반대쪽에 두었다. 다만 소룸 3은 다른 두 곳과 달리 전체 공간의 1/4 정도를 커튼으로 막아 옷을 갈아입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조사 당시 실내 공간에 배치된 가구는 개별실처럼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았으나 사진 촬영을 한 다른 소룸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음료수를 보관하는 냉장고, 몸매를 가꾸기 위한 화장품과 빗, 드라이어 등의 소품을 넣어 두는 서랍장, 비교적 큰 거울, 에어컨과 선풍기, 난방기기 그리고 의자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룸에 남아 있던 가구 가운데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의자이다. 3개의 소룸이 모두 유사한 형태의 의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앉아서 쉬는 기능보다는 앉아서도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통 칵테일 바와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다리가 하나이고 높이가 높으며 회전하는 의자이다. 또한 소룸에서도 개별실에서 볼 수 있는 해바라기 그림이라든가 부적, 북어와 같은 물건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수원시성매매집결지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대학교



개별실 3(b-c)



개별실 4(b-c)



개별실 1(a)



개별실 1(b-c)



개별실 1(c)



개별실 2(b-c)



개별실 5(c)



개별실 5(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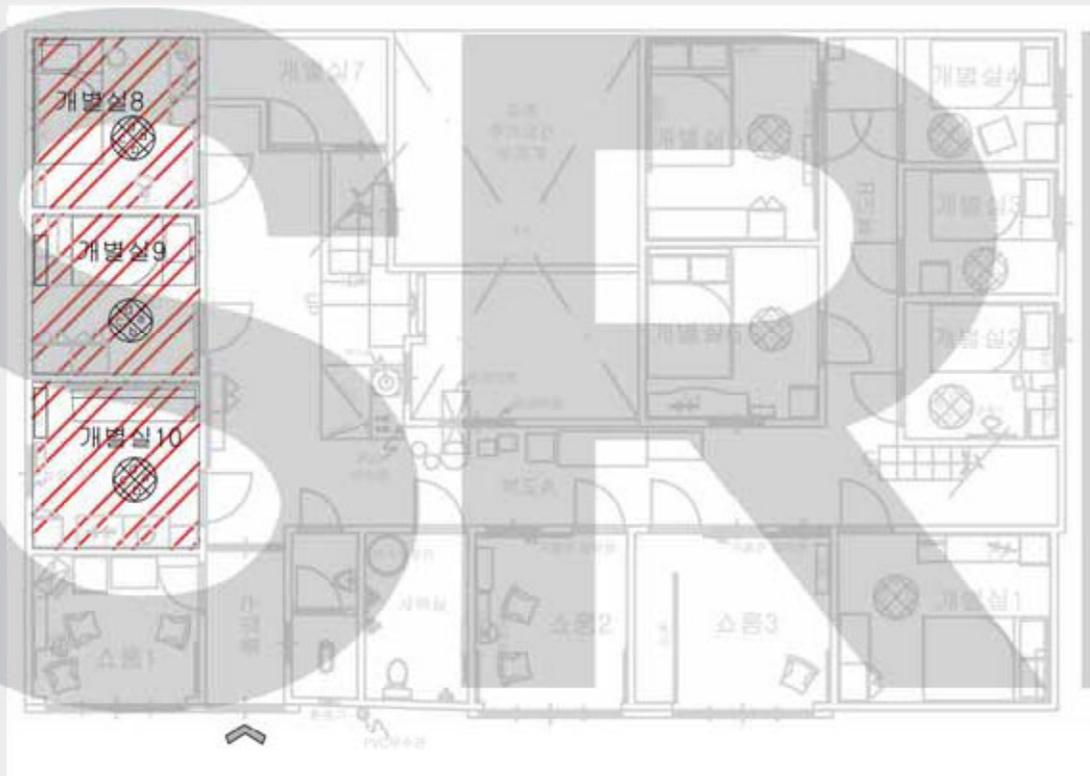


개별실 6(b)



개별실 6(c)

개별실 1-6(한동수 촬영)



개별실 8-10(김라니 작도)



개별실 8(c-d)



개별실 8(d-a)



개별실 8(a-b)



개별실 9(c-d)



개별실 10(c-d)



개별실 9(d-a)



개별실 10(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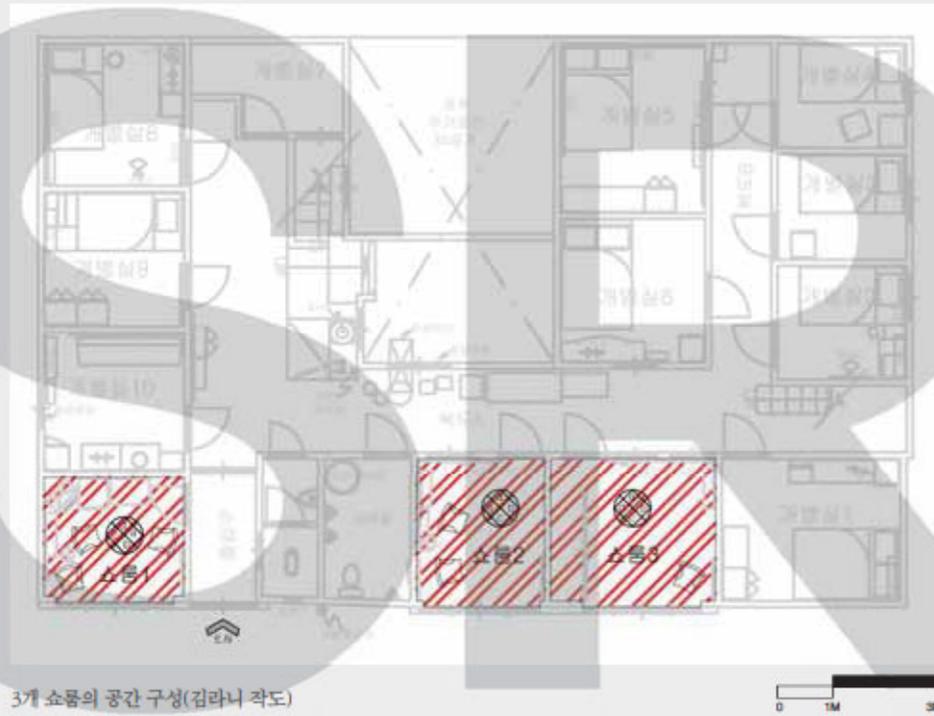
개별실 8-10(한동수 촬영)



개별실 9(a-b)



개별실 10(a-b)



수원
SUWON R
수원



쇼룸 외관



쇼룸 2(d-a)



쇼룸 2(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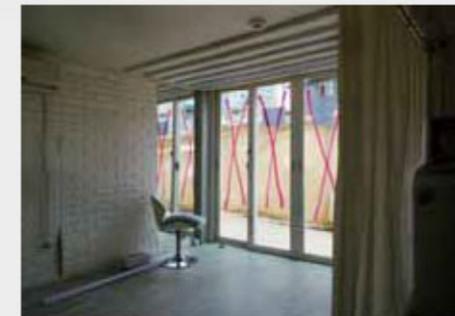
쇼룸 2(c-d)



쇼룸 1(c)



쇼룸 1(d-a)



쇼룸 3(b-c)



쇼룸 3(d-a)



쇼룸 3(c-d)



쇼룸 3(a-b)

3개 쇼룸의 현황
(한동수 촬영)

매산로1가111-6번지
건축물의 공간 구성

덕영대로895번길(뒷장)이 팔달로와 만나는 끝자락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1990년 이전에 지은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1967년에 지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없으며, 육안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 뒤편의 옹벽에 기대어 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이다.

수원역성매대집결지 패쇄 전 야경(김인수 촬영)
소방도로 개설로 철거되기 전 모습으로, 옹벽 좌측 건물이 매산로1가 111-6번지와 111-7번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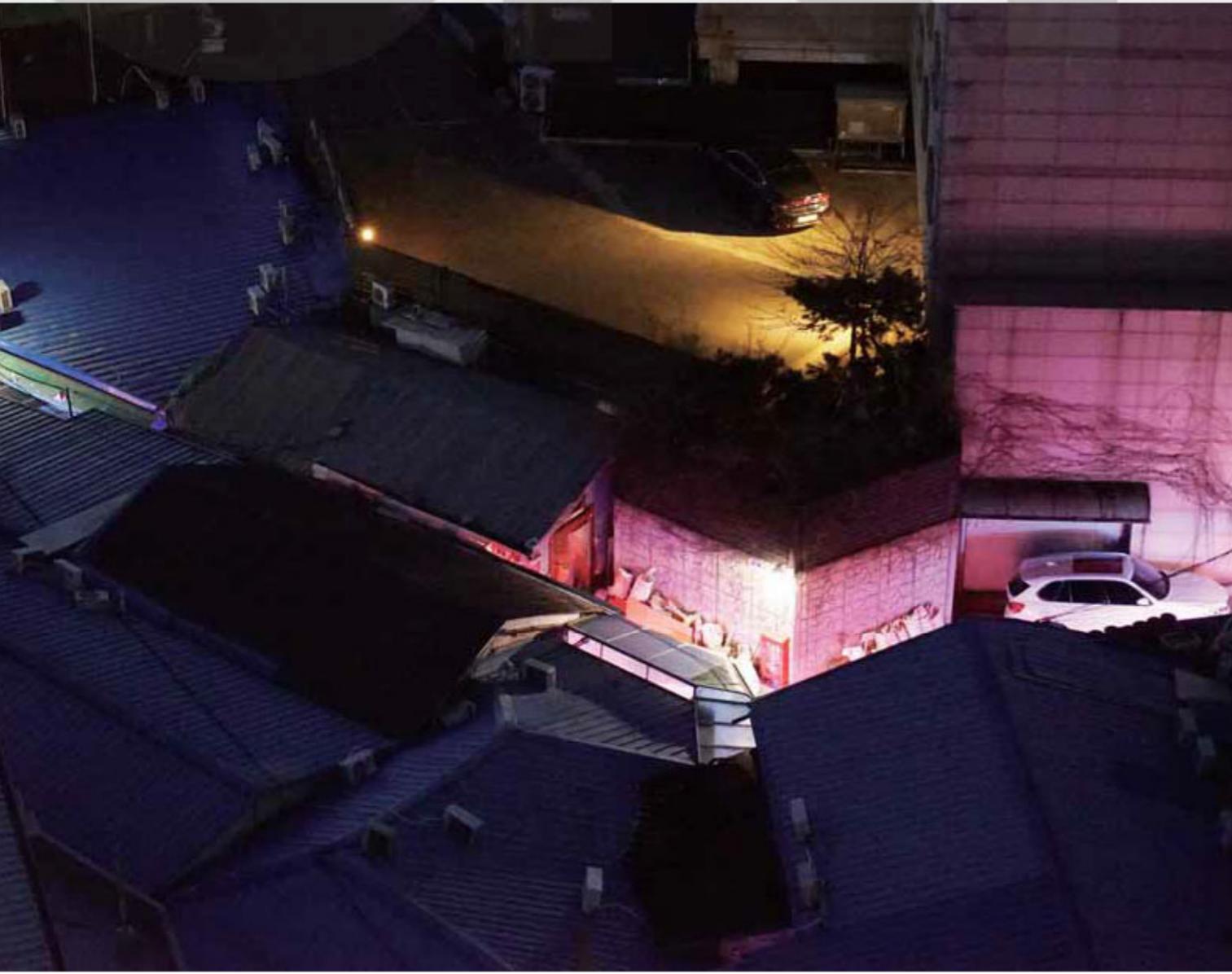
업주의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부분에는 옥탑방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층이며 옥탑방을 통해서 나오면 나머지 공간의 지붕의 상부를 테라스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역구센터

매산로1가 111-6번지 출입구 부분(김인수 촬영)





1967년 5월 31일에 건축되었음을 알리는 상방문



옥탑방(한동수 촬영)
옥탑방 뒤에 뒷대이 보일러실을 만들었다.

수원시정신건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안연구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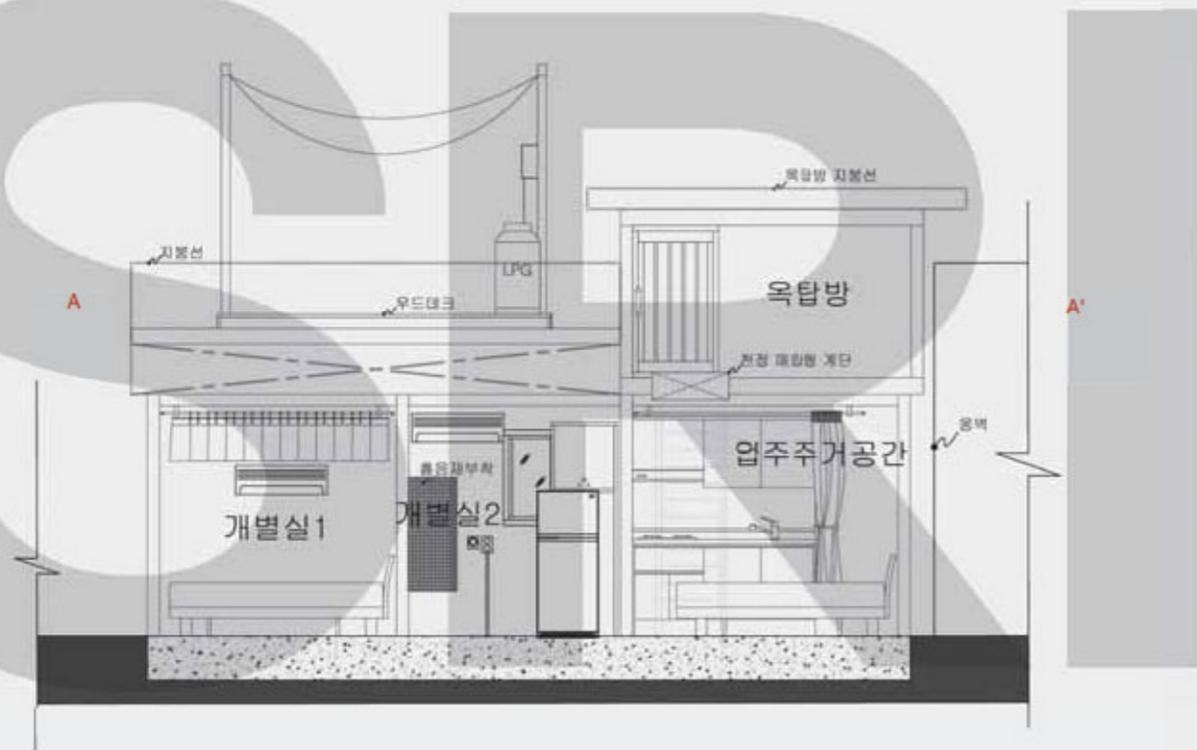


매산로1가 111-6번지 위치도
(김라니 작도)



주요 단면선(김라니 작도)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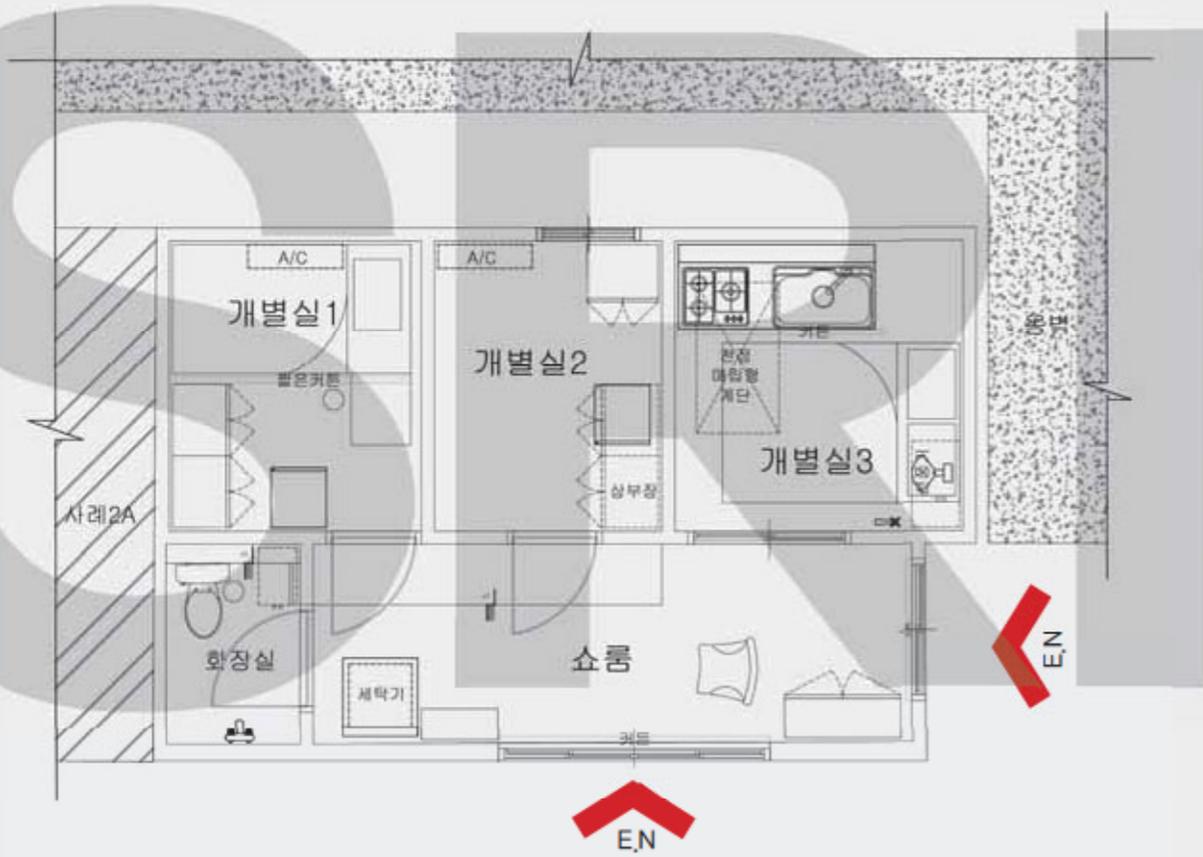


매산로1가 111-6번지 A-A' 단면도(김라니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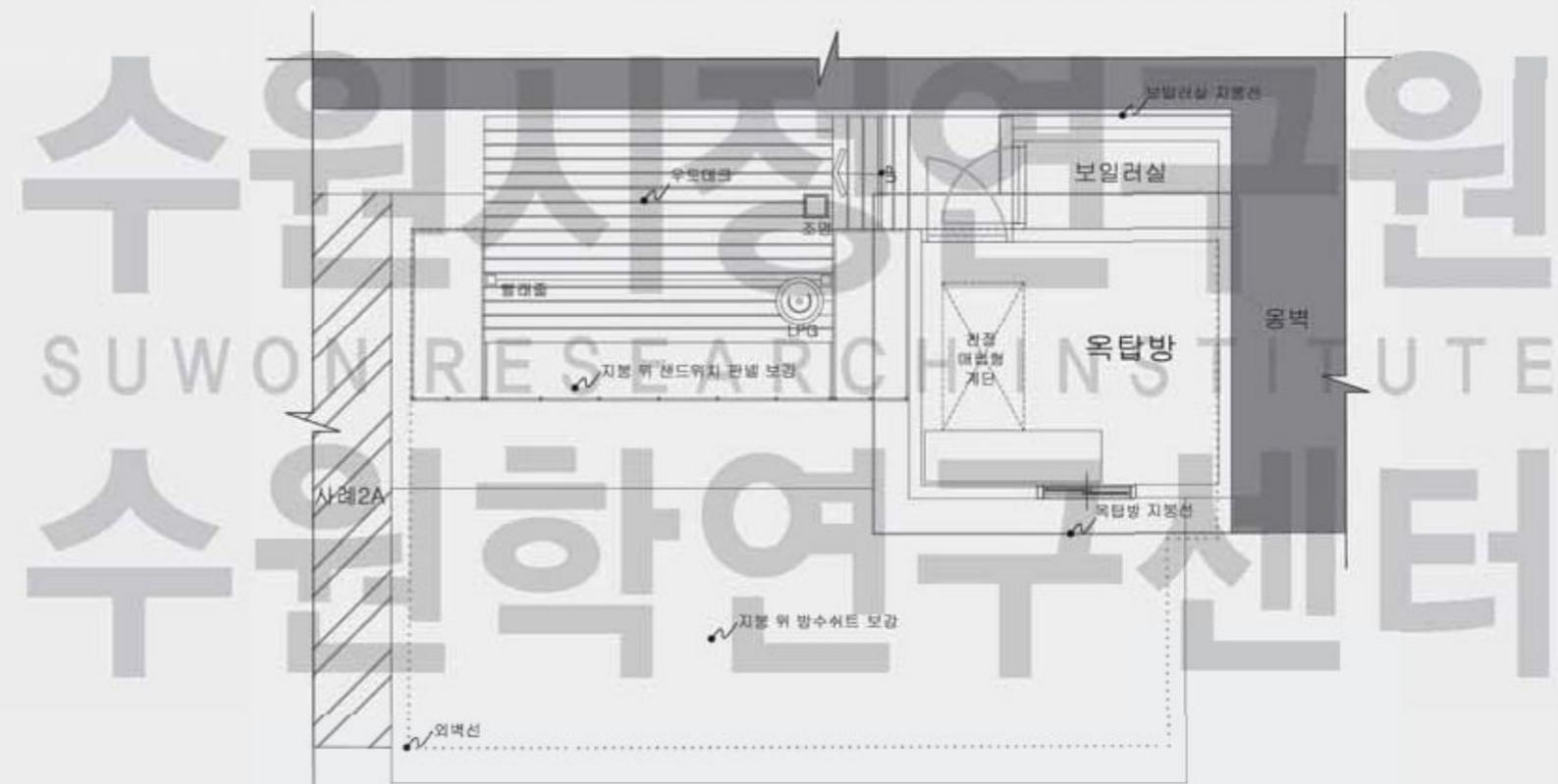


매산로1가 111-6번지 B-B' 단면도(김라니 작도)





1층 평면도(김라니 작도)



옥탑 및 지붕 평면도(김라니 작도)





매산로1가 111-6번지 건축물 전체 평면도(김라니 작도)

건축물 전체의 평면 형태는 가로 6.8m, 세로 4.1m 크기의 장방형으로 전면에는 쇼룸과 화장실 겸 샤워실을 배치하였고 후면에는 개별실 세 개를 두었다. 그리고 오른쪽 개별실의 상부에 옥탑방을 뚫으므로 모두 4개의 개별실이 있으나 오른쪽 개별실 3은 성매매와 취사 생활을 겸하는 공간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별실 3에는 옥탑방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실 공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천장에 가변형의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취사를 위한 싱크대 시설이 침대와 함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시설을 가리기 위한 커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개별실의 크기는 작은 것이 가로 1.9m, 세로 2.4m이고 큰 것이 가로 2.4m, 세로 2.43m 정도로서 대략 1.5坪에서 1.7坪 사이에 불과한 아주 협소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곳

역시 화장실 겸 샤워실은 1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비해 위생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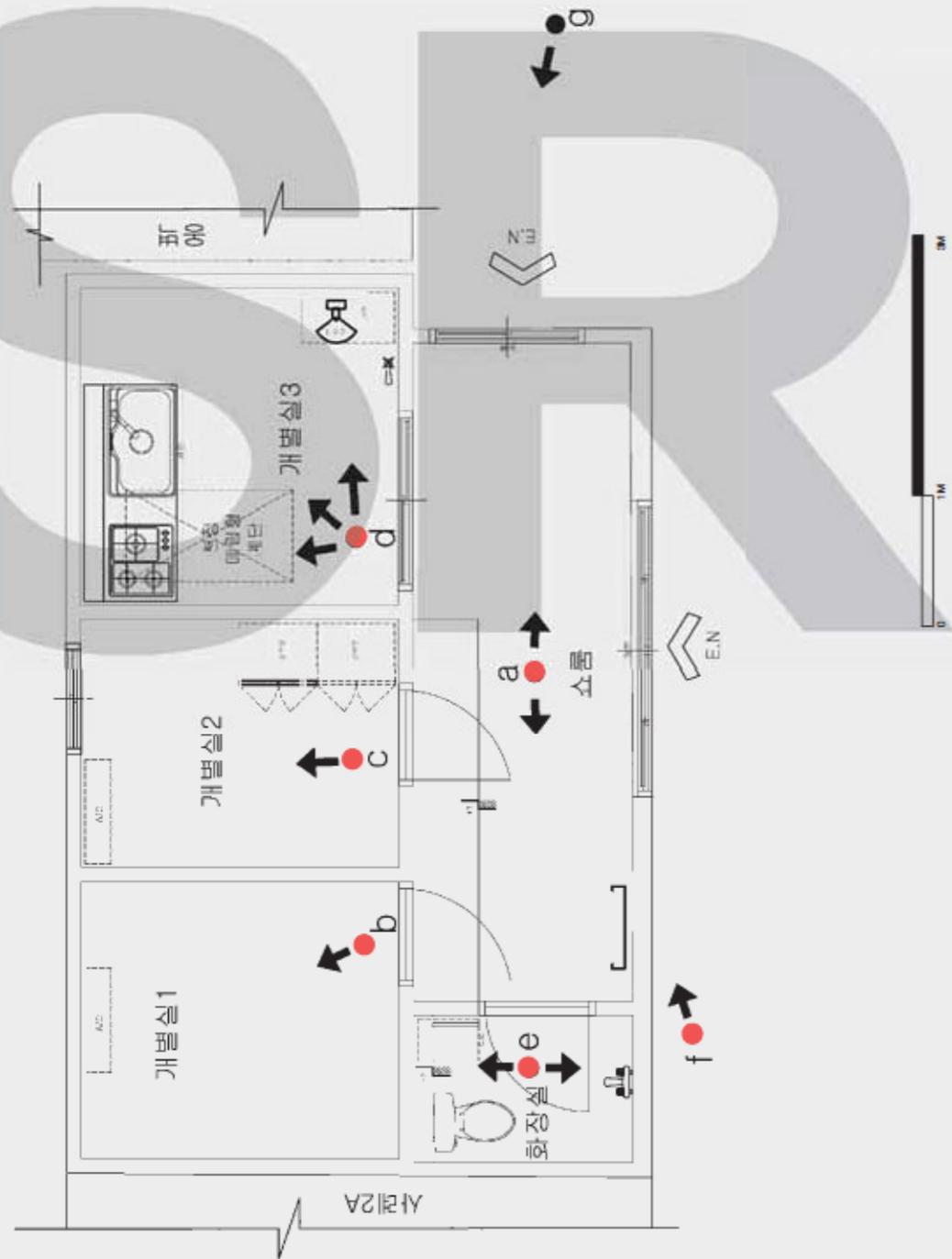
개별실 3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낮은 층고의 옥탑방이 나오고 그 뒤에는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이 업주의 주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옥탑방의 문을 열고 나오면 개별실 1과 개별실 2의 지붕인데 목재로 마감했고 평지붕으로 처리하여 옥상을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시에는 이곳에 개집과 빨랫줄이 설치되어 있었다.

개별실의 내부에는 침대와 옷장, 냉장고까지 갖추고 있으며 독특한 시설로는 개별실 2의 벽면에 방음을 위해 흡음재로 벽재를 마감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샌드위치 패널이 가지고 있는 차음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에 있는 개별실보다 실내공간에 배치한 가구의 점유 비율이 높아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욱 협소하게 느껴진다.

쇼룸의 왼쪽 구석에 설치된 화장실은 문 앞에 세탁기가 있고 옷걸이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샤워는 물론 세탁실의 기능을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길모퉁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쇼룸의 출입구를 2곳에 설치한 점도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처럼 무허가 건축물로서 제약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의 조작 수법이 뛰어나다.



개별실 3의 천경(한동수 촬영)



매산로1가 111-6번지 옥탑층 위치 안내도(김라니 작도)

수원
SUWON R
수원



개별실 3(d)



개별실 1(b)

개별실 2(c)



샤워(a)

샤워와 개별실(한동수 촬영)



화장실(e)



화장실(e)



화장실(e)



외관(f-g)



외관(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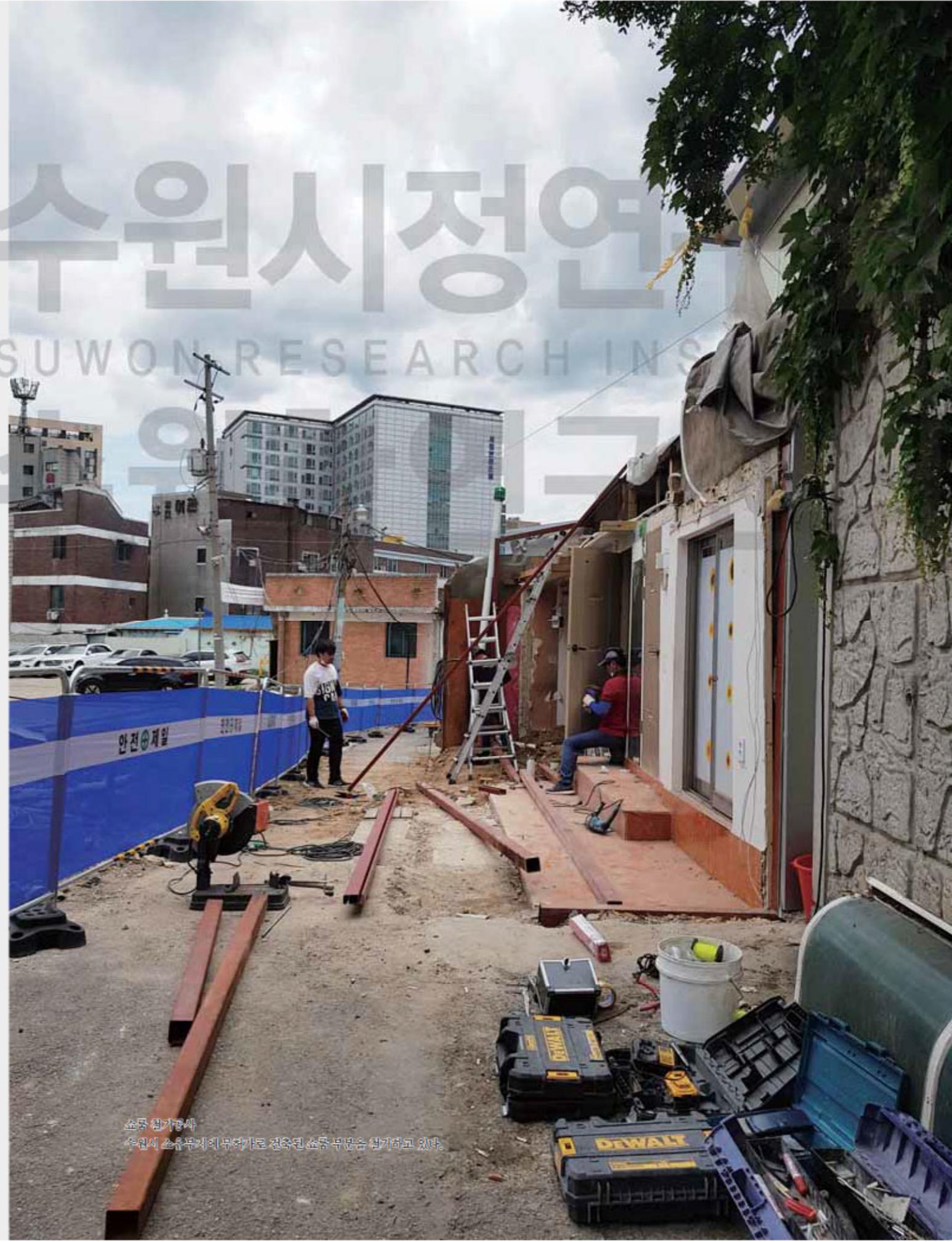


외관(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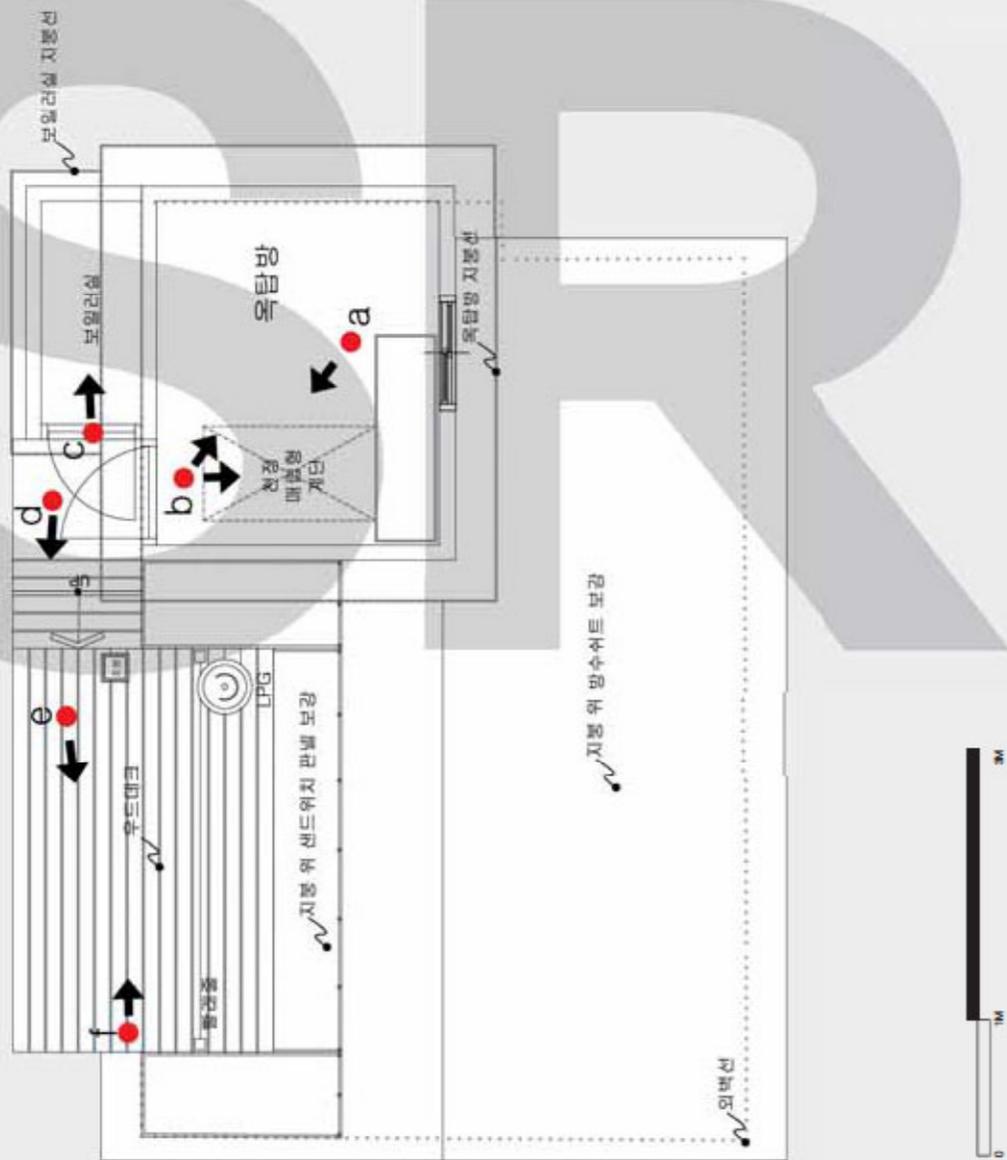
화장실과 외관
(한동수 촬영)

수원시정연

SUWON RESEARCH INS



소공 설계공사
수원시 소유부지에 무허가로 건축된 소공 부분을 설계하고 있다.



매산로1가 111-6번지 욕담방 위치 안내도(김라니 작도)



욕담방(a)



욕담방(b)



욕담방(b 아래)



보일러실(c)



테라스 계단(d)



테라스(e)



욕담방과 보일러실 외관(f)

욕담방과 테라스 (한동수 촬영)

건축물의 공간 구성
매산로1가 111-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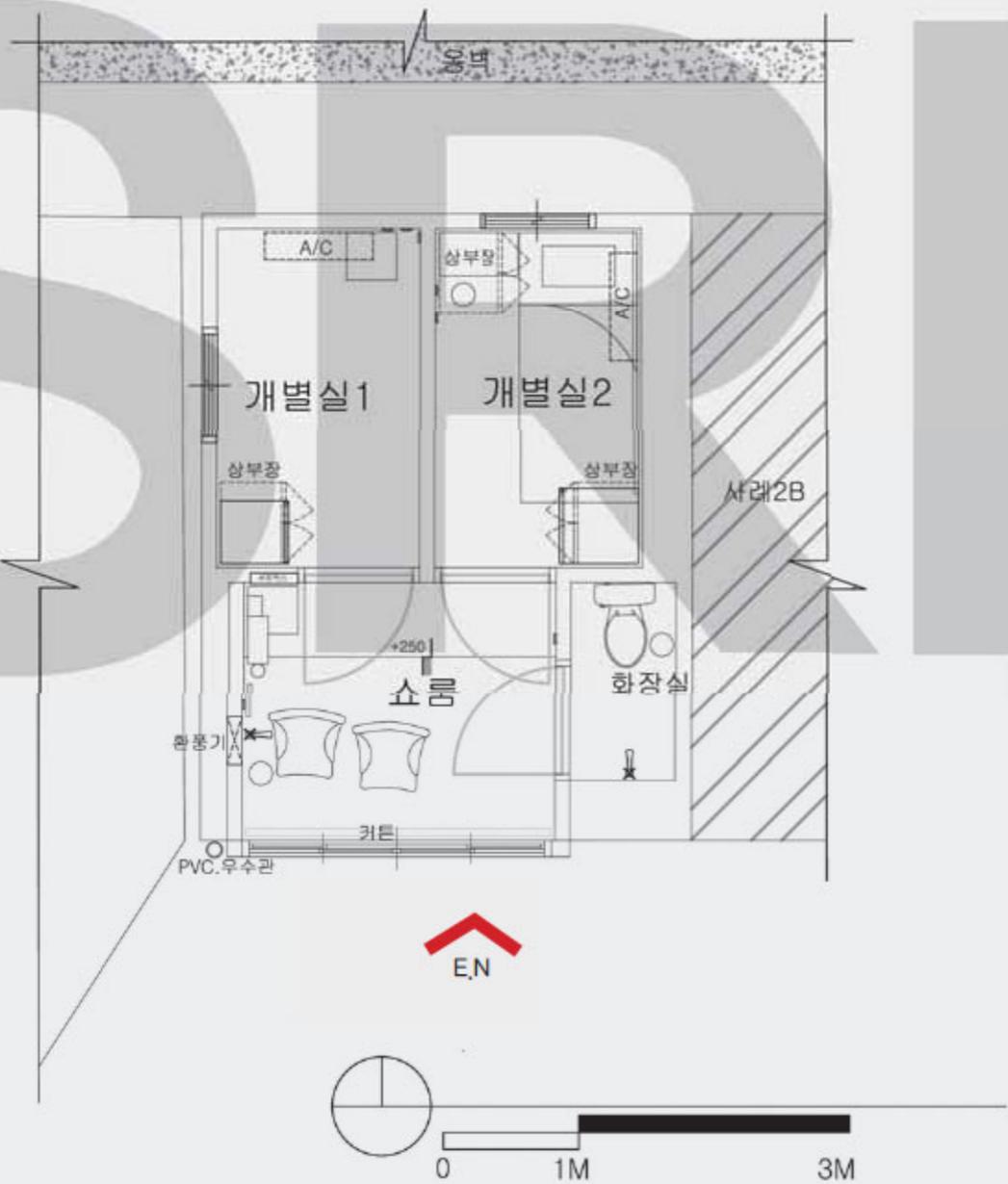


매산로 1가 111-7번지 위치(김라니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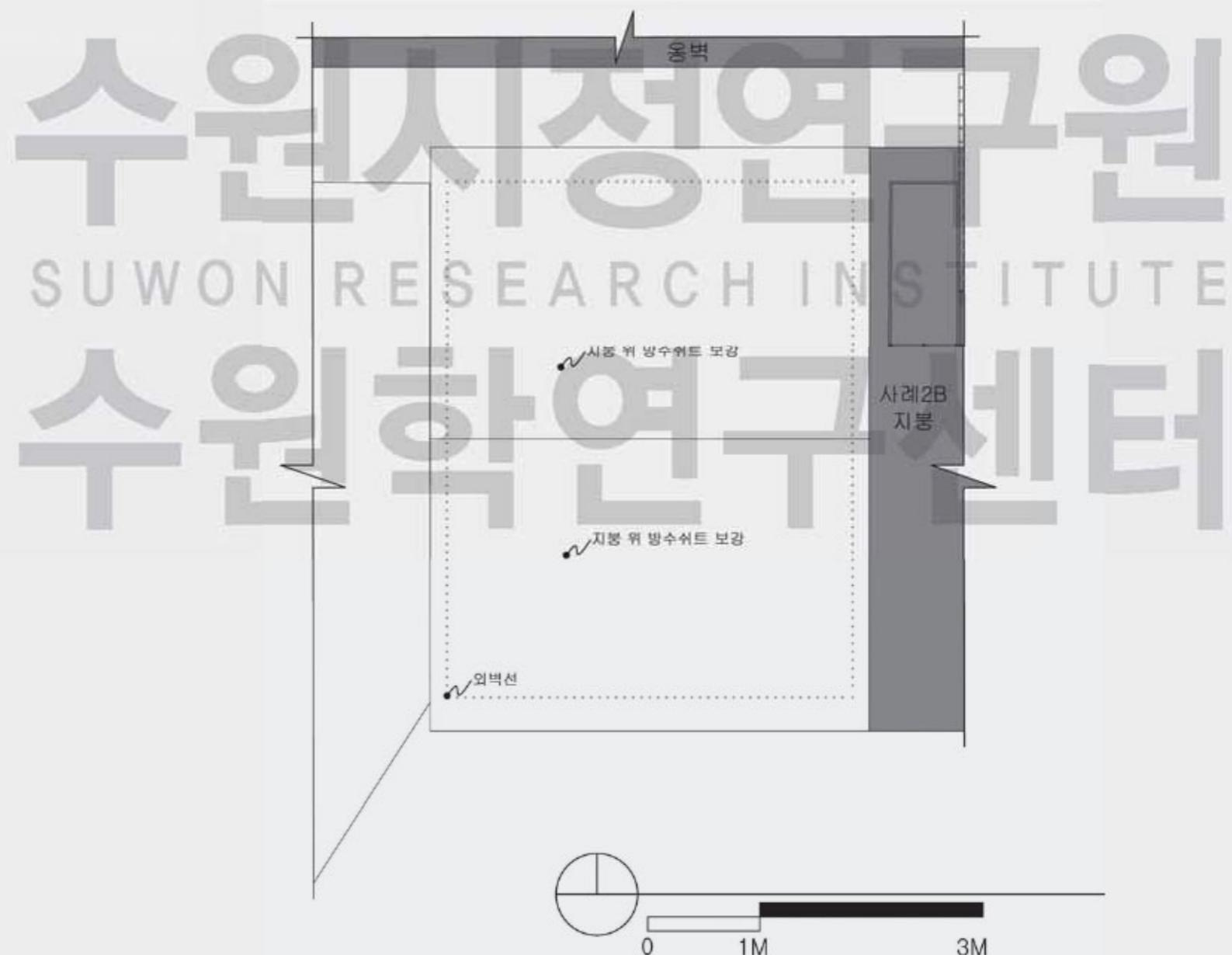
이 건축물은 매산로1가 111-6번지 건축물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한쪽 벽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인다. 이 역시 건축물 대장에는 무허가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 옆 건축물과 달리 시멘트벽돌의 조적식 구조로 보아서 아마도 앞서 언급한 매산로1가 111-6번지 건축물보다는 시기가 앞설 것으로 여겨진다.

건축물 전체의 평면은 가로 2.51m, 세로 4.42m 크기의 장방형으로 2개의 개별실과 화장실 1개, 소림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사 대상 건축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다. 개별실의 크기는 모두 가로 1.5m, 세로 2.62m로 1.2평에 불과한데, 이 역시 조사된 건축물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의 개별실이다. 내부에는 침대와 서랍장, 옷장, 선풍기, 에어컨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개별실 1의 벽지 위에는 커다란 해바라기 장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소림의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은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어 샤워나 세탁은 불가능하다. 원래 작은 공간을 쪼개어 여러 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림과 개별실 사이에는 원충공간이 전혀 없고 개별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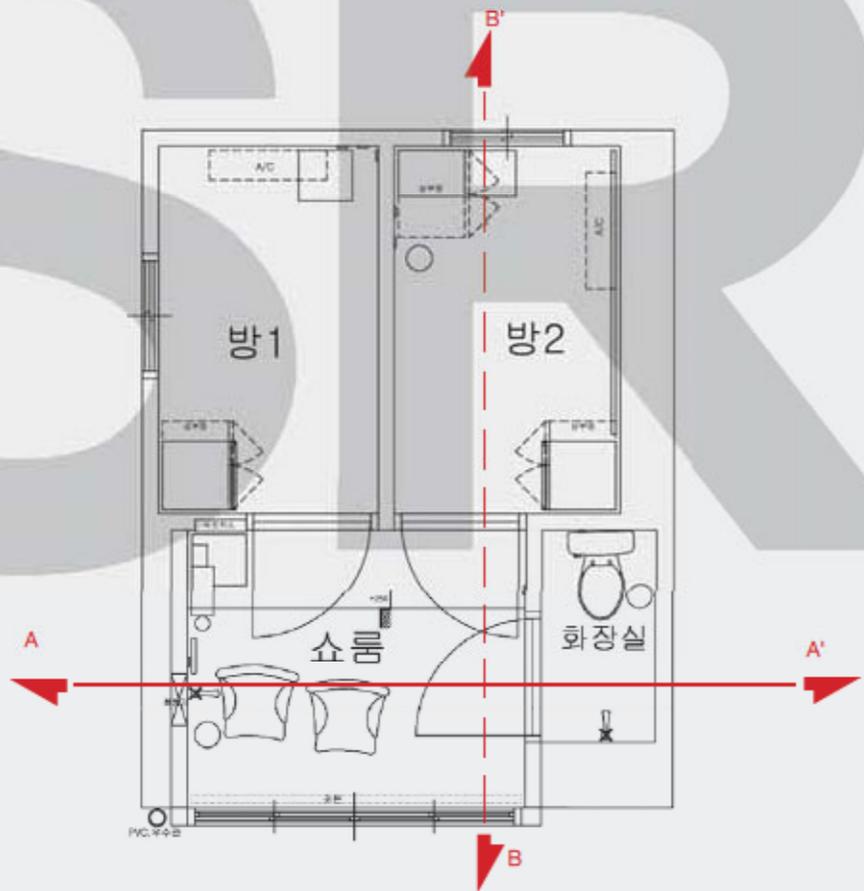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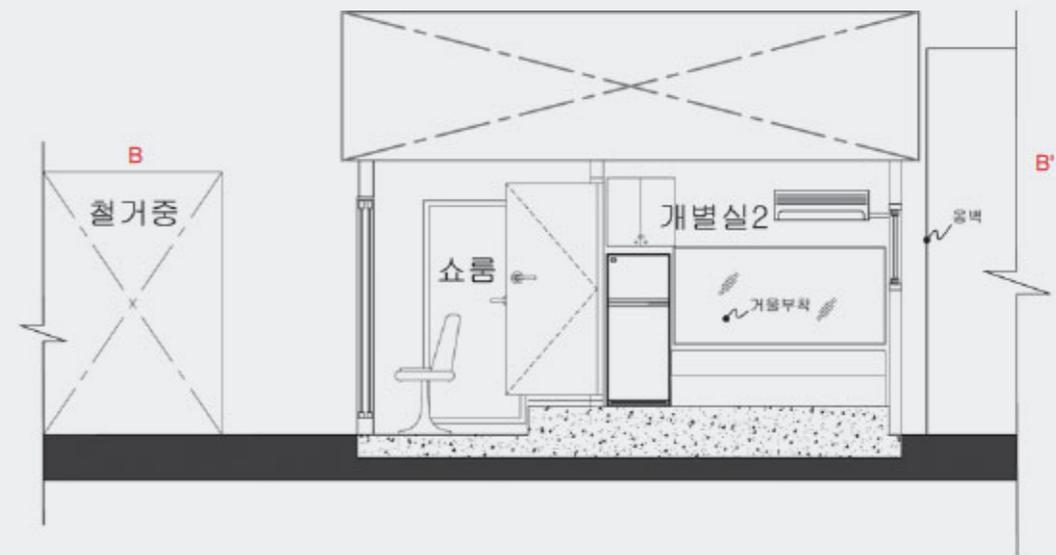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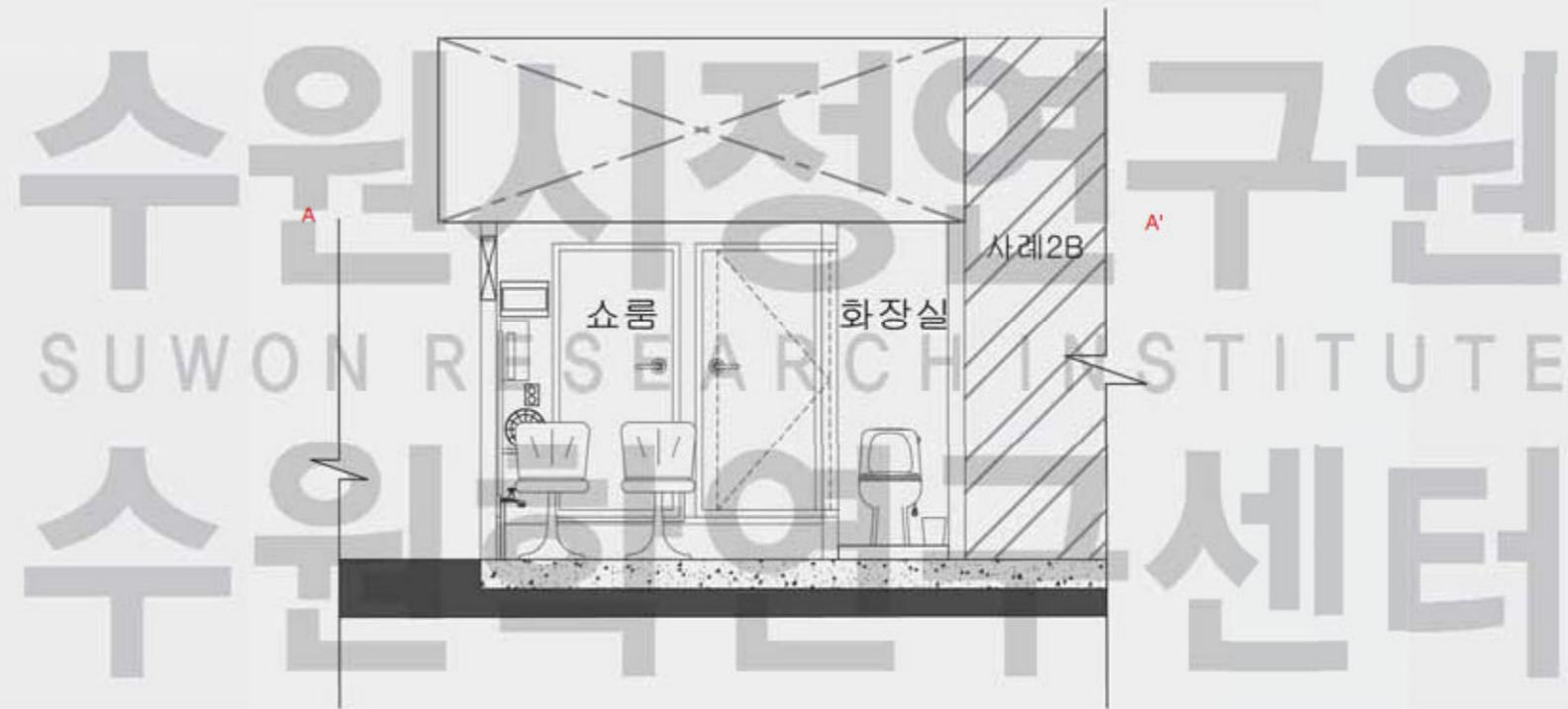
매산로1가 111-7번지 1층 평면도(김라니 작도)



매산로1가 111-7번지 지붕 평면도(김라니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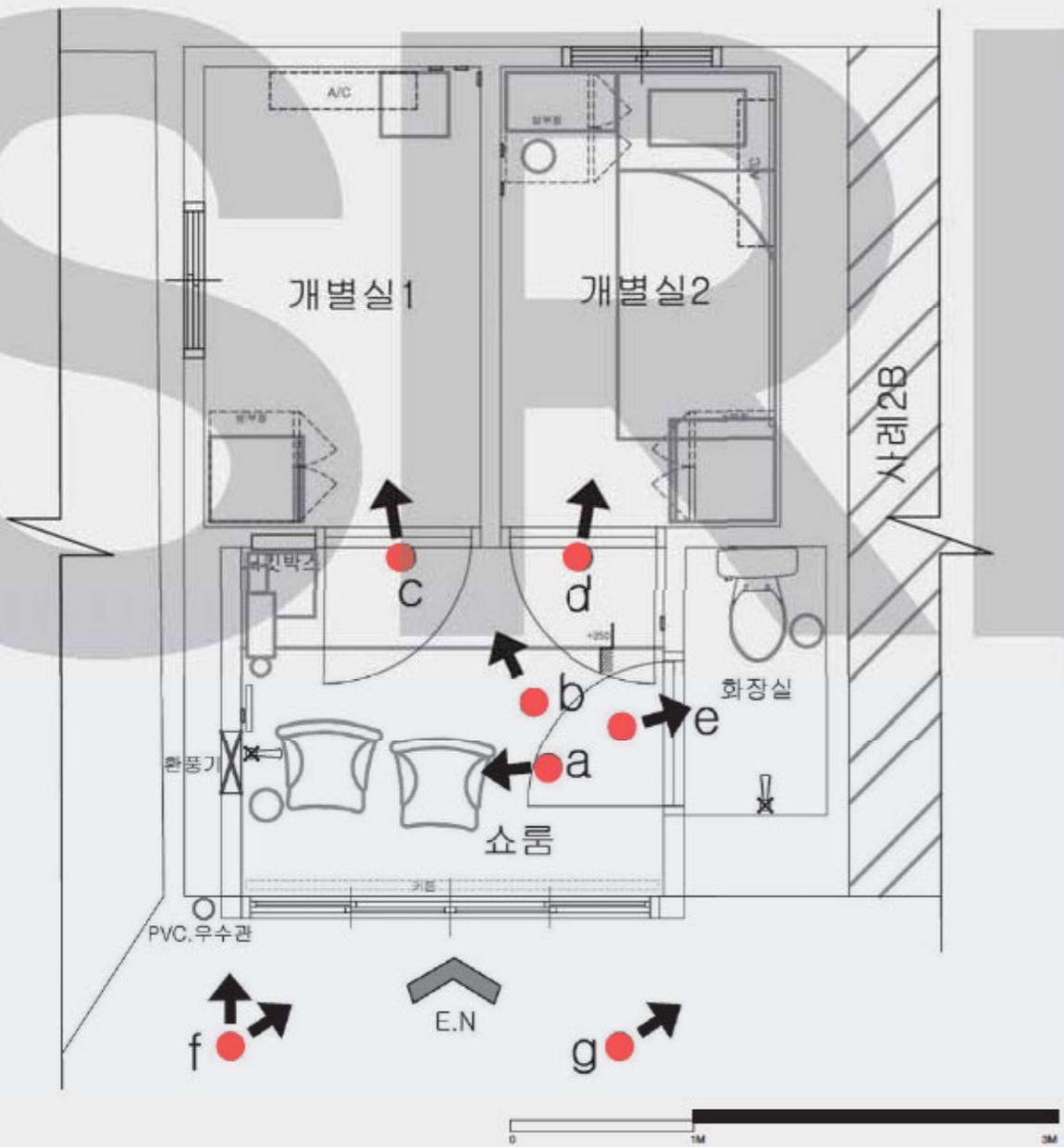


매산로1가 111-7번지 단면 안내도(김라니 작도)



매산로1가 111-7번지 단면도(김라니 작도)





매산로1가 111-7번지 평면 위치 안내도(김라니 작도)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개별실 1(c)



개별실 2(d)



샤워(a)



샤워(b)

개별실과 샤워
(한동수 촬영)



화장실(e)



쇼룸(라)



외관(거)



외관(강)

화장실과 외관
(한동수 촬영)

매산로1가 114-18번지
건축물의 공간 구성

덕영대로895번길(뒷장)의 중간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마당 한가운데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목조 구조의 건축물로 1962년에 지어졌다.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시 무분별한 증축에 따라 거대한 건축군으로 변모하였으며 내부는 크고 작은 방으로 서로 연결된다. 지붕 재료는 슬레이트와 샌드위치 패널, 도금 철판 패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인접한 매산로1가 114-15번지 마도여인숙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 건축물의 무질서한 증개축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된다.

이러한 무질서는 건축물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영역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단지 성매매라고 하는 목표만을 위해 기능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간이 맞물려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공용 공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숨이 막힐 지경의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조금이라도 빈곳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비집고 들어오는 온갖 것들이 게딱지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다. 벽면은 물론 지붕 위, 아래 기둥에까지 알기설기 꼬여 있는 전선줄, 지붕 위의 겨우 자신의 무게만을 지탱하고 있는 에어컨 박스 등이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서 숨통을 열어 주고 외부의 공기와 소통이 되는 곳은 오래된 나무가 남겨져 있는

마당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잘라내지 않은 나무 덕분에 건축물 전체의 공간에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건축물의 앞쪽은 덕영대로895번길(뒷장)에 면하고 있고 뒤편은 대한통운 주차장과 맞닿아 있으며 이곳으로 통하는 협문이 하나 있다. 덕영대로895번길 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구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일부 공간에서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고 업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제한적



매산로1가 114-18번지 위치(김라니 작도)

수원시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문화연구원



매산로1가 114-18번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낮 풍경(김인수 촬영)



매산로1가 114-18번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밤 풍경(김인수 촬영)



소방도로 개설 전 덕영대로895번길
(빛장) 풍경(김인수 촬영)

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안쪽 동남쪽 모서리 공간에 위치한 보일러실과 창고는 내부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료를 남기지 못하였다.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실이 많고 복잡하여 조사에 참여한 전원이 2인 1조의 3개 팀

으로 나뉘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개별 공간을 조사한 결과, 처음에는 한두 동의 건축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삼아 단독주택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해 줄 수 부분은 개별실 4, 5, 6, 7과 창고 5에 해당하는 ㄱ자 형태의 공간으로 별체가 더 있었다면 안체에 해당한다. 길가 쪽에는 영업을 위한 두 개의 출입구 외에도 왼쪽 상단 지점에 철문이 하나 있는데 이곳도 단독주택이었을 당시 대문의 원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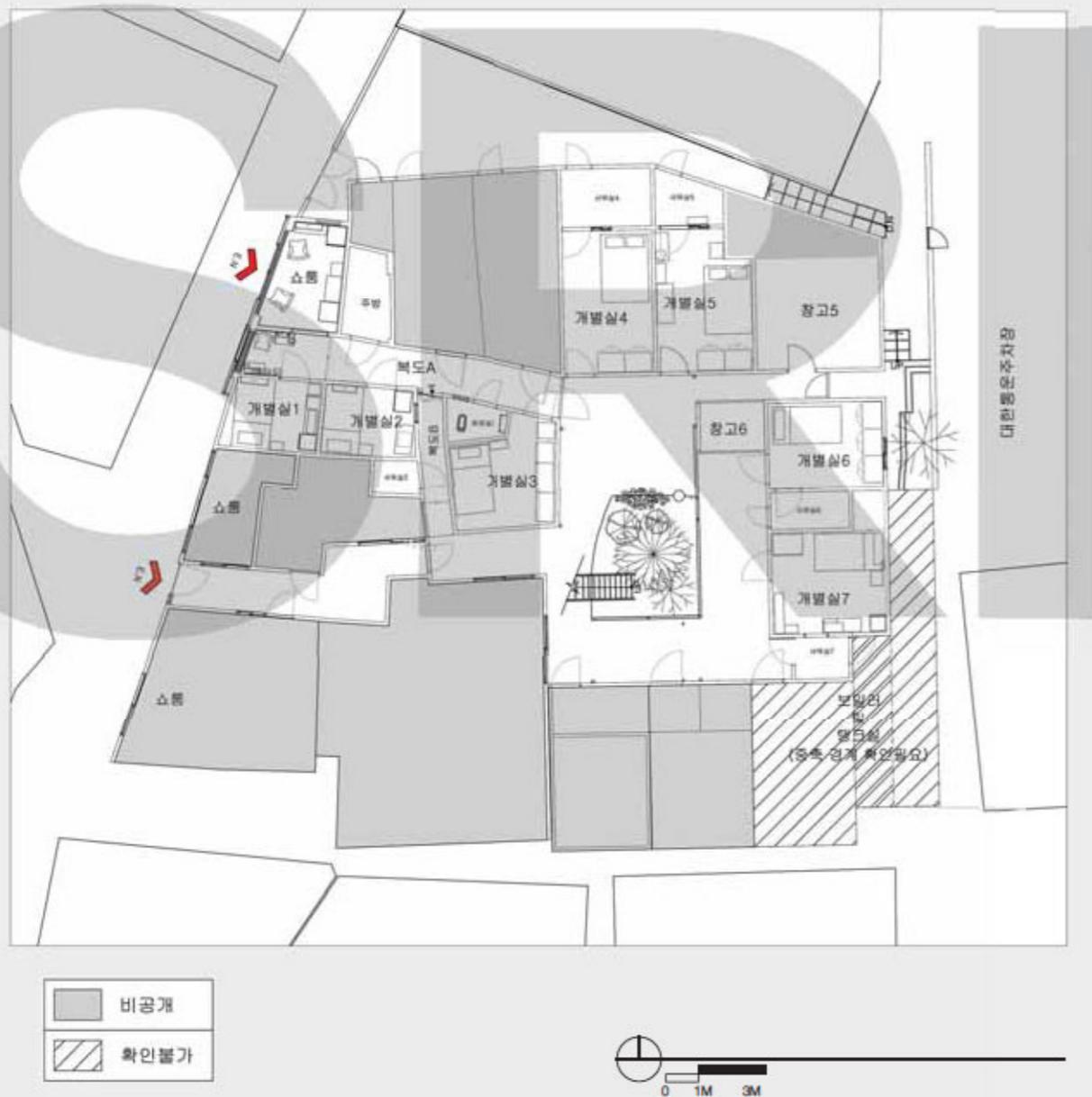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불법 증개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를 알



매산로1가 114-18번지 출입구와 철문(김인수 촬영)



촬영을 금지하는 경고문(이용창 촬영)



매산로1가 114-18번지 1층 평면 배치도(김라니 작도)

수원사

SUWON RES

수원학

매산로1가 114-18번지 마당
(김인수 촬영)



수 있다. 다만 오래된 나무를 중심으로 그 외곽에 철제 틀을 짜서 파골리를 만들고 화단을 조성한 마당 주변의 통로는 매산로1가 111-21번지 건축물처럼 천장을 막아 눈비를 맞지 않도록 하였지만 마당을 향해 벽체가 없어 그나마 음산한 분위기가 덜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평안한 공간이 되었다. 또한 나무 옆에는 필요한 작업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살피고 천정의 누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전체 평면은 요철이 심한 부정형이지만 개략적인 폭과 너비를 살펴보면 폭이 19.63m 정도이고 너비가 24.68m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이다. 동남쪽 모서리 부분(빗금 친 영역)은 보일러 및 탱크실로 되어 있는데 증축 경계가 모호하고 넓은 공간임에도 조사가 불가능하여 원래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가로에 면한 부분에는 소룸이 3개 있고 2개는 영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가 불가능했지만 1개는 실측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가로 변의 전체적인 입면은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유리문의 소룸과 청록색 칠을 한 시멘트 벽면 그리고 출입문 등 매우 단조롭다.

조사된 공간은 개별실이 모두 7개이고, 창고가 2개, 소룸이 1개소이다. 개별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2.1m, 2.3m 정도이고 큰 것은 2.85m, 4.25m 정도로 대략 1.5평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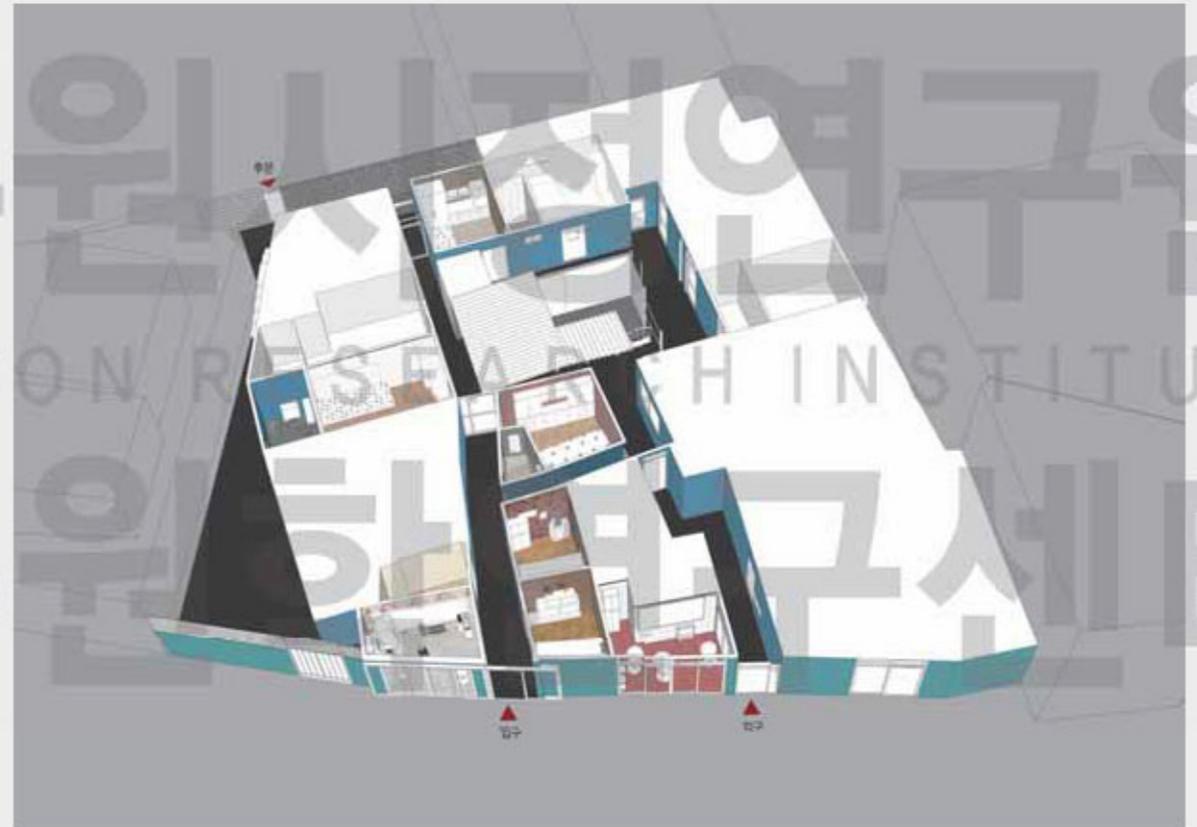
Key plan

매산로1가 114-18번지 가로변 입면 방향(김라니, 정원석 작도)

3.7평에 이른다. 이러한 공간의 크기는 앞서 언급한 다른 건축물의 개별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성매매 공간은 최소 1.5평에서 최대 3.5평 이내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곳의 개별실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대부분 독립된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실 실내공간의 구조와 가구 배치는 앞서 언급한 매산로1가 111-6번지, 매산로1가 111-21번지와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공통적으로 침대와 옷장, 서랍장, 거울,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신발장과 시계 등이 갖추어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종사자의 취향에 따라 벽면에 해바라기나 올빼미를 그린 그림이 붙어 있고 글씨 등이 적혀 있기도 하다.

수원
SUWON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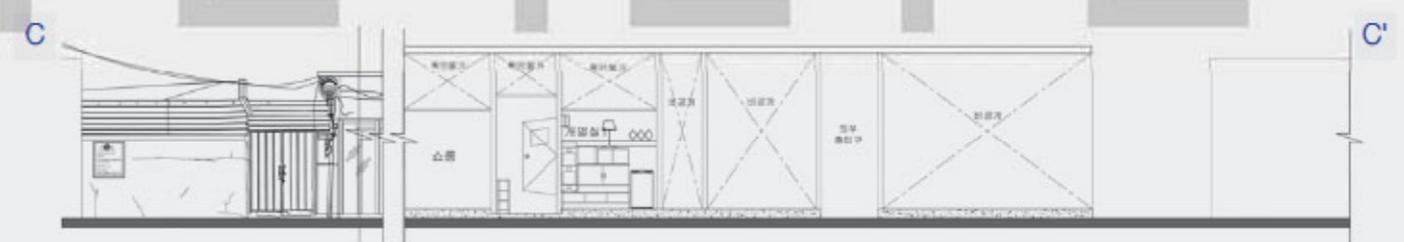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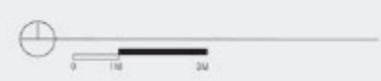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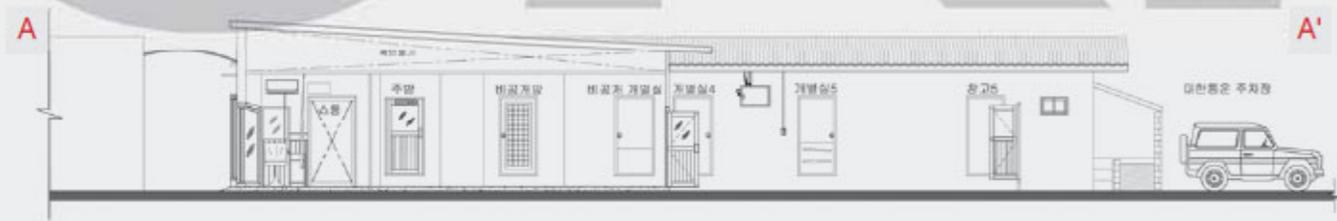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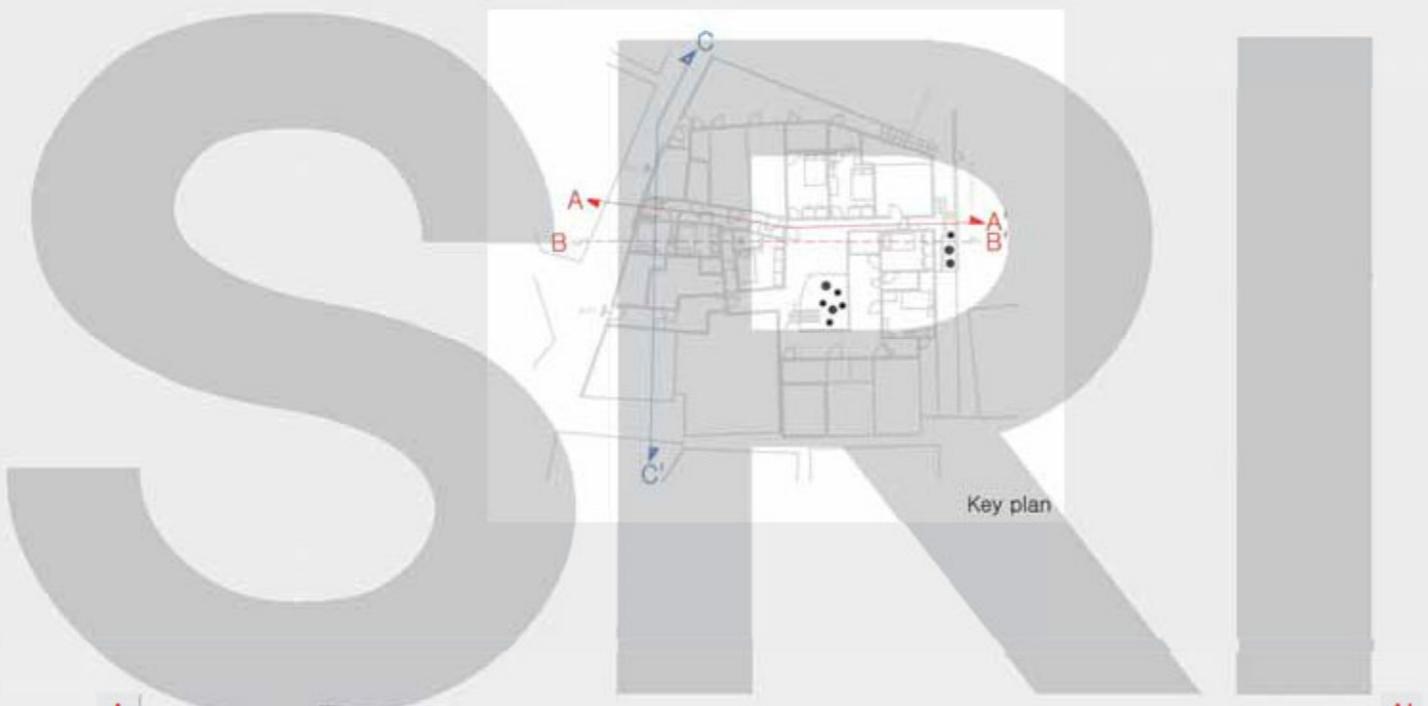


매산로1가 114-18번지 조사한 공간 부분의 투시도(김라니, 정원석 작도)



매산로1가 114-18번지 건축물의 가로변 입면(정원석 편집 및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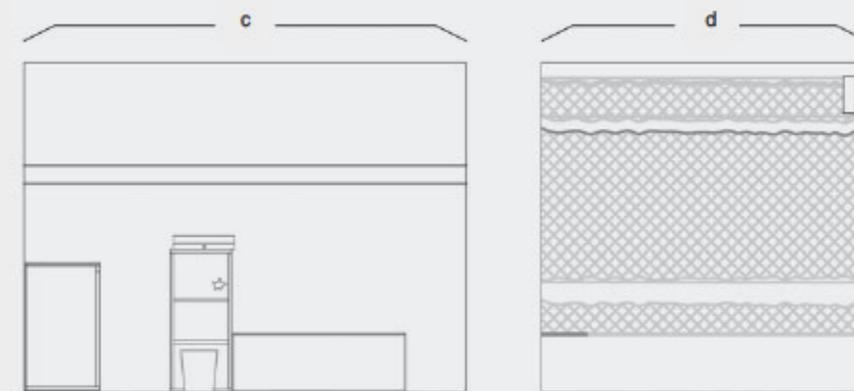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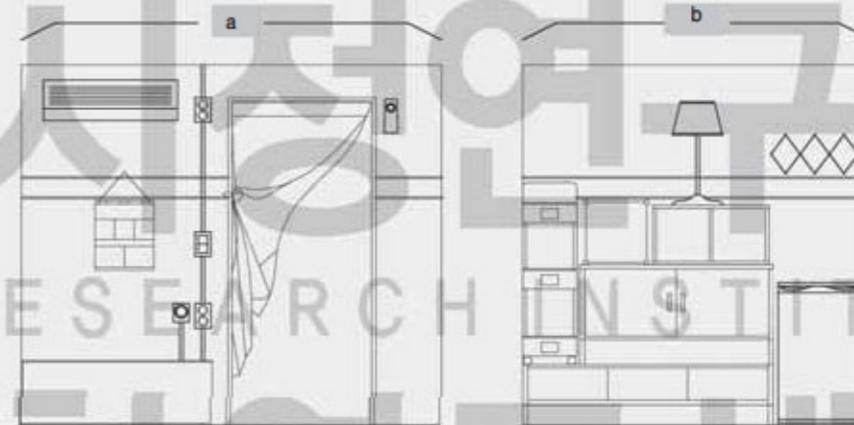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개별실 1 위치와 구조(김라니 작도)



개별실 1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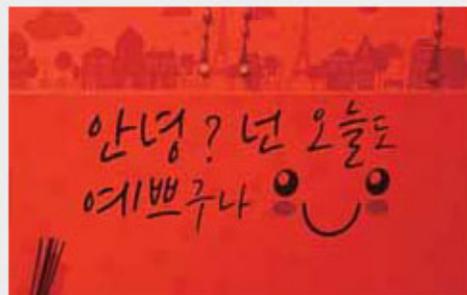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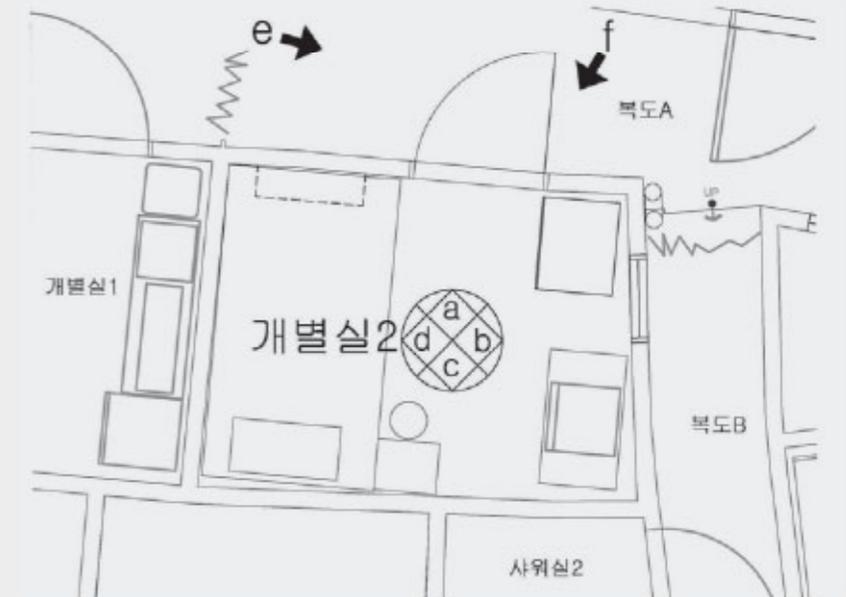
d



개별실 1의 가구 배치(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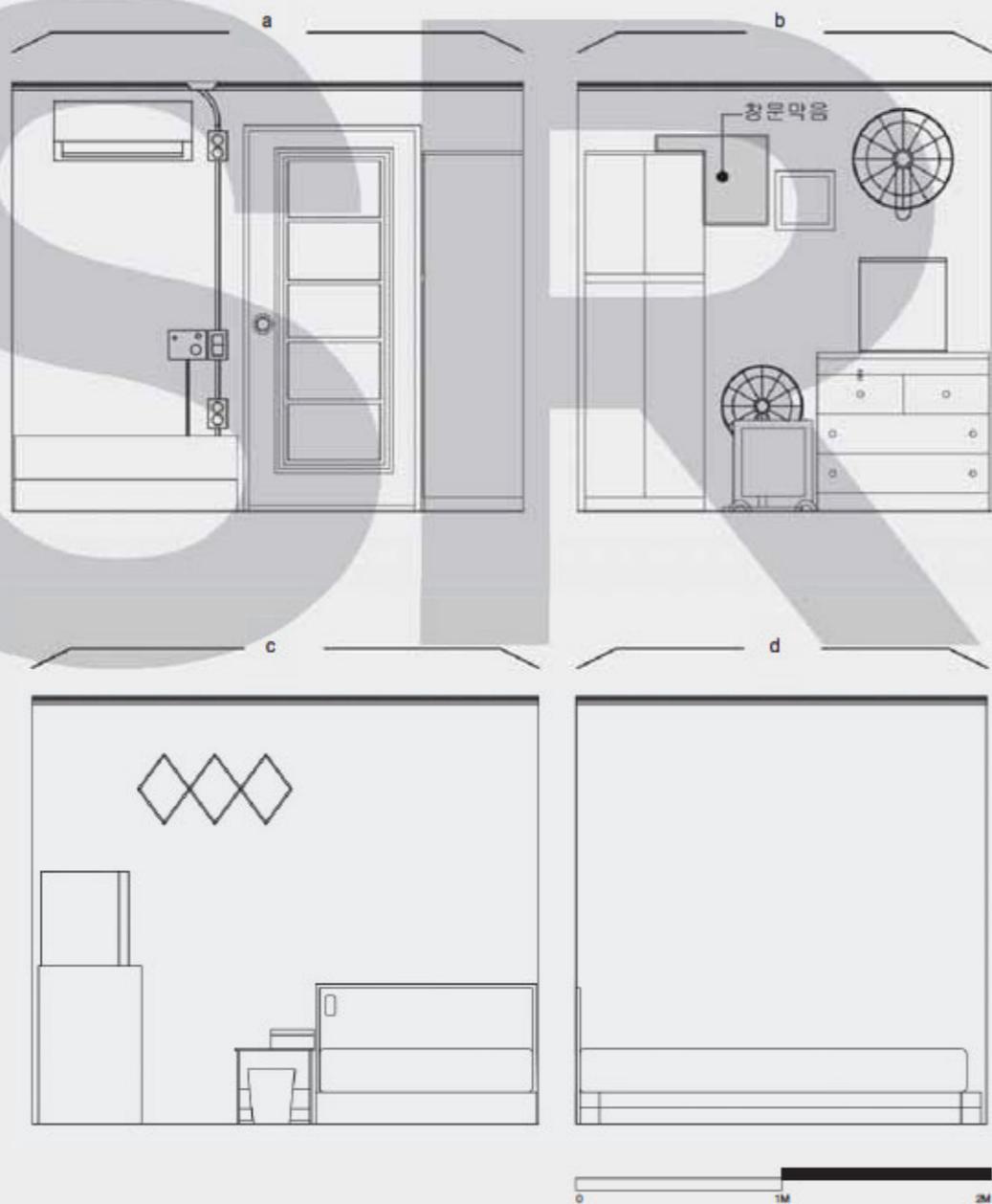


Key plan



개별실 2 위치와 구조(김라니 작도)





개별실 2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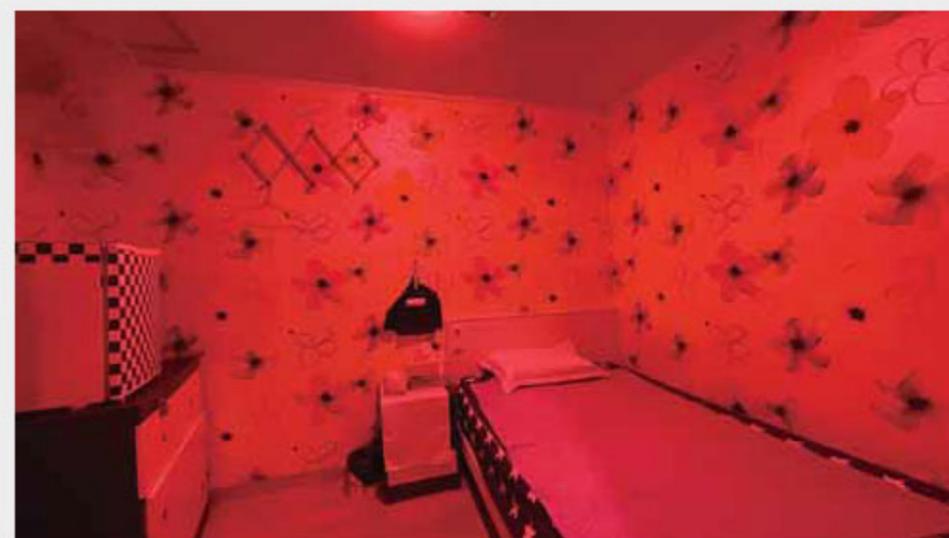
문 앞-복도A(e)



개별실 2 문 앞(f)



개별실 2(b)



개별실 2(c-d)

복도 및 개별실 2의 가구 배치(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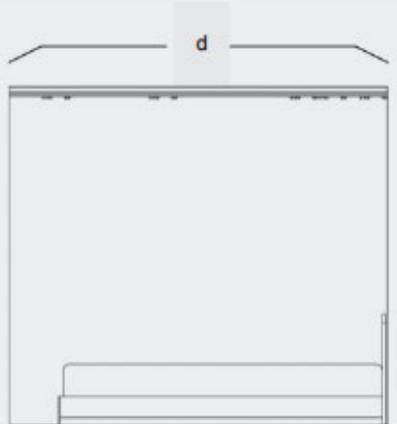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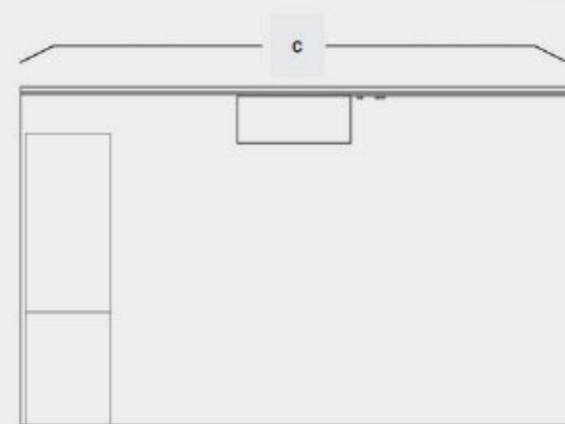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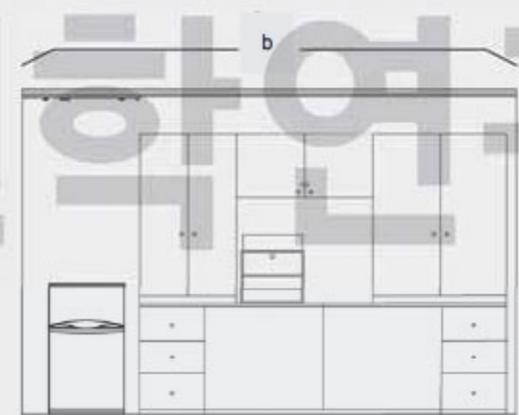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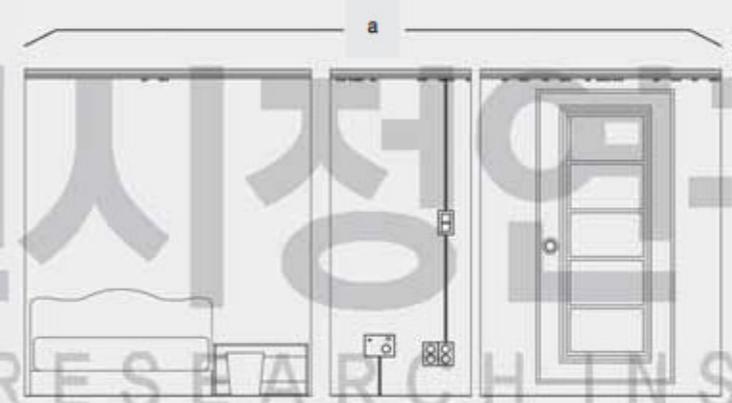


개별실 3의 위치와 구조(김라니 작도)

수원시정역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연구센터



개별실 3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



개별실 3(a)



개별실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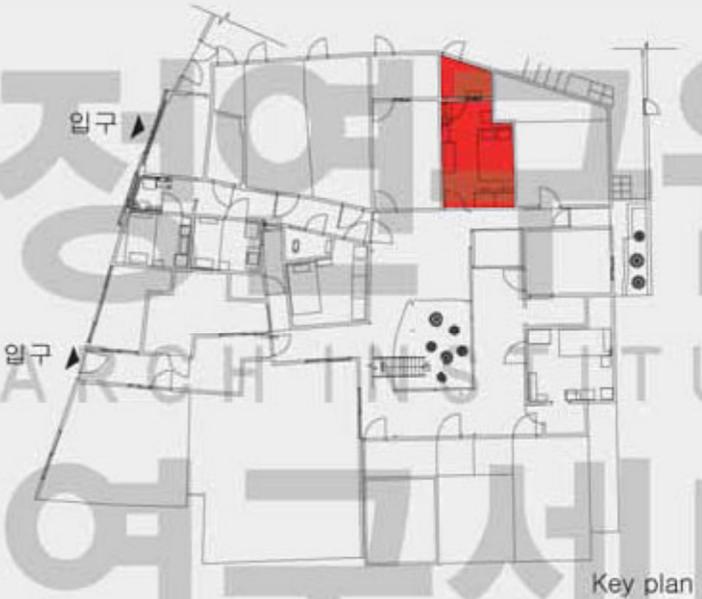
개별실 3(c-d)

개별실 3의 가구 배치
(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수원시정예마을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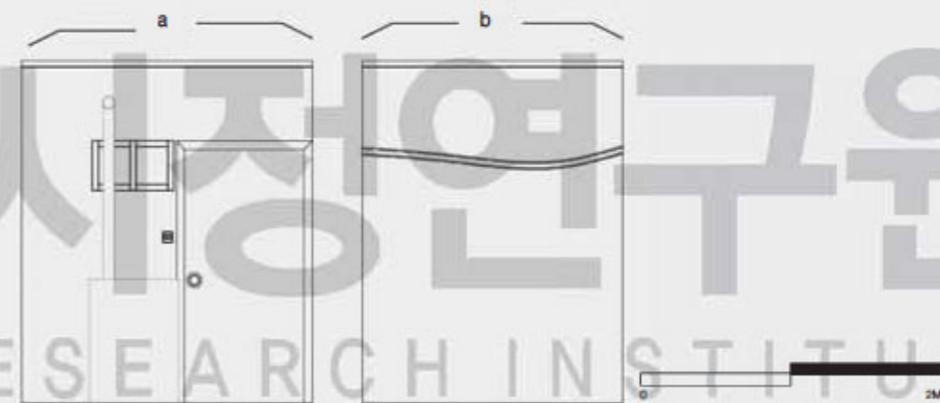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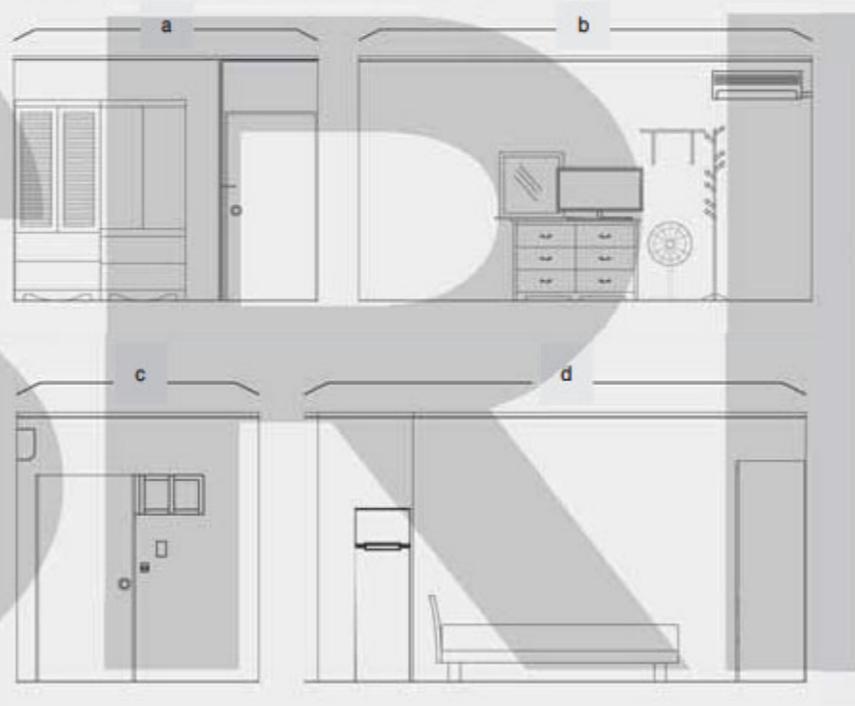
수원학연구센터



Key plan



개별실 5와 샤워실 5의 위치와 구조
(김라니 각도)



샤워실 5(a)



샤워실 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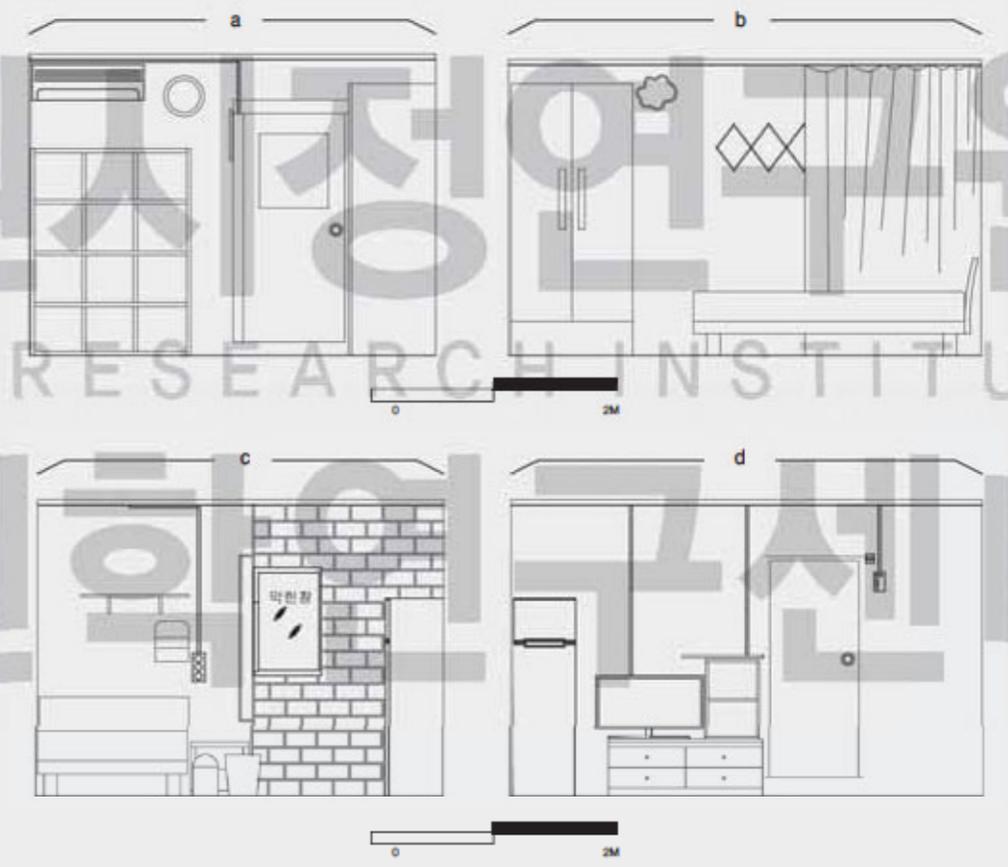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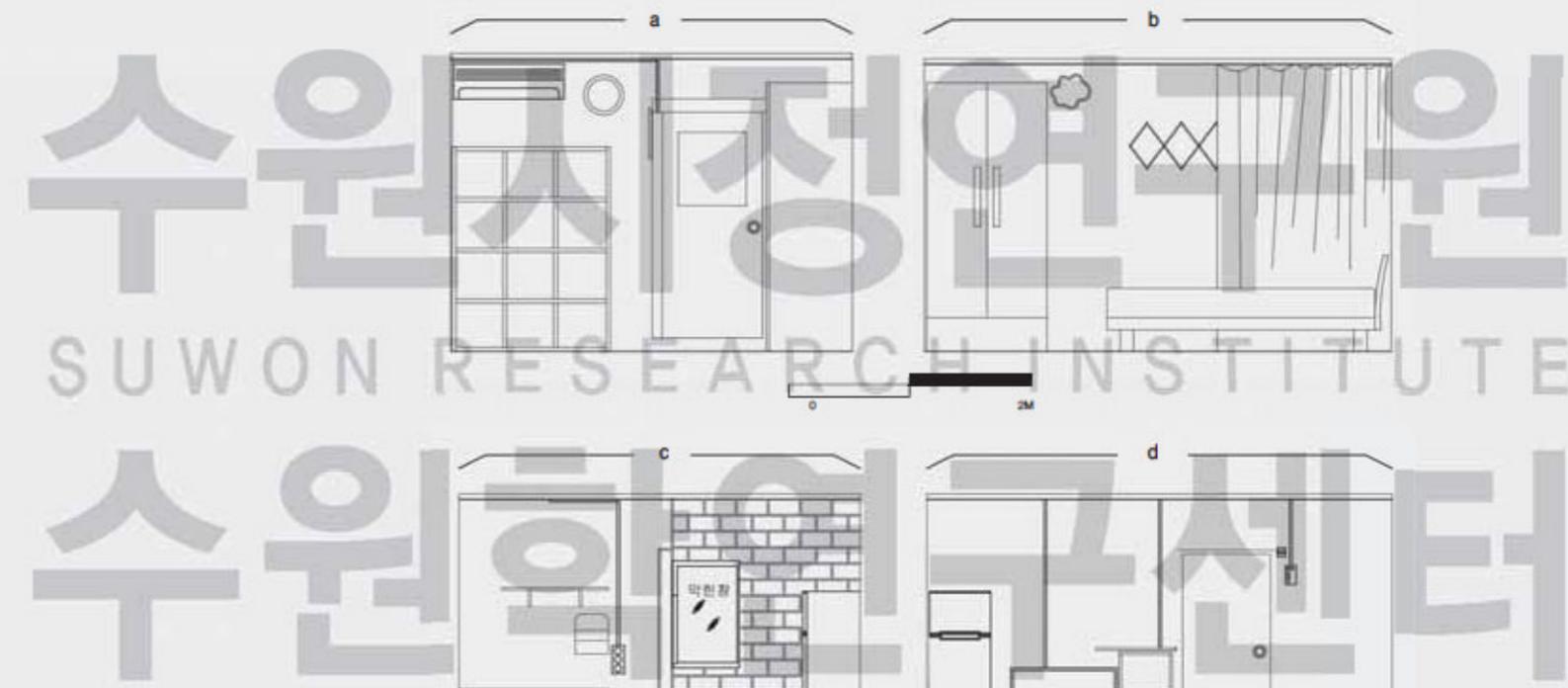
샤워실 5의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와 배치(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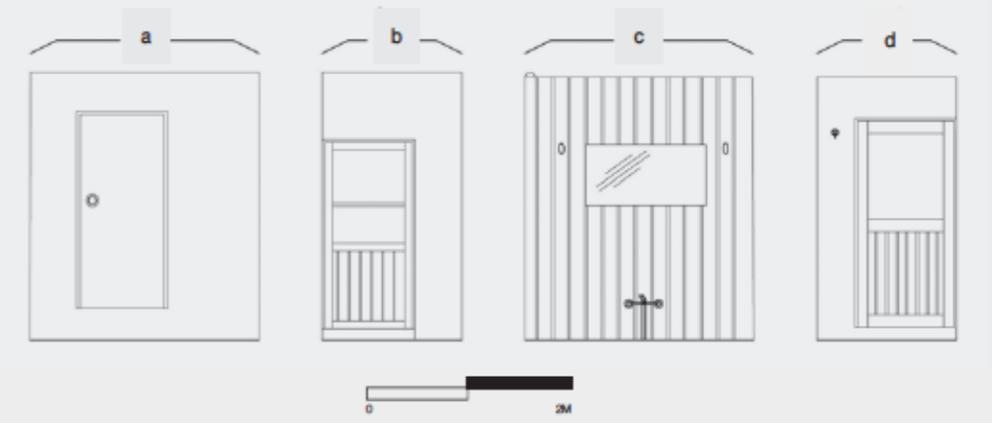
개별실 5의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와 가구 배치(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개별실 7과 샤워실 6의 위치와 구조
(김라니 작도)



개별실 7의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



샤워실 6의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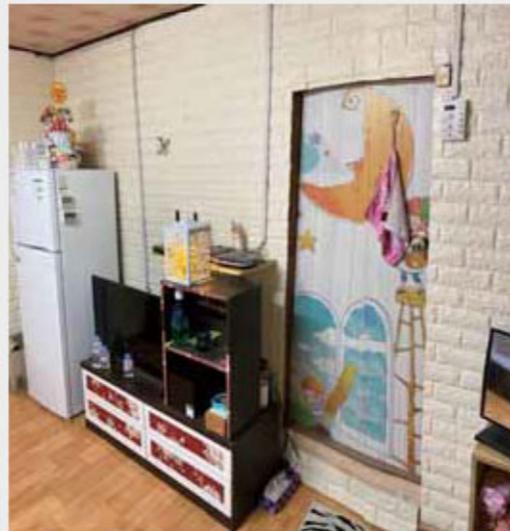
개별실 7(a)



개별실 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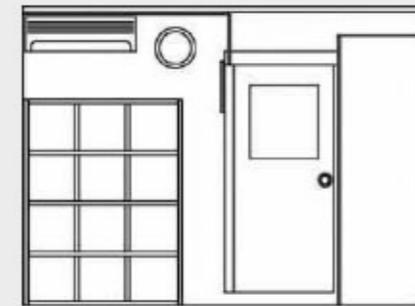
개별실 7(c)



개별실 7(d)

개별실 7의 가구 배치(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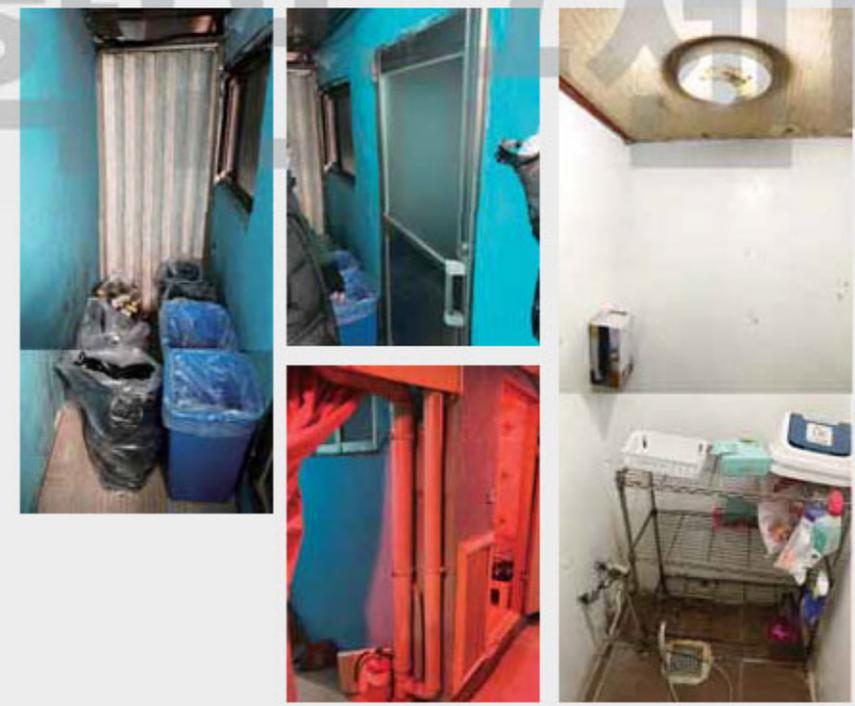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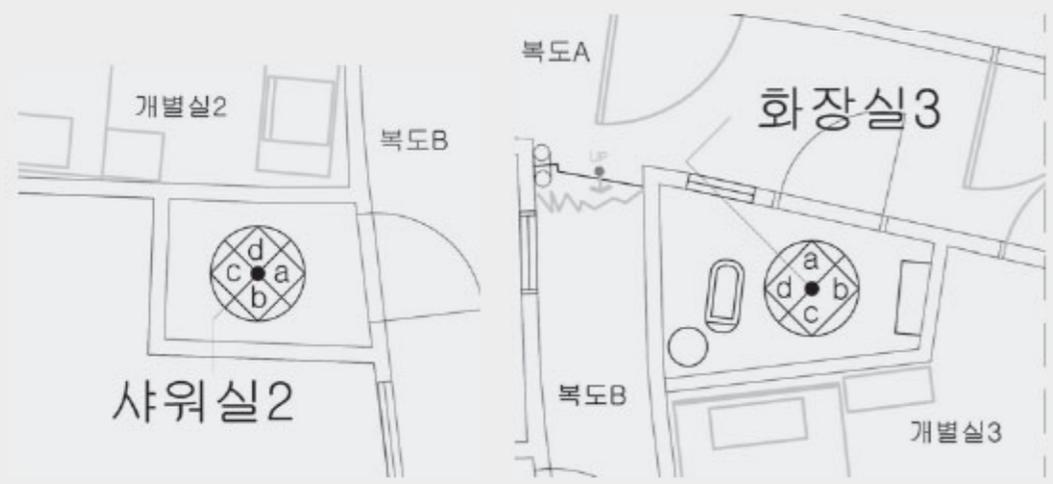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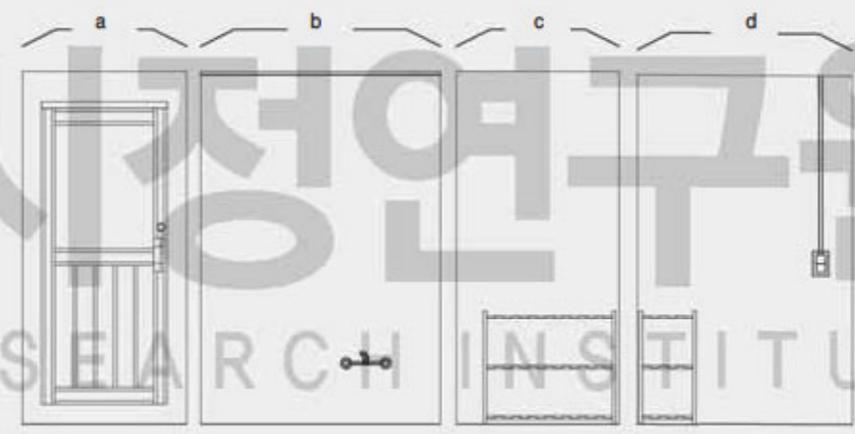


개별실 7의 투시도(김라니 작도)

S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화연구센터



샤워실 3과 화장실 3의 위치와 구조(김라니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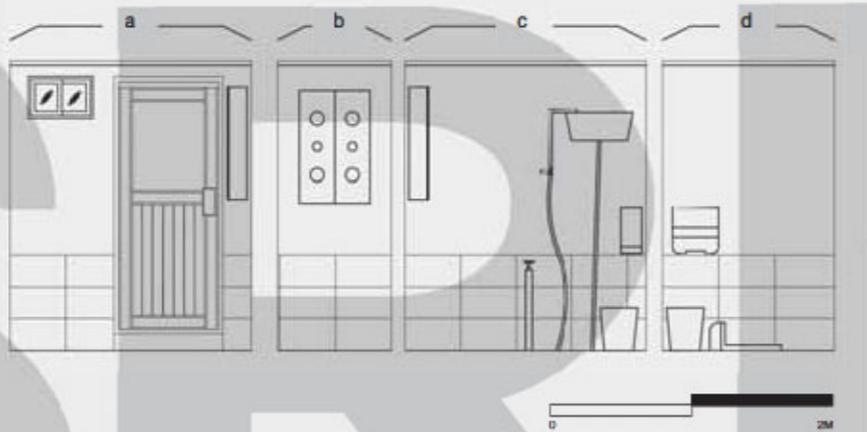
샤워실 3의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와 배치(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수원시성매집결지 연구원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건축과 실내외 경관 특징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장실 3의 실내전개도(김라니 작도)와 배치(1차 현장 조사자들의 촬영)

불빛이 많은데 집을 모르겠다.
 불빛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내 집인지도 모르겠다.
 불빛이 되어 줄 수 없어 아프고,
 불빛에 가둘 수도 없어 아프고,
 불빛을 가질 수도 없어 아프다.
 〈앤지(가명)의 시 '17'(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2014)〉

위에 인용한 시는 성매매집결지 쇼룸을 묘사한 것이다. 균질한 형식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성매매집결지 공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어느 곳이나 성매매집결지는 사전에 일정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무계획적이고 불법적인 증개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지붕만 보면 성매매집결지 영역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공간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이동을 위한 공간의 무질서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의 불량화 경향이다. 실례로 바닥과 길의 레벨 차이를 보면 필요 따른 증개축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떠안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전경(김인수 촬영)
도로와 도로를 따라 지어진 빌딩을 경계로 무질서하게 들어선 성매매집결지의 영역이 한눈에 구분이 된다.

도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먼저 전자의 문제를 살펴보면 외부 공간에서 성매매집결지 내부 공간으로의 진입은 대부분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고, 다시 골목에서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면 개별실로의 이동로도 미로이다. 이처럼 복잡한 이동 공간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은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대로와 소로 등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성매매집결지 영역을 감싸는 외곽 도로와 성매매집결지 영역 내부를 서로 연결하는 골목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길 체계는 극단적인 표리의 관계로서 외곽 도로가 기하학적이고 계획된 이동 공간이라고 한다면 내부 골목은 비기하학적이고 무계획적인 이동 공간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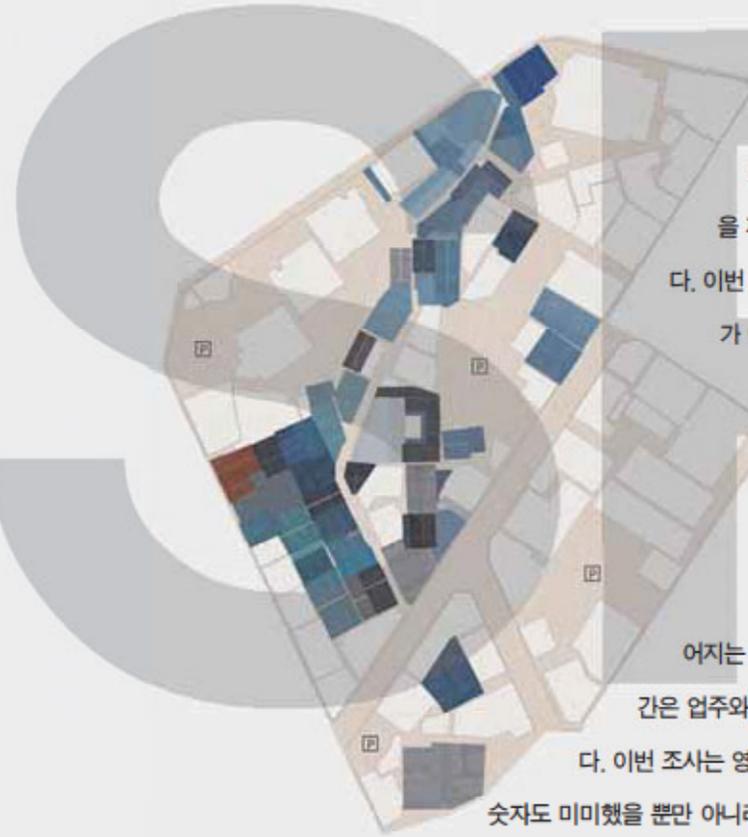
다음으로 건축물의 불량화 문제이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지역의 건축물은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되었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대다수이므로 건축물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의미



덕영대로895번길(앞장)(이용창 촬영)



덕영대로895번길(뒷장)(김인수 촬영)



가 없다. 기존의 공간을 잘게 쪼개고 그것도 부족하여 빈 공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증축을 해 왔기 때문에 불량 건축물로 심화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 지역의 건축물은 대로변의 건축물을 제외하면 성매매집결지 영역 내부의 건축물은 노후화가 심하다. 이번 조사 대상의 건축물들은 지어진 지 이미 60년이 넘었다. 게다가 이러한 곳일수록 건축물의 유지 관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물론 화재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것도 공통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건축물은 점점 더 악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거주환경으로서 최악의 조건을 향해 치달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아무래도 성매매집결지 건축물의 핵심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통과 성행위가 일어나는 개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공간은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취향, 고객들에 따라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조사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고, 조사 대상의 숫자도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들이 이주하고 난 빈 공간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자체의 소통과 개별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이었던 청량리 588과 비교해 보면 조건이 그다지 양호한 편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노후화된 건축물임을 알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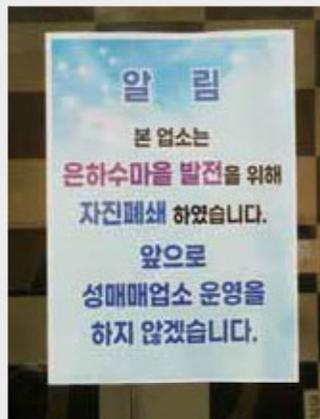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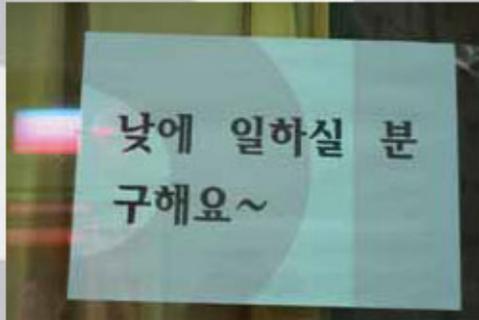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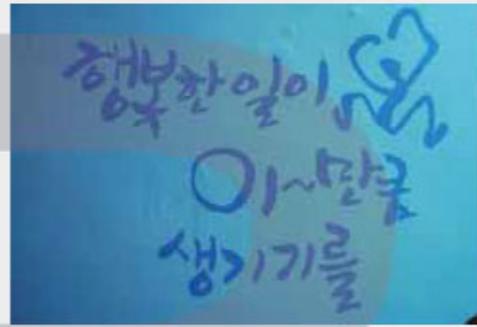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원역성매매집결지의 개별실에 대한 실측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성매매를 위한 개별실의 공간은 가장 작은 것이 1.2평이었으며 가장 큰 것이 3.7평으로 비교적 다수를 점유하는 것은 3평 내외였다. 이러한 수치로 보면 개별실은 침대와 서랍장, 옷장 등 필수불가결한 가구가 차지하는 공간 면적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인 주거건축물에 비하여 천정고가 보편적으로 낮아 아주 컴팩트한 공간의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외부와 연결되는 창호의 경우는 폐쇄되어 있으며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모두 외부에서 통제



청량리 588의 개별실(김인수 촬영)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개별실(김인수 촬영)



수원
SUWON
수원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확인된 구호, 경고문, 희망 문구(김인수 촬영)





수원
SUWON
수원

수원
SUWON
수원

수원역성매대집걸지 성매대 공간의 상징물(한동수, 김인수 촬영)

할 수 있도록 한 흔적이 남겨져 있다. 사실 개별실의 공간 자체는 무미건조하고 단순하지만, 침구류와 벽지의 색깔과 문양, 조명, 장식에 필요한 소품 등은 매우 변화무쌍하다.

그 외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보여 주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모습은 건축물의 벽과 길가의 담장, 출입문 등의 공간에 붙어 있는 격문 또는 직접 쓴 구호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골목길 확장이 시작된 2021년 2월부터 성매매집결지가 전격 폐쇄된 5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이 지역의 변화상을 대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실내공간에 쓰인 각종 문구도 이 지역을 근간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의 태도를 그대로 전달해 준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성매매집결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의 고된 삶을 달래 주고, 부정함과 불길함을 막아 주며, 미래의 희망을 갈구하는 상징물들이다. 때로는 민간신앙과 종교적인 부분에 기대기도 한다. 간절한 이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영업 중단으로 대부분이 훼손되고 사라졌지만 사람이 떠난 자리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식물로는 해바라기이고 동물로는 부엉이이며 간혹 나비와 같은 곤충도 볼 수 있다. 해바라기는 원래 태양을 따라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를 수 없는 사랑이 꽃과 태양으로 만나 서로를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엉이는 서양과 동양에서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동양, 특히 일본에서는 고생을 하지 말고 잘 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복을 빌고 부를 비는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의 공간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집필

홍현영
김현미
이승연
한동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제1부)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제2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제3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제4부)

건축 조사 및 도면 작도

김라니
골린 가브리엘 조즈
정여진
정혜진
정원석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수료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사진 촬영

김인수
이용창
강석우
이명재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소장
전 수원시청 홍보실 사진 담당
한국민예총 수원지부 사진영상위원장
상아디자인 대표

기획 · 편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편집디자인

장은경

수원공간시리즈 2

빵과 장미 프로젝트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초판
2022년 12월 12일 2판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http://www.suwon.re.kr>

정부간행물번호 11-B552980-000014-01
I S B N 979-11-6819-039-9 94900
979-11-90343-85-5 (세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